

설악에 핀 솜다리꽃 인생, 이기섭



속초문화원

설악에 편 솜다리꽃 인생, 이기섭

설악에 편 솜다리꽃 인생, 이기섭



속초문화원

발간사

산과 인간을 사랑한 설악의 슈바이처, 이기섭 박사

노광복(속초문화원장)

누구보다 산을 사랑했던 산악인이요, 가족보다 이웃을 더 보살폈던 의사 이기섭. 산악인과 의사의 삶을 온몸으로 살았던 그에게 산은 영혼의 또 다른 모습이었고, 이웃은 삶의 존재 이유였다.

『설악에 편 솜다리꽃 인생, 이기섭』은 설악산처럼 넉넉한 품성을 가진 박애주의자이자이자, 언제나 청년이고 싶었던 푸른 정신의 소유자, 이기섭 박사의 삶이 선명하게 인화되어 있다.

이기섭 박사는 누구보다 산을 사랑했다. 서울에서도 한국산악회 이사와 서울산악회 3·4·5대 회장을 맡으면서 산사람들의 극기와 체계적인 산행을 가르치는 한편 조난자들의 구조에 노력했다. 그의 산(山) 사랑은 설악산을 만나면서 일대 전기를 맞는다. 이화여대 부속병원장이라는 부와 명예를 버리고 속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다.

속초에 자리잡은 그는 1965년 설악산악회를 창립하고, 초대회장에 취임한다. 1966년에는 설악산을 전국으로 알리기 위해 전국 산악인이 모이는 제1회 설악제 등산대회를 개최하여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천혜의 자원을 보유한 설악산을 후세에도 아름답게 물려주기 위해 그는 자연보호캠페인을 벌이고, 자연보호현장을 손수 제작해 배포하는 등 설악산 사랑을 실천했다. 그 결과 설악산은 대한민국 대표 명산으로 그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산악인 이기섭의 위대함은 의료인 이기섭의 이웃사랑에서 완성된다. 산악인으로서 조난자 구조활동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이기섭 박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무의총 의료봉사에 헌신하며 참된 의료인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다. 1983년 3월부터 2004년까지 매주 양양군 서면 서림리로 무의총 진료를 다닌 이기섭 박사의 모습은 병풍처럼 든든한 설악의 품을 닮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칠순이 넘은 나이에도 백발을 휘날리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던 이기섭 박사를 오늘까지 잊지 못하는지 모른다.

산악인과 의료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으며 올바른 인생을 살았던 그의 이야기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설악의 푸름을 닮은 선명한 기억이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미래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기섭 박사의 삶을 정리한 『설악에 핀 솜다리꽃 인생, 이기섭』의 발간이 그의 부재를 아쉬워하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인간 이기섭의 발견과 기억의 재구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주었던 엄경선 씨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책의 발간은 끊임없이 유보되었을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이기섭 박사를 잊지 않고 기억해주는 많은 이들이 있었기에 이 책의 가치는 빛난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발간으로 인생의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온 몸으로 실천했던 이기섭 박사의 생애가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차례

발간사 / 노광복 • 5

추모시 / 박익훈 • 13

추모의 글 /

- 겸손과 성실, 진심어린 박애활동의 삶을 기리며 / 채용생 • 15
- ‘속초의 슈바이처’시여, 설악의 수호신이 되어 주소서 / 안광옥 • 17
- 인자하신 그 모습이 그립습니다 / 이인정 • 22
- 이기섭 박사님을 생각하며 / 이상식 • 24
- 고 이기섭 박사님 흥상 제막식 축복기도 / 김남철 • 26

약력 / 29

이기섭 일대기 — 설악에 핀 솜다리꽃 인생 / 염경선

- 어린 시절, 고향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 37
- 모친 사별, 동맹휴학 주도로 퇴학 • 40
-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에 의사의 길로 • 45
- 해방과 분단, 전쟁의 혼란 속에서 • 48
- 이화여대 부속병원장, 서울산악회장 시절 • 51

- 설악산과 첫 인연 • 57
- 이대병원장을 그만두고 속초로 • 60
- 설악산악회 창립, 등산로 개척에 힘써 • 62
- 속초라이온스클럽 창립, 스키장 개발 추진 • 70
- 설악제 개최, 전국적인 산악인 행사로 • 73
- 한국산악회 설악산등정대 조난 사고 • 78
- 겨울등산학교 개최 • 83
- 설악산 케이블카와 제주도행 • 86
- 제주도 서귀분원장 시절 • 89
- 속초시보건소장과 도립병원 외과과장 • 92
- 노인병원 건립의 꿈 • 94
- 21년 동안 오지마을 의료봉사 • 99
- 민간주도 설악제위원장 • 105
- 산악인 추모비 ‘산악인의 문’ • 108
- 국립공원 안에 세워진 기념비 • 111
- 그칠 줄 모르는 봉사 활동 • 114
- 설악의 품에 잠들다 • 120

인터뷰 - 이기섭 박사를 기억하며 / 염경선

- 이규형 (고 이기섭 박사 장남) • 127
- 안광옥 (원로산악인) • 136
- 유창서 (전 설악산적십자구조대장) • 140
- 김의열 · 김동엽 (서림리 주민) • 145

남긴 글 - 수기와 기록

- 의료사십년 (강원일보, 1982) • 151
- 설악산 조난사고 구조일지 (의협신보, 1969) • 195

- 닥터코너 (조선일보, 1973) • 200
- 성인 보건 지도의 필요 (강원일보, 1976) • 202
- 노인의료의 현황 (의협신보, 1984) • 206
- 나의 설악 나의 인생 (월간 사람과 山, 1996) • 213
- 제 30회 설악제 등산대회를 맞으며 (설악신문, 1995) • 217

인터뷰와 기사

- 서울을 버리고 山으로 이주한 설악산 『狂山王』 (주간한국, 1968) • 225
- 靑龍奉仕賞의 얼굴, 장려상 (조선일보, 1974) • 231
- 원로산악인 이기섭 (월간 산, 1984) • 233
- 화재의 동창 - 李基燮(38년졸) 동창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식, 1986) • 239
- 이 사람의 삶 - 설악산악연맹 고문, 이기섭 박사 (월간 사람과 山, 1992) • 241
- 산이 좋아 산에 살다 먼저 가신 분들 넋 기린다 (일간스포츠, 1993) • 248
- 산악인의 문 건립한 이기섭옹(81) (영북신문, 1993) • 250
- 설악동 공원에 산악인의 문 (조선일보, 1993) • 251
- 산악인의 문 세운 설악산 사람 이기섭 (월간 사람과 山, 1996) • 252
- 18년째 오지서 인술, 속초의 허준 (한국일보, 2000) • 260
- 중외박애상 수상자 공적 (2000) • 262
- 산 입에 거미줄 칠까…환자 버리면 안돼(한국일보, 2001) • 263
- 이 사람의 삶, 이기섭 (강원일보, 2001) • 269

- 보령의료봉사상 수상자 이야기 (2001) • 274
- 이기섭 박사 설악의 품에 영면 (설악신문, 2007) • 278
- 이기섭 박사의 생애를 기리며 (강원일보, 2006) • 280
- 영원히 설악에 묻힌 이기섭 박사 (설악신문, 2007) • 282
- 山과 人의 영원한 동반자, ‘李基燮박사’ 설악의 품으로 (속초 문화 22호, 2006) • 285
- 1주기 추모행사 (설악신문, 2007) • 290
- 고 이기섭 박사 추모비 건립 (설악신문, 2008) • 292

자료

- 자료 1. 속초시립박물관 소장 유품 목록 • 295
- 자료 2. 제1회 설악제 자료 • 297

추모시

박익훈

公乘鶴駕白雲亭
落木寒天雁送情
謙讓清廉千古鑑
愛山積德百年青

용이 학자를 타시고 백운정으로 가시니

찬
제설 그려운 정을 기러기련에 전해야 하나요

결손하고 청렴한 덕성은 천세의 지우이요
산을 아끼고 덕을 쌓은 행적은 백년두고 푸르리

二〇〇九年一月二九日 寧海後人 情弟 朴益烈 謹題

추모의 글

겸손과 성실, 진심어린 박애활동의 삶을 기리며

채용생(속초시장)

친애하는 산악인 여러분과 각급 기관·단체장 여러분 그리고 고인과 함께 하셨던 유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평생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진료에 힘쓰시면서 설악의 아름다움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그 소중함을 몸소 널리 알려주셨던, 우리 지역의 큰 어르신이셨던 故 송파 이기섭 박사님의 높은 뜻을 다시금 새기고자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고인께서는 더 풍족한 삶의 안락함과 풍요로움이 고인의 앞날을 예약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과감히 뿌리치고 한평생을 약한 자와 설악을 품에 안고 지켜오셨습니다. 고인께서도 어찌 고뇌와 번민 그리고 고인의 높은 뜻을 해아려 주지 못하는 후배들에 대한 아쉬움이 없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모두 해아리고 평소에 보여주신 고인의 겸손함과 성실함 그리고 진심어린 박애활동은 우리 후손들의 귀감이 되고도 남음이 있으며, 설악산 자락 곳곳에 베어있는 고인의 체취는 아직도 온전히 우리 곁에서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10만 속초시민은 물론 영북지역민 모두는 고인의 그 높고 숭고한 뜻

을 가슴속에 영원히 새기고 기억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고인께서는 지난 1996년 10월 월간 「사람과 산」에 투고를 통해 설악과의 인연을 밝히셨던 내용을 전하면서 추모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지금 내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 볼 수 있는 나이에서 느끼는 것은 각 사람마다 각자가 걸어갈 길이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그 길로 가는 것이 제일 행복하다고 한다. 사람에 따라서서는 허영과 욕망 때문에 길을 망치는 사람도 있다. 등산할 때 길을 잘못 듣 것과 같아서 이럴 경우 될 수 있는대로 빨리 원위치로 되돌아와서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심경을 전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 2008년 11월 11일, 추모비 제막식에서

추모의 글

‘속초의 슈바이처’시여, 설악의 수호신이 되어 주소서

안광옥(한국산악회 자문위원)

“설악산이 좋아” 하시며 떠나시곤 했던 박사님의 말씀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다시는 뵈올 수 없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막상 박사님을 추모하는 글을 쓴다고 하니 그간 박사님과 함께 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칩니다.

박사님께서는 1938년 세브란스의전을 졸업하시고 외과 전문의로 세브란스병원에 잠시 계시다가 6·25사변이 끝난 직후인 1954년 이화여대부속병원장으로 계시면서 틈을 내시어 좋아하는 산을 찾으시곤 하셨습니다. 56년에 이대사범대 산악부원들과 함께 설악산을 등반하셨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때 느끼셨던 설악의 첫 인상이 박사님의 생애를 결정지은 듯합니다.

한국산악회 회원으로 59년 안전대책위원회장을 맡기도 하셨고, 서울산악회를 설립하시어 회장직도 맡으시면서 활발한 산악활동을 하셨습니다. 4·19혁명 직후 사제의 도리가 어긋나는 것이 싫으시어 오매불망 그리던 설악산의 품을 찾아 1961년 속초로 내려가시는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당시 서울도 마찬가지였지만 60년대 초의 속초는 작은 어촌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중앙동시장 입구에 개원한 박사님의 병원은 설악산을 찾는 산악인들이 꼭 들리는 코스가 되었고, 그때부터 산악인들 사이에서는 ‘속초

이박사님'으로 통하게 되었습니다.

속초에 자리를 잡으시면서 불모나 다름없었던 속초 지역에 산 약운동을 일으키시며 많은 업적을 남기셨는데, 1963년 서울산악회와 관동산악회 공동 주최 하계산간학교를 시작으로 64년 설악 산악회 설립, 65년 군의 협조를 받아 120명의 인원이 참가한 설 약산탐방회를 주관하셨고, 1966년 가을에는 설악산의 아름다움을 전국에 널리 알리기 위해 산악인의 축제인 설악제를 개최하셨습니다. 전국의 산악인들이 모여 악대를 앞세워 속초시내를 가두행진하고, 백담사를 거쳐 봉정암에서 1박하고, 소청~양폭을 거쳐 설악동까지 무사히 산행을 마쳤던 그 때의 기억이 마치 꿈만 같습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만 있으란 법이 없었습니다. 1969년 겨울은 영동지방에 유사 아래로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해였지요. 당시 설악산에는 한국산악회의 해외원정훈련대가 들어가 훈련하고 있었는데, 구정을 맞을 무렵 죽음의 계곡 베이스캠프는 눈사태로 흔적 없이 덮이고 말았습니다. 신문지상에 조난 상보가 대서특필되고, 전국에서 구조대가 설악동으로 몰려들었으나 지붕을 넘을 만큼 쌓인 적설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박사님께서도 만사를 제쳐놓고 조난구조에 앞장서셨지만 결국 열 명의 꽃다운 훈련대원들이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오자 너무나 애통해하셨던 박사님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 미증유의 조난사고를 계기로 박사님께서는 산악 후진 양성을 위한 등산교육의 필요성을 주창하시고 1971년 서울산악회와 설악산악회 공동으로 제1회 겨울등산학교를 여셨습니다. 1월7일부터 16일까지 9박10일간 열린 이 등산학교는 당시 베테랑 산악인들이 강사로 참가하여 아이젠과 피켈 사용법을 위시하여 심설

기술, 빙벽기술, 조난과 안전, 일반의료, 산악기상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과목을 가르쳤으며, 18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겨울등산학교는 1974년까지 4차에 걸쳐 개최되었고, 이것이 밑거름이 되어 현재 우리나라 최고 최대의 한국등산 학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박사님의 남다른 산악애와 교육열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1970년에는 주변의 권유에 떠밀려 평생 처음으로 설악관광주식회사 사장직을 맡으시어 권금성 케이블카 공사를 지휘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지연되면서 사업비가 자꾸 초과되자 일부에서 의혹을 제기하여 박사님께서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일생을 산과 같은 자세로 순수하고 깨끗하게 살아오셨던 박사님께서는 그야말로 큰 상처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의혹은 밝혀졌지만 이 일로 크게 낙담하신 박사님께서는 속초를 떠나 제주도로 가셨지만, 결국 설악산을 저버리지 못하시고 다시 설악의 품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산꾼들이 설악산을 찾게 되면 항상 반갑게 맞아주시고, 설악산에서 등반사고라도 날라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시어 응급처치를 해주셨던 박사님의 모습은 산악인들에게는 자상한 형님이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을 아버님으로 모셨던 이인정 당시 대학산악연맹 회장은 서울 역삼동에 있는 한국산악문화회관 지하 강당을 ‘이기섭 사랑방’이라 이름 짓고, 이곳을 이용하는 산악인들의 귀감이 되도록 했습니다.

1994년 여름에는 이인정 회장의 주선으로 지금은 고인이 되신 손기정 옹(당시 82세)과 백남홍 선생(당시 81세)과 함께 백두산 엘 오르셨습니다. 당시 박사님의 나이도 81세이셨는데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팔순의 노익장들이 몰아치는 비바람을 무릅

쓰고 백두산을 오르셨던 것도 산악계에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박사님의 진면목은 이웃을 향한 숭고한 봉사정신이었습니다. 1982년부터 매주 목요일이면 양양군 서면의 오지마을인 서림리, 황이리, 갈천리, 영덕리 마을을 찾아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무료 진료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박사님께서는 평소 자신이 비록 나이든 의사지만 의술까지 나이 먹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새로운 의학정보를 배우는 자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간 박사님께서 수상하신 청룡봉사상, 속초시민상, 박애상, 의료봉사상이 말해주듯 박사님은 각박하고 냉혹한 우리 사회를 사랑과 봉사로 따뜻하게 감싸는 선한 목자와도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박사님께서 돌아가시자 언론지 상에는 ‘영동 북부지역의 허준’, ‘강원의 슈바이처’란 찬사로 박사님의 부음을 전했습니다.

박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 박사님께서 설악제가 본래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명칭조차 설악문화제로 바뀐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여기시어 산악인들만의 축제인 설악제의 부활을 기대하셨으나, 못내 소원을 이루시지 못했음은 저희 후배들이 못난 탓입니다.

박사님께서 그간 이루하셨던 훌륭한 업적을 저희들이 이어가기에는 너무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박사님이 안 계신 자리가 더 큰 공간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90여 평생을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다 하시고 고매한 품격과 고귀한 삶을 사시다 가신 박사님의 삶은 두고두고 저희들에게 교훈이요 귀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깨끗한 설악의 품으로 돌아가신 박사님, 설악에 흰눈이 내리

면 더욱 박사님이 생각날 것입니다. 설악에 흰 눈이 내리면 저희 후배들은 박사님을 찾을 것입니다. 부디 산악계의 앞날을 밝혀 주시고, 설악을 찾는 후배들의 안전을 인도해 주시는 수호신이 되소서. 삼가 박사님의 명복을 빕니다.

* 위 추모사는 2007년 2월 『월간 산』에 게시된 글을 다시 인용하였습니다.

추모의 글

인자하신 그 모습이 그립습니다

이인정(대한산악연맹 회장)

존경하는 이기섭 박사님!

박사님께서 저희들의 곁을 떠나신 지도 벌써 두 해가 지났습니다.

설악을 찾을 때면 한결같이 저희를 따뜻이 대해 주시고, 보살펴 주셨던 박사님의 모습을 이제는 뵈을 수 없음에 참으로 허망하고 소연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60년대 초 작은 어촌이었던 속초 중앙동 시장 어귀에 자리했던 박사님의 병원은 설악산 등반을 왔던 산꾼들이 꼭 들렸던 코스였으며, 산꾼들 사이에 박사님은 “속초 이박사님”으로 통하게 되었습니다.

설악산 등반 왔던 산꾼들이 다치기라도 하면, 밤낮 가리지 않고 달려 오시어 치료를 해주셨던 박사님의 모습은 자상한 형님이셨고, 인자하신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더욱 박사님께서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후진 양성을 위해 겨울등산학교를 개설하시어 우리나라 등산교육의 장을 여셨고, 그것이 초석이 되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등산 교육기관인 한국등산학교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섭 박사님!

이제 반평생을 몸담아 인술을 펴셨던 속초 바닷가에 박사님의 모습을 되살린다 하니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아로새겨진 부조상으로나마 박사님의 인자하셨던 모습을 떠올릴 수 있고, 그 모습에서 박사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면 저희 후배들의 자그만 위안이 될 것입니다.

설악을 찾는 저희 산악 후배들은 결코 박사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언제라도 설악을 찾으면 박사님을 찾아뵙고, 박사님의 고매한 뜻을 기리며, 박사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부디 하얀 설악의 수호신이 되시어 이 나라 산악계의 앞날을 밝혀 주시고, 저희 후배들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삼가 박사님의 명복을 빕니다.

— 2008년 11월 11일, 추모비 제막식에서

추모의 글

이기섭 박사님을 생각하며

이상식(설악산악연맹 회장)

“산이 좋아. 설악산이 좋아 설악에 산다네.”

고 이기섭 박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산악인들은 이 말씀을 잊지 못합니다. 박사님께서는 1938년 세브란스의전을 졸업하시고 6·25전쟁 직후인 1954년 이화여대부속병원장으로 계실 때부터 산이 좋아 산을 찾곤 하셨습니다. 1956년 이화여대사범대 산악부원들과 설악산을 처음 등반하시고 설악산에 반해 4·19혁명 직후인 1961년 마침내 설악산이 우뚝한 속초의 품에 와 안기신 후 우여곡절이 있어 제주도에 잠시 다녀오신 걸 제외하면 돌아가시기 전까지 줄곧 설악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의사와 산악인의 삶을 동시에 사셨습니다. 산악인과 의사라는 독특한 이 삶 때문에 속초에 사는 저희 후배 산악인들은 박사님을 흡모하고 따르려 하였습니다.

60년대 초만 해도 속초는 거의 불모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산의 경우는 더 했습니다. 살기 바빠 명산 설악산이 가까이 있었지만 설악산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척박한 땅에 최초로 산악운동을 일으키신 분이 다름아닌 박사님이셨습니다.

1965년 설악산악회를 설립하고 1965년 국군의 협조를 받아 120명의 인원이 참가한 설악산탐방회를 주관하셨고, 1966년 가

을에는 산악인의 축제인 제1회 설악제를 여셨습니다. 그 동안 설악산을 위주로 한 ‘설악제’는 다양하게 변모돼 ‘설악문화제’가 되었지만, 산악인들은 전국각지에서 깃발을 들고 구름같이 모여든 그때 그 산악 인파를 잊지 못합니다.

1969년 규정 무렵 영동지방에 몰아닥친 무시무시한 폭설로 한국산악회 해외원정단이 죽음의 계곡 베이스캠프 눈사태로 열 명의 꽃다운 목숨을 잃었을 때에는 너무나 애통해 하셨습니다.

1971년 설악산악회와 서울산악회 공동으로 제1회 겨울등산학교를 여시기도 했고, 이 일은 현재 우리나라 최고의 한국등산학교 탄생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오로지 박사님만의 지극한 산사랑에서 나왔다 할 수 있습니다.

혹 등반사고라도 날라치면 불문가지 하고 나섰던 박사님.

속초 산악인들에게 산을 가르쳐 주셨던 선배 산꾼.

일생을 봉사와 깨끗한 삶의 본보기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던 의술인.

81세에 비바람 몰아치는 백두산 산행을 감행했던 노의장.

후배들에게 가끔 아끼던 배낭을 나누어 주시기도 했던 선배.

저희 후배 산악인들은 늘 이런 모습으로 박사님을 오래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장쾌한 설악산 공룡능선이 굽어보이는 이곳 청초호반에 박사님의 흥상을 모시니, 저희 산악인들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산이 좋아, 설악산이 좋아 설악에 산다네.”

흥상 앞에 서니, 그 말씀 지금도 들릴 듯합니다. 박사님께서는 가셨습니다. 하지만 박사님의 뜻은 설악의 산악인들과 늘 사랑하시던 속초시민의 마음에 항상 깃들어 있을 것입니다.

— 2008년 11월 11일, 추모비 제막식에서

추모의 글

고 이기섭 박사님 흥상 제막식 축복기도

김남철(속초감리교회 담임목사)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와 생사화복을 관장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 이기섭 박사님 흥상 제막식의 예정된 모든 순서와 일정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게 하시고 박사님께서 일평생 혼신의 힘을 다하여 사람과 자연과 속초를 사랑하셨던 고결한 열과 정신을 헤아리며 다시 한번 이기섭 박사님을 추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 드리나이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 땅에 세우시지만 고 이기섭 박사님은 참으로 영적인 거인이셨습니다. 체구는 가녀린 분이셨지만 그 분은 언제나 겸손하셨으며 어린아이같이 활활 미소로 사람들을 평온케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또한 인술을 베푸십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주신 하늘의 거룩한 사역인 것을 알아 부귀와 명예를 뒤로 하신 채 속초로 내려오셔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인술을 베푸셨던 한국의 슈바이쩌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악산을 너무나도 좋아하셔서 설악산 구석구석 박사님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으며 이 아름다운 자연이 인간의 자취로 훼손당하는 것을 안타까워 하셔서 설악제를 개최하심으로

진정한 자연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설악을 아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소천하시기 전까지도 언제나 설악의 전경이 한 눈에 보여지는 곳에서 향년의 삶을 즐기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고이기섭 박사님의 성품은 고요하고도 잔잔하셨으며, 언변 한 말씀 한 말씀에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정결함을 느끼게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이 땅에 또 다른 이기섭 박사님과 같은 분들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그분의 올곧은 가르침과 삶의 유훈들이 박사님을 추모하는 모든 분들의 가슴속에 영원도록 살아서 숨을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을 비옵나니 우리 속초시를 사람과 자연이 신비한 조화를 이루는 천혜의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속초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속초시민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나이다. 또한 유가족되시는 합동실 권사님과 이규형님, 이명자님, 이경자님, 이규옥님, 이규희님의 가문을 축복하시고 번성케 하셔서 하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신 박사님의 후손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문이 되는지를 만인이 알도록 살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거룩하게 성별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 삶이 아름답고 빛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오늘

고 이기섭 박사님 흥상 제막식을 준비하여 아름다운 가치와 목적을 알게 하신 산악연맹 회원들과 속초문화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 2008년 11월 11일, 추모비 제막식에서

약력

이기섭(李基燮)

1913년 11월 9일 출생

2006년 12월 25일 사망

본관 遂安

본적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산 32-46

출신도 황해도

1913년 11월 9일 황해도 수안군 수안면 하오리에서 이근필의 2남
3녀의 장남으로 출생

1920년 마을 사립학교 입학 (8세)

1928년 해주공립고등보통학교 입학 (16세)

1931년 10월 4학년 단식동맹휴학 가담, 퇴학처분(19세)

1932년 일본 광도 광릉중학교 4학년 편입학

1934년 세브란스 의전 입학

1937년 부인 함동실씨(이화여전 1년 재학)와 결혼

1938년 3월 세브란스 의전 졸업

1938년 4월 세브란스 의전 외과조수 임명

1941년 9월 일본 경도대학 유학

1943년 12월 일본 경도대학 의학부 전수과 수료

1943년 12월 세브란스 의전 전임강사 임명

1946년 8월 서울 적십자병원 외과과장 임명

1949년 6월 26일 백범 김구 선생 시신 검안

1951년 10월 서울 적십자병원 부원장 임명

1953년 2월 진해에서 해군 군의관 훈련, 해군대위 예편

1953년 3월 이화여자대학교 부교수 임명

1954년 3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겸 부속병원장 임명
병원 건물 증축과 진료과목 증설

1956년 7월 이화여대 산악반과 함께 설악산 첫 하계등반 (고 김정태, 김근원 동반)

1957년 6월 3일 일본 경도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 수여

1959년 서울산악회 주관 제1회 전국크로스컨트리대회에 의료진으로 참가

1960년~62년 서울산악회 회장(3~5대)
서울산악회 주관으로 북한산 백운산장 준공(1960년 4월~11월)
제2, 3회 전국크로스컨트리 대회 개최
서울법대생 한라산 조난 구조 활동 참여 (1961년)
북한산 송영호군 구조활동 참여(1961년)

1960년 9월 이화여대 부속병원장 사임

1961년 3월 이화여대 의과대학교 교수 사임

1962년 5월 강원도 속초시에 이기섭 의원 개업

1963년 4월 속초양양의사회장

1963년 8월 서울산악회와 관동산악회 공동주최 제1회 하기산간학교를 설악산에서 개최 (6박7일)

1964년 8월 서울산악회와 관동산악회 공동주최 제2회 하기산간학교를 설악산에서 개최 (6박7일)

1964년 양폭, 천불동계곡 다리 개설 및 등산로 개척

1964년 10월 박경원 강원도지사와 설악산 답사 등반, 이후 강원도에서 설악산 주요 등산로 재정비토록 함

1965년 4월 설악산악회 창립 및 회장

1965년 6월 설악산관광협회 회장

1965년 10월 서울산악회와 동아일보 공동 주최 설악산탐방회 개

최 주선 (120여명 참가, 코스 장수대→12선녀탕)

1966년 6월 25일 속초라이온스클럽 초대회장 피선

1966년 10월 1일 설악산을 전국으로 알리기 위해 전국 산악인이 모이는 제1회 설악제 등산대회 개최

1968년 4월 연세의대 임상교수

1969년 4월 속초시의사회 회장

1969년 2월 한국산악회 해외원정등반훈련대 설악산 조난사고 구조활동 (2월14일 조난사고, 2월17일~3월3일 구조활동)

1969년 12월 15일 설악관광주식회사 사장 취임,

1971년 7월 31일 소공원 - 권금성 케이블카 준공

1971년~72년 제1,2회 겨울등산학교 교장, 서울산악회와 설악산악회 공동 주최 (1971년 1월7일~1월16일, 1972년 1월6일~1월12일, 설악산)

1972년 2월 설악자연보호협회 창립, 자연보호캠페인 전개

1972년 9월 제주도로 이주, 제주도 도립병원 서귀분원장 근무

1974년 2월 28일 청룡봉사상 장려상 수상 (조난자 구조 공헌)

1974년 설악산 핏골 일대에 이화여대 부속 노인병원 부지 마련

1975년 1월 속초로 이주, 속초시보건소장 근무

1978년 12월 강원도 속초도립병원 외과과장 근무

1982년 10월 강원도 속초도립병원 의료과장 사임

1983년 무의촌 의료봉사 활동 시작, 양양군 서면 서림리 등에서 2004년까지 의료봉사

1986년 1월 영북농어촌보건의료사업협의회 발족, 회장 선임
가족과 친척 등 임원 구성, 농어촌 보건의료사업 지원 활동

1986년 4월 연세의대 신경외과 임상교수 임명

1988년 8월 속초 설악제 민간주도 추진위원장, 제24회 설악제위원장 (24대~27대)

1998년 9월 (사)한국산악회 고문

1990년 6월 8일 설악산악연맹 고문

1992년 9월 제27회 설악제위원장

1993년 10월 설악산에서 숨겨간 산악인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산악인의 문’ 및 ‘산악인의 영원한 불꽃’ 건립

1995년 10월 10일 속초시민상 수상

2000년 5월 4일 제8회 중외박애상 수상 (대한병원협회 선정)

2001년 3월 21일 보령의료봉사상 수상 (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
공동 선정 무의총 의료봉사활동 공적)

2001년 4월 보건의 날을 맞아 ‘국민포장’ 수상

2003년~2006년 속초시원로회 회장으로 국립공원 설악산 관리권
이양 촉구 활동

2004년 설악동 노인병원 부지 속초감리교회 기증

2006년 12월 25일 속초시 노학동 자택에서 오후 5시에 영면 (향
년 93세)

2006년 12월 29일 속초시사회장으로 장례식 거행. 화장 후 고성
군 토성면 도원3리 속초감리교회 공원묘지에 안장

2007년 12월 24일 영면 1주기 추모행사 및 묘비 제막식 거행

2008년 11월 11일 속초 엑스포공원에 추모비 제막식 거행

가족(유족)

부인 합동실

장남 이규형 자부 윤정현(서울)

장녀 이명자 사위 이석만(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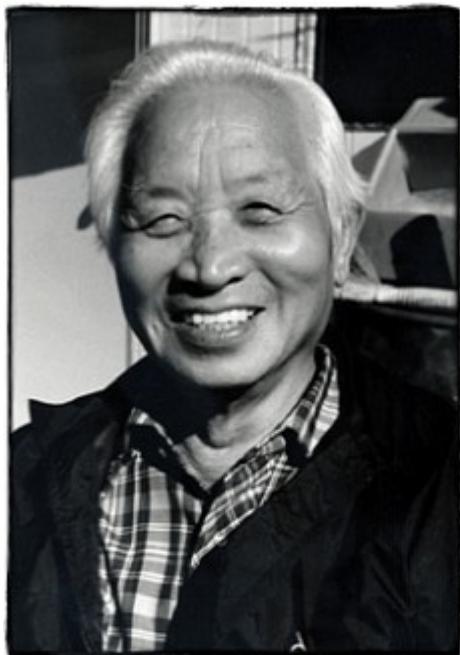
차녀 이경자 사위 임창환(서울)

삼녀 이규옥 사위 장희운(홍콩)

사녀 이규희 사위 Rod(위성던)
손자 승균 옥은 상수 정수 진수 상용 상현
재훈 지훈 윤경 윤주

* 약력의 날짜와 내용은 고 이기섭 박사의 회고글과 관련 기록자료, 유족의 확인을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이기섭 일대기
설악에 편 솜다리꽃 인생, 이기섭



설악산 높은 산봉우리 바위 틈에 남모르게 피는 꽃이 있다. 솜다리꽃. 작은 키에 수수한 은회색의 솜다리꽃은 다른 꽃들에 비해 작고 소박하기 그지없다. 하지만 솜다리는 눈보라 치고 바람 많아 다른 식물들이 살기 힘든 높은 산봉우리 바위틈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다. 산을 오르다 지치거나 길을 잊은 사람에게는 바위틈에서 꽃을 피워 올린 솜다리를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 없다. 솜다리꽃은 산에서 지치거나 길을 잊은 사람에게 희망이요 위안이다. 그래서 솜다리꽃은 설악의 꽃이다.

이기섭은 바로 설악의 솜다리꽃과 같은 존재이다. 노년의 이기섭은 속초시내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만나면 언제나 지긋한 웃음을 짓는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의 모습이었다. 남 앞에 드러내지 않는 소박함 속에서도 그는 설악의 자연과 사람을 사랑하는 삶으로 많은 지역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설악산을 사랑하고 널리 알린 산악인으로, 무의촌 의료 진료로 현신한 의료인으로 살아온 이기섭의 삶은 험한 바위틈에 꽂을 피운 솜다리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안이 되고 있다.

– 어린 시절, 고향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이기섭은 1913년 11월 9일 황해도 수안군 수안면 하오리에서 태어났다. 하오리 마을은 ‘용수개’라고 불리는 곳으로 수안이씨(遂安李氏)만 16가구가 사는 농촌 마을이다. 동네 뒷편은 약 50m 높이의 구릉으로 둘러 싸여있고 동네 앞에는 넓은 텃밭이, 그 앞에는 예성강 상류가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강 건너편에는 수직 50~1백m 높이의 절벽이 병풍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어

“야호”하고 소리를 지르면 산울림으로 되돌아오곤 해 ‘소리벼랑’이라 한다. 어린 이기섭은 이곳에서 잔등을 벌겋게 태워가며 빠가사리, 메기, 자라, 뱀장어를 잡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기섭은 ¹⁾이근필(李根弼)의 2남 3녀²⁾ 중 장남으로 어렸을 때부터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다. 아버지 이근필은 ³⁾홀동금광(笏洞金礦)에 경목을 대는 목상(木商)을 하고 서모(庶母)와 함께 살며 일년에 명절 때만 한번씩 집에 다녀가곤 했다. 그래서 어린 이기섭은 조부를 모시고 머슴을 두고 농사를 짓는 어머니와 함께 지냈다.

조부는 사랑방에 훈장을 들여 어린 이기섭과 동네아이들에게 천자문을 배우게 했다. 이기섭은 졸음이 오면 몰래 안방으로 들어가 자다가 훈장에게 들켜 종아리를 맞곤 했다고 한다.

이기섭은 사랑방 서당에서 8살까지 천자문과 연구(聯句), 동문 선습, 명심보감을 배우다 중도에서 그만두고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인근 마을의 사립학교에 사춘인 영섭이와 함께 입학하였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 떨어지게 된 이기섭은 처음에는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어머니가 보고 싶어 많이 울었다고 한다.

당시 학교에서는 조만식 선생이 작사한 물산장려가를 많이 불렀으나 얼마 되지 않아 그 노래는 금지되어 부르지 못했다. 이

1)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1933년판)에 따르면 부친 이근필(李根弼)은 1932년에 설립한 홀동금광(笏洞金礦) 주식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1928년, 1929년 중외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이근필은 수안군 출신 황해도평의회 의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기존의 기록에는 ‘1남3녀의 막내’로 기록되어 있으나, 유족의 증언에 따르면 이박사의 이복남동생이 있어 2남3녀가 맞다고 한다.

3) 1933년 10월 1일 발간된 삼천리 제5권 10호의 기사에는 “笏洞金礦, 이것은 逐安에 있다. 鄭世胤 氏의 경영으로 年產 29만원에 달하는 큰 金礦이다. 413명의 인부를 쓰고 있다. 呼價 100만원 이상 하는 거대한 금광이다.”라고 하였다.

기섭은 공부시간에 앞에 앉은 여학생의 냉기를 서로 몰래 매어 놓기도 하고 공부를 끝마치고 선생님께 일어나 절을 할 때 빨리 걸상을 치워 엉덩방아를 짚게 하기도 했다. 선생님께 못된 장난이 들켜 별도 많이 섰을 정도로 심한 장난꾸러기였다고 한다.

이 사립학교에서 4학년 과정을 마치고 수안읍에 있는 수안공립보통학교로 전학하여 다시 4학년부터 공부를 했다. 처음에 사촌과 함께 하숙을 하다가 5학년 때는 전세로 집을 하나 얻어 사촌, 고향 출신 친구와 함께 숙식을 했다.

어린 나이에 고향 집에서 떨어져서인지 그에게는 고향집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사무쳤다. 이기섭은 후에 회고의 글⁴⁾에서 그 시절의 추억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여름방학이 되어 집에 가면 안방 앞 퇴방 밑에 명석을 깔고 낮에 베어온 쪽으로 모깃불을 피우고 어머니와 누님들은 밀망질을 하고 나는 저녁에 앞터 밭에서 따온 삶은 풋옥수수를 먹으며 맑게 간 여름하늘을 쳐다보며 누나와 별 하나 나 하나를 한숨에 누가 많이 세는가를 내기하며 잘 부르지도 못하는 노래를 어머니와 누나는 나에게 부르게 했다.

또 낮에는 동네아이들과 반두를 가지고 앞강에서 하루 종일 고기를 잡고 돌아오면 밤에는 등이 아려서 잠을 못자면 어머니는 등에다 찬 수건을 대주며 부채질도 해주곤 했다. 동네 친척집에서는 돌아가며 닭을 잡고 칼국수로 대접을 받았다. 사랑 마당에 고추잡자리가 날 때면 방학은 거의 끝나가는 때이다. 그때서야 밀린 방학숙제를 하느라고 야단이다.

또 겨울방학이 되면 뒷곁에 몇을 놓아 멧새와 콩새를 잡아 통방이에 넣어 기르기도 하고 저녁때에는 참새들이 들어가는 곳을 잘 보아 두었다가 밤이 되면 긴 반두를 가지고 집 처마 밑 새집을 털어 잡기

4) 이기섭, 「의료사십년2」, 강원일보, 1982년 1월 19일

도 했다. 눈이 올 때면 산에서 토끼 발자국을 찾아 통로에다 그물을 치고 여럿이서 물면 영락없이 잡히곤 했다. 앞에 강이 얼어붙으면 딸딸이(나무끝에 굵은 철사를 두개대고 앞에는 굵은 뜻을 박아 얼음을 깎어 앞으로 가게 한다)를 타고 강 옆으로 나온 고기를 보면 떡메로 얼음을 쳐서 고기를 잡기도 했다. 얼음구멍을 뚫고 낚시를 한 다음지 착살로 고기를 찍어 올리기도 했다.

때로는 쌀독에 묻어둔 간엿 판대기를 어머니 몰래 꺼내다 아이들과 나눠 먹기도 하고 겨울 긴 긴 밤이면 자루에 묻어둔 밤을 까먹기도 하고 볶은 콩을 등잔 밑에서 집안 식구의 옷을 짓는 어머니와 함께 먹기도 했다.

정월 보름에는 연짜움에 이기기 위해 깨진 사기그릇을 기루로 만들어 아교와 함께 연줄에 먹여가지고 끊어먹기도 했다. 대보름날이면 연에다 액매기(액막이)를 써서 멀리 떠 보내기도 하고 횃불을 들고 달을 향해 행운을 빌기도 한다. 하루는 동네 아이들과 함께 벗짚 낟가리에서 쥐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등에다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더니 이 쥐가 나뭇가리로 들어가 나무를 모두 태워 조부님과 동네사람들에게 미움을 산 때도 있다.”

- 모친 사별, 동맹휴학 주도로 퇴학

16살이 되던 1928년 봄, 이기섭은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해주 공립고등보통학교에 입학했다. 이기섭이 해주고보(海州高普)에 입학 할 당시 황해도에는 고등교육기관으로 해주고보와 사리원에 있는 3년제 농업학교가 유일했다. 이기섭은 해주에 와서 처음 바다를 보았고 일요일이면 바다에 나가 바지락을 잡기도 하고 친구들과 수양산에 오르기도 했다. 또 친구들과 선생님 몰래 연극 구경을 갔다가 선생님을 피해 도망가느라 극장 뒷담을 넘어 혼비백산 도망가기도 했다.

일제 식민지 하에서의 학교생활은 그리 순탄하지만 않았다. 2학년 때인 1929년에는 광주학생사건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학

생시위가 많았다. 이때 해주고보도 하루는 수업을 하다말고 상급생의 주동으로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여 집회를 갖은 후에 스크럼을 짜고 교문을 나서려고 하였으나 학교운동장 주위에는 기마 순사와 경찰관들이 둘러싸고 있어 교문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그 때는 경찰이 교내에 들어와 학생을 검거하는 일은 없었고 귀가 후 주모자들은 경찰에 연행되었으나 교장의 적극적인 교섭으로 희생자는 적었다.

해주고보 당시 이기섭은 정구를 처음 하게 되었다. 매주 목요일 오후면 전교생이 운동을 한 가지씩 해야 했다. 이기섭은 정구를 선택해 3학년 때는 학교 대표선수로 서울에 가기도 했다. 서울운동장 정구장에서 전국학생선수권 대회에 나가 3회전까지 진출하기도 했다.

이기섭이 4학년생이 되던 1931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한해였다. 고향집에서 아들이 공부를 잘 해 성공하기만 기다리던 어머니가 간경화증으로 고생만 하시다 그해 여름방학에 돌아가셨다. 어린 나이에 고향집을 떠나 항상 그리워했던 어머니의 죽음은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충격이었다. 후에 이기섭은 세브란스 의전을 지원하여 의사로서의 길을 선택하는데, 이때 어머니와 같이 시골에서 제대로 된 진찰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해 의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그해 가을 이기섭은 해주고보를 강제로 그만두게 되었다. 그해 가을 이기섭은 뜻있는 학우들과 함께 식민지 교육 반대와 몇몇 선생의 배척을 내걸고 단식동맹휴학을 단행하게 되었다. 당시 이 단식동맹휴학은 중앙일간지를 통해 전국에 알려져 큰 파문을 일으켰다.

1931년 10월 28일자 조선일보에는 해주고등보통학교 3,4학년

생이 다음과 같은 요구 조건을 제출하고 10월 26일부터 동맹휴학 농성에 들어갔다고 보도되었다.

1. ○○교육 반대
 - (1) 봉건적 강제 교육 반대
 - (2) 교과서 자유 선택
 - (3) 종교 선전 반대
2. 학생 인격 존중
 - (1) 교우회 자치 획득
 - (2) 언론 집회 자유
 - (3) 연구 기구 개방
3. 학비 절약
 - (1) 수업료 4할 감(減)
 - (2) 교과서 구입 자유
 - (3) 강제 여행 반대
4. 통신에 관한 건
 - (1) 가정 통학 자유
 - (2) 성적표 모교 발송 반대
5. 선생 배척 교장 등 6인
6. 희생자 반대

그 당시 4학년은 상급진학반과 취직반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며 학생이 1백여 명이었다. 조회가 끝나고 각 학년별로 교실로 들어갈 때 4학년 학생 전원과 3학년 학생 등 1백80여명이 2층 4학년 상급진학반 교실로 들어가 안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에 책상과 결상 칠판을 대고 못을 쳐 바리케이트를 쳤다. 그리



▲ 해주고보 단식동맹휴학을 보도한 동아일보 1931년 10월 30일자 기사

고 준비한 성명서를 2층 창가에 붙이고 단식농성을 시작하였다.

아울러 1, 2, 5학년 일백수십 명의 학생들도 농성에 동조하여 오후 2시부터 5학년 교실에 모여 같은 방식으로 농성을 하게 되어 전교생이 모두 농성에 참가하게 되었다.

성명서를 떼려 사다리를 놓고 올라오는 선생들에게 물세례를 퍼붓기도 하고 사다리를 치우기 위해 당기고 밀치고 하였다. 학교에서는 소방차를 동원하여 호스로 성명서를 떼어냈으며 학부형들을 동원하여 농성 중인 학생들을 설득하려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하룻밤을 그대로 지새우며 단식농성은 진행

됐다.

학부형이 학생들을 해산시키지 못하면 피차 부상자가 생길지도 모르니 그리 알라고 경찰이 학부형들을 협박하는 바람에 다음날인 27일 정오경에 경찰의 무력진압으로 불상사를 우려한 학부형들이 문을 부수고 농성장으로 들어와 학생들을 끌어냈다. 그 바람에 농성은 만 하루 만에 강제로 해산됐다.

1년 전 광주학생운동이 계기가 되어 전국에서 고보를 중심으로 시위와 농성 등이 잇따랐는데, 당시 해주고보의 농성 기사는 동아일보 한 면의 2/3를 채울 정도로 크게 주목을 받은 사건이었다. 이 사건이 있은 지 보름만에 평양고보에서도 6백여 명의 학생이 동맹휴학을 하기도 했다.

이 동맹휴학 사건으로 학교에서는 60명을 퇴학처분하고 2백80명을 무기정학 처분하였다. 그리고 해주경찰서에서는 이 사건을 주동한 학생 70여명을 검거하였으며, 검거된 학생들은 경찰서 안에서 단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사건이 있은 지 1주일 후에는 동맹휴학을 재조직하려는 4명의 학생이 검거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 사건으로 19명을 구속수감하고 35명은 불구속 기소하였다. 주동급 학생들은 6개월 이상 옥고를 치룬 후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해주고보에서는 1924년 4월 일본인 교사 배척과 교사 불신임, 조선어 교육 등을 요구하는 동맹휴학을 시작으로 1926년 6월에는 근신휴학과 동맹휴학, 1930년 1월에는 광주학생운동 호응시위, 1930년 10월에는 동맹휴학 등이 잇따랐으며, 사건이 있기 한 달 전에도 동맹휴학이 발생해 학생 21명이 기소되기도 했다.

이기섭은 다음날 피신해서 고향인 용수개 뒷등까지 갔으나 집으로 연행하러 왔던 주재소 순사에게 잡혀 집에도 들르지 못하

고 연행되어 수안경찰서를 거쳐 해주서에 구속되었다. 그때 4촌인 영섭이는 현장에서 연행되었다. 이 소식을 듣고 쫓아온 부친의 주선으로 이기섭은 구속 열흘 만에 형무소에는 가지 않고 석방되었다. 당시 부친이 황해도 도평의원이라서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은 면했지만 이기섭과 그의 사촌 영섭은 퇴학처분을 받고 4년 동안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되었다. 모친사별에 퇴학까지 이기섭은 막막하기만 했다.

그후 이기섭은 평양의 광성 숭실학교나 서울의 배제, 보성 등 사립학교에 편입하려고 했으나 이미 한국에서는 불순분자로 낙인이 찍혀 받아주는 학교가 없었다. 할 수 없이 일본에 있는 광릉중학교 4학년에 편입하였다. 여기에서는 이기섭과 같은 처지로 일본에 온 한국 학생들이 있어 외롭지 않았다. 이기섭은 광릉중학교에서 정구부로 활동하여 5학년 때는 동경에서 열리는 명치신궁 경기에 출전하기도 했다.

-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에 의사의 길로

일본 광릉중학교 5학년을 마치면서 이기섭은 졸업시험만 끝내고 귀국해 서울 소공동에 있는 시립도서관에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수험 준비를 했다. 처음에는 공과 계통으로 진학하려 했으나 돌아가신 어머니와 같이 시골에서 제대로 진찰도 받지 못하고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해 의학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이기섭은 다음해 세브란스 의과에 입학했으며, 계속 같은 학

교를 다니며 퇴학 후 일본에도 함께 갔던 사촌 영섭이는 연희전문학교 상과에 입학했다.

세브란스의전은 1899년 한국 최초의 의학교인 제중원의학교로 설립되어 1904년 L.H.세브란스에게 기증받은 기부금으로 근대식 세브란스병원을 준공하였으며, 세브란스의학교를 거쳐 1922년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로 개편되었다. 해방 후 세브란스의과대학으로 개편되어 1957년 연희대학교와 통합하여 연세대학교가 되었다.

이기섭이 입학했던 1934년 당시에는 1학년 45명의 학생 중 일본 학생은 한 명도 없었고 교수 중에는 우리말로 강의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다가 일제 말기에는 총독부 학무국에서 일본어로 강의하라고 강요하였으며, 일본학생도 몇몇 있었다고 한다.

1학년 2학기 때에는 사촌 영섭이와 동생들과 함께 서대문 충정로 2가에 집을 마련하여 식모를 두고 학교에 다녔다. 부친은 그 당시 수안 물동금광주식회사 사장으로 매월 산출된 금을 팔려고 상경하곤 했다. 그 후 일본인 회사에 강제로 매각당하고 평양으로 이주하였다.

당시 이기섭은 집안 형편이 좋아 다른 학생보다 여유가 있어 현미경도 살 수 있었고 로라이코드 사진기도 가질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물건은 당시로는 매우 귀한 것이었다.

세브란스 의전 4학년 때인 1937년 이기섭은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게 된다. 그 해 여름방학 때 평양집에 가서 당시 이화여전 1학년이었던 함동실과 약혼을 하고 그해 겨울에 평양 백선행기념관에서 이윤영씨 주례로 결혼식을 올렸다. 함동실씨는 평양에서 포목상을 하는 함화선씨 장녀로 독실한 크리스찬이다.

결혼 다음날 수안읍 하유리 셋째 삼촌 집에 들러 조부에게 인

사를 드리고 바로 서울로 와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졸업을 앞두고 일본 문부성에서 실시하는 의사시험에서 이기섭을 포함한 세브란스 학생들은 단 한명만 빼고는 모두 합격했다. 1938년 3월 남대문예배당에서 세브란스의전 졸업식이 열렸다. 입학 당시 45명이던 학생들은 병고와 자퇴, 유급 등으로 33명만이 졸업을 하게 됐다.

졸업 후 이기섭은 모교 외과 교실 조수로 남아서 경도대학 의학학부에서 연구를 마치고 돌아온 고병철 교수 밑에서 연수하였다.

그 당시 이기섭은 주말에 도봉산 망월사, 광릉, 용문사, 수종사를 찾았다니기도 했고, 연휴에 금강산, 평양, 동용굴, 영변 약산, 모향산 단군굴도 가곤 했다. 겨울에는 스키열차를 타고 안변의 삼방스키장까지 갔다 오고, 여름에는 원산 송도해수욕장과 석왕사, 삼방약수터까지 다녀오곤 했다.

1941년 9월 이기섭은 고병철교수의 소개로 일본으로 건너가 경도대학 외과교실 春柳교수 지도하에 ‘결핵균의 경구적 면역’에 대한 테마를 받아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 사이에 이기섭은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다. 1940년 10월에는 장녀 명자가, 1941년 12월에는 평양 친가에서 장남이 출생했다.

1942년 8월에는 가족들과 유모까지 다섯 식구가 일본 경도대학 근처인 백방변에 월세로 집을 얻어 살림을 하였다. 하지만 1941년 12월 일본의 진주만 습격으로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는 전시체제라 모든 생필품이 배급제로 공급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기섭은 1년 반 만에 연구논문 실험을 끝내고 荒木千里 교수

밑에서 뇌신경외과를 연수했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신경외과 교실이 없었을 때였다.

전시 중이어도 신정 연휴 때면 연구실 동료들과 나가노현 시가고원(志賀高原)에서 스키를 탔다. 또 10월에는 승안악(乘鞍岳)과 북알프스, 대정지(大正池), 일본라인, 기후(岐阜) 등으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1943년 4월 차녀 경자가 출생했다. 전쟁이 점차 치열해지자 속히 귀국하라는 부친의 재촉으로 이기섭은 교수의 양해를 얻어 2년 2개월 만에 연구를 끝내고 1943년 11월 귀국길에 올랐다.

귀국 후 이기섭은 바로 세브란스의전 외과 교실에서 근무하였으며, 12월에는 전임강사로 임명되어 외과학을 강의했다. 한편으로 병원에서는 인턴을 지도할 겸 응급환자의 수술을 도맡아 했다. 귀국 후 잠시 평양집에 가 있던 처와 아이들은 1944년 봄 마포구 아현동에 집을 마련하여 이사했다.

– 해방과 분단, 전쟁의 혼란 속에서

1944년에는 태평양전쟁 중이라 전시동원체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었다. 이기섭은 그 해 5월 세브란스의전 4학년생을 인솔하고 부산으로 갔다. 강제로 징용되어 부산 수영비행장을 신설하는데 동원되어 노역하는 사람들을 치료했다. 서울의 3개 의학교에서 3, 4개 구호반이 편성되어 조선군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지정하는 곳으로 일주일씩 파견되었다.

전쟁이 막바지에 치달자 전쟁의 공포는 서울에도 엄습해 왔다. 1944년 말부터 1945년 초에 일제는 공습을 피하여 강제로

도시의 주민을 시골로 소개시켰다. 이기섭의 가족도 1945년 7월 경기도 여주로 피난하였다.

그로부터 한달 반만에 해방이 되었고 가족은 9월에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1946년 8월 이기섭은 세브란스병원에서 일본인들이 물려가 비어버린 적십자병원 외과과장으로 파견근무하게 됐다.

1947년 4월 이기섭은 38선 이북에 계신 부친이 숙청을 피하여 월남, 개성피난민수용소에 계시다는 통지를 받고 집에 모셔와 같이 살았다. 하지만 부친은 북에 두고온 혈육과 고향 생각에 북쪽 하늘만 바라보며 한숨지으시다 49년 여름 유명을 달리하셨다. 이기섭에게 예성강이 흐르는 황해도 수안군 용소개 마을은 갈 수 없는 옛 추억의 고향으로 남게 되었다.

이기섭은 1948년 10월 여수·순천반란사건 당시 구호반으로 순천에 파견되었으나 반란세력으로 오인받아 체포되는 아찔한 상황을 경험하기도 했으며, 1949년 6월 26일에는 경교장에서 저격을 당해 쓰러진 백범 김구선생의 시신을 검안하기도 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자 이기섭과 가족은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해 인공 치하에서 3개월간 지내야 했다. 당시 이기섭은 평양에서 점심을 먹고 신의주에서 저녁을 먹는다는 정부 당국의 이야기만 믿고 적십자병원에서 밀려나오는 부상병을 치료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부상병을 치료하느라 밤을 꼬박 새웠는데 28일 날이 밝자 적십자병원까지 북한군이 점령하여 긴급히 걸을 수 있는 국군 부상병은 직원 옷을 입혀 피신시키기도 했다. 북한 인민공화국 치하에서 서울수복까지 3개월 동안 적십자병원에서 이기섭은 인민군 부상병을 치료해야 했다. 이기섭은 병원 위원장이 되어 인공에 협조하라는 요구를 뿌리치고 오직

환자 치료에만 몰두하여 수술실에서 수술만 맡았다.

9월 26일 인천상륙작전으로 공세에 나선 UN군이 서울로 진주했다. 다음날인 9월 27일 UN군 해병대와 북한군이 연희동 일대에서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였다. 병원으로 북한군 부상병이 쓰러져 들어왔다. 청량리로 병원을 이동한다고 전원 집합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이기섭은 이때다 싶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병원 뒷담을 넘어 도망쳤다. 당시 이기섭 밑에서 일을 배우던 인민군 군의관이 도망가라고 언질을 주는 바람에 새벽 3시에 3층에서 뛰어내려 병원을 빠져나왔다고 한다. 훗날 이기섭은 그 때 경비병도 없어 그 군의관이 미리 조치를 해 놓은 것 같다고 아찔했던 순간을 회상했다.

서울 수복과정에서 이기섭과 가족이 살던 집은 불타버렸지만 가족들은 마침 대피하여 모두 무사했다. 이기섭은 다시 문을 연 적십자병원에서 근무하다가 1951년 1·4 후퇴 때 피난을 떠나게 됐다. 병원 직원들과 가족들은 먼저 인천에서 출발하여 배편으로 3일 만에 부산으로 피난을 갔으며, 마지막으로 병원장과 이기섭은 앰뷸런스로 대구를 거쳐 부산으로 내려갔다. 먼저 피난 온 가족들은 거제도에 방을 얻어 지냈다. 병원은 1개월 후에 제주도 서귀포로 이동하여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피난민과 주민들을 치료하였다.

1951년 8월 서울로 복귀하여 미극동사령부 직속 이동신경외과에서 전상신경외과(戰傷神經外科)과정을 3개월간 연수하였다. 1953년 1월에는 진해에 있는 해군 군의학교에 입대하여 해군예비역 대위로 예편하였다. 1953년 4월 서귀포에 남아있던 가족이 서울로 오는 길에 막내 이규희씨가 이화여대 부산병원에서 출생했다.

1953년 4월 온가족이 다시 서울로 복귀하면서 혼란과 고통의 시절은 일단락되었다. 광복과 분단, 그리고 전쟁. 이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겪었던 혼란과 고통을 이기섭은 그 누구보다도 아프게 겪어야 했다. 하루 아침에 고향을 두고 쫓겨 내려온 아버지, 돌아갈 수 없는 고향에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둘째 누님. 군의관으로 참전하여 이북에 끌려간 처남. 본인도 전쟁의 포화 속에서 남과 북의 체제를 넘나들면서 죽어가는 목숨을 살려내는 의사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한순간에 다른 체제로 끌려가 가족들과 헤어질 뻔했던 위험한 순간을 넘겨야 했다. 어린 시절 추억이 어린 예성강변 고향 마을을 기억하는 의사 이기섭은 분단시대의 초상화인 실향민 이산가족이 되고 말았다.

– 이화여대 부속병원장, 서울산악회장 시절

이기섭은 1953년 4월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 동대문으로 복귀한 이화여대 부속병원에서 외과담당 겸 부교수로 근무하게 됐다. 그리고 다음해 4월에 초대원장인 정진욱씨가 보사부차관으로 영전되는 바람에 교수로 승진하고 부속병원장 직을 맡게 됐다. 당시 이대 부속병원은 동대문 부인병원으로 알려져 산모와 부인과 환자가 제일 많았다.

병원장이 된 이기섭은 미군민사처로부터 1만 달러 상당의 시멘트와 철근을 원조받아 병원 건물을 5층으로 증축했다. 아울러 산부인과, 내과, 외과 밖에 없던 진료과목을 늘려 시내에서도 빠지지 않는 종합병원으로 규모를 갖추었다.

이기섭은 1960년 9월 스스로 사표를 내기 전까지 2년 임기의



◀ 이화여대 병원장 시절, 서울 북아현동
집에서 가족과 함께



◀ 이대 간호학과 제1회
학생들과 함께 1957.6.7
(첫줄 왼쪽 세번째 김활란
총장, 오른쪽 세번째 이기
섭 박사)



▶ 이화여대병원 증축 기
념(가운데 한복 차림 김
활란 총장 왼쪽 끝 이기
섭 원장)

병원장을 네 번 연임하였다. 이기섭 원장은 이 시절 국내 중견 의료인으로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1953년 8월에는 조선일보에 ‘신경외과와 하반신 불수’라는 제목으로 의학정보를 제공했으며, 1961년 5월부터 1962년 1월까지 동아일보에 피크닉과 응급처치, 여름철 응급처치, 겨울철 동상과 화상, 가스중독 응급처치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의학 상식을 10회 이상 연재 게시했다.

1957년 6월 전혀 뜻하지 않던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해방 전 경도대학에 유학 가서 제출했던 박사학위 논문이 13년 만에 논문심사에서 통과되어 박사학위를 받게 된 것이다. 당시 이 소식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보도되어 의학계의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13년전에 낸 논문 통과, 日서 『의학박사』 학위

이대부속병원장에 서신

일제시대에 제출한 논문이 13년만에 통과되어 의학박사 학위를 받게 된 분이 있다. 이화대학부속병원장 이기섭(45)씨는 해방 전 해인 1944년 당시 연구원 조수로 있던 경도대학 의학부에 「결핵균 자비원(結核菌煮沸元)으로서 경구면역(經口免疫)의 실험연구」라는 학위논문을 제출한 바 있었는데 지난 14일 동대학 주임교수인 靑柳씨로부터 당일의 교수회의에서 동 논문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는 사실을 서한으로 이원장에게 전하여 왔다. 이로써 이원장은 불원 동 대학으로부터 정식으로 의학박사 학위를 받게 될 것이다.

- 1957년 3월 21일자 동아일보 3면 10단 기사



동아일보기사

경도대학 의학박사 학위기, 속초시립박물관 소장

이기섭은 적십자병원에 재직할 때 이미 경도대학 靑柳교수로부터 “너의 연구논문을 심사하려고 하는데 반민특위에 걸리지 않겠느냐”는 서신을 받고 관계없다는 회신을 보낸 바 있다고 한다. 나라와 민족, 체제를 넘어서 인간생명을 다루는 의술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이화여대 부속병원장 시절 이기섭은 산을 즐겨 찾았다. 그래서 한국산악회 이사와 안전대책위원회장을 맡기도 했고, 서울산악회 3,4,5대 회장⁵⁾을 지내게 되었다.

1958년 창립한 서울산악회에서는 1959년 산행과 캠프로 강인한 체력과 전전한 정신을 기르고 협력정신을 함양한다는 취지 아래 전국 고등학교 크로스컨트리 대회를 1박2일로 계획했다. 그러나 의료진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대병원장을 하고 있던 이기섭이 산악회의 의료진 요청에 흔쾌히 승낙하고 직접 대회에 참가하였다. 이를 인연으로 다음해인 1960년에는

5) 이기섭 박사의 회고 글에는 2,3대 회장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서울산악회의 총회 자료집에는 이기섭 박사가 1960년부터 1962년까지 3,4,5대 회장으로 기록되어 있다.



1960년 백운산장 건립 당시의 이기섭 / 출처 리버티뉴스 1137회



제2회 서울산악회 크로스컨트리대회



제2회 서울산악회 크로스컨트리 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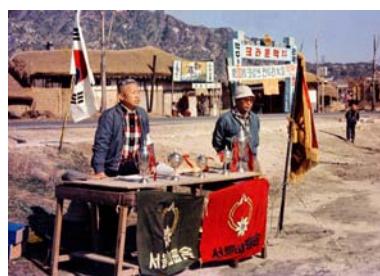
제2회 서울산악회 크로스컨트리 대회



제2회 서울산악회 크로스컨트리 대회



제3회 서울산악회 크로스컨트리 대회



제3회 서울산악회 크로스컨트리 대회

서울산악회 회장이 되었다.

서울산악회 회장을 지내면서 이기섭은 산에서 조난당한 산악인 구조 활동에 힘을 보탰다. 1961년 1월 14일 서울대 법대생 11명이 한라산에 올랐다가 심한 눈보라와 추위로 조난당해 그 중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때 한라산에 등산 중인 고려대와 경희대 산악반은 연락이 두절되어 한국산악회 구조팀이 서울에서 급파되었다. 이기섭은 홍종인 한국산악회 회장과 함께 제주도에 가서 구조 활동을 펼쳤다. 또 1961년 9월 3일 친구들과 북한산 백운대에 등산을 갔다가 실종된 송영호군을 63시간만에 효제리 칡덩굴 밑에서 실신상태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구조하기도 했다. 당시 송군을 찾기 위해 서울지역의 산악회원들과 경찰 인력이 총동원되었다.

1950년대 말 등산인구가 늘어나면서 북한산 백운대에서는 조난사고가 계속 잇따랐다. 이에 서울산악회가 주관하여 조난자 대피와 구조 활동을 위해 1960년 4월부터 7개월 동안 공사 끝에 11월 백운산장을 완공하였다. 이 때 이기섭 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우이동에서 백운대까지 험한 등산로로 목재와 시멘트, 철근 등을 직접 실어 나르기도 해 회원들조차 깜짝 놀라게 했다.

6·25 때 불타버린 이후 서울산악회의 힘으로 다시 세워진 백운산장은 1970년 북한산 5개 산장이 지어지기 전까지 인수봉, 백운대를 등반하는 산악인들이 베이스캠프로 삼았던 곳이며 조난사고가 발생하면 임시구조본부가 되기도 했다. 당시 서울산악회의 백운산장 건립 공사는 미공보원에서 제작한 리버티뉴스 영상물(1137회분)로 방영되었으며, 회원들과 함께 산길로 자재를 실어 나르고, 준공식 때 회원들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기섭 회장의 모습을 영상 속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 설악산과 첫 인연

이기섭과 설악산의 첫 만남은 이대병원장으로 하던 1956년 7월 여름에 이루어졌다. 이대 사범대학 산악부와 설악산 등반을 했는데 한국산악회 김정태, 안종남, 김근원 등과 함께 산에 올랐다.

당시 장수대에는 오득준 장군이 군인휴양소로 지은 건물이 있었다. 일행은 그 곳에서 설악산에서의 첫날밤을 지냈다. 다음날은 대승령을 거쳐 십이선녀탕으로 내려와 용대리 초등학교에서 묵었다. 백담사에서 하루를 보낸 일행은 오세암까지 가는 데 또 하루를 보냈다. 5일째는 수렴동계곡을 따라 올라 봉정암 자리에서 야영했다. 다음날 설악산 최고봉인 대청봉에 올랐다가 봉정암으로 되돌아와 가야동계곡을 거쳐 오세암에서 6일째 야영을 했다. 마등령을 넘어서 외설악 만경대와 설악문을 거쳐 굴양암으로 하산, 비선대를 거쳐 양폭까지 갔다가 돌아와 신흥사 보제루에서 7일째 밤을 보낸 후 귀경했다.

그 당시에는 등산로가 없어서 계곡을 따라 등반했는데 지금처럼 대청봉에서 천불동계곡으로 하산하는 것은 일반 등산인들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다만 베테랑급 산악인들만이 자일을 사용해서 내려올 수 있는 혐로였다. 60년대 천불동계곡에 다리가 놓여지기 전까지 등산인은 대청에서 봉정암과 가야동계곡을 거쳐 오세암, 마등령, 외설악 신흥사로 하산해야 했다.

첫 설악산 산행에서 이기섭은 이 코스 저 코스를 두루 다니면서 설악산의 깊은 멋을 속속들이 들여다 보고 그 매력에 푹 빠져버렸다.

당시 설악산은 6·25 전쟁으로 수복된 지 몇 년 되지 않아 아는 사람들도 거의 없던 시절이었다. 설악산은 금강산에 가려 일찍이 빛을 보지 못했으나 일제시대인 1920년대부터 계조암과 권금성, 신흥사, 비선대, 오색약수, 백담사, 봉정암, 대승폭, 울산암 등 관광지 중심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다. 1929년에는 동아일보 인제지국에서 5박6일 일정으로 설악산 탐승단을 모집해 산행을 하기도 했으며, 1935년 9월 양양지역에서는 오색약수를 마시고 대승폭포 일대를 관광하는 4일 일정의 설악산 탐승단 모집도 있었다. 특히 노산 이은상이 1933년 10월부터 두 달 동안 총 37회에 걸쳐 동아일보 지면에 설악산 기행문 ‘설악행각(雪岳行脚)’을 게재하였다. 노산은 ‘설악산은 우리 옛 선민(先民)의 오랜 존중(尊崇)을 입어온 신산(神山) 성역(聖域)’이라고 소개하면서 전국적으로 설악산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1930년대 후반에는 조선산악회, 보성전문학교 산악회 등 전문산악인들이 설악산 탐방 등반을 하였으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이 앞장서서 설악산 모집 탐방을 기획하기도 했다.

해방 후 38이북 지역으로 접근이 불가능했던 설악산은 한국산악회 설악산 학술조사 등반대의 활동으로 다시 세상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한국산악회의 학술조사 등반대는 1955년 8월 18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6·25 때 수복된 설악산과 동해안 일대를 답사했다. 등반대는 단장에 홍종인, 부단장에 조○삼, 이승녕, 지질 광물반에 옥승식, 생물반에 이민재, 약종(藥種)에 신길구, 언어에 이승녕, 역사에 유홍렬, 민속에 강한영, 경제에 신재숙 등 자연과학과 인문과학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편성되었다. 등반대는 서울에서 출발하여 강원도 인제 북방 원통까지 가서 한계리



▲ 1950년대말 용대리 입구에서



1950년대말 장수대에서 ▶



▲ 1950년대말 백담사에서



1950년대말 설악산에서 ▶

◀ 1950년대말 설악산에서



▲ 설악산학술등반대 이대산악부와 함께

로 들어가 대승폭을 거쳐 설악산을 등반한 후 신흥사를 거쳐 속초에 내려갔다. 이곳에서 답사를 마치고 자동차편으로 서울로 돌아왔다.

등반대는 당시 송요찬 제3군단장의 후원으로 설악산 정상에 올랐으며, 해방 후 처음으로 민간인이 설악산 탐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신문사를 통해 전해 왔다. 등반대는 설악산이 금강산에 못지 않게 아름답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으나 이곳 저곳에서 처참한 격전의 자욱을 보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고 한다. 이 답사 이후 홍종인 단장은 종합답사 결과를, 이승녕 부단장은 설악산 심마니의 언어조사를, 유홍렬 교수는 설악산 주변의 사적에 대해 신문 기고를 통해 발표하면서 설악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증폭시켰다. 이때부터 대학생 산악반을 중심으로 설악산에 대한 본격적인 탐방이 줄을 잇게 되었다.

이기섭도 1956년 처음 설악산을 등반한 이후 설악산 홍보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특히 1959년 이화여대 사대 산악부, 사진작가 김근원 등과 함께 설악산을 등반하고 나서 이화여대에서 설악산 사진 전시회를 개최했다. 설악산의 비경을 담은 김근원의 사진은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 이대병원장을 그만두고 속초로

1960년 4·19가 난 이후 이기섭의 인생 궤도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이대병원장을 지내며 중견 의료인으로 자리 잡은 이기섭은 자신에게 주어진 편안한 길을 버리고 당시 이름도 없는 오지인 설악산 인근 속초로 내려오게 되었다.

4·19의 여파는 온 나라의 근간을 바꾸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틀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혼란스럽기까지 했다. 각 기관단체의 장이 무능하고 비리가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와 물러나기도 하고, 학교에서는 어용교수 시비가 일어 교수들이 사퇴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개인의 잘잘못과는 상관없이 전 사회를 압도했다. 격동의 소용돌이에서 이기섭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당시 이기섭은 8년 동안 이화여대 부속 병원장을 역임하였다. 이화여대 김활란 총장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아 2년의 임기를 네 번이나 연임하였다. 오랫동안 한 자리를 독점했다는 이유로 주변에서 비난이 일었다.

이기섭이 상처를 받은 것은 주변 사람들이 제자들을 부추겨 병원장을 그만 두라고 하여, 사제지간의 신뢰가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다. 당시 이화여대 부속병원에는 서울대 출신과 세브란스 출신이 있었는데, 4·19 이후 어수선한 상황에서 내부의 갈등으로 불거졌다.

이기섭은 1960년 9월 이화여대 부속병원장을 사임하고 다음해 3월에는 의대교수도 사임했다. 이기섭이 병원장을 그만 두겠다고 사표를 내니까 김활란 총장은 교환교수로 미국에 잠깐 갔다 오라고 권유했다. 그러나 이기섭은 부득불 사직을 고집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으로서 이미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진 조직 내에서 자신이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적당히 타협해서 살아갈 줄 모르는 그의 성격도 결단에 한 뜻을 한 것이다.

처음에는 병원장을 그만두고 교수로 있으면서 종로 5가에 ‘이기섭외과’를 열어 오후 시간에 진료를 했으나 이조차도 학교에

서 금지하여 교수직도 그만두고 말았다. 서울이 싫었다. 사람과 사람의 신뢰가 무너지고, 오직 물욕과 명리만을 찾는 도시생활이 싫어졌다.

이기섭은 1961년 10월 7,8일 2박 3일 일정으로 ‘설악산 십이탕골 탐승회’를 열었다. 서울산악회 주관, 동아일보사 후원으로 진행된 이 등반은 십이탕골과 두문폭, 장수대, 하늘벽, 옥녀탕을 들렀다가 오는 모집등반이었다. 이기섭의 마음 속에는 서울에 대한 염증이 커져갈수록 설악산에 대한 생각은 점점 깊어만 갔다. 고민 끝에 서울 생활을 접고 설악산이 있는 강원도 속초읍으로 내려와 개업을 하기로 했다.

이기섭은 설악산은 이화여대 사범대학 산악부를 따라 등반할 때 이미 금강산 못지 않은 아름다운 산이라 느꼈기 때문에 속초에 내려와 등산의 취미도 살릴 생각이었으며, 김활란 박사가 이 대 의과 졸업생은 시골로 가서 봉사하는 의사가 되라고 늘 강조하여 이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

1962년 5월 이기섭은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속초시 중앙동 여관자리를 빌어 ‘이기섭의원’을 개업했다. 그리고 일요일이면 처와 함께 배낭을 둘러메고 설악산에 가곤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슨 의사가 병원은 지키지 않고 산에 놀러 다닌다고 편지도 많이 받았다.

– 설악산악회 창립, 등산로 개척에 힘써

이기섭은 속초로 내려오면서 서울산악회 회장도 그만두었지만, 산악인들과의 인연의 끊을 놓지 않았다. 오히려 설악산으로 많

은 산악인을 불러모으면서 그 인연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이기섭은 속초로 내려온 다음해인 1963년 8월 서울산악회와 관동산악회⁶⁾공동으로 하기산간학교를 개최했다. 당시 하기산간 학교는 설악산 쌍천계곡에서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다. 전국에서 모집한 고등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들이 독도법과 등산 기술, 암벽타기와 구조 활동 요령 등을 강의했다. 이때 육군의 지원으로 현역군인이 강사로 나와서 독도법을 가르치기도 했고, 육군 군악밴드도 와서 축하공연을 해 주었다. 이 하기산간학교는 다음해인 1964년 8월에도 개최되었다.

이기섭은 1965년 4월 속초에서 등산을 좋아하는 지역인사들과 함께 ‘설악산악회’를 만들고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초창기 설악 산악회에는 박영근(신포어구점), 김치룡(토지개발조합장), 백영일



▲ 초창기 설악산악회 회원과 함께 찍은 사진



▲ 설악제에 참가해 거리행진을 하고 있는 설악산악회

6) 서울산악회 자료에는 설악산악회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당시 후원을 했던 한국일보 기사에 의하면 관동산악회이다. 관동산악회는 언제 창립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1965년 4월 창립한 설악산악회의 전신이 아닌가 싶다. 당시 신문자료에도 이기섭은 관동산악회 회장으로 소개되어 있으며, 하기산간학교 개설과 양폭, 천불동 등산로 개척, 스키장 개발 추진도 관동산악회 회장일 때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중앙주유소), 최구현(승리사장) 등 20여명이 회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총무에 백영일, 재무에 김인렬씨가 맡았다. 설악산악회 이전에 이기섭은 신문에 관동산악회장으로 보도되었다. 관동산악회는 창립 시기는 알 수 없고 설악산악회의 전신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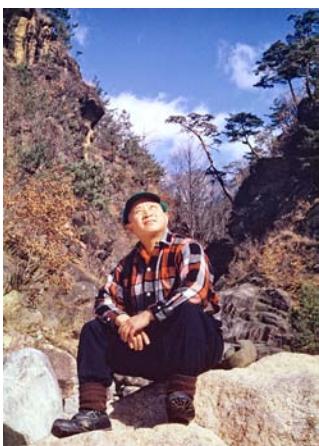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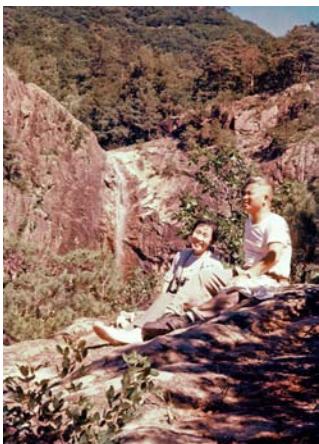
1950년대 말 설악동에는 읍에서 경영하는 설악여관만이 한 곳 있었다. 사진작가 최구현씨와 지역 체육인 이달영씨는 교통체신부를 찾아가 특별예산을 얻어내 설악산관광호텔을 지어놓고 1960년 이승만 대통령을 모시기도 했다. 또 이들은 1962년경에 영국 황실 아시아학회 회원 90여명을 유치하려 했으나 자동차길이 없어서 못 온다고 하기에 국방부를 찾아가 일선군인들의 협조를 얻어 소공원까지 도로를 닦았다. 이렇게 급하게 도로를 닦아도 속초에서 신흥사까지 무려 8시간반이 걸렸다고 한다.

교통부의 설악산관광호텔은 건립 초기 관광객이 제대로 들지 않아 운영이 어려웠으며, 시설관리도 제대로 안되어 빙축을 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영업 손실을 본 업자들의 항의소동도 있었으며, 1963년 국제관광공사를 거쳐서 1965년 민영화되어 운영되었다.

승리사진관을 운영했던 최구현씨는 설악산관광호텔 건립 말고도 자기재산을 들여 설악산앨범을 만들어 무료로 배포하며 설악산 홍보에 앞장섰다. 최구현씨는 1965년 3월 사진협회 속초지부를 결성하여 처음으로 영랑호에서 사진촬영대회를 열었으며, 이듬해 10월 1일 예총강원도지부 주최, 예총속초시지부 주관으로 제1회 설악제를 개최했다.

1960년대 중반에 설악산의 웬만한 코스는 등산이 가능했지만 가장 경치가 뛰어나 지금은 외설악의 주요등산코스가 된 ‘천불

■ 1960년대 초반 이기섭의 산악사진



동계곡’의 경우는 일반 등산객의 접근이 불가능했다. 당시 전문 산악인이라고 해도 대청봉에서 죽음의 계곡으로 자일을 타고 천당폭포까지 꼬박 하루가 걸려 하산하였고, 천당폭포에서 양폭 뒤에 있는 장폭으로 자일을 타고 내려서 길도 없는 천불동계곡을 따라 신흥사에 도착하는데 꼬박 2박3일이 소요됐다. 비선대의 경우 그 당시 탐방객이 많이 찾는 대표적인 관광코스였는데, 비선대에서 천불동계곡에 위치한 양폭까지 올라가려면 길이 험해서 하루 종일 걸렸다. 또 소나기라도 오면 물이 불어 도저히 건너갈 수 없었다.

이에 1964년 이기섭이 회장으로 있는 관동산악회⁷⁾는 양양관광협회⁸⁾와 함께 비선대에서 천불동계곡을 거쳐 대청봉으로 오르는 등산로를 처음으로 개설하였다. 관동산악회는 당시 양양관광협회 박태송 회장의 지원과 양양광산 김재명 소장으로부터 광산에서 쓰던 정과 굵은 철삭(쇠줄)을 무상으로 지원받아 이인선씨와 박재춘씨가 나서서 병풍바위와 양폭 암벽에 나무사다리를 놓고, 천당폭 밑에는 철삭으로 출렁다리와 나무사다리를 놓아 양폭까지 갈 수 있게 했다. 가야동에서 소청에 이르는 등산로도 개설했다. 이후에 강원도의 후원을 받아 천불동 계곡 중간 중간에 철다리를 놓고 등산로를 정비했다. 이런 연유로 나중에 사람들은 비선대, 천불동계곡, 양폭, 무너미고개에 이르는 이 길을 ‘이기섭코스’라고 이름을 붙였다.

천불동계곡 등산로 개척과 관련해 당시 신문⁹⁾에 보도된 기사

7) 당시 신문기사(이기섭 보관 신문스크랩 자료)에는 관동산악회라 보도되었는데, 후에 이기섭의 글에는 설악산악회라 기록되어있다.

8) 당시 신문에는 설악산관광협회라고 되어 있고, 후에 이기섭의 투고 글에는 수차례 ‘양양관광협회’라고 쓰여있다.

9) 보도 신문사와 날짜는 알 수 없으며, 이기섭이 생전에 스크랩해 놓은



▲ 천당폭포의 구름다리. 이 구름다리는 당시 설악산의 명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이번 관동산악회 이기섭씨를 비롯, 설악산관광협회는 신흥사에서 설악산의 최고봉인 대청봉(1,708미터)까지의 코스 중 험준한 곳에 새로운 통로를 마련했는데 첫째 신흥사에서 비선대까지 사이에 ‘콘크리트’ 교량 1개소와 비선대를 지나 귀면암 사이의 암벽에 목조 사다리를 1개소 마련했다.

그리고 설악산의 가경(佳景)인 귀면암을 지나 오련폭 사이의 말뚱바위 지점에 80미터의 난간 철조와 목조 사다리로 완전한 통로를 이어 놓았으며, 오련폭을 지나 양폭에 이르는 사이에 절벽에 또한 목조 사다리 3개소를 마련했다. 세째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우던 양폭과 천당폭 사이의 계곡에 구름다리를 놓았고, 천당폭과 난폭(亂瀑) 사이의 암벽에 난간 2개를 완공함으로써 난폭포에서 소청봉 능선을 통해 중청봉 - 대청봉까지 무난히 오르게 되었다.

신문자료에서 인용하였음.

는 다음과 같다.

사다리 · 난간 등 마련 / 설악산

탐승객에 희소식

신흥사서 대청봉까지

6시간이면 등산 가능

[東草發]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 및 산악반들이 찾아드는 이곳 설악산 험준한 곳에 이번 새로이 다리, 사다리, 난간 등이 마련되어 탐승객들에게 큰 희소식을 전해주고 있다.

이같이 새로운 통로가 마련됨으로써 종전에는 산악반원들만이 신흥사에서 대청봉까지 이를을 걸려 최고봉을 정복하던 것이 이제는 일반 관광객도 6시간이면 신흥사에서 대청봉까지 정복할 수 있게 되었다.

설악산악회는 1967년 일본 경용대학 산악부 학생들과 함께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비선대에서 금강굴을 거쳐 유선대에 오르는 등산로도 개설했다. 이전에는 굴양암에서 장군봉 뒤를 돌아야만 유선대에 오를 수 있었으며, 유선대에서 굴양암으로 하산해서 비선대를 보려면 지친 몸이라 대단히 힘이 들었다. 아울러 이기섭은 화채능선을 통해 대청봉으로 오르는 길을 정비해 이정표를 세웠고, 화채능선에서 양쪽으로 빠지는 길도 새롭게 개설했는데 지금은 입산통제지역으로 묶여 있다.

이렇게 설악산에 등산로가 열리자 강원도 도지사가 처음으로 설악산을 찾기에 이르렀다. 1964년 10월, 이기섭은 강원도지사로 있던 박경원 지사와 강원일보 강표원 사장, 인제 이건웅 군수와 전 공보실장, 건설국장 외 수행원들과 등산로 개발을 위한 답사 등반에 나섰다. 일행은 백담사에서 1박을 하고 다음날은 봉정암 암자에서 자고 대청에 올랐다. 다시 소청으로 되돌아와 새로 개설한 소청의 등산로를 따라 가야동을 거쳐 천불동을 지나 신흥사에 전원 무사히 도착했다.

이 답사등반을 계기로 박지사는 설악산을 개발하기로 하고 1965년 봉정암에 약 1백명이 이용할 수 있는 산장(대피소)을 짓도록 했으며, 다음해인 1966년에는 양쪽에도 산장을 짓도록 했다. 이 양쪽산장은 1969년 2월 한국산악회 해외원정대 조난사고 당시 구조활동의 기지 역할을 했다.

그리고 박지사는 1967년 백담사에서 대청을 거쳐 천불동, 신흥사에 이르는 등산로와 백담사에서 영시암을 지나 오세암을 거쳐 금강굴, 비선대에 이르는 등산로를 개설하고 정비하였다. 이 결과 내설악과 외설악을 잇는 설악산 횡단도로는 1968년 10월에 완공되었으며, 비선대 근방에 도로개통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세워졌다. 이 비에는 도로개통에 공이 많은 박경원 도지사와 이기섭 산악회장, 이달영 관광협회장의 이름이 함께 새겨져 있다.

이기섭은 1965년 6월 설악산관광협회¹⁰⁾ 회장을 맡게 됐다. 속초로 이주한 지 만 3년 만에 설악산을 개발하고 전국에 알리는 중책을 떠맡게 되었다. 보통 관광협회 회장은 관광사업체 대표나 유력한 지역경제인이 맡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의사가 관광협회를 맡는 경우는 이례적인 경우이다. 그만큼 이기섭에 대한 지역의 기대가 매우 커졌다. 속초 지역사회는 이기섭이 당면한 설악산 개발과 관광진흥사업을 해낼 수 있으리라고 보았다.

1965년 10월에는 서울산악회와 동아일보가 공동으로 설악산 모집등산을 개최했다. 이 등산을 예전 서울산악회 회장을 하던 이기섭이 주선하였다. 코스는 설악산 장수대에서 12선녀탕까지였으며, 버스 3대 120명이 참가했다. 그 당시에는 물길을 건너는 다리가 없어서 무릎까지 빠지면서 물을 건너야 했는데, 폭포에서 무지개가 피어오르는 장관에 등산객 모두 황홀경에 넋을 잃고 말았다. 이당시 서울산악회는 이기섭 전회장이 설악산으로 가는 바람에 해마다 설악산으로 찾아왔다고 한다. 이렇게 설악산의 비경이 전국으로 알려지면서 언론에서 앞 다투어 설악산을 기사로 다뤘으며, 설악산 탐방객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다.

10) 일부 기록에는 설악관광협회라고도 되어있다.

1955년 최초의 설악산 학술답사 이후 설악산은 빼어난 자연경관만이 아니라 무수한 희귀종 동·식물이 서식하여 있는 것으로 밝혀져 국제자연자원보존연맹의 보존 의견에 따라 1965년 11월 5일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163.4km²가 천연기념물 제171호로 지정되었으며, 1970년 3월 24일 설악산 전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 속초라이온스클럽 창립, 스키장 개발 추진

이 무렵 이기섭의 활동 중 주목할 만한 일은 속초에서 최초의 지역사회봉사단체인 속초라이온스클럽을 만들고 활동했다는 것이다. 라이온스클럽은 1917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하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국제봉사단체로 지역사회 발전과 세계 발전을 위하여 맹인복지와 시민봉사, 교육 및 보건의료봉사 등 봉사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속초에서는 1966년 5월 10일 속초방송국 공보관에서 23명의 창립회원이 모여 ‘속초라이온스클럽’을 결성하고 회장으로 이기섭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그 해 6월 25일 속초 신흥예식장에서 현장의 밤을 개최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당시 회원에는 배윤선, 고연재, 마장건, 민서기, 최구현, 백영일, 최영춘 등 지역인사가 다수 참여하였다.

이기섭은 클럽 창단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기섭은 ‘자유부인’을 쓴 소설가 정비석씨와 오랜 친분관계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라이온스클럽 운동 초창기 활동가인 정비석의 권유로 지역의 의사와 약사, 사업가들과 뜻을 모아 클럽을 창단하고 초대회장을 맡게 되었다.



▲ 속초라이온스클럽 창립 총회 기념 촬영 (KBS속초방송국) 1966.5.10, 출처 속초라이온스 클럽 40년사



▲ 1967년 10월 22일 고성군 명파리 무의촌 진료 후 기념촬영 (뒷줄 왼쪽에서 4번째 이기섭), 출처 속초라이온스클럽 40년사



◀ 속초라이온스클럽 현장의 밤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는 초대 이기섭회장 (금호동, 신흥예식장) 1966.6.25, 출처 속초라이온스클럽 40년사

1967년 10월 의사 이기섭을 비롯하여 속초 라이온스클럽 회원들은 우리나라 최북단 마을인 고성군 명파리를 방문하여 100여 명의 주민에게 무료 진료 활동을 펼쳤다. 속초라이온스는 초창기에 명파리 마을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무료진료활동을 펼쳤다. 지역 최초의 봉사단체인 속초라이온스클럽은 40년 이상을 지내오면서 참여회원이 80명이 넘었으며, 무의촌진료와 소년소녀가장 및 불우이웃 돋기, 농어촌자매결연 사업 등 지역봉사활동으로 설악권 지역에 사회봉사운동의 씨앗을 뿌렸으며, 이후 지역에 다수의 라이온스클럽을 태동시켰다.

1965년 3월 이기섭은 설악산 일대에 스키장을 개발하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하였다. 1965년 3월 12일 조선일보 보도 등에 따

르면 대한스키협회 기술위원장 김정태, 관동산악회장 이기섭, 예총속초지부장 사진작가 최구현 등으로 구성된 조사반이 설악산 현지답사에 나서 영하 5도의 추위와 목줄기까지 빠지는 눈길을 뚫고 내원암에서 미시령까지 장장 6km의 예상 코스를 두루 살핀 끝에 우리나라 최대의 스키장이 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신문보도에서는 대관령 스키장은 고차(수직높이)가 2백m, 사면이 7백m인데 반해 이곳은 고차가 770m, 사면이 3천5백m나 되고 대관령은 해발 7백35m 높이부터 눈이 쌓였으나 이곳은 4백m 높이부터 40cm 내지 1백20cm의 눈이 쌓여 있다는 것이다.

이기섭은 이 슬로프 구간의 잡목을 베어내고 스키장을 개발하려고 속초시 등 관계기관에 2, 3차례 잡목벌채 허가를 신청했으나 신흥사 사찰림이라는 이유로 조계종 측에서 반대해 스키장 개발이 결국 무산되었다.

또 이기섭은 1966년~67년 무렵 비룡폭포로 올라가다가 갈라지는 소토왕골 일대에 비록 규모는 작지만 스키장을 개발해 운

1960년대 대관령스키장에서▶



▲ 1960년대 설악산 소토왕골 스키장에서



영토록 했다고 한다. 소나무로 둘러싸인 계곡 안쪽으로 평평하고 넓은 땅이 있어 이를 스키장으로 운영했는데, 당시 중앙일보에서 20여 차례나 설악산 스키 투어를 진행했다고 한다. 이후에는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소토왕골 스키장은 사라지고 말았다고 한다.

– 설악제 개최, 전국적인 산악인 행사로

1966년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제1회 설악제가 속초 설악동 일대에서 열렸다. 설악제는 전국 산악인의 축제로, 속초의 대표적인 향토문화축제로 정착하여 설악문화제로 이름이 바뀌어 2008년 현재까지 43회를 이어오고 있다. 이기섭 설악산악회장은 제1회 설악제 등산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설악제가 대표적인 전국 산악인의 축제로 자리 잡는데 크게 기여했다.

당시 자료에 의하면 제1회 설악제는 예총강원도지부 주최, 예총속초시지부(지부장 최구현) 주관¹¹⁾, 설악산악회(회장 이기섭)와 한국일보사 협찬으로 진행되었으며, 실무적인 일은 속초시에서 맡아서 진행되었다. 설악제는 지역의 문화발전에 직접적인 계기를 만들고 6·25전쟁 격전지인 이곳 설악산에서 죽은 이릉모를 넋들의 명복을 빌며, 관광지 설악산의 아름다움을 널리 세상에 알리자는 데 취지를 두고 있었다. 축제는 전야제, 설악산사진공모전, 사진촬영대회, 등산대회, 카니발, 이릉모를 자유의 용사비

11) 제1회 설악제 행사 중에서도 등산대회가 대내외적으로 크게 알려져 설악제를 이기섭 설악산악회장이 만든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당시 자료를 확인하면 최구현씨가 지부장을 맡은 예총속초시지부가 제1회 설악제를 공식적으로 주관했다.



▲ 1966년 제1회 설악제



▲ 제2회(?) 설악제 등산대회



▲ 1967년 제2회 설악제 카퍼레이드 (앞
좌석 좌 안광옥, 뒷좌석 우 이기섭)



▲ 1967년 제2회 설악제



▲ 설악제 거리 행진



▲ 설악제 거리 행진



▲ 설악제 거리 행진



▲ 설악제 거리 행진



▲ 제4회 설악제 거리행진



▲ 설악제 등산대회, 병풀암에서



▲ 제4회 설악제



▲ 설악제 거리 행진



▲ 제5회 설악제 거리행진



▲ 설악제 거리행진을 마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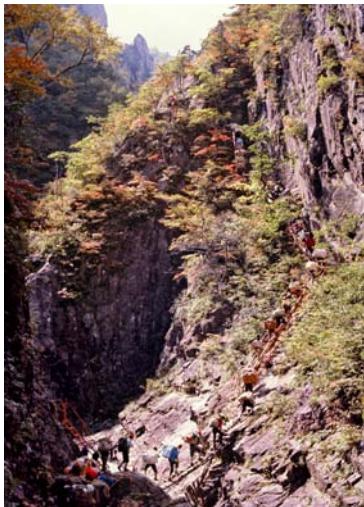
▲ 제5회 설악제 거리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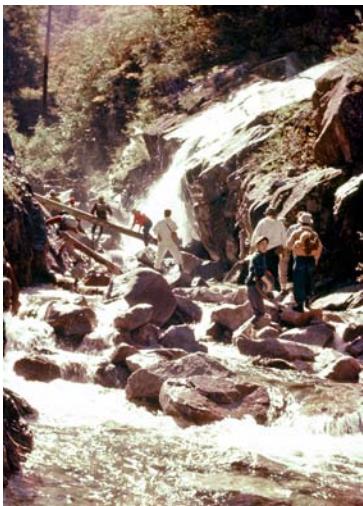
▲ 제6회 설악제 거리행진



▲ 설악제 등산대회



▲ 설악제 등산대회



◀ 설악제 산행, 십이선녀탕계곡에서

제사와 문화행사 등 총 13개 행사로 치러졌으며, 모두 설악동 특설무대와 신홍사 인근에서 개최되어 ‘설악산 문화축제’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했다.

특히 설악산악회가 주축이 되어 준비한 등산대회에는 전국에서 286명¹²⁾의 산악인이 접수, 참가하면서 대성황을 이루어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한국산악회 이사

12) 참가인원 통계는 1981년 속초시가 발간한 『속초시사』 158p 기록을 참조함.

와 서울산악회 회장을 지냈던 이기섭 회장의 힘이 컸다. 특히 이기섭 회장과 각별한 인연을 맺은 서울산악회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며 행사에 많은 인원이 참가했다.

등산대회는 2박3일 일정으로 인제 외가평 → 백담사(야영) → 봉정암(야영) → 대청 → 중청 → 소청 → 양폭 → 비선대 → 정고평 무명용사의 탑 코스로 진행되었다. 당초에는 대청봉에서 제화(祭火)를 운반하여 무명용사의 탑에서 제를 올릴 계획이었다.

등산대회 첫날과 이튿날은 날씨가 맨찮아 일정대로 잘 진행되었으나 마지막 날 대청에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양폭쯤에서는 폭우가 쏟아져 삽시간에 계곡물이 불었다. 허리까지 차는 계곡물을 건널 때는 밧줄 로프를 잡고 한 사람씩 건너야 했다. 곡예를 하듯 아스라한 절벽을 타고 천불동을 내려와야 했는데, 귀면암 바로 위 건널목에서 서울에서 온 60세 노인이 밧줄을 놓치는 바람에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갔다.

그러나 다행히 귀면암 밑에 있는 소(沼)에 떨어져 산악인들이 합세하여 무사히 구출했다. 그날 폭우로 약 1백50명 정도가 조난을 당했으나 모두 무사히 하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맨 뒤에 쳐져 있던 이기섭 일행은 설악골에 와서 물도 많이 불고 날도 저물어 바위 밑에서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던 연유 한 통을 여섯 명이나눠 먹고 하룻밤을 뜯 눈으로 새고 다음날 하산해야 했다.

또 이날 이화여대 산악부가 가야동 계곡에서 길을 잘못 들었다가 다시 코스로 돌아왔는데 서울에서는 조난을 당했다고 잘못 언론에 보도되는 바람에 난리를 겪기도 했다고 한다.

1967년 제2회 설악제 등산회는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열렸다. 설악산악회가 주최하고 협찬에 대한산악연맹, 한국산악회, 서울산악회, 에코클럽 등 전국의 산악회가 후원에 포함되었다. 등산코

스는 백담사(야영) → 영시암 → 오세암(야영) → 마등령 → 금강문 → 유선대 → 금강굴 → 비선대 → 정고평 → 신흥사였다.

1968년 제3회 설악제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열렸으며, 설악제위원회가 조직되어 속초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등산회는 설악산악회에서 주관하게 되었다. 등산코스는 신흥사 → 정고평(무명용사 위령제 후 야영) → 양폭 → 가야동(야영) → 소청 → 중청 → 독주폭 → 남설악(오색)코스로 진행되었다. 특히 제3회 설악제에서 오색을 남설악으로 처음 불렀으며, 등산 전에 속초시청 광장에 집결하여 속초중학교까지 시가행진을 벌였다.

제4회는 권금성과 화채봉, 양폭, 비선대를 거치는 당일코스로, 제5회는 양폭과 대청, 화채봉 코스와 설악동, 권금성, 잣나무골, 소토왕 코스로 나누어 2개의 코스로, 제6회는 양폭, 희운각, 오세암, 마등령, 금강굴, 비선대를 거치는 1박2일 코스로, 제7회는 남설악(오색), 대청, 양폭, 비선대를 잇는 코스로 진행되었다.

설악산악회는 매년 설악제를 개최할 때마다 새로운 등산로를 개발해 등산 초보자를 안내했다. 권금성에서 칠성봉, 화채봉, 양폭으로 가는 길과 대청에서 중청, 독주폭을 걸쳐 오색약수터로 가는 길도 이렇게 개척됐다.

이기섭은 설악산악회장으로 제7회 등산대회까지 주관하였으며, 다시 제24회부터 27회까지 설악제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설악제에 대해 남다른 인연을 맺게 되었다.

- 한국산악회 설악산등정대 조난 사고

1960년대 많은 산악인들이 설악산을 찾기 시작하면서 설악산

에서의 조난사고는 계속 이어졌다. 1965년 7월 10일에 에코클럽의 이원상이, 7월 16일에는 같은 클럽의 김정규가 비선대 건널목 같은 자리에서 급류에 휩쓸려 익사하였다. 1967년 1월 하순에는 소청봉에서 서울의대예과 1년 이모군이 동사하였고, 1968년 10월 26일에는 가톨릭의대 산악부원 7명이 십이선녀탕 계곡에서 조난을 당하였다. 1969년 2월 14일에는 다음해 해외원정을 위해 대청봉과 죽음의 계곡에서 동계 훈련을 하던 한국산악회 이희성 대장을 비롯한 10명의 대원이 눈사태로 조난을 당했다. 또 1976년 2월 16일 대한산악연맹 히말라야 등반 동기 훈련 중에 설악골 범바위 밑에서 최수남 전재운 송준성이 눈사태로 조난을 당하였으며, 토왕성폭포 빙벽을 오르다 추락하여 조난을 당하는 일도 가끔 발생했다.

이기섭은 속초에서 외과의원을 개업하고 있는데다 산악회 회장이라서 설악산 조난사고가 나면 꼭 설악동으로 달려가곤 했다. 70년대 설악산 적십자구조대를 창설했던 유창서씨는 산악인이 조난사고로 사망하면 이기섭 박사가 쫓아와서 사망진단을 해주었다고 한다. 그래야만 시신을 옮길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기섭은 또 조난사고 소식을 들으면 직접 구조활동에도 참가하였다. 이기섭은 74년 청룡봉사상 수상 소감에서 1969년에 비룡폭포에서 조난된 여학생 2명을 낚시로 건져냈을 때 가슴이 아팠다고 나중에 회고하였다. 산악인들도 설악산에서 다치면 꼭 이기섭의원을 찾았다. 같은 산악인이라 치료비도 받지 않았다.

산악인 이기섭의 가슴에 큰 아픔의 상처로 남은 사건은 1969년 한국산악회 해외원정등반훈련대 조난사고, 소위 10동지 조난사고였다. 죽은 산악인들은 신흥사 보제루 앞에서 열린 훈련 발대식에서 이기섭이 직접 참여하여 무사히 훈련을 마치라고 격려

하고 일일이 등을 다독거려주고 굳은 악수를 건네 준 친동생, 친아들 같은 대원들이었다. 그리고 조난을 당했다는 비보를 가장 먼저 전해 듣고 설악동으로 쫓아간 사람도 바로 그였으며, 보름 동안 설악동에서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구조활동에 매달렸지만 싸늘하게 돌아온 주검을 마지막으로 사망확인한 의사도 그였다. 구조활동을 마치고 모두들 철수한 상황에서 설악산 자락 노루목 언덕에 직접 시신을 묻고 애통해 했던 사람도 그였다. 이기섭은 그들을 설악산 산기슭에 묻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

슴 속에 묻고 평생의 아픔으로 간직하였다. 이기섭은 1993년 설악산에서 작고한 산악인을 추모하는 ‘산악인의 문’을 세우는 소공원 협장에서 1969년 사고 당시의 기억에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 1969년 10동지 장례식 사진 (오른쪽 끝 이기섭)

다음은 당시의 조난사고와 구조활동 전말을 정리한 글이다.

1969년 2월 14일 설악산 죽음의 계곡에서, 해외원정등반을 위한 훈련을 하고 있던 한국산악회(韓國山岳會, 회장 이은상) 대원 10명이 계곡을 덮은 거대한 눈사태로 사고를 당한, 우리나라 등반사상 최대의 조난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산악회는 1970년도에 본격적인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원정등반을 하기로 계획하고, 2월 6일부

터 설악산에서 훈련을 실시하던 중이었다. 2월 6일 신흥사 보제루에서 대원 18명은 한국산악회장 이은상, 설악산악회장 이기섭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결단식을 갖고, 1조 3명씩 A. B. C. D조로 나누고 나머지 6명은 본부조(E조)로 편성하여 훈련에 임하였다.

비선대를 거쳐 천불동계곡으로 들어간 훈련대는 12일에 A조(한덕정, 정현식, 이인정), D조(구인모, 오동석, 강신영), E조(전답, 이재인) 8명과 그 외 촬영차 동행한 국립영화제작소 박태규 등 9명은 주봉인 대청봉 정상에 캠프를 설치하였고, B조(박은명, 변명수, 박명수), C조(오준보, 이만수, 김종찬), E조(대장 이희성, 부대장 김동기, 부대장 남궁기, 임경식) 10명은 죽음의 계곡에 8인용 본부천막과 3인용 천막 2개를 쳐서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였다.

죽음의 계곡에 베이스캠프를 설치한 B조, C조, E조는 13일 빙폭 훈련을 마치고 잠을 자던 중 14일 새벽 계곡을 덮은 거대한 눈사태에 묻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음을 당했다. 이들의 훈련 광경을 촬영하기 위해 일행과 같이 산에 올랐던 국립영화제작소 박태규가 A, D조가 있던 대청봉에서 하산하면서 13일 오전 10시 이곳에 이르렀을 때만 해도, B, C조 대원들은 빙폭 등반훈련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14일 정상에 있던 A, D조 대원들이 훈련교대와 식량보급을 받기 위해 베이스캠프가 있는 죽음의 계곡에 도착했을 때, 거기 있어야 할 대원들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고, 높이 약 20m 가량의 눈이 계곡을 덮고 있었다. 베이스캠프도 눈사태에 묻혀 보이지 않았다. 폭포엔 얼어붙은 로프와 붉은 자일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대청봉에서 내려온 A, D조 대원들은 B, C조 대원들이 혹시 양

폭산장에 대피 중이 아닌가 생각하고 내려가 보았으나 이곳에서도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식량 보급을 받을 길이 없어진 대원들은 비상식량을 꺼내 먹으면서 15, 16일 양일 동안 일대를 살살이 찾아보았으나 허사였고 계속 내리는 폭설로 천불동계곡마저 눈사태로 묻혀 죽음의 계곡 베이스캠프에는 갈 길마저 막혀 버렸다. 할 수 없이 8명의 대원들은 구조를 요청하고자 17일 오전 8시 양 폭산장을 출발하여 오후 3시10분 신흥사에 도착하여 설악산악회장 이기섭에게 사태를 알렸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김준수 속초경찰서장 지휘하에 경찰 구조대를 편성하여 밤에 설악동에 도착했다. 18일에는 한국산악회 구조대(대장 변완철)와 육군 1619부대 구조대(대장 마숙도 중위)가 도착했다. 구조대는 19일 와선대에 전진기지를 설치하고 20일 귀면암까지 전진했으나, 계속된 폭설로 구조를 포기하고 철수하였다. 22일 다시 구조 활동을 재개하고, 23일에는 미군 헬리콥터로 대청봉과 중청봉 중간 지점에 착륙하여 죽음의 계곡으로 접근하려고 했으나 눈사태의 위험으로 그냥 돌아오기도 했다. 계속되는 폭설과 강풍으로 구조 활동은 계속 지연되었다. 25일에는 천종근 강원도 경찰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군·경·민 합동 지휘본부가 새로 설치되어 본격적인 수색 작업이 재개되었다. 26일에는 드디어 죽음의 계곡 현장에 도착하였고 발굴 작업을 시작하였다. 27일에는 그들의 유품이 발견되기 시작하였고 3월 1일 시체가 발견되기 시작하여 3월 3일까지 10구의 시체가 모두 발굴되었다.

시체는 대원들이 결단식을 했던 신흥사 보제루로 옮겨져 3월 5일 합동장례식이 거행되었고 시신은 설악산 입구 노루목 묘지에 안장 되었다. 대장 이희성은 현역 군인인 관계로 국립묘지에 안장

되었고 부대장 김동기 교수도 선영에 안장되었다. 그러므로 노루 목 묘지 2개의 봉분에는 시신없이 유품만 매장되어 있다.

조난자 명단

이희성, 43세, 대장, 육사교수(중령)

김동기, 39세, 부대장, 서울대 공대 교수

남궁기, 40세, 부대장, 한국전력

변명수, 24세, 서울대 문리대

이만수, 22세, 예코클럽

오준보, 24세, 연세대

임경식, 29세, 아카데미사진연구소

박은명, 23세, 육군본부

김종철, 21세, 연세대 수학과 2년

박명수, 21세, 서울대 문리대 4년

- 「한국산악회 해외원정등반훈련대 10명 조난사고」, 『속초시사』, 속초문화원 발간, 2006년

– 겨울등산학교 개최

69년 초유의 조난사고로 한국 산악계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다. 해외원정을 꿈꾸며 내부 역량을 다져왔던 산악계에서는 스스로의 한계를 뼈저리게 절감하고 크게 반성하였으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등반기술의 습득과 학습, 산악 안전 및 구조시스템 마련을 절실히 모색하게 되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산을 찾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당시 산악계가 가진 기술과 정보는 일제 때의 수준을 그대로 유

지하고 있었으며, 산악 안전 및 구조시스템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1970년 사고 이후 대피소 기능을 하는 산장 건립에 대한 여론이 높자 대한산악연맹을 중심으로 한 산악인들의 건의로 정부의 산장 건립계획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의 북한산과 도봉산을 비롯하여 지리산, 설악산 등 전국 유명산에 산악인의 대피와 휴식 기능을 하는 1백여 개의 산장이 지어졌다. 설악산의 경우에는 박경원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1965년에 양폭산장이 들어서 1969년 조난사고 때 베이스캠프 역할을 했으며, 1970년 5월 확정된 정부의 산장건립계획에 따라 권금성산장이 들어섰으며, 대형조난사고가 많았던 가야동 계곡 상류에 1971년 서울산악회 최태묵씨가 자비를 들여 희운각산장을 짓는 등 70년대에 다수의 산장이 들어섰다. 권금성산장의 경우 당시 대청봉 탐방로로 많이 이용된 화재능선코스에서 가장 가까워 이기섭의 주선으로 산악인 유창서씨가 나서서 정부의 지원으로 짓게 되었다.

아울러 1969년 조난사고를 계기로 설악산에서는 민간인 자율로 구조대가 구성되어 활동하다가 1976년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아 대한적십자사 설악산구조대가 창립되어 유창서씨가 초대 구조대장을 맡았다. 1978년 7월에는 한국산악회 설악산 산악구조대가 45명의 대원으로 창립되어 활발한 구조 활동을 펼쳤다.

한편 조난의 위협이 높은 겨울철 등산 기술 습득을 위하여 한국산악회는 1971년 11월 처음으로 알프스 훈련대 8명을 구성하여 ENSA(프랑스 국립스키등산학교)로 3주간 유학을 보냈다. 이들은 몽블랑 산군 일원에서 당시 최신의 빙벽, 설벽 등반 기술 교육을 받고 귀국해 유럽의 정통등반기술을 국내에 전수하는 첫

계기가 되었다. 한국산악회는 다음해에도 다시 2차 알프스 훈련 대를 과견해 2주 동안 교육을 받도록 했다.

국내에서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등산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그 결과 적설량이 가장 많아 빙벽과 설벽훈련이 가능하고, 겨울철 조난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설악산에서 처음으로 겨울등산학교가 개설되었다.

설악산악회와 서울산악회가 공동으로 1971년 1월 7일부터 16일까지 9박10일 동안 설악산에서 겨울등산학교를 개최하였다. 이기섭은 이 학교의 1, 2회 교장을 맡았다. 당시 이기섭의 주선으로 방일영 조선일보 고문을 비롯한 신우회 회원들이 소요자금을 지원했으며, 유창서를 비롯한 전문산악인 강사가 장비사용법과 빙벽등반 기술, 조난과 안전, 의료지식, 기상관측법 등을 가르쳤다. 이기섭은 교장을 맡으면서 의료와 구조 활동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2회 겨울등산학교는 1972년 1월 6일부터 12일까지 설악산에서 진행되었으며, 이때 ENSA를 다녀온 산악인이 강사로 참여해 유럽의 최신 등반기술을 강의하였다. 이기섭이 제주도로 내려간



▲ 한국등산학교 학생들과 함께 (1992년 이후)

이후에도 1974년까지 총 4회를 개최한 겨울등산학교는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고 내용이나 체제에 있어 알차다는 평을 받았지만 4회 이후에 재정난 등으로 더 이상 지속하지

못했다.

결국 겨울등산학교를 운영했던 안광옥, 김경배, 김인섭, 강호기가 주축이 되어 한국등산학교를 만들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기섭이 씨앗을 뿌린 겨울등산학교는 비록 4년의 기간으로 단명했지만 한국등산학교의 산파 역할을 했다.

이기섭은 후에 겨울등산학교가 더 지속되지 못한 것에 많이 아쉬워해 설악산에 상설등산학교를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한다.

– 설악산 케이블카와 제주도행

논란은 있겠지만 설악을 대표하는 관광시설을 손꼽으라면 설악산케이블카를 으뜸으로 들 수 있다. 설악산케이블카는 설악산 소공원에서 해발 670m의 권금성까지 케이블카를 타고 길이 1,128m를 4~5분이면 올라갈 수 있다. 사방이 전망창으로 된 케이블카 안에서는 천불동계곡과 울산바위, 공룡능선 등 외설악 절경과 속초시 전경, 푸른 동해가 한눈에 들어온다. 권금성 아래 깎아지른 절벽 사이로 형형색색 단풍이 물들거나 소복이 하얀 눈이 쌓여 있으면 이곳이 신선이 사는 곳은 아닌가 탄복을 하게 된다. 설악산케이블카는 주말이나 관광 성수기에는 몇 시간 기다렸다가 타야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설악산의 명물이다.

이기섭은 설악관광주식회사 초대사장으로 설악산케이블카를 처음 개설했으며, 그로 인해 잠시 속초를 떠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이기섭은 박정희 대통령의 사위이며 외교관 출신으로 속초에

서 1971년 제8대 국회의원을 했던 설악관광주식회사 한병기 회장과의 인연으로 설악산케이블카 설치에 나서게 되었다. 이기섭은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속초로 내려온 한병기회장과 설악산 개발 구상에 대해 의기투합했다. 케이블카가 들어선다면 설악산 관광도 크게 활기를 띠어 지역경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1969년 11월 18일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설악동 비선여관 앞에서 권금성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그해 12월 15일 설악관광주식회사가 설립되어 회장에 한병기, 사장에 이기섭이 선임되었다. 이기섭은 수차례 문화재위원회에서 반려되었던 인허가를 다시 추스려 결국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내는 등 사업추진에 결속적인 역할을 했다. 당초에는 다음해 공사를 시작하여 그 해 안에 준공하려 했으나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공사기간이 해를 넘겨 다음해인 1971년 7월 31일 준공식을 갖고 8월 1일부터 운행에 들어갔다. 공기가 늘어지면서 공사비도 당초 예상을 벗어나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러나 케이블카는 애초 공사가 부실해서 그런지 자주 고장이 났으며 급기야는 1시간 반 가량 기계고장으로 공중에 매달려 사장인 이기섭이 화가 난 관광객들로부터 멱살까지 잡히는 일까지 터지고 밀았다.¹³⁾

이기섭은 천직인 의사 노릇이나 하지 팔자에 없는 사장은 무슨 사장이냐고 자책하고는 케이블카 영업이 시작되자 얼마 안되

13) 설악산케이블카는 이기섭이 사장을 그만 둔 이후에도 큰 고장사고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1972년 6월 7일 밤 8시쯤 설악산 케이블카가 1백m 위 공중에서 와이어에 감겨 멈춰버렸다. 이 사고로 관광객 25명이 5시간 동안 매달려 있다가 수리 후에 구조되었다. / 조선일보 1972년 6월 9일자 7면 보도

어 사장을 그만 두었다.

설상가상이라고, 자기 밑에 있었던 직원이 후임 사장이 되었는데, 보안대 출신인 그는 전직 사장 이기섭의 비리를 캤다고 뒷조사를 하고 중상모략과 음해를 한 것이다. 그로 인해 각별했던 한병기 회장과의 사이도 크게 벌어지고 말았다.

너무 억울했다. 설악산에 가서 케이블카를 쳐다보려니 불쾌하고 화가 나서 그냥 참고 지낼 수 없었다. 도저히 속초에서 살아갈 자신이 없었다. 집도 팔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다시는 속초로 오지 않으리라’ 굳게 마음을 먹고, 이기섭은 1972년 9월 제주도 서귀포로 떠났다. 이때 그의 나이는 이미 예순에 접어들었다.

나중에 이기섭은 회고의 글에서 “정치하는 사람 주위에서 청탁이나 권력 금력을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지금 이 시각에



▲ 1960년대 중앙동 자택에서 이기섭 부부

도 그런 족속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라며, “자신은 양심껏 정직성실하게 힘써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지탄만 받는 사람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며 스스로를 한탄했다.

서울에서도 사제지간의 신뢰가 깨지면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설악산으로 내려온 이기섭은 10년만에 또다시 중상모략과 음해로 상처를 입고 속초에서도 떠나게 되었다.

결국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오해가 풀어져 한 회장은 이기섭에게 사과하고 다시 속초로 와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이기섭은 떠난 지 2년 4개월만인 1975년 1월에 다시 속초로 돌아왔다.

제주도로 가기 전인 1972년 초 이기섭은 설악산을 아끼는 동지들과 함께 설악의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악자연보호협회’

를 창립하여 등산객에게 ‘내집 정원과 같이 내 마음과 같이 자연을 사랑하자’는 인쇄물을 배포하며 캠페인을 벌였다.



▲ 제주도립병원서귀분원장 시절

- 제주도 서귀분원장 시절

1972년 9월, 이기섭은 제주도 서귀포에 위치한 제주도립병원 서귀분원장으로 취임했다.

서귀포는 이기섭이 1·4 후퇴 이후에 피난민 치료를 위해

몇 개월 동안 머물렀던 곳이다. 제주도에는 1961년 서울대 법대생 조난 구조를 위해 당시 홍종인 한국산악회장과 함께 제주도로 와서 구조 활동을 하기도 했다.

1·4 후퇴 당시에는 도로가 제대로 포장되지 않아 제주도에서 서귀포까지 꼬박 6시간이 걸리곤 했고 굴밭도 서귀포 서홍읍에 일본인이 하다 간 몇천 평만 있었다. 그러나 만 20년만에 제주도는 놀랄 만큼 변해 있었다. 제주군이 시로 승격되고 시가지는 말끔히 포장되어 있고, 고층건물이 줄지어 늘어서 있고, 가로수는 아열대지방 나무로 이국에 온 것 같았다. 제주도 일주도로도 완전히 포장되어 제주시에서 승용차로 50분이면 서귀포에 도착했다. 서귀포 근처에는 밀감밭 일색이었고 전국적으로 소득이 아주 높은 동네가 되었다.

하루는 당시 제주도 교육감이었던 김인수씨가 1·4후퇴 당시 복부 타박상을 입어 적십자병원에서 이박사의 도움으로 수술을 받고 구사일생으로 회생하였다고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이기섭은 오토바이 사고로 두개골절을 당한 환자를 응급조치하여 서울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 완치시킨 적도 있었으며, 교통사고로 가망이 없다고 진단을 받고 집에서 죽을 때만 기다리던 환자를 왕진하여 병원으로 데리고 와 기관절개와 산소호흡 등 구급조치 후 세브란스병원으로 이동하여 회생시키기도 했다. 이럴 때 그는 의사로서 큰 보람을 느꼈다.

1973년과 1974년 두 차례에 걸쳐 이기섭은 조선일보 닥터코너에 제주도립병원 서귀분원장의 자격으로 성인병 예방과 정년 이후의 노인건강에 대한 의학칼럼을 쓰기도 했다. 이때부터 이기섭은 노인 건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기섭은 서귀포에 와서도 지역 산악회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 1970년대 김옥길 총장과 함께

자주 한라산 등산을 즐겼다. 서귀포산악회와 함께 한라산 북벽에 등산로를 개척하였고, ‘윗세오름’ 밑 구상나무 숲에서 샘을 찾아내 ‘백록샘’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또 서귀포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제일횡단도로 ‘성판악’에서 자연보호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이기섭은 제주도에 있던 1974년 2월 27일 조선일보사로부터 조난자 구조에 공헌하는 등 사회봉사에 헌신했다고 하여 청룡봉 사상 장려상을 수상했다.

서울산악회 회장 때는 회원들과 같이 힘한 등산로로 자재를 날라 북한장 백운산장을 건립한 일을 비롯하여 양폭 - 대청봉, 대청봉 - 오색리 등 5개 등산로 58km 개척, 설악산케이블카 가설, 겨울등산학교 설립, 19명의 조난자 구출 등 혼신적인 산악구조의 공을 인정받았다.

청룡봉사상 수상이 계기가 되어 이기섭은 속초와의 인연의 끈을 다시 잇게 된다. 청룡봉사상 수상 후 이기섭은 기독교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학생들을 위한 산간학교와 노인들을 위한 노인병원을 세우고 싶다”고 밝혔는데, 이화여대 김옥길 총장이 방송을 듣고 자기도 같은 생각이라고 하여 사업계획을 논의하게 되었다.

이에 앞서 김옥길 이대총장은 이기섭이 속초에 있을 때 이대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기섭은 속초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수락하겠지만 서울 가서 해야 하는 일이라면 못한다고 거절하였다고 한다.

이기섭과 김옥길 총장은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1년에 일정 기간 들어와서 공부를 하도록 설악산에 이화여대 분교 형태의 자연학습원을 운영하고, 설악산 기슭의 좋은 자연환경에서 노인들이 치료와 휴양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노인병원도 짓기로 했다. 자연학습원에서는 기숙사를 지어 학생들이 체류하면서 오전이면 교양학과를 배우고 오후에는 직접 산으로 가 자연보호에 대한 현장 교육을 할 계획도 세웠다.

제주도에서 속초로 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야기가 급진전되어 1974년 설악산 뒷골에 2만여평 규모의 산간학교와 노인병원 부지로 마련하게 되었다. 당시 관련법규 등으로 명의를 이기섭과 부인 함동실 이름으로 구입하게 되었다.

- 속초시보건소장과 도립병원 외과과장

이기섭은 1975년 1월 다시 속초로 돌아왔다. 속초를 떠나기

전에 시청 옆 자택을 팔아버려 동명동 KBS방송국 인근 언덕에 새로 집을 장만하였다. 여기는 시원하게 펼쳐진 외설악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위치였다.

속초로 돌아온 이기섭은 속초시보건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당시 보건소장은 3급을 사무관급으로 월급은 일반개인병원 수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낮은 수준이었다. 이기섭은 지역사회에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보건소장 일을 마다하지 않고 맡았다.

보건소장으로 근무하던 1977년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보호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사업시행에 대해 의견들이 분분했다. 이에 대해 이기섭은 “의료보호 대상자 선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여유 있는 사람이 많이 섞여 있다”며, “앞으로의 의료보호정책이 가벼운 병의 치료는 본인 부담을 높이고 수술 따위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영세민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본인 부담률을 낮추었으면 어떨까 한다”고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예순을 넘긴 이기섭은 속초에 다시 돌아와서도 아침에 일어나면 테니스를 1시간 정도 치고 출근하고, 주말이면 설악산을 오



▲ 속초시보건소장 시절 직원들과 함께

르는 등 젊은 사람
못지 않게 활달하게
생활했다. 10년 넘
게 오르는 산이지만
매번 새로움을 느꼈
다. 나이가 들면서
는 산을 오르는 시
간이 자신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는 사색

의 시간이 되었다.

“산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젊었을 때는 무거운 배낭을 메고 빨리 오르는 것이 자랑이었지만, 이젠 산을 음미하면서 천천히 오릅니다. 나도 산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데 나무 중에도 잡목이 아니라 좋은 목재로 쓰이는 주목처럼 되었으면 합니다.”¹⁴⁾

1976년경 이기섭은 당시 신문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자연보호운동에 대한 소견을 내놓았다.

“72년 봄 설악자연보호협회를 만들어 신문에 글도 쓰고 계몽운동도 펴봤지요. 그때 자연보호 문제를 교과서에도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저는 이렇게 봐요. 자연경관지역을 대체로 일반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위락시설구역으로 나누어 보호해야 된다고요. 외국 같은 데서는 전문적인 등산 애호가들에게 일반등산의 탈선을 적발, 고발할 수 있는 카드 같은 걸 준다고 들었어요.”

- 노인병원 건립의 꿈

이기섭은 보건소장으로 지내면서 자연학습원과 노인병원 설립을 추진하려 했으나 핏골이 국립공원 D지구로 묶이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혹 국립공원 계획이 바뀌지는 않을까 기다렸으나 결국 개발이 불가능해지자 작고하기 7, 8년 전쯤에 땅을 다시 이화여대로 돌려주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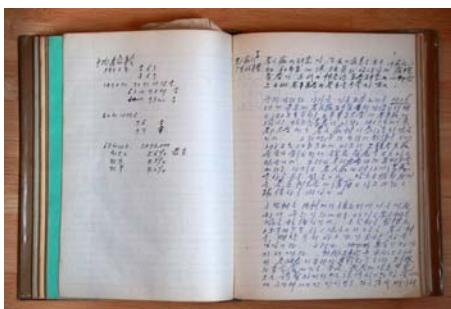
당시 핏골에 세우고자 했던 노인병원은 어떤 모델이었을까.

14) 1976년 9월 29일 서울신문 「시골은 여전히 아름답다」 인터뷰 기사 중에서

그는 너싱홈(노인의집)을 손꼽았다. 너싱홈이라면 치매, 중풍 등 만성질환 노인들을 위한 전문요양시설로 병원과 가정의 중간형태의 시설이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시설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서울 은평구에 처음으로 너싱홈 개념이 도입된 요양시설이 들어섰다고 한다. 이기섭은 20여년 전에 이런 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도입을 추진하였다. 이기섭은 자신이 생각하는 너싱홈(노인의집)과 노인병 치료, 본인의 희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견을 밝혔다.

“양로원에 병원이 달린 것을 너싱홈이라고 하지요. 일본만 해도 노인병을 치료하는 너싱홈이 성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에 대해 아직 무관심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 노인병을 치료하면서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노인병에 대한 기초상식을 강습하면 현대의 핵가족 속에서 노인이 외롭게 소외되지는 않을 겁니다.



▲ 이기섭의 노트. 노인병(老人病)과 보건의학 등에 대한 내용이 빽빽하게 차 있다. 죽기 전까지도 이기섭은 의학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공부했다고 한다.

공기좋고 조용한 산속에
너싱홈을 설치하려는 것인데
그게 안된다 해도 내 나름
대로 설악동에 자그만 진료
실을 마련해서 노인병 치료
에 힘을 쏟겠어요. 그렇게
여생을 살다 설악산에 묻히
고 싶습니다.”¹⁵⁾

이기섭은 속초시보건
소장을 그만두고 1978년

15) 1976년 9월 29일 서울신문 「시골은 여전히 아름답다」 인터뷰 기사 중
에서

12월 예순여섯의 나이에 속초도립병원 외과과장으로 근무하여 1982년 10월 일흔의 나이에 공직에서 은퇴하였다. 속초도립병원에서는 무료로 노인건강 상담실을 개설해 운영하기도 했으며, 퇴임 후 여생을 노인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퇴임을 하고 난 1982년 11월 중순에는 직접 미국과 일본을 방문하여 노인복지와 요양, 병원시설을 둘러보고 노인병원을 자을 자신의 구상을 구체화할 자료들도 한 아름 챙겨왔다.

미국에서는 ‘선시티’라는 단독 주택형 노인촌과 ‘실비치 레저 월드’라는 아파트형 노인촌을 방문해 시설 운영을 살펴보고 실버타운 설계도를 비롯한 관련 자료를 직접 수집해 왔다.

선시티는 1962년에 건설되어 60세 이상의 노인들만이 모여 각 기집 한 채씩을 가지고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는 곳으로 모든 시설이 노인들이 살기 편하게 갖추어져 있고 의무실이 있어 24시간 응급환자를 위해 개방해 놓고 있었고, 종합병원에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주말이면 찾아오는 자녀와 손주 손녀들을 만나기도 하면서 즐거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실비치 레저월드는 55세 이상이면 누구나 거주할 수 있는 1만 명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형 노인촌으로 골프장과 극장, 야외 실



▲ 속초도립병원 근무 당시 이기섭, 첫번 째줄 가운데.



▲ 속초도립병원 근무 당시 이기섭(오른쪽)

내수영장, 백화점, 화랑, 음악실, 목공실, 도자기실, 봉제 및 자수실, 이용실, 헬스클럽, 오락실과 스포츠시설 등이 갖춰져 있으며, 여행용 차량도 준비되어 있었다. 의무실은 24시간 개방되어 있으며, 응급환자를 위한 앰뷸런스가 대기 상태에 있었다.

일본에서는 도쿄 스기나미쿠에 있는 노인전문병원을 방문하여 시설운영을 살펴보고 왔다. 이 병원은 관동대지진 이후 자활능력이 없는 노인들을 위해 1925년에 사회복지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병원이다. 1975년 10월에 근대적으로 증·개축하여 최신 설비와 환경을 갖추고 안정적인 간호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병원에는 노인의 건강상태와 지원서비스, 소득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복지, 의료시설이 갖춰져 있었다. 이기섭은 탐방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일본에서 노인병과 관련한 의학서적과 잡지를 주문해 꾸준히 탐독하였다.

이러한 해외탐방 및 노인복지와 의료에 대한 연구를 근거로 이기섭은 1984년 9월 ‘의협신보’ 기고를 통하여 미국과 일본, 북유럽의 스웨덴, 덴마크의 노인의료서비스와 복지시설 현황을 소개하고 우리나라로 빨리 실정에 맞는 노인의료복지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노인전문병원은 한 곳도 없고 복지시설이라면 무의탁 노인을 돌보는 양로원만 있을 때였다.

이기섭은 노인병원 건립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너싱홈(노인의집)을 지으려고 핏골 부지 외에 상도문에 3천 평 규모의 땅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도 여의치 않자 죽기 전에 자신이 다니던 속초감리교회에 무상으로 기증하였다. 교회에서 나서서 이 땅에 노인복지시설을 지어달라고 부탁했다.

이기섭은 이 무렵 농촌지역, 특히 산간벽지는 교통이나 경제

적인 문제로 제대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고 발병하여도 초기에 찾아오지 않고 병이 심해져 찾아와 치료가 더욱 어렵다고 안타까워했다.

1976년 속초 도립병원에 있을 때였다. 양양에 사는 20대 후반의 청년이 배를 움켜쥐고 들어왔다. 복막염이었는데 강릉의료원에서 수술을 받으려 했는데 보증금 10만원이 없어서 수술을 못했다는 것이다. 이기섭이 수술을 했지만 때를 놓쳐 이를 만에 죽고 말았다. 만약 맹장염, 충수염 단계에서 병원에 찾아왔다면 어렵지 않게 완쾌했겠지만, 때를 놓쳐 복막염이 되면 치료가 어려워진다. 이기섭은 질병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며 의료사각지대인 농촌지역에 정기적인 순회 진료가 꼭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돈 10만원이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 조차 잃어야 하는 비참한 농촌현실을 절감하고 이기섭은 이때부터 무의총 예방 진료를 결심하게 됐다.

1982년 2월 23일자 강원일보에 이기섭은 「의료 40년」이라는 기고를 마무리하는 글을 통해 도립병원과 보건소 등에서 10여 년 간의 공직의료생활을 마무리하는 소감을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도립병원 보건소 등 공직생활 10여년에 얹은 소감은 보건행정에 있어서 너무 양(量)에만 치우치고 질(質)적으로는 소홀히 하는 감이 있다. 또 의료시혜 대상자의 선정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혜택을 받아야할 사람이 못 받고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을 보게 된다. 구미제국과는 역사적 배경도 다르고 정치적 형태도 같지 않으므로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해온 몇 가지 시책이마나 앞으로는 서로 연계를 가지고 체계화시켜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시골 사람들은 병이 발생하여도 초기에 찾아오지 않고 병이 심해져야 비로소 의사를 찾아오는 사람이 많다. 특히 산간벽지에 갈수록 그러하다. 거기에는 교통의 불편과 경제적 문제도 있다고 본다. 그래서 不定期的인 무의촌 진료는 止揚하고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의 인원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순회 진료를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끝으로 남은 餘生을 老人們을 위해 봉사하고 싶은 생각이다.

노인들을 위하여, 특히 의료사각지대인 산간벽지의 노인들을 위하여 여생을 보내겠다는 이기섭의 의지는 또 다른 새로운 인생길을 예고하였다.

– 21년 동안 오지마을 의료봉사

양양군 서면 서림리. 마치 아홉 마리의 용이 꿈틀거리는 형상처럼 굽이 굽이 휘어진 고갯길이라 해서 이름 지어진 구룡령 길 중턱에 자리 잡은 이 마을은 양양에서도 오지 중의 오지 마을이었다. 양양에서 홍천을 잇는 46호선 국도 구룡령 길은 백두대간을 넘나드는 국도 중에서도 가장 늦은 1995년이 되어서야 아스팔트 길이 개통되었다. 그전에는 차량 두 대가 엇갈려 지나가기도 어렵고 포장도 안 된 거친 길이라 덜커덕거리고 먼지가 뾰얗게 일어나는 길이었다. 양양읍에서 버스가 하루에 두세 번 들어오기 때문에 차를 놓치면 몇 시간째 오도 가도 못하고 기다려야 했다.

평소에는 낯선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이 마을에 1983년¹⁶⁾ 어느 날 머리가 하얀 노인네가 마을을 찾아왔다. 노인은 자신은

속초에서 보건소장과 속초도립병원 의사로 있다가 은퇴를 한 이 기섭이라고 소개하고 보건진료소가 생겨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해서 들렸다고 했다. 그 노인은 마을에 노인들은 얼마나 사는지, 아프면 어디로 가는지, 보건진료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그리고 자신은 은퇴했지만 아직 힘이 있어 도움이 필요하다면 정기적으로 진료를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마을 주민들은 와서 진찰하고 도와준다면 고맙기야 하겠지만, 마을이 워낙 외딴 곳에 있어 찾아오기도 쉽지 않은데 오면 몇 번이나 찾아올까 싶었다. 당시 속초에서 양양읍까지, 다시 양양읍에서 하루에 몇 차례 없는 버스 시간에 맞추어 비포장길로 마을에 들어오려면 2시간은 족히 걸리는 시절이었다. 감히 이 마을까지 찾아와 진료를 한다는 건 생각지도 못했다. 그런데 마을에 누구 하나 아는 사람도 없고, 젊은 사람도 아닌 칠순의 노인네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진료를 하겠다고 하니 마을주민은 믿기지가 않았다. 서림리 마을 주민들과 이기섭의 첫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양양군 서면 서림리 마을에는 1981년에 보건진료소가 들어섰다. 전국적으로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농촌지역에 보건진료소가 들어서면서 이곳에도 보건진료소가 들어섰다. 당시 인구 1천명 이상이 되어야 보건진료소 1개소가 들어설 수 있었다. 서림리, 영덕리, 황이리, 갈천리 4개 마을의 주민이 9백여 명으로 자격이 안 되는 걸 마을주민들이 군수를 졸라서 어렵게 보건진료소를 세웠다. 그러나 당시에 이 산간벽지에 와서 근무하겠다는 보건

16) 이기섭이 처음 무의총진료를 시작한 연도에 대해 보도에 따라 연도가 틀리지만 마을주민으로부터 직접 확인한 결과 도립병원을 그만둔 다음 해부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서림리 마을에서 진료하는 이기섭
(1984.5.1)



▲ 서림리 마을에서 인터뷰



◀ 서림리 마을주민들과 함께



▲ 2000년 3월 서림보건진료소협의회에서
이기섭에게 수여한 감사패



▲ 1999년 2월 현서노인회에서 수여한 감
사패



▲ 이기섭이 사용하던 진료가방, 속초시
립박물관 소장



▲ 이기섭이 사용하던 진료가방과 청진기, 혈압계, 구강치료기 등, 속초시립박물관 소장

진료소장이 없어서 주민들과 행정에서는 애를 많이 태웠다. 보건진료소에서는 진료와 간단한 응급치료, 투약, 보건 예방과 주민건강관리 등 주민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하지만,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진찰과 의료행위는 불가능했다.

이기섭은 매주 목요일 아침 일찍 왕진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시내버스를 타고 양양읍으로 나가, 다시 갈천행 버스를 타고 서림리 마을에 내렸다. 먼저 보건진료소를 들렸다. 보건진료소에는 속초에서 의사가 의료봉사를 온다는 소식에 마을주민 10여명이 찾아와 미리 기다리고 있었다. 보건진료소장의 도움으로 마을 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진료에 들어갔다.

무릎 관절이 안 좋아 걷기 불편한 노인들도 있고, 폐결핵을 앓고 난 이후 몸이 안 좋은 주민도 있다. 평소 술을 좋아해 술병에 걸린 할아버지, 골다공증에 걸린 중년 아낙도 찾아왔다. 진찰 후 처방전을 써주기도 하고 가져온 약을 나눠주기도 했다. 이기섭은 진료 때 조금 시간이 걸려도 이것저것 찬찬히 이야기를 나누고 환자마다 병 상태와 상담 내용을 노트에 꼼꼼히 적었다. 한번의 진찰과 처방으로 끝나는 환자는 그리 많지 않고 지속적인 관리와 상담이 필요한 만성질환 환자들이 많았다.

점심 무렵에 보건진료소에 찾아온 주민들 진료가 다 끝났다. 이기섭은 미리 준비해 온 점심을 꺼냈다. 계란 하나에 빵 하나. 단출한 점심 식사가 안쓰러워 마을 주민들이 점심이라도 대접하

려 들면 “소식(小食)을 하기 때문에 이걸로 충분하다”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마을에 이리저리 폐를 끼치게 되면 다음에는 찾아오기가 힘들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점심 식사 후 잠깐 휴식을 취하고 마을을 한 바퀴 돌았다. 거동이 불편해 보건진료소로 나오지 못한 환자들을 직접 방문했다. 마을 노인회관에도 들러 노인들과 이야기도 나눴다. 혼자 외딴 집에 살고 있는 노인들은 일부러 들러 불편한 건 없는지 필요한 건 없는지 이야기를 나눴다. 버스 오는 시간까지 시간이 남는다 싶으면 마을 앞 개울가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 버스를 타고 양양읍을 거쳐 속초로 돌아오면 하루해가 저물었다.

이기섭이 할 일은 목요일 서림리 방문 진료로 끝나는 건 아니었다. 진찰 환자 중에서 병원에 가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도 직접 챙겼다. 직접 예전에 근무했던 속초도립병원에 전화해서 진료약속을 잡고 병원으로 와서 안내를 해주곤 했다. 20년을 다니다 보니 2대에 걸쳐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해 준 경우도 있고, 마을 사람들이 자식들 취직 청탁을 하면 마다하지 않고 직장을 구해준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혼자 사는 노인은 매번 찾아가 진료도 하고, 자신이 입던 옷가지나 물품도 갖다 주곤 했다. 또 시력이 안 좋은 60세 이상의 노인 2백여 명에게 시력검사를 해 안경을 맞춰 주기도 했으며, 좋은 영양제가 생기면 가져다 나눠 주기도 했다.

1983년부터 거동이 불편해져 진료가 어려워진 2004년까지 꼬박 21년 동안 이기섭은 매주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서림리 마을을 찾아갔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주민들도 이기섭의 사심 없는 의료 활동에 감동했다. 마을 사람들은 칠순이 넘는 노의사 이기섭을 마치 친아버지, 친형처럼 믿고 따랐으며, 마을 경조사

에도 초대하고 주례도 부탁했다.

이기섭은 양양 서림리를 시작으로 초창기에는 양양 석교리, 어성전리, 고성 진부령 흘리도 무의촌진료를 다니기도 했으나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 서림리만큼은 마을 사람들과 정이 많이 들어 나이 아흔이 넘어 진료가 어려운 말년에도 사람들이 보고 싶어 꼬박꼬박 마을을 찾아가곤 했다. 의사와 환자 사이가 아니라 마치 친부자지간이나 친형제지간처럼 이기섭과 서림리 마을사람들은 함께 어울려 기뻐하고 슬퍼하며 20년을 지냈다.

이기섭은 무의촌 진료봉사를 위해 1986년에는 가족과 친척으로 구성된 ‘영북농어촌보건의료사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도 했다. 이기섭은 자신의 생일에 모인 자녀들과 협의하여 자신의 무의촌 진료와 농촌지역의 보건진료소를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기구를 만들었다. 치과의사인 사촌동생 2명, 의사인 셋째 딸 규옥과 사업하는 아들 규형, 4명의 사위, 조카 및 조카며느리 이은순(부평서 이비인후과의원 개원) 등 15명의 가족을 임원으로 「영북농어촌보건의료사업협의회」를 구성해 1986년 1월부터 운영하였다. 그래서 가족들이 낸 회비로 약을 사고, 보건진료소에 필요한 비품도 준비하고, 수도·전기료 등 보건진료소 경상비도 보조했다. 노인들에게 나눠준 안경 2백여개도 이 조직에서 후원했다.

훗날 이기섭은 무의촌 진료에 대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는 게 의사로서는 당연한 일”이라며, “어렸을 때 제대로 된 진료 한번 받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과 ‘항상 봉사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신 김활란 총장의 말씀에 따라 무의촌 진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기섭은 무의촌 진료봉사는 다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다음과 같이 소감을 피력했다.

“무료 진료 활동을 하면서 저 역시 배우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 마음이 너무 즐겁고, 그들을 찾아가는 길목의 산이며 물을 통해 사계절의 변화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사람과 자연이 저를 치유해주는 힘입니다.”¹⁷⁾

이기섭은 무의총 의료봉사의 공으로 2000년 5월 4일 중외제약과 의학신문이 공동으로 수상하는 중외박애상을 받았으며, 다음 해인 2001년 3월에는 보령제약 의료봉사상을, 4월 보건의 날에는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 민간주도 설악제위원장

이기섭은 1989년 민간주도로 바뀐 제24회 설악제위원장으로 선출되어 1992년까지 네 번의 설악제를 치렀다. 처음 설악제를 만드는데 함께 했던 이기섭이 축제 위원장이 되기까지 설악제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 왔다.

1966년 10월 1일 설악제는 지역 예술인과 산악인이 주축이 되어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3회 대회 이후에는 행사 규모가 차츰 커지며 그 주도권이 자연스럽게 예총을 떠나게 되었고, 대신 산악인들이 설악제를 전국 최고의 산악행사로 이끌었다. 그러나 제7회부터 설악제는 속초시민의 행사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관주도로 돌아섰고, 제17회부터는 시민의 날 행사와 함께 실시해 산악 및 예술행사가 축소되었다. 대신 정부의 민속예술 계승 발전정책에 힘입어 지역의 민속을 발굴해 선보이는 장이 되기도

17) 『보령의료봉사상 수상자모음집』 이기섭 편 「설악산 자락에 ‘사랑의 情’ 가득 이젠 한가족…」 중에서



▲ 설악제위원장 시절 인터뷰



▲ 1990.11.30 제25회 설악제위원회 회의
장에서



▲ 설악제위원장 시절 안광옥씨에게 감사
패 전달



▲ 김종록 제28회 설악제위원장과 함께

했다.

시민의 날 행사와 함께 설악제를 치르게 되자 자연히 체육행사에 치중, 동별체육대회가 과열되는 현상까지 빚었던 때도 있었다. 설악제가 지역의 민속예술을 계승하고 시민들의 화합축제로 거듭나야



▲ 설악제위원장 시절

한다는 여론이 일기 시작해 제24회 때부터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행사를 전환했으며, 민선 축제위원장에 이기섭이 선출되었다.¹⁸⁾



▲ 설악산악연맹 고문 시절 설악산에서



▲ 1992.7.15 설악산악연맹 발대식에서 (왼쪽으로부터 백영일, 이기섭, 이기을, 최이권)



▲ 1992.7.15 설악산악연맹 발대식 후 속초시내에서 자연보호캠페인을 벌이는 이기섭



▲ 설악산악연맹 현판식에서(좌로부터 이무, 김종록, 이기을, 이기섭, 백영일, 지일권, 유창서)

이기섭은 제24회 설악제 때 설악산악회에서 등산대회를 맡지 못하게 되자 설악제위원회에서 등산대회를 직접 주관하여 치렀다. 1990년 설악제의 여러 산악회가 참여하는 설악산악연맹이 창립되어 제25회 설악제 때부터 등산대회를 맡아 진행하였다.

18) 1994년 10월 6일자 발행된 「속초 설악제 소식지」에서 인용 요약

이기섭은 위원장을 그만두고도 설악제 기금을 모으는데 힘을 쏟았다.

이러한 활동으로 이기섭은 1994년에는 속초시민상을 수상했다.

한편 설악제는 1995년 30회에 와서 설악문화제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설악제라는 제례행사의 이름이 걸맞지 않아 문화행사로 성격을 분명히 하자는 의도였다. 그러나 이기섭은 설악제는 당초 산악인의 축제였는데 축제가 변질되고 있다고 축제명 변경을 유감스러워 했다. 그는 문화행사나 시민화합 행사는 다른 날을 잡아서 개최하고 설악제는 산악인 중심의 축제로 계속 치러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으며 명칭 변경에 반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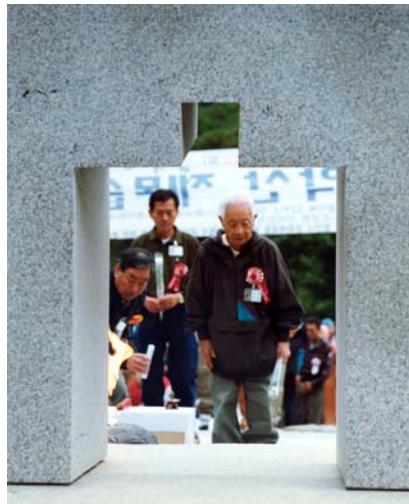
이기섭은 여든 나이에 접어든 1990년대 초반까지 한 달에 한번씩은 꼭 산행을 다녔으며, 등산 중에 낙반사고로 다친 사람을 치료하고 보살피도 했다.

– 산악인 추모비 ‘산악인의 문’

이기섭은 지난 1969년 조난사고로 자신이 지도하던 아끼던 후배 산악인 10명을 설악산 기슭에 묻고 난 이후에 이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 기상을 드높이기 위한 상징조형물을 설악산에 세우기를 간절히 희망해 왔다. 이러한 그의 희망은 1993년 ‘산악인의 문’ 건립으로 실현되었다.

1993년 11월 3일 설악동 소공원에서 ‘산악인의 문’ 제막식 및 ‘산악인의 영원한 불꽃 점화식’이 열렸다.

‘산악인의 문’은 설악산을 사랑하다 설악산 계곡에서 숨져간 산악인들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고 영혼을 길이 추모하고, 아울



▲ 산악인의 문 제막식에서, 원쪽으로부터
이인정, 박영석, 이기섭



▲ 산악인의 영원한 불꽃 점화식



▲ 산악인의 문

러 산악인의 우의를 영원히 다지기 위해 세워졌다. 높이 3.5m, 폭 4.5m, 24t의 자연석(화강암)에 산의 형상과 산악인의 모습을 새겨 넣었다. 왼쪽에는 자연으로 들어가는 문을 조각,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형상화했으며, 앞 기단에는 꺼지지 않는 ‘산악인의 불꽃’이 타오르게 했다.

이 산악인의 문 건립을 위해 설악산악연맹 고문을 맡은 이기섭이 추진위원장을 맡았으며, 속초에서는 설악산악연맹(회장 최이권), 서울에서는 한국대학산악연맹 이인정 회장을 비롯한 산악인들이 함께 건립사업에 힘을 모았다. 조형물은 한국조각협회장을 맡고 있던 조각가 연제동씨가 제작했다.

추진위원장은 이기섭은 전국의 산악인들에게 이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참을 호소했으며, 상징물 도안과 부지선정에도 직접 발 벗고 나섰다. ‘산악인의 문’이 들어설 자리가 천연기념물 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있는데다 조계종 신흥사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문화재 관리국, 국립공원관리공단, 신흥사를 오가며 건립허가를 받았다. 건립비용은 속초의 지인들과 전국의 산악인들로부터 십시일반 모금하였다. 이기섭은 이날 행사장에서 “이미 오래전에 했어야 하는 일인데 너무 늦은 감이 있어 죄송스럽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기섭은 당시 신문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산악인의 문 건립의 의의를 밝혔다.

“우리나라 산악인들이 세계의 거봉(巨峰)에 올라 국위를 선양하는 일 뒤엔 항상 말없이 우리에게 격려를 보내주는 산악인 선배들의 희생이 밑거름이 되었죠.

해외원정의 산실이었던 산악의 눈 덮힌 골짜기와 빙벽에서 산악

발전을 위해 훈련하다 유명(幽明)을 달리한 원로산악인과 설악의 골짜기에 묻힌 여러 악우(嶽友)들의 숭고한 정신을 길이 계승키 위해 산악인의 문과 산악인의 영원한 불꽃을 세우게 되었습니다.”¹⁹⁾

‘산악인의 문’은 매년 열리는 설악문화제 등반대회에 앞서 산악인 추도식이 열려 추모 분향 및 현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설악산을 찾는 산악인들이 들렀다 가는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다.

– 국립공원 안에 세워진 기념비

한 사람의 일생에 좋은 모습만 있을 수 있을까. 어떨 때는 실 수도 있고 잘못된 일도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아무리 좋은 일도 관점을 달리하면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는 일이다.

젊은 시절 이기섭이 추진했던 설악산 케이블카 가설 등 설악산개발은 또 다른 시각에서는 설악산 환경을 훼손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또한 제1회 설악제에서 등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전국적인 산악인의 축제로 설악제를 키운 공적도 평가받지만 설악제에서 지역 문화예술계의 소외 등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일부의 비판도 받아야 했다. 더구나 이기섭이 설악제를 처음 만들었다고 알려지는 바람에, 처음 설악제를 주관했던 지역예술계에서는 ‘설악제를 자기의 공으로 돌린다’며 이 기섭을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경우도 있었다. 산악계의 원로로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에 후배들과 의견이 맞지 않아 갈등을 빚었던 경우도 다수 있었으며 서로 야속해 하는 상황이 연출되

19) 영북신문 1993년 11월 15일 7면, 「산악인의 문 건립한 이기섭옹(81)」 인터뷰 중에서

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큰 오점으로 남을 일은 아니다. 설악산의 개발과 환경보존의 문제는 시대적 상황에서 바뀐 가치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산악인 후배들, 지역 예술계와의 갈등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빚어지는 불가피한 작은 소동으로 생각할 수 있다. 특히 60~70년대 우리사회는 수평적인 사고보다는 수직적인 사고가 지배했고, 민주적인 의사결정보다는 일사분란한 사업추진이 통하는 시대였다. 아울러 명망가 중심으로 사업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갈등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악계를 찬반의 논쟁으로 몰아넣은 2004년 ‘설악산 소공원 송덕비 건립 논란’은 이기섭의 평소의 신념과도 배치되는 일로 어쩌면 일생의 한 오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한 사람의 일생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를 위해 당시 상황과 논쟁을 소개한다.

2004년 1월 18일 일요일 오전 10시에 설악산 소공원 ‘산악인의 문’ 옆에서는 이기섭과 한국등산학교 교장을 지낸 권효섭씨의 얼굴 형상을 새겨넣은 기념비 제막식이 있었다. 이 자리는 한국산악동지회와 한국등산학교장의 주선으로 마련되어 전국의 산악인들과 지역인사들이 함께 참석했다. 이 기념비가 들어서자 산악계에서는 찬반의 의견이 분분하였다.

“국립공원 안에 있는 산악인 추모 기념물 옆에 특정개인의 공적을 기리는 송덕비를, 그것도 살아 생전에 세우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의견과 “아흔이 넘어 후배들을 위해 애쓰시는 어른께 살아 계실 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죽은 후에 모시는 것과 뭐가 그리 큰 차이냐”는 의견으로 찬반이 나뉘기도 했다.

당시 기념비에 대해 제기된 반대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기섭은 설악산과 깊은 인연이 있어 이해하지만 한국등산학교 교장을 지낸 권효섭씨는 설악산과 인연이 없는 사람이다. ▲이기섭의 공적은 인정하지만 기념비는 사후에 그를 흡모하는 사람들이 뜻을 기려 세우는 것이지, 살아 생전에 송덕비를 세우는 일은 오히려 그 사람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지역의 산악인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내 산악인 몇몇이 개인적으로 나서서 세웠다. ▲이기섭은 1993년 산악인을 추모하는 ‘산악인의 문’을 세운 장본인인데, 그 옆에 그를 기념하는 흥상을 세우는 일은 오히려 이기섭과 그가 만든 ‘산악인의 문’을 욕되게 한다. ▲국립공원 설악산은 특정 개인의 사유물일 수 없으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개인 공덕비가 들어설지 모르는 일이다.

속초에서는 설악산악연맹의 젊은 산악인들을 중심으로 등산대회 때 철거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반발이 확산되었으며, 「월간 산」 2004년 2월호에는 ‘때와 자리 잘못 선택한 원로산악인 송덕비’라는 제목으로 “두 비석 모두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난 난센스가 되고 말았으니 원래 의미를 되살리려면 하루 빨리 다른 자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고 비판하는 칼럼이 실리기도 했다. 한국등산학교 홈페이지 등에서도 뜨거운 찬반의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렇게 논란이 확산되자 당초 기념비 설치를 허가했던 국립공원측은 2월 13일 국립공원 안에 특정개인의 기념물을 설치할 수 없다며 기념비를 철거하여 논란을 종식시켰다.

이기섭은 기념비를 세우는 계획에 처음부터 반대했다고 하지만, 이 기념비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산악계의 찬반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어 큰 상처를 입게 되었다.

- 그칠 줄 모르는 봉사 활동

이기섭은 1994년 여름 82세의 나이에 우리나라 원로산악인인 손기정(당시 82세), 백남홍(당시 81세)과 함께 백두산에 올랐다. 당시 팔순의 노익장들이 몰아치는 비바람을 무릅쓰고 백두산을 올랐던 일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또 1994년 가을 무렵 이기섭은 지역유지들과 함께 백담사를 거쳐 대청봉을 넘었는데 그때도 젊은 사람 못지 않게 산을 잘 탔다. 봉정암 근처에서 동행인 이영선씨(당시 63세)가 언덕에서 미끄러져 다쳤을 때, 평소에 산에 다닐 때 꼭 구급약을 갖고 다니던 이기섭은 현장에서 붕대를 감아주고 응급치료를 해 주었다. 대피소에서 밤에 잠을 잘 때도 이기섭은 환자 옆에서 잠을 자며 계속 돌봐주었다.

그러나 90년대 후반에 들어서 이기섭은 체력이 떨어져 본격적인 산행을 하지 못했다.



▲ 1994년 백두산 등반기념촬영 (오른쪽에서부터 백남홍, 손기정, 이기섭, 이인정)



▲ 20년전 원로산악인 하계휴양캠프에서
(좌로부터 백남홍, 이기섭, 안광옥)



▲ 1994년 9월 설악산에서



▲ 20년전 원로산악인 하계휴양캠프에
서(우로부터 3번째 이기섭)



▲ 원로산악인과 함께 산악인의 문에서
(좌로부터 백남홍, 이기섭, 손기정)



▲ 1997년 화훈식(결혼60주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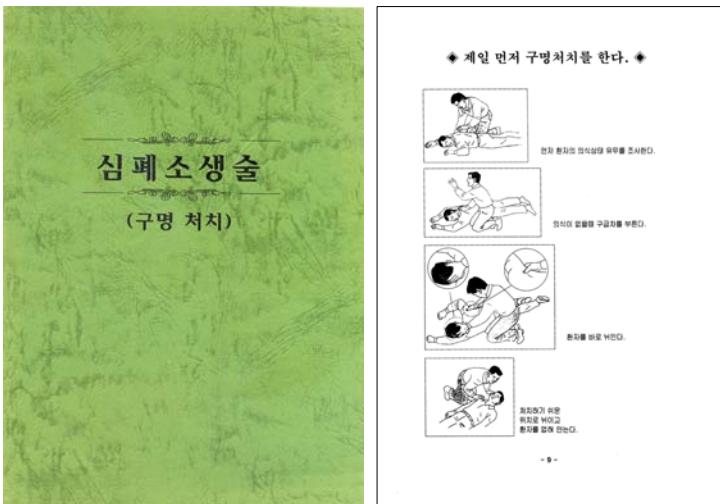
▲ 1997년 화훈식(결혼60주년)이 끝나고 영랑호에서 부인 함동실과 함께



▲ 말년의 이기섭

마지막까지 그가 최선을 다하고자 했던 일은 ‘의사 이기섭’으로서의 직분이었다. 이기섭은 응급처치법과 노인질환, 노인정책 등에 대한 원고를 정리하여 1996년부터 1년 넘게 지역신문인 설악신문에 투고했다. 매주 직접 신문사

를 방문하여 원고를 넘겨주고 자신의 투고가 나온 기사를 꼼꼼하게 스크랩하여 모았다. 죽는 날까지도 자신이 쓴 응급처치법을 한사람이라도 더 보고 생명을 살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았다. 또 2000년 이후에는 30페이지 분량으



로 정리한 ‘심폐소생술(구명처치)’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인쇄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기섭은 등산인구가 늘면서 안전사고 위협이 더 높아졌다며 반드시 응급처지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늘 강조하였다.

2003년 이기섭은 심장이 비대해졌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평소에 몸을 잘 관리하여 어려움을 넘겼다. 그러나 체력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몸도 많이 죽어 났다. 편치 않은 몸을 이끌고 그는 2004년까지도 정들었던 서림리에 진료봉사를 다녔다.

그는 70년대에 뜻을 이루지 못했던 노인병원 설립에 대한 꿈을 오랫동안 접지 않았다. 그러나 2004년에 들어서서 더 이상 꿈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상도문에 있는 노인병원 부지 3천 평을 자신이 다니던 속초감리교회에 기증하였다. 이기섭은 2002년에는 자신이 보던 의학 서적을 후배가 있는 건양대학교 의대에 모두 기증하였으며, 2006년에는 사진자료와 설악제 초기

자료를 속초문화원에 기증했다.

이기섭은 속초시원로회 회장을 맡으며 2003년부터 죽기 전인 2006년까지 설악산 국립공원 관리권 이양을 요구하는 활동에 나섰다. 그의 마지막 사회활동이었다. 속초시원로회는 “설악동 모노레일 설치반대 등 규제일변도로 설악산 관련 사업은 완전 중단된 채 침체에 빠져 있다”며, “설악산이 지니고 있는 관광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해 주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리권의 지방이관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각계기관에 보내고 속초시장을 수차례 방문해 이와 관련해 면담하기도 했다.

2000년 이기섭은 30여년 가까이 살던 동명동 집에서 노학동 코레스코 콘도 뒤편에 설악산 달마봉과 울산바위가 바라보이는 조용한 곳으로 이주를 했다. 정들었던 동명동 집이 언덕 위에 있어 다니기에 불편함도 있고 주변이 개발되면서 어수선하여 자식들이 마지막 여생을 조용한 곳에서 지내도록 배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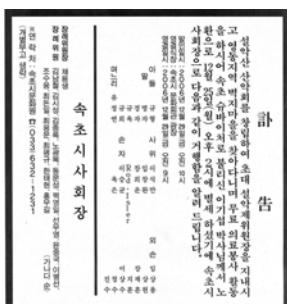
200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겨울날 같지 않게 따뜻한 날이었다. 며칠 후 이기섭의 생일이라 서울 사는 아들 딸이 미리 내려왔다. 이기섭은 가족들과 함께 오전에 평소 다니던 속초 감리교회에 가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보고 돌아왔다. 가족들과 점심을 먹은 이기섭은 피곤하다며 잠이 들었다. 그리고 잠든 상태로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였다. 그의 나이 아흔셋. 그토록 생전에 사랑했던 설악산이 바라보이는 노학동 자택에서 조용히 영면에 들었다.

– 설악의 품에 잠들다

이기섭의 영결식은 속초시 사회장으로 사망 5일만인 1996년 12월 29일 9시 속초문화회관 구 전시실에서 거행됐다. 속초시 사회장은 채용생 속초시장을 위원장으로 16명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준비하였는데 속초시가 생긴 이래 ‘사회장’이 거행되기는 처음이었다. 그만큼 이기섭은 속초 시민 모두가 존경하는 인물이었으며, 그가 속초 지역사회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였다.

이날 영결식에는 장례위원장인 채용생 시장과 동문성 전 속초시장, 노광복 속초문화원장, 최용문 전 속초문화원장, 유가족과 조문객 등 2백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영결식은 노광복 문화원장의 고인 약력보고와 윤중국 전 도의원의 추모사, 채용생 시장의 조사, 박익훈 전 속초시 노인학교장의 조시낭독에 이어 고인의 활동 영상물 상영, 현화와 분향 순으로 1시간 가량 진행됐다. 영결식에서는 생전 이기섭 박사의 산행모습과 각종 활동 모습이 담겨 있는 영상물이 상영돼 지켜보는 이들이 눈물을 훔쳐내기도 했다.



▲ 속초시 사회장으로 진행된
이기섭 영결식 신문 부고



▲ 이기섭 박사 영결식



▲ 고 이기섭 박사 서거 1주기 묘비 제막식 (2007.12.24)



▲ 고 이기섭 박사 추모비 막식(2008.11.11)

평소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의 유언에 따라
시신은 화장돼 유해의 일
부는 설악산에 뿌려졌고
남은 유해는 고성군 토성
면 도원3리 저수지 입구에
위치한 속초감리교회 묘역
에 안장됐다.

이기섭이 사망한지 1년만인 2007년 12월 24일 고성군 도원리 속초감리교회 공원묘지에서는 ‘고 이기섭박사 서거 1주기 묘비 제막식’이 열렸다. 이날 추모행사와 함께 생전에 그가 세웠던 ‘산악인의 문’을 축소해서 제작한 묘비가 세워졌다.

2008년 11월 11일에는 속초시 엑스포공원에서 이기섭 박사 추모비 제막식이 열렸다. 이기섭이 생전에 함께 했던 단체인 한국 산악회와 대한산악연맹, 한국산악동지회, 설악산악연맹, 속초시문

화원, 설악케이블카설우회가 공동으로 추모비를 세웠다. 이날 추모비는 2004년 1월 설악산 소공원에 세워졌다가 철거되어 설악산 야영장에 보관되었던 기념비를 속초문화원에서 찾아내어 속초시의 주선으로 이곳 엑스포공원에 다시 세우게 되었다. 청초호변에 외설악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이곳 엑스포공원에 자리 잡은 추모비에는 “누구보다 산을 사랑했던 산악인이고, 가족보다 이웃을 더 보살폈던 의사 이기섭. 산은 그의 영혼이고, 이웃은 그의 삶이었다”고 적혀 있다.

이기섭은 지난 1995년 9월 설악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 보고 후대의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남겼다.

“지금 내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볼 수 있는 나이에서 느끼는 것은 각 사람마다 각자가 걸어갈 길이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그 길로 가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는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기의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자신의 자질을 과대시해서 고생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눈앞의 적은 이익 때문에 길을 망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자기의 길을 찾아서 열심히 걸어가려면 자신의 노력과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행운도 따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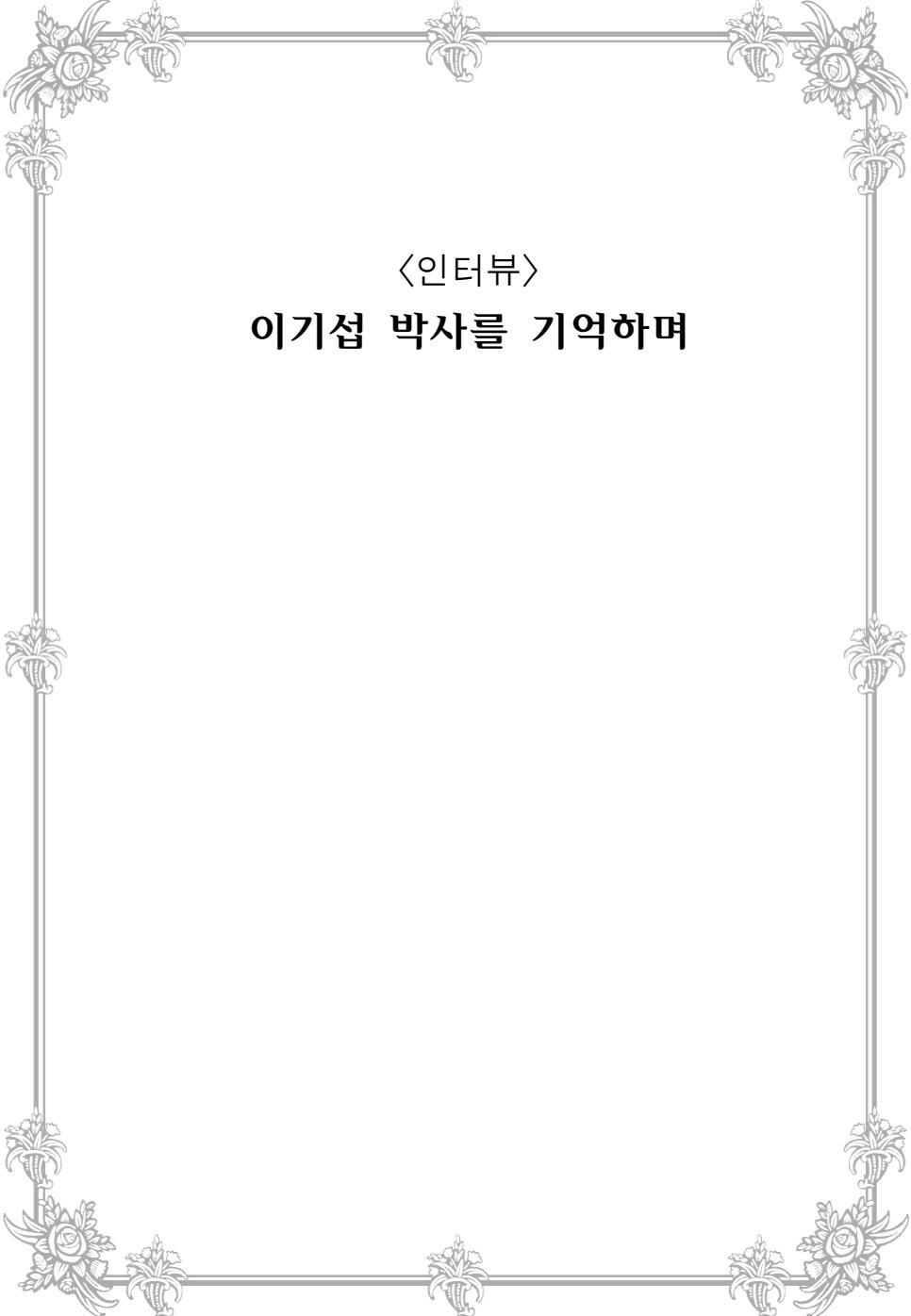
사람에 따라서는 허영과 욕망 때문에 길을 망치는 사람도 있다. 우리가 등산할 때 길을 잘못 갔을 때와 같다. 이럴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원위치로 되돌아와서 생각하는 것이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걸어온 길에 자기의 발자취를 검증하고 지도를 다시 보면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위의 잡음과 감언에 속지 말고 유혹에 빠지지 말고 자기 자신의 마음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올바르게 자기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은 종착역

에 서서 비로소 알게 된다. 사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삶의 과정이지 결과는 아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명예와 부귀를 모두 털치고 속초로 내려와 설악산을 사랑하고 널리 알린 산악인 이기섭. 편안한 노후를 마다하고 마지막 힘이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무의총 의료봉사로 헌신하며 살아온 의료인 이기섭. 그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평생의 실천을 통해 보여주었다. 설악산 협한 바위틈에 꽃을 피운 솜다리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안이 되었던 그를 후대 사람들은 영원히 잊지 못하고 기억할 것이다.

(글 엄경선, 설악신문 프리랜서 기자)



〈인터뷰〉
이기섭 박사를 기억하며

<인터뷰>

이규형(고 이기섭 박사 장남)

* 고 이기섭 박사의 장남 이규형씨(61세) 인터뷰를 통해 이기섭 박사의 행적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 이 박사님이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인 속초로 내려오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처음 아버님이 설악산에 오셨던 건 1950년대 중반 쯤인걸로 기억합니다. 아버님이 처음으로 설악산에 왔다간 이후로 시간만 나면 설악산을 찾아오곤 했습니다. 이화여대에 계실 때 이화여대 사대 산악반과 함께 백담사로 해서 설악산을 넘어오신 적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서울에서 속초까지 오기가 정말 쉽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60년대에도 서울에서 속초까지 11시간, 12시간 걸렸습니다. 여름철 장마 때는 비가 많이 와서 도로에 물이 차면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고 가곤 했을 정도입니다.

아버님은 이미 그 때 병원을 그만두면 설악산에 와서 살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4·19혁명이 날 무렵 아버님은 이화여대 부속 병원장을 8년 동안 했습니다. 임기가 2년이니 네 번 연임을 했지요. 당시 이화여대 김활란 총장이 아버님께 계속 하라고 해서 연임을 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한 자리를 독점했다고 주변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나 봅니다.

무엇보다도 아버님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던 주변 사람들이 제자들을 부추겨 병원장을 그만 두라고 해서, 사제지간의 신뢰가 무너져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은 것 같습니다. 당시 병원에는 서울대 출신과 세브란스 출신이 있었는데, 4·19 이후 어수선한 상황에서 갈등이 불똥으로 튈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병원장 직을 그만 두겠다고 사표를 내니까, 김활란 총장

이 그러면 교환교수로 미국에 잠깐 갔다 오라고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님은 부득불 사직을 고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로 5가에서 잠깐 개업을 했다가 바로 속초로 내려왔습니다.”

- 대학병원 원장을 하던 분이 속초라는 시골로 내려오면서 주변서 이야기도 있었을 텐데요.

“서울서 내려오면서 저 양반이 국회의원 한번 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의 이후 행적을 보면 전혀 정치적 활동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아버님은 정치계에 환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유당 때 이기붕씨 주치의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붕씨와 손을 대려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집에 곧잘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때부터 정치에 대해 환멸을 느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4·19 이후에 제자들이 하는 것을 보고는 더 환멸을 느끼셨습니다.”

- 속초에 오셔서 설악산 등산로도 개척하시고 했다고 하던데.

속초에 오셔서 산을 좋아하는 지역분들과 함께 설악산악회를 만들었습니다. 산악회 차원에서 설악산 등산로를 개설했지요. 천불동계곡은 설악산에서도 가장 경치가 빼어나지만 당시에는 전문산악인들이 자일을 갖고 절벽을 타고 오르내리던 곳으로 일반인들은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일반인들은 양쪽 못 미쳐 오른쪽으로 공룡능선으로 이어지는 길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과 산악회 사람들이 강원도의 후원을 받아 비선대에서 천불동, 무너미고개(지금의 희운각대피소)까지 중간 중간에 철다리를 놓고 등산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은 양쪽에서 천불동계곡, 무너미고개에 이르는 이 길을 ‘이기섭코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화재능선은 그전에는 일반인이 다니기 힘든길로 새롭게 이 정표를 세우고 정비를 했습니다. 화재능선에서 양쪽으로 빠지는 길도 새롭게 개설했는데 지금은 입산통제지역으로 다니지 못합니다.

- 이 박사님이 남기신 신문 스크랩 자료에 보면 60년대 후반에 설악산에 스키장을 만들려고 하신 것 같더라고요.

“설악산 일대에 소규모 스키장이 있었고, 또 스키장을 새롭게 만들려고 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스키계에서도 아주 월로급만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아버님이 내원암 뒷편에 스키장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미시령 옆 황철봉 밑에서부터 내원암 뒤편까지 계곡 일대가 적지라고 해서 여기에 스키장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당시 3군단 아시는 분도 이 일대가 간첩루트라면서 스키장이 개발되면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호응했습니다. 그러나 이 스키장은 신흥사에서 반대해서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비룡폭포 올라가다가 갈라지는 소토왕골 일대에 비록 규모는 작지만 스키장이 운영되었습니다. 계곡 한쪽으로 소나무로 둘러싸인 평평하고 넓은 땅이 있습니다. 중앙일보에서 이 스키장으로 20여 차례나 관광객을 모집하기도 했습니다. 관광객은 당시 설악관광호텔에 투숙하고 스키를 탔습니다. 당시가 66년, 67년 무렵일 겁니다. 당시 아버님이 이 스키장 조성에 앞장섰습니다. 이후에는 누군가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냥 방치되면서 사라졌습니다.”

- 박사님이 속초라이온스클럽 초대회장으로 기록되어 있더군요.

“아버지가 속초라이온스클럽 창단에 직접적으로 나서셨지요. 아버지의 오랜 친구 중에 ‘자유부인’을 쓴 소설가 정비석씨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나라 라이온스 클럽이 처음 들어설 때 깊이 관여하셨습

니다. 그래서 아버님을 설득해 속초에 라이온스클럽 운동을 처음으로 시작토록 한 것입니다. 66년인가 의사와 약사, 사업가들이 주축이 되어 지역에서 처음으로 라이온스클럽을 만들었습니다.”

- 69년 한국산악회 해외원정등반훈련대의 설악산 조난사고는 당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박사님도 당시 그 일로 많이 마음 아파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69년 10동지 조난사고가 났을 때 저는 청간에서 군대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도 산을 좋아해서 군대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훈련을 같이 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느냐 하면 지붕과 도로하고 높이가 같았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으면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구조대로 양쪽 밑까지 갔었습니다. 당시 눈사태가 날만한 곳은 총을 쏘면서 진동으로 눈을 털어내면서 들어갔지요.

조난사고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들은 사람이 바로 아버님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속초에 자리잡은 이후로 설악산을 찾는 산악인 중에 사고로 부상을 당하면 으레 찾아와 무료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연락을 한 것 같습니다. 아버님은 훈련 발대식에 참가하여 대원들을 격려하기도 했으니 충격이 보통 크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구조활동에 매달리셨습니다.”

- 이 박사님이 케이블카 사장으로 있다가 그만두면서 상처를 받고 속초를 떠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시지요.

“저희 아저씨별 되는 분이 외교관으로 있었습니다. 영국 참사로 있다가 뉴욕 총영사로 갔는데, 5·16 이후에 한병기 회장이 외교관으로 함께 근무했다고 합니다. 그 때 한회장이 속초에 가서 국회의원

하려고 한다고 해서, 아저씨가 그러면 속초 가서 만나보라고 저희 아버님을 소개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초에서 한회장과 아버님이 처음 만나게 되었답니다.

한병기 회장하고 설악산 개발 청사진을 이야기하면서 케이블카를 만들자는 이야기에 아버님도 호응하셨답니다. 아버님은 케이블카가 만들어지면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돼 속초 관광경기가 활성화되리라 생각하셨습니다. 한회장이 아버님한테 일을 맡아달라고 요청해 설악케이블카 사장으로 취임하였지요. 문화재위원회에서 케이블카 허가가 수차례 반려되어 어려움에 빠지자 아버님이 나서서 인허가를 처리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밑에 있던 사람이 모함을 해서 아버님이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속초를 떠나게 되었지요. 결국 오해가 풀려 한회장이 다시 속초로 와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때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 이 박사님이 설악산에 노인요양원을 만들려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 과정을 이야기 해 주세요.

“1974년 아버님이 조선일보에서 주는 청룡봉사상을 타기 전후의 이야기입니다. 김옥길 이대총장이 이전에 아버님께 이대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하셨어요. 그러나 아버님은 만약 그걸 속초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수락하겠지만 서울와서 해야하는 일이라면 못한다고 거절하였습니다.

아버님이 청룡봉사상을 수상하면서 소감으로 설악산에 자연학습원과 노인요양원을 만드는 일이 희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소감을 들은 김옥길 총장으로부터 설악산에 이화여대 분교를 만들테니 맡아달라고 요청이 왔지요. 노인병원도 짓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1년 중 일정 기간 들어와서 공부를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아버님은 이런 시설이 운영되면 속초 경제도 좋아질 것이라고 동의했습니다. 그

래서 당시 지역 현지 주민이 아니면 외지에서 땅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아버님과 어머님 이름으로 핏골 일대에 부지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지가 국립공원지구로 묶이면서 개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10여년 전에 땅을 다시 이화여대로 돌려주고 말았습니다.

아버님은 노인요양원을 짓는데 많은 기대를 하셨습니다. 당시 미국에 가서 실버타운 설계도를 비롯해 노인복지와 관련한 자료를 직접 수집해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아흔이 가까워도 책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노인병과 관련하여 의학서적과 잡지를 주문해서 받아 보셨습니다.

아버님은 상도문 일대에 3천평 규모의 땅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아버님은 이곳에 치매요양소나 노인병원을 지으려고 했습니다만 뜻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아버님께서 이 땅을 교회에 현납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느냐고 하셔서 아버님 생각대로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인요양원을 짓는 일은 아무래도 종교단체가 나서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교회에 현납했습니다.”

- 이 박사님의 노인병원에 대한 구상은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님의 구상은 있는 사람한테는 돈을 받아서 없는 사람은 무료로 이용토록 하겠다는 생각이셨습니다. 특히 아버님은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의료서비스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다.”

- 30년 전에 박사님이 꿈꾸었던 그런 시설들이 지역에도 최근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차원에서도 어르신들 장기요양 지원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박사님의 그런 구상은 상당히 선구적인 생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박사님은 퇴임 후 20년 동안 무의료 진료를 다니셨지요. 어떤 동

기로 무의총 진료를 결심하셨는지요.

“아버님이 어렸을 때 할머니와 사별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시골에서 병에 걸려 돌아가셨는데 당시에는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변변한 진료 한 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암이었던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무의총 진료를 생각하신 것도 할머니처럼 아파도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때를 놓치는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사실 무의총 진료는 이화여대 부속병원 원장을 하면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름방학 때면 의사, 학생들과 함께 무의총이었던 덕적도(인천 앞)에서 진료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때가 50년대 말이었지요. 특히 ‘항상 봉사하는 삶을 살아라’는 이화여대 김활란총장님의 말씀을 감명깊게 마음에 새기셨다고 하더군요.

속초에 와서도 무의총진료를 다니기 했지만 정기적으로 다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격적인 진료활동은 퇴임 후인 1983년부터입니다. 처음에는 1주일에 두 번을 다니셨습니다. 고성의 전부령 흘리와 양양 서림으로 다니시다가 이후에는 서림에만 다니셨지요. 돌아가시지 2년 전인 2004년까지 다니셨습니다.”

- 가족들도 아버님이 하시는 무의총 진료를 지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의료인이 많습니다. 사촌과 조카 등이 의사입니다. 아버님이 집안의 장손이라 생신 때는 가족과 친척이 많이 모입니다. 한번은 생신 때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열악한 농촌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니 가족과 친척이 함께 농어촌 보건진료사업협의회를 만들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모두들 좋다고 해서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저와 바로 밑 동생이 교통비와 약값을 대기로 했지요.”

- 박사님이 생전에 사회봉사에 헌신하신 걸 인정받아 상도 많이 받으셨지요. 어떤 상을 받으셨는지요?

“1974년 조선일보에서 청룡봉사상을 수상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상을 받았지만 속초에서 봉사활동을 한 걸로 받았지요. 설악산 등산로 개설과 조난자 구조활동, 겨울등산학교 개설 등의 공으로 봉사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94년에 속초시민문화상을 받고, 말년에는 무의 촌 의료봉사로 중외박애상과 보령제약 의료봉사상을 받았습니다. 2001년에는 국민포장을 수상했습니다. 당시 보건사회부에서 상을 받으려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아흔 가까운 사람이 상을 받으려 올라갈 수 있겠느냐 해서, 속초시로 상을 내려보내주어 동문성 시장으로 부터 상을 받았습니다.”

- 제가 기억하는 이박사님은 항상 인자하신 모습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가족에 대해서는 대범하고, 냉정했습니다. 자식들에 대해 이리해라 저리해라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결혼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 이박사님이 교회를 다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떠셨는지요.

“서울에 있을 때 정동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이북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아버님이 미션스쿨에 근무하시다 보니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지셨고요.

속초에 와서 어머니는 계속 교회를 다니셨고, 아버님은 손자 유아 세례를 받으면서 계기가 되어서 다시 교회에 나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악제 위원장을 하실 때는 제례가 부담이 되셨나 봅니다.

다. 그래서 다음에는 설악제 위원장을 안하고 교회에 나가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 임종하실 때의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심장이 비대해졌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힘들어 하셨지만 잘 버티셨습니다. 원래 건강체질에 몸 관리를 잘 하셨습니다. 돌아가실 때도 전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전혀 아픈 기색도 없으셨으니까요.”

2006년 12월 28일이 생신이라서 저는 좀 일찍 생신을 준비한다고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제가 내려온 다음날 누이도 내려왔습니다.

크리스마스 날이었습니다. 오전에 교회를 갔다와서 가족들이 다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점심을 잘 먹었다고 말씀하시고는 피곤하다고 낮잠을 주무셨습니다. 아버님은 평소에도 점심을 드시고는 꼭 30분 정도 낮잠을 청하셨습니다. 그게 건강의 비결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2시간이 지나도 일어나시지 않아 들어가보니 돌아가셨습니다. 그냥 잠자면서 편안히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안식하셨다고 하는데 자식된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 말씀이라도 해 주시고 돌아가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아산병원으로 장례식장을 잡아놓았는데, 사망진단 후 시장님과 지역 어른들이 오셔서 지역에서 모시자고 말씀하셔서 지역에서 속초시사회장으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인터뷰 엄경선)

〈인터뷰〉

안광옥(원로산악인)

* 한국산악회 자문위원인 원로산악인 안광옥(85세) 선생은 1950~60년대 우리나라 등반사진작가로 이름이 높다. 미공보관 사진기자였던 안광옥선생은 1958년 서울산악회 창립멤버이며, 초대 대한산악연맹 이사를 지내셨다. 안광옥 선생은 이기섭 박사와 인연이 남달라 이기섭 박사 영면 후 산악계를 대표하여 이박사님을 추모하는 글을 ‘월간 산’ 2007년 2월호에 기고한 바 있다.

- 이박사님과는 언제 처음 만나셨나요?

“1959년 서울산악회에서 고등학교 크로스컨트리 대회를 계획했는데 의료진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화여대 부속병원장인 이기섭 박사님이 의료진을 지원하기로 흔쾌히 승낙하셨어요. 이 크로스컨트리대회에 이박사가 참가하면서 첫 인연이 시작되었지요. 그 다음해인가 이 박사님이 서울산악회 회장이 되셨습니다. 이박사님이 회장이 되셔서 2, 3회 전국 크로스컨트리 대회도 치뤘지요. 북한산 백운산장을 서울산악회가 나서서 지었고, 이 박사님도 직접 자재를 실어나르며 고생을 했습니다. 또 이때 친구들과 북한산 백운대에 올랐다가 조난당한 송영호군을 2일만에 짚덩굴 아래서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 이 박사님이 속초로 오신 이후에도 계속 만나셨는지요?

“이 박사님은 나는 설악산이 좋으니 설악산에 가서 살겠다고 하고 내려갔습니다. 서울산악회 회장을 지냈던 인연으로 그 이후에도 이 박사님이 오라고 하면 설악산으로 자주 내려갔습니다.

이 박사님은 설악산 홍보에 큰 역할을 하셨어요. 그때는 설악산이 알려져 있지 않고 등산인도 많이 안 가 본 산이었습니다. 1965년 10

월 서울산악회와 동아일보에서 공동으로 설악산 모집탐방을 실시했습니다. 이 등산을 이 박사님이 주선하셨지요. 설악산 장수대에서 12 선녀탕으로 넘는 코스였는데, 당시 150명이 신청했는데 차량 관계로 120명밖에 접수를 받지 못했어요. 버스 3대로 나누어 타고 설악산으로 출발했습니다. 장수대까지 가는데 두 번 개울을 넘어야 했어요. 길도 안 좋아서 버스가 물속을 건너다가 고장이 나서 다시 차량을 수리해서 출발하려하니 또 고장이 나고 해서 아주 고생끝에 설악산을 찾아갔습니다.

장수대에 사는 약초 캐는 주민을 앞장 세워 대승폭포를 넘어 십이 선녀탕, 남교리로 내려왔습니다. 당시 폭포에서 무지개가 피어오르는 장관이 연출되어 등산객들이 모두 황홀경에 빠졌지요. 그때는 다리도 없어서 무릎까지 빠지면서 물을 건너야 했습니다. 이렇게 설악산이 좋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설악산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 처음 설악제 등반대회에도 참가하셨는지요?

“설악산이 좋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해 이제 한번 등반대회를 해보자고 했어요. 그때 속초에서 설악산악회가 주축이 되어서 1966년 제 1회 설악제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박사님이 설악산악회 회장을 맡고 있었지요.

등산코스는 용대리 - 백담사 - 봉정암 - 소청 - 대청봉 - 희운각 - 천불동계곡 - 양폭 - 비선대 코스였어요. 사람들도 많이 모였고 대단했어요. 1백50명 이상이 참가했어요.

그런데 희운각 쯤 오는데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양폭 쯤에서는 물이 불어서 허리까지 찼어요. 지금은 다리도 많지만 그 때는 등산로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절벽을 타고 곡예를 하듯 천불동으로 내려와야 했어요. 비선대 위 귀면암 쯤에서 비가 많이 와서 물을 건너야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이대 산악부도 참가했는데, 넘어오다 길을 잘못 들어 희운각에서 무너미고개를 넘지 않고 가야동계곡으로 잘못 빠졌어요. 누가 사고가 났다고 말을 잘못 전해 이대생들이 조난을 당했다고 보도가 나간 거예요.

전국적인 등반대회는 처음이었고, 설악산에 다니면서 안내등산이 많이 보급되었지요.”

- 박사님은 당시 설악제에서 무슨 역할을 하셨나요?

“당시 등산대회는 서울산악회와 설악산악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것으로 보면 돼요. 이 박사님은 서울산악회 회장도 지냈던 경력으로 사실상 대장 역할을 했지요.

설악산에 관한 일이라면 꼭 이 박사와 상의를 해서 결정했어요. 산에서 떨어져 다치면 이 박사님 병원으로 갔습니다. 이 박사님한테 가야만 돈을 주지 않고 치료할 수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울산바위 등에서 조난 사고가 많았습니다.”

- 기록에 보니 서울산악회와 설악산악회가 공동으로 하기산간학교를 설악산에서 개최했다고 되어 있네요.

“63년, 64년 두 차례 하기산간학교를 개최했지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했어요. 설악산 쌍천계곡에서 일주일 동안 개최했는데, 당시 육군에서 지원을 해줘서 독도법 등을 군인들이 강사로 나와서 가르쳐줬어요. 군악밴드도 왔어요. 전국에서 40명 정도 참가했지요.”

- 이박사님이 71년부터 겨울등산학교 교장으로 지내신 경력이 있더군요. 겨울등산학교는 어떻게 개최되었나요?

“1969년 10동지 조난사고가 있고 난 후에 우리 산악계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등산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조난의 위험이 높은 겨울철 산행에 대한 교육이 시급했습니다. 1971년 1월 서울산악회와 설악산악회가 공동 주최하여 9박10일 동안 겨울등산학교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박사님이 1, 2회 교장을 맡았지요. 당시 방일영 조선일보 고문을 비롯한 신우회에서 자금을 지원해 1회 때는 돈을 받지 않고, 2회 때는 교통비 수준밖에 안되는 참가비를 받았습니다.

69년 사고 난 이후에 ENSA(프랑스 국립스키등산학교)에서 교육받고 온 산악인들이 강사로 나서서 장비사용법과 빙벽등반 기술, 조난과 안전, 의료지식, 기상관측법 등을 가르쳤습니다. 이 박사님은 교장을 맡으면서 의료와 구조 활동에 대한 강의도 진행했습니다.”

- 이 박사님에 대한 다른 기억은?

“참 다정다감하신 분이셨습니다. 설악산 등산을 마치고 인사만이라도 하고 가려고 들리면 손수 원두커피를 갈아서 내놓으셔서 잠시 쉬면서 꼭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터뷰 엄경선)

<인터뷰>

유창서(전 설악산적십자구조대장)

* 고 이기섭 박사를 설악지역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함께 한 산악인은 권금성 산장 유창서씨(71세)이다. 유창서씨는 이 박사님의 권유로 1970년 설악산에 정착한 이후, 겨울등산학교 강사와 설악산 적십자구조대장을 지낸 바 있다.

- 처음 박사님을 뵈 게 언제입니까?

“처음 뵙 게 59년쯤인가 될 겁니다. 설악산 봉정암에서 처음 뵙었지요. 당시 박사님은 이화여대 사범대 산악반이랑 함께 등산을 오셨고 저는 동국대학교 산악부로 와서 봉정암에서 만나게 되었지요. 박사님은 장수대에서 주무시고 백담사에서 출발하여 봉정암으로 올라오셨다가 마등령으로 넘어 가셨습니다. 당시에는 산악부만 다니던 시절이라 등산로 정비가 안되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신흥사에서 양폭까지 날이 좋을 경우만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이화여대 부속병원장을 그만두고 속초로 오신 다음에는 속초 올 때마다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 초창기 설악제를 이기섭 박사님이 주도하셨다던데.

“1회 설악제 할 때, 브라더미싱에서 상품으로 미싱을 걸었어요. 그 시절의 미싱은 지금과 차원이 다릅니다. 미싱 하나가 큰 재산이었습니다. 웬만하면 미싱 하나로 밥 벌어 먹고 살았으니까요. 미싱을 상품으로 내걸 정도로 이기섭 박사가 한다니까 서울에서 크게 밀었던 겁니다. 설악제가 1,2회 때는 잘 나갔습니다. 전국 산악인의 축제가 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시에서 관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박사님은 50년대 말부터 설악산을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설악산을 알리는 데는 김근원 선생님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돌아가신 김근원 선생님은 1950년대 말 이 박사님하고 같이 설악산을 넘으실 때 찍은 사진을 이화여대에서 전시회를 했습니다. 이 때 사람들이 한국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느냐고 감탄을 했습니다. 또 지역 출신 최구현 선생님도 사진으로 설악산을 전국에 알리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 69년 10동지 조난사고 때도 박사님과 인연이 있지 않았습니까?

“69년 2월 10동지 사건이 났을 때 저는 1진 구조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이 박사와 특별한 관계가 이뤄졌지요. 저도 한국산악회 회원으로 집안에 일이 있어서 훈련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청량리역에서 대원들을 배웅해줬습니다. 죽은 대원들하고는 형, 아우하고 지내던 사이였지요.

지금 대한산악연맹 회장을 하는 이인정씨가 송환자 중 한 사람입니다.

음력으로 정월 초하루에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건 사고 다음날이 저희 부친의 사갑 (돌아가신 분 회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훈련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1진 구조대로 산악회에 가서 헬기를 타고 설악산에 들어왔습니다. 속초에 도착해서 이 박사님한테 연락하니 이미 설악동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때 눈 때문에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설악동에 들어와서 구조작업을 하느라 스물 하루 동안 있다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 당시 이 박사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구조활동을 하셨지요. 설악동 현지에서 서울의 산악회나 경찰, 행

정과 손을 대고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은 박사님 밖에 없었어요. 대학 병원장이라는 경력이 보통 경력이 아닙니다. 또 응급상황에서의 의료 대응도 할 수 있었고. 부검은 하지 않았지만 당시 사망진단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도 했습니다.”

- 설악산에 정착하시게 된 건 언제입니까?

“이기섭 박사님께 의지하고 여기 들어와 살게 된 게 1969년 가을입니다. 이 박사님의 권유로 여기에 내려오게 되었지요. 산장을 짓는 데 상주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그 때 대안산악연맹에서 산장을 관리할 자격을 부여해 주었어요. 추천서를 가지고 시에 와서 신청 해야 했습니다. 시에서 요새 돈으로 10만원 정도 보조를 해 주었지요.

69년 10동지사건 때 우리나라 산에 대피시설이라고는 양폭산장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77 에베레스트 대장이었던 김영도 전의원이 당시 공화당 사무국에 계시면서 기안을 해서 대피소, 산장을 짓는 계획을 대통령께 올렸습니다.

그래서 설악산에도 대피소를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기섭 박사님이 저한테 내려오라고 해서 같이 대피소 지을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이 박사님은 대피소는 등산로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시절에 화재능선 코스는 등산객이 많은데 대피소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장을 여기에 짓게 되었습니다.

양폭으로 내려올 때는 양폭산장이 이미 있었고, 그 무렵에 무너미 고개에 희운각대피소가 생겼습니다. 희운각이란 이름은 신우희 회원인 분의 호가 ‘희운’이라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분이 개인 재산으로 대피소를 지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나라에서 아들로부터 기부체납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하사금이 조금 내려오고 해서 산장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 때 이 박사님이 케이블카 사장으로 있으시면서 자재 운송하는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장을 맡아 운영하게 되면서 설악산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 박사님이 설악제 등산코스를 잡고는 자네가 길을 잘 아니까 안내하게 하면 ‘예’하고 안내를 나서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적십자 구조대를 결성해서 산악구조활동을 했습니다.”

- 구조대 활동하실 때도 이 박사님 도움을 받으셨나요?

“그 당시에는 산악인 조난사고가 참 많았습니다. 다친 사람들은 박사님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조난사고로 죽었을 경우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사체를 옮길 수 있는데, 산악인이 잘못되었다 하면 이 박사님이 얼른 쫓아와서 사망진단을 해 주곤 했습니다.”

- 이 박사님이 케이블카 사장으로 있다가 속초를 떠나신 적도 있었지요.

“이 박사님이 처음 케이블카 사장을 하고 난 뒤에 다음 사장인 보안대 출신 이아무개씨가 이 박사 비리를 캤다고 뒷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박사님이 크게 상처를 받고 제주도로 갔지요.

이 박사는 제주도에서 돌아와 보건소장을 지냈어요. 이 박사가 보건소장을 하실 분인가요? 지역에서 봉사하려고 하시니까 일을 맡으신 거지요.

박사님은 순수하게 산이 좋아서 산을 다녔을 뿐인데, 주변에서는 뭘 좀 생기는 게 없을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 이 박사님이 겨울등산학교를 만들었을 때 유 선생님도 함께 하시지 않았나요?

“71년도 1월에 겨울등산학교가 만들어졌는데 지금의 한국등산학교의 전신입니다. 학교는 이 박사님이 주축이 되어서 만들었습니다. 당시 신우회에서 돈이 나오지 않으면 만들 수 없었어요. 설악산은 눈도 많고 얼음도 많아서 겨울등산학교를 하는데 조건이 좋았어요. 저도 그 때 강사로 꼬박꼬박 참가했었지요.

예산 등의 문제로 겨울등산학교는 계속 운영되지 못했어요. 이후에 박사님은 설악산악회 이름으로 등산학교를 만들려고 했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박사님은 미련이 많이 남았나 봅니다.

저도 이박사님의 도움으로 설악산에 상설 등산학교를 한번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 이 박사님이 산악구조와 의료 등에 대해서는 나이가 드셔도 생각이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도 산악구조에 필요한 의학적 관계, 심폐소생술, 응급처치법 등을 책자로 만들어 보급하고 강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설악산과 산악인에 대한 애착은 대단했습니다. 속초에서 그 분만큼 열심히 일을 많이 하신 분도 없을 겁니다. 고집도 있었고요.”

(인터뷰 엄경선)

〈인터뷰〉

김의열 · 김동엽(서림리 주민)

* 고 이기섭박사는 1983년부터 2004년까지 21년 동안 양양군 서면 서림리 마을에 무의총 진료 봉사활동을 펼쳤다. 당시의 진료봉사활동을 기억하는 서림리 마을 주민들로부터 이박사의 행적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 /

김의열 (서림리 전 이장)

김동엽 (서림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회장)

- 이 박사님이 얼마동안 이 마을에 오셨나요?

김의열 / 이 박사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지 20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무료진료를 했어요. 진료가방을 들고, 속초에서 양양읍, 양양읍에서 마을까지 두 번 대한교통 버스를 타고 오셨습니다. 참 마을사람들도 반가워 했습니다. 그래서 99년 쯤에 SBS TV에 김동길 교수랑 함께 <세상에 이런일이>라는 프로에도 나왔습니다. 마을에 올 때는 미국에서 보내온 약도 받아오곤 했습니다. 친부모처럼 좋은 분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88년에 돌아가셨는데, 그전부터 다니셔서 저희 아버님도 진료를 받았습니다. 박사님이 제작년에 돌아가실 때 가보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김동엽 / 어르신께 신세도 많이 졌는데 문상을 가지 못했습니다. 이 마을은 애들부터 어른들까지 이기섭 박사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21년을 다니셨어요. 매주 목요일이면 잊지 않고 오시더라고요. 아주 확고부동해요. 특히 남들한테 폐를 끼치는 걸 싫어하셨어요. 우리가 뭐 드릴게 있어요? 오시면 점심 좀 잡수고 가시라 하면 어김없어요. 계란 하나에 빵 하나를 색(가방)에 넣어 가지고 와서 난 요거면 해결된다고 점심을 거절했어요. 한번은 사정사정해서 점심을 한번 대접했어요. 그만큼 피해를 끼치지 않을려고 해요.

나는 아픈 사람 돌봐주려 오는 것이지 누구 집 폐 끼치려고 오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하셨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부모처럼 생각했어요. 없는 분들, 없이 사는 사람들 위해서 옷가지 하나, 자기가 입던 옷, 바지, 저고리, 넥타이까지 가져왔어요. 그 양반 입던 옷이 많거든요. 이봉근인가. 혼자 사시는 노인이 있었어요. 그 양반이 많이 얹어 입었지요. 불쌍하다고 옷 한 벌에 와이셔츠까지 다 갖다 주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세탁하기 힘드니 이건 한번 입고 버리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누가 아프다 하면 손수 만져주고 약 주고. 참 그런 양반이 없어요. 그런 양반은 대한민국에서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돌아가시기 2년전에 뵈니 안색이 안 좋더라고요. 어디 편찮으냐고 하니 나이가 있어서 그렇지 하시더라고요.

- 언제까지 여기 진료를 오셨나요?

김동엽 / 그 양반이 언제 돌아가셨지요?

- 2006년에 돌아가셨어요. 만 2년이 되었지요.

김동엽 / 2004년까지 다니셨어요. 돌아가시 전까지 한 2년 안 다니셨네요

김의열/ 삼성콘도 뒤로 집을 뚫기셨을 때도 다니셨어요.

김동엽 / 그때는 오시긴 오시는데 제 날짜에 못 오시더라고요. 저 양반이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그렇구나 생각했어요. 오시면 꼭 껌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셨어요. 껌, 사탕. 어른도 사탕, 아이도 사탕, 노인정에 와도 꼭 껌을 다 돌려요.

김의열 / 법원 뒤에 집이 있을 때는 내가 용달차가 있어서 모시고 올 때도 꼭 껌을 사 가지고 오셨어요. 그때는 내가 차가 있어서 가끔 들렸어요. 모셔오기도 하고 태워다 드리기도 했어요.

- 이 박사님이 이 마을에 어떻게 오시게 된 거지요?

김동엽 / 우연히 마을하고 인연이 되었어요. 우리 마을에는 1981년에 보건진료소가 생겼어요. 보건진료소가 1천명 이상이 되어야 들어서는데, 인구가 900여 명밖에 안되었어요. 인구가 1백명 미달이래요. 내가 이종남 군수를 만나서 요청했지요. 여기는 양양군에서도

가장 오지라면서 어떻게 군수가 해달라고 해서 군수가 특별히 해 준 겁니다. 처음에는 이곳에서 탁아소도 운영했어요. 그 때 이기섭 박사가 진료소가 생겼다 해서 한 번 들렀다고 하더군요.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도우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게 인연이 되어서 계속 다녔지요.

- 처음에는 여기 말고도 다른 곳도 다니지 않았나요?

김의열 / 석교리도 다녔어요.

김동엽 / 어성전도 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 늦게 다녔어요. 여기를 먼저 오시고 어성전도 가셨어요. 여기는 정년하고 1년 있다가 바로 여기로 오셨어요.

- 마을에서 이 박사님으로부터 진료받으셔서 몸이 좋아지신 분이 있으신가요?

김의열 / 진환 형님은 몸이 아픈데 몸을 다 고쳐주다시피 했구요. 결핵을 오래 앓아서 폐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이 양반이 올 때마다 불러내 진찰해주고 약 어떻게 먹어라 수시로 이야기해 주고. 진환 형님하고는 환자와 의사 관계를 떠나서 박사님하고 형 동생처럼 지냈어요. 우리는 어느 집 막국수가 맛있다 하면 같이 가서 박사님하고 먹고, 설악산 쪽에 두부 잘한다 하면 두부 먹으러 가고. 사모님도 같이 다녔는데, 돈도 우리가 내지 못하게 했어요. 부담이 같까봐 늘 걱정했어요. 양양에 와서도 같이 식사를 많이 했어요.

김의열 / 진환 형님이 토종꿀을 치는데, 박사님 집에 들릴 때는 토종꿀도 갖다 주고, 참나물도 뜯어다 드리고 그랬어요. 그냥 못가잖아요.

김동엽 / 박사님이 마을에 오면 꼭 뭐라도 들고 와요. 내복이라도 하나 들고 와요. 그래 내가 뭐 줄 게 있나. 양복권을 하나 사서 드렸어요. 안받는 거요. 이 사람아 내가 이런 걸 받자고 다니나 하면서요. 제가 그랬어요. 자꾸 이런 걸 가져오니 나도 조그만 거라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그러면 받으시면서 정말 고맙다고 이야기 하세요. 사실 고마운 건 난대. 그 양반이 남들 폐 끼치는 건 아

주 싫어해요. 성격이 위낙 조용하시고.

김의열 / 이 박사하고 한병기 회장도 참 친하게 잘 지내셨어요. 한병기씨 부부와 이 박사님이 함께 우리집에 와서 머물기도 했어요.

김동엽 / 이 양반이 오시면 보건진료소에 먼저 들립니다. 노인들이 거기로 가지요. 진료도 하고 가정방문도 하고. 이 박사가 오신다고 하면 미리 노인네들이 미리 와 기다려요. 오래 되니까 목요일이면 으레 오리라 생각하고 모입니다. 서림리, 황이리, 갈천리, 영덕리 4개 마을에서 모입니다.

- 진료 나오시면 몇 명 정도 오시나요.

김의열 / 보통 열명 정도. 계속 오시니까 항상 오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있어요.

김동엽 / 관절이 안 좋거나, 속이 아프거나 가벼운 상처가 난 사람들 이 옵니다. 그러면 어디가서 치료 받아라 말씀하시지요. 나도 몸이 아파서 안내를 받아 속초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직접 의료 원에 전화를 해서 예약을 잡아주시고 의료원에 직접 오셔서 안내 해 주셨어요.

김의열 / 간다고 하면 이 박사님이 직접 의료원으로 나와요. 과장님 들도 박사님 오셨냐고 인사하고 그랬어요. 아주 잘 해 주셨어요.

김의열 / 그 양반은 요만큼도 거짓말 하지 않고 그대로 이야기하고 요. 고집도 세요. 한번 안한다면 안하는 사람이라요.

- 서림하고는 정이 많이 들었겠네요?

김의열 / 정이 많이 들었지요.

김동엽 / 원래 타고난 성격이 남을 도울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김의열 / 몇 번 찾아 봤었는데, 사모님도 찾아뵈면 정말 너무 잘 해 주셨어요. 커피도 갈아서 손수 타 주시고. 친자식처럼 반기고 하셨지요.

(인터뷰 엄경선)

〈남긴 글〉
수기와 기록

<강원일보> 1982년 1월 16일 「의료사십년 1」 - 李基燮



필자약력

- ▲ 1913년 11월 9일 생
- ▲ 황해도 수안군 수안면 하오리 出生
- ▲ 현주소 속초시 동명동 120-9(5/4)
- ▲ 38년 세브란스의전졸업
- ▲ 43년 일본경도대학 대학원 수료
- ▲ 57년 일본경도대학에서 의학박사 획득
- ▲ 53년 진해해군군의관 훈련 해군대위 (예편)
- ▲ 38년 세브란드의전 의과 조수 강사
- ▲ 46년 서울적십자병원 외과과장
- ▲ 53년 이화대학교의대 부교수
- ▲ 54년 이화대학교의대 교수, 동부속병원 원장
- ▲ 62년 속초시 이기섭의원 개업
- ▲ 64년 속초시의사회 회장
- ▲ 65년 설악산악회장

- ▲ 68년 연세의대임산교수
- ▲ 72년 제주도도립병원서귀포분원장
- ▲ 75년 속초시보건소장
- ▲ 78년 도립속초병원외과장(현재)
- ▲ 80년 춘천지법속초지원 가정조정위원(현재)

幼年時節

千字文 배우다 게을러 訓長에 호통 맞아
 여름엔 꼰뱀장어 낚시 겨울엔 물오리사냥 즐겨
 奇巖絕壁 병풍처럼 둘러싼 故鄉

내가 태어난 곳은 黃海도 遂安군 遂安면 下有리에서 新溪군 砂芝면으로 가는 국도로부터 약 3km쯤 서남방에 위치한 遂安면 下烏리란 곳으로 일명 「용수개」라고 불리우며 遂安李氏(遙山李氏)만 16가구가 사는 농촌이다. 동네 뒤편에는 약 50m 높이의 丘陵으로 둘러싸여있고 동네 앞에는 넓은 터밭과 그 앞에는 禮成江 상류가 유유히 흐르고 강 건너편에는 수직 50~1백m 높이의 절벽이 병풍모양으로 연결되어 있어 “야호”하고 소리를 지르면 산울림으로 되돌아오곤 한다. 그래서 이 절벽을 「소리벼랑」이라고 불렀다.

이 벼랑 밑은 수십길의 수심이 되고 여기에는 쏘가리, 메기, 바가사리, 자라 등 많은 淡水魚가 서식하고 있어 어부들은 「매생이」를 타고 주낚을 놓아 잡은 고기를 아침 일찍 읍내로 갖다 팔곤 한다. 일요일이면 읍에서 반두와 낚시를 가져와 하루를 즐기기도 하고 겨울이면 물오리사냥을 하려 楠亭鑛山(金鑛)에 있는 서양사람들이 차를 타고 오기도 한다. 沼 다음에는 여울이 있는데 불림낚시와 얼레질을 하며 많은 피라미를 잡기도 하고 봄 가을이면 명주그물로 강을 건너막아 매자 모래무지 꺽지 또쟁이 등을 잡기도 한다.

또 동네에서 江을 건너 약 3km쯤 계곡을 따라가면 龍震이 있는데 이 이름은 글자그대로 龍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비가 오지 않고 한발이 심할 때는 洞里에서 돼지머리를 놓

고 기우체를 지내면 비가 온다고 한다. 그 굴에 불을 켜고 들어가면 두개의 沼가 있는데 그 깊이는 아는 사람이 없고 금방 물속에서 무엇이 뛰쳐나올 듯 무시무시한 굴이다. 每日 數千톤의 맑은 물을 禮成江 上流로 흘려보내고 그 溪谷에는 가재와 둑지가 많이 서식해서 이른 봄이면 동네사람들은 가재사냥을 하기도 한다. 또 新溪郡 砂芝面과의 境界에는 부체굴이 있는데 그 石庫 안에 있는 弟像은正面으로 되어있지 않고 背面을正面으로 한 것이 특징이다. 그 이유를 소개하면 소도둑들이 동네에서 훔쳐온 소를 여기에서 잡았는데 그때부터 부처님은 대발노발하여 돌아앉았다고 한다. 이 굴은 바로 江가에 있어 여름이면 동네사람들이 고기를 잡아 천렵을 하는場所로 되어있다.

이와같이 自然景觀이 좋은 곳이며 南北이 統一만 된다면 觀光地로서도 충분히 脚光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나는 이곳에서 1913年 11月9日 태어났으며 나 위로는 누님 세분이 계시고 남자는 나 혼자뿐이다. 큰 누님은 지금 77세로 보통학교 교장이었던 妹兄과 함께 지금 서울에 살고 있고, 둘째누님은 이북에서 월남하지 않아 지금生死를 알 도리가 없다. 셋째누님은 내가 海州高等 二年때에 急性肝炎(?)으로 死亡했다. 아버지는 내가 어렸을 때 遂安笏洞礦山²⁰⁾ (金鉉)으로 가서 木商(주로 矿內坑木을 대는 木商)을 하고 庶母와 함께 살았으며 一年에 명절때만 한번씩 집에 다녀가곤 했다. 그래서 어머니는 祖父님을 모시고 머슴을 두고 農事를 지었다. 나는 祖父님 밑에서 어릴적에 사랑방에 훈장을 데려다 千字文을 동네 아이들과 같이 배웠으며 졸음이 오면 몰래 안방으로 들어가 자다가 훈장에게 들기면 종아리를 맞곤 했다.

祖父님께서는 5日마다 서는 장날이 되면 광에서 곡식을 소 등에 싣고 장에 가시는 것이 月中行事였으며 장에서 곡식을 판 돈으로 집에 쓸 日用雜品을 사 가지고 오실 때에는 다른 것은 못 사시더라도 사탕 한 봉지만은 꼭 사 가지고 오셨는데 뒷등에서 큰 기침을 하

20) 원고에는 遂安笏洞礦山으로 되어 있으나 犀이 아닌 洞이 맞음 (수안흘동광산)

면 기다리던 나는 쏜살같이 뛰어나가 당나귀 고삐를 받아 쥐며 사탕을 받아들고 좋아라 했다.

하루는 장에 가셔서 내가 부탁한 낚시를 잊으시고 돌아와 내가 우는 바람에 10里나 되는 장에 다시 가셨다 오신 생각이나 지금 생각하면 죄송하기 짹이 없다. 조부님이 사다준 낚시로 여름에 洪水가 나면 낚시에다 도랑에서 캔 지렁이를 끼고 칙섬유를 손으로 꼬 충아리끈 왼쪽끝에는 自己주먹만한 돌을 매달고 지렁이를 단 낚시를 2, 3個 한 뼘 쯤의 간격으로 달아서 湯水에 약 15~20m쯤 거리로 던지고 줄을 잡고 있으면 고기가 미끼를 먹으려고 하는 감각이 손끝에 오게 된다. 이때 갑자기 낚아채면 바가사리와 쓸자개 또는 줄에 맬 꼰뱀장어가 물려나온다.

종개나 지렁이 또는 고등어(간한것) 미끼를 낚시에 끼어 15~30개를 주낚줄에 한발 간격으로 달고 중간에는 돌을 달아 가라앉도록 하고 깊은 소로 헤엄쳐 저녁에 놓고 그 다음날 낚시를 건지면 제일 많이 걸리는 것이 뱀장어 바가사리 또는 메기 자라도 물리는 때가 있다.

동네에는 祖父님과 分家해서 사시는 셋째 삼촌이 계셨는데 여름에 자라 잡는데는 명수였다. 그때 나는 어릴 적에 많은 자라를 먹었다. 자라들은 앞 소리벼랑 바위에 해가 나면 두세 마리씩 나와 쉬고 있다. 이럴 때마다 三寸은 먼 상류에서부터 머리에 풀을 쓰고 위장을 한 뒤에 반두는 물 속으로 감추고 내려가다 가까이 가서는 반두를 밑에 대고 위장을 벗으면 자라들은 질겁해서 물속으로 떨어져 반두 안에 들게 된다. 그러나 이것도 몇 번이고 실패한 뒤에야 성공한다.

<강원일보> 1982년 1월 19일 「의료사십년 2」 - 李基燮

國民學校 시절

개구장이로 成長했지만 맑은 童心키워
아버지가 理事長으로 있는 私立학교 入學
曹晚植선생「物產獎勵歌」애창 禁止시켜

나는 사랑방 서당에서 8세까지 천자문→聯句→東文선습→명심보
감 등을 배우다 중도에서 그만두고 遂安郡 水上間 石建里(鎭潤鑛山
所在地)에 아버지가 理事長으로 있는 私立學校에 入學하여 4寸인
英燮이와 함께 말을 타고 祖父님을 따라갔다. 그때만해도 어머니가
보고 싶어 당분간은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울었다. 그러다 어떤때에
는 축축해서 깨어보면 자리에는 지도가 그려있고, 한번은 키를 쓰
고 동네 아주머니한테 소금동냥을 갔다가 소금을 얻어들고 돌아서
는데 부지깽이로 키짝을 때려 도망치다시피해서 집에 돌아와서 얻
어온 소금으로 죽을 쑤어 먹었다. 이렇게 하면 자리에 오줌을 안呲
다고 한다. 이런 일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럼을 주어 注意力을 길러
준다는데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집에서 學校까지는 傾斜가 심하여
겨울에 눈이 많이오면 썰매를 타고 學校近處까지 가고 下學하면 저
녁늦도록 썰매를 타서 바지가랭이는 눈과 흙이 묻어 범벅이 돼 집
에 들어가면 어른들한테 야단을 맞곤 했다. 學校에서 唱歌時間에
曹晚植선생이 作詞한 物產獎勵歌를 많이 불렀으나 얼마 되지 않아
그 노래는 사상이 담긴 노래라 부르지 못하게 했다.

공부시간에는 앞에 앉은 女學生의 냉기를 서로 몰래 매놓기도 하
고 공부를 끝마치고 先生님께 일어서 절을 할때 빨리 걸상을 치워
엉덩방아를 짚게도 했고 先生님께 들켜 별도 많이 섰다. 이 學校는
4학년밖에 없으므로 우리들은 4년을 수료하고 遂安邑에 있는 遂安
公立普通學校로 轉學하여 4학년부터 다시 시작했고 學校 校舍도 韓

式기와집에서 공부했다. 다음해 5학년부터는 新校舍로 옮겨서 공부를 했다. 校長은 日人이었고 우리 5학년 담임은 平壤師範學校를 갓 나온 崔三烈선생이었다. 나와 4촌은 처음에는 下宿을 하고 있었으나 5학년부터 둘에다 집을 하나 專貫를 얻어 나와 4촌 그리고 같은 동네에 사는 8촌뻘이 되는 仁燮이와 3명이 공부를 하게 되었다.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할머니가 용수개로 가시기 때문에 19km나 되는 거리를 며칠씩 통학을 해야했고 때로는 지각을 해서 先生님한테 별도 서고 매도 맞았다. 토요일 집으로 나갈때면 봄이면 밀총대 가을이면 콩총대를 하려 남의 밭에 들어갔다가 들켜 도망치고 때로는 누군가 잡혀 혼도 나고 祖父님의 성함을 대면 『이번만 하고 다음부터는 하지말라』고 순하게 타이르기도 했다.

平壤밤이라면 껌질이 잘 벗겨지고 달기로 有名한 밤이다. 우리동네에는 이런 밤밭이 많아서 8月 秋夕 전후에는 이른 아침 밤나무 밑에서 알밤을 줍는다. 때로는 한적한 곳에 밤밭이 있으면 아이들과 같이 밤 주우러 나섰다. 밤을 많이 주우면 조끼주머니가 차고 더 들어갈 데가 없으면 대님을 꼭 매고 바지가랭이에다 넣는다. 그러다가 主인이 알고 이놈들 잡아라하면 서로 뛰는 바람에 대님은 풀어져 바지에 있는 밤이 모두 쏟아져 버린다. 여름放學이 되어 집에 가면 안방 앞 퇴방밑에 명석을 깔고 낮에 베어온 쪽으로 모깃불을 피우고 어머니와 누님들은 밀망질을 하고 나는 저녁에 앞터 밭에서 따온 삶은 풋옥수수를 먹으며 맑게 캔 여름하늘을 쳐다보며 누나와 별하나 나하나를 한숨에 누가 많이 세는가를 내기하며 잘 부르지도 못하는 노래를 어머니와 누나는 나에게 부르게 했다.

또 낮에는 동네아이들과 반두를 가지고 앞강에서 하루종일 고기를 잡고 돌아오면 밤에는 등이 아려서 잠을 못자면 어머니는 등에다 찬수건을 대주며 부채질도 해주곤 했다. 동네 친척집에서는 돌아가며 닭잡고 칼국수로 대접을 받았다. 사랑마당에 고추잠자리가 날때면 방학은 거의 끝나가는 때이다. 그때서야 밀린 방학숙제를 하느라고 야단이다. 또 겨울방학이 되면 뒤곁에 몇을 놓아 맷새와

콩새를 잡아 통방이에 넣어 기르기도 하고 저녁때에는 참새들이 들어가는 곳을 잘 보아두었다가 밤이 되면 긴 반두를 가지고 집 처마 밑 새집을 털어잡기도 했다. 눈이 올 때면 山에서 토끼 발자국을 찾아 통로에다 그물을 치고 여럿이서 물면 영낙없이 잡히곤 했다. 앞에 江이 얼어붙으면 땅딸이(나무끝에 굽은 철사를 두개대고 앞에는 굽은 뜻을 박아 얼음을 깎어 앞으로 가게한다)를 타고 강옆으로 나온 고기를 보면 떡메고 얼음을 쳐서 고기를 잡기도 했다. 얼음구멍을 뚫고 낚시를 한다든지 작살로 고기를 찍어올리기도 했다.

때로는 쌀독에 묻어둔 갹엿판대기를 어머니 몰래 꺼내다 아이들과 나눠 먹기도 하고 겨울 긴 긴 밤이면 자루에 묻어둔 밤을 까먹기도 하고 볶은 콩을 등잔 밑에서 집안식구의 옷을 짓는 어머니와 함께 먹기도 했다. 정월 보름에는 연싸움에 이기기 위해 깨진 사기그릇을 가루로 만들어 아교와 함께 연줄에 먹여가지고 끊어먹기도 했다. 대보름날이면 연에다 액매기를 써서 멀리 떠보내기도 하고 횃불을 들고 달을 향해 행운을 빌기도 한다. 하루는 동네 아이들과 함께 벗짚난가리에서 쥐한마리를 잡아가지고 등에다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더니 이 쥐가 나뭇가리로 들어가 나무를 모두 태우고 조부님과 동네사람들에게 미움을 산 때도 있다.

내가 16세 되던 봄에는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해주공립고등보통학교에 지망했다. 우리 학교에서는 나와 사촌과 李찬무라는 수안읍 갑부의 아들과 함께 조부님을 따라 신막까지 자동차로 나와 신막에서 기차를 타고 사리원에서 내려 다시 자동차편으로 히우고개를 넘어 해주에 도착하였다. 다음날 수험표를 타고 2대1의 경쟁률을 뚫고 3명 모두 합격하였다.

<강원일보> 1982년 1월 21일 「의료사십년 3」 - 李基燮

斷食 同盟 休學

植民地교육 결사반대 횃불 높이들어
日警에 연행됐다 10일만에 간신히 석방
연극관람 . . . 선생님 피해 변소에 숨어

입학식에는 祖父님이 4촌과 함께 참석했다. 어머님이 손수 텁발에서 딴 목화를 타서 만든 솜이불을 가지고 海州로 가서 祖父님이 정해주신 하숙집에서 등교했다. 내가 海州高普에 입학할 당시는 각도 道廳 所在地에 公立고등보통학교가 하나씩 설립되어 있었고 黃海道에는 沙里院에 3년제 農業學校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두학교뿐이었다. 내가 사는 遂安郡은 인접해 있는 谷山郡 新完郡과 함께 내륙지방으로 바다를 못보는 고장으로 日帝시대에는 이 3개 郡에 근무하는 公務員은 10년이면 恩給이 붙는 산골이다. (타군은 15년이 돼야 恩給을 받게 된다) 나는 海州에 와서 처음 바다를 보았고 일요일이면 하숙집 아저씨와 함께 바다에 가서 바지락을 잡기도 하고 동급생과 함께 首陽山에도 오르곤 했다. 또 學費가 오면 시골에서 보지도 못하던 바나나를 사먹곤 했다. 그 시절에 海州에는 日人이 경영하는 해주극장이 있었는데 매일 開館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나 연극을 가끔씩 하고 開場할 때에는 나팔을 불며 市街를 돌며 선전했다.

하루는 친구들과 연극 구경을 갔는데一幕이 끝나고 불이 켜지자 한 친구가 선생님이 왔다고 해서 모두들 도망을 했는데 나는 급한 김에 변소에 들어가 숨었다가 幕이 열리자 변소를 통해 극장 뒷담을 넘어 하숙집으로 도망쳐왔다. 先生님한테 잡히지는 않았으나 동행했던 친구가 이름을 대면 停學을 당할 것을 생각하니 걱정이 되어 한잠도 자지 못했다. 다음날 朝會時間에 어제 극장에 갔던 학생

들의 이름은 발표되었으나 내 이름은 부르지 않아 같이 갔던 친구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후부터는 더욱 친해졌다. 참으로 의리가 있는 좋은 친구였다.

어떤 아이들은 교실에서 일어난 일을 일일이 일러바치는 스파이짓을 하는 아이들도 많았다. 우리가 2학년때 광주학생사건이 일어나 전국적으로 시위가 벌어져 우리 학교에서도 상급생의 주동으로 하루는 수업을 하다말고 운동장에 전교생이 모여 성토한 후 市內로 스크럼을 하고 校門을 나서려고 하였으나 학교운동장 주위에는 기마순사와 경찰관들이 둘러싸고 있어 교문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校內에 들어와서 學生을 檢舉하는 일은 없었다. 歸家후 主謀者들은 경찰에 連行되었으나 校長의 적극적인 교섭으로 희생자는 적었다. 學校의 指針으로 每週 목요일 오후면 全校生이 무슨 運動이나 한가지는 選擇해야했다. 나는 정구를 지원했다. 그 덕으로 3學年때는 學校代表先手로 서울에 원정을 하기도 했다. 지금 서울 운동장 정구장에서 전국학생선수권대회에 出戰하였으나 후위인 나는 떨려서 제대로 實力を 발휘못했으나 상급생 전위인 李養着兄의 활약으로 3回戰까지는 갈 수 있었다. 그리고 學校에서는 1學年때에는 1박2일 코스로 長壽山으로 수학여행을 갔고 2學年때에는 日獨陸上경기대회가 있어 처음으로 서울 구경을 했고 지금의 서울운동장에서 거행하는 日獨陸上도 구경할 수가 있었다.

내가 4년생이 되던 해는 내一生에 제일 불행한 해였다. 내가 공부 잘해서 성공하기만 기다리시던 어머니는 肝臟病(肝硬化症)으로 농촌에서 고생만 하시다 여름방학 동안에 돌아가시고 그해 가을에는 뜻있는 同志들과 植民地教育 反對와 몇몇 선생의排斥을 내걸고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斷食同盟休學을 단행했다. 그 당시 4학년은 상급진학반과 취직반으로 나누어 있었으며 全班학생이 1백여명이었다. 우리들은 조회가 끝나고 각 학년별로 교실로 들어갈 때는 우리 4학년만은 進級班으로 전원이 들어가 창문에는 책상과 걸상

칠판을 대고 못을 쳐 바리케이트를 치고 준비한 聲明書를 2층 창가에 붙이고 盟休를 시작하였다.

聲明書를 떼려 사다리를 놓고 올라오는 선생들에게 물세례를 주기도 하고 사다리를 치우기 위해 당기고 밀치고 하였으나 제거하지 못한 학교에서는 소방차를 동원하여 호스로 제거하였고 학부형들을 동원하여 설득하려 하였으나 성공을 못하자 나중에는 소방차와 경찰관들이 학부형이 해산시키지 못하면 피차 부상자가 생길지도 모르니 그리 알라고 학부형들에게 공갈치는 바람에 학부형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바람에 對抗도 하지 못하고 강제로 해산됐다. 나는 다음날 피신해서 고향인 용수개 뒷등까지 갔으나 집으로 나를 連行하려고 왔던 駐在所 순사에게 잡혀 집에도 들르지 못하고 연행되어 遂安경찰서에서 다음날은 瑞興경찰서에서 다음은 汝里경찰서에서 1박하고 다음날은 海州署에 구속되었다. 그때 4촌인 英燮이는 현장에서 연행되었다. 이 소식을 듣고 쫓아오신 부친의 주선으로 구속 10일만에 형무소에는 가지 않고 석방되었다. 당시 부친은 黃海道 道評議員이었으므로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 같았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있었고 京鄉 各地의 학교에서도 斷食同盟休學이 유행같이 되었다.

<강원일보> 1982년 1월 23일 「의료사십년 4」 – 李基燮

세브란스 醫專 시절

퇴학처분받고 國內 私立中도 編入길 막혀 渡日

僻村에 仁術 심으려 醫大 지원 결심

4角帽 人氣속 툼틈이 妓房도出入

유치장 내의 규칙으로는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은 변기 옆에 앉게

되어 있는데 나는 학생이라는 特待를 받아 문앞자리를 내주었고 유치장 내 마루바닥에는 고누가 그려져 있어 낮에는 고누를 두고 시간을 보냈다. 海州지방에는 마약중독자가 많아서 藥 기운이 없어지면 주사를 놓아달라고 죽는 시늉을 하며 소리치고 간수와 임씨름도 하여 그리 심심치는 않았다. 그후 학교에서는 全國에서도 유례없는 60명의 대량퇴학처분을 내렸으며 나와 사촌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후 우리는 平壤의 光成 崇實學校나 서울의 培栽 普成 등 사립학교에 편입하려고 하였으나 꼬리표가 붙었기 때문에 韓國에서는 도저히 進學할 길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渡航證(그 당시 日本에 가려면 해당 警察署에서 證明을 받아야 했다)을 얻어 日本 廣島에 있는 廣陵中學校의 4학년에 편입하였다. 이 학교는 私立으로 日本에서도 野球로 유명한 학교이며 甲子團에서도 우승한 경력이 있는 학교이다. 우리와 같은 처지에서 온 韓國學生들이 있어 대화도 나누고 하여 심심치 않았다.

그 당시 우리 한국에서는 교련시간이 없었으므로 편입후 한달동안은 현역육군소좌한테 교련의 기본동작을 배웠다. 마침 학교에도 야구부 외에 정구부도 있어 동급생인 趙來勳이라는 전위가 있어 한조가 되어 4학년때 줄곧 준우승만 하였으나 5학년 시절에는 중국지방 중등부 대표로 東京에서 매년 가을에 거행하는 明治神宮경기에 출전하였다. 日本에는 2곳의 고등사범학교가 있었는데 하나는 東京에, 하나는 廣島에 있었다. 이 廣島高等師範學校는 중등학교 교원을 양성하는 학교로써 日本에서도 일본 배구 대표선수를 많이 배출하였으며 배구는 일본에서 최강팀이었다. 廣島는 瀨戶內海에 연해 있으며 근교에는 일본서 유명한 巖島神社가 있기도 했다. 세계2차대전때 원폭을 맞아 우리교민도 많이 희생된 고장이기도 하다. 일본이 패망한 것도 여기에 투하된 原爆때문이다.

우리들은 卒業試驗만 끝내고 귀국하여 小公洞에 있는 시립도서관에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험준비를 열심히 하였다. 처음에는 工科계통을 하려고 하였으나 돌아가신 어머님과 같이 시골

에서 제대로 진찰도 받지 못하고 제대로 치료도 못받는 患者들을 위해 醫學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 해 4촌은 東城高等商業學校를 지원했으나 海州高普 당시의 사건으로 입학을 못하고 延禧專門學校 商科에 입학했다. 나는 세브란스 醫科에 입학하였다.

내가 세브란스醫科에 입학할 당시 우리나라의 대학과 전문학교는 손꼽을 정도였다. 대학으로는 國立京城帝國大學 하나였고 전문학교로는 官立으로 京城法專 京城醫專이 있었다. 사립으로는 普成專門 延禧專門 世專門 梨花女專 京城藥專 京城齒專이 있었고 고등학교로는 京城고등상업학교 京城고등공업학교가 있었다. 지방에는 平壤에 崇實專門學校가 있었을 뿐이었다. 세브란스는 美國人 「세브란스」란 사람이 설립하였고 초대교장은 미국인 「오랄·메비슨」이었으며 정년퇴직후 귀국한 다음에는 吳競善선생님이 2대 교장으로 취임했다. 日帝末期부터 解放되기까지는 李榮俊선생님이, 해방후에는 崔棟선생님이 교장을 지내셨다.

日帝時에는 大學 專門學校에도 校帽와 校服이 각 학교마다 정해져 있었다. 우리 학교는 흑색 또는 감색 사지나 세루로 上下衣가 있고 모자는 4각모며, 醫學의 모표가 교모이었다. 하복은 백색바지에 흑색 또는 곤색의 상의였고 모자는 맥고모자였다. 그 당시 4각모자는 女子들에게 대단한 人氣였으며 특히 기생들한테 더욱 그러했다. 그 당시 기생이 되려면 券番에서 일정한 기간 예의범절과 춤시조 唱 民謡를 배우고 試驗에 합격해야 비로소 券番에 등록되어 손님방에 나갈 수 있었다.

일류 기생을 부르려면 1주일 전부터 요리집에 예약을 해놔야 했다. 기생들이 요리집에 갈 때에는 人力車를 타고 다녔으며 술취한 학생들은 人力車를 잡고 실랑이도 곧잘 했다. 서울에는 明月館 國一館 食道園 天香閣 등 유명한 요리집들이 있었고 우리가 2학년 때까지는 교복을 입고 요리집과 카페며 바에 출입할 수 있었다.

2학년 때 파고다 公園옆에 있던 엔젤이라는 카페에서 우리 학생과 從事員間에 싸움이 벌어진 후로는 학생은 料理집 카페 바에 출

入이 금지되었다. 그래서 학생들은 세비로를 입고出入하였다. 그 당시 신사복 한벌에는 외국산복지로 45원이면 제일 좋았다. 우리 1학년생은 모두 45명으로 日本학생은 하나도 없었고 教授님 중에는 우리말로 강의하는 분이 많았다. 그러다가 日帝 말엽에는 總督府 學務局에서 일본어로 강의하라고 强要하였으며 日本학생도 몇 명 있었다.

世醫專 2학기 때에는 培栽高普에 다니던 동생 尚燮이와 이화여고에 다니는 尚女와 4촌 英燮이와 함께 西大門 忠正路(그때는 竹록町) 2가에 집을 사 가지고 食母를 두고 學校에 다녔다. 父親은 遂安笏炳金鑛株式會社長으로 매월 產出된 金을 本町에 있는 德力會社에 팔려고 上京하시곤 했다. 그 후 日帝末期에는 日人會社에 강제로 매각당하고 平壤으로 移住를 하시었다. 그 당시 나는 다른 학생보다 여유가 있어 현미경도 살 수 있었고 로라이코드 사진기도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물건들은 지금과 같이 흔하지 않았으며 日本에서도 獨逸에서 輸入하곤 했다. 전당포에서도 醫學書籍은 定價의 80%까지 주기 때문에 용돈이 떨어지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곤 했다.

<강원일보> 1982년 1월 26일 「의료사십년 5」 – 李基燮

新婚 시절

李允榮선생 主禮로 梨專 재학생 閨秀와 華燭

서울서 新房꾸며 年年生 男妹 낳아

졸업 후 母校 外科助手, 全國 유람

4학년 여름방학에 平壤집으로 가서 포목상을 하는 咸華善씨 장녀인 咸東實(당시 梨花女子專門學校 1학년)과 약혼을 하고 그해 겨울

에 平壤에 있는 白善行기념관에서 李允榮씨 주례로 결혼을 하였다. 결혼식은 들러리를 신랑 신부측이 각각 동수로 세우고 입장할 때에는 남자 여자 어린아이가 꽃바구니를 들고 앞에 서서 들어가곤 했다. 주례사와 축사는 신랑측 신부측에서 각각 1명, 도 귀빈에서 한 사람시키면 2, 3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어서 무척 지루했다.

그리고 結婚式이 끝나면 料理집에서 피로연을 했고 신랑친구들은 신랑을 料理집으로 납치해서 진탕 料理를 먹고 妓生을 불러 마음껏 논 다음 신부집에서 料理欲 花代를 내고 데려가는 것이 常例였으며 때로는 신부집에서 料理대를 거절할 때는 짓궂은 친구들은 신랑을 내주지 않으므로 첫날밤을 料理집에서 새우는 수도 있었다. 당시의 신혼여행은 流行되지 않았다. 우리는 結婚후 다음날 조부님이 계신 遂安邑 下有리의 셋째 三寸집으로 인사를 하러 갔다가 上京하여 서울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英高동생은 연희전문상과를 우등으로 卒業하고 殖產銀行에 무시험으로 특채되어 사랑방에서 함께 살다가 元山으로 轉勤되었다. 일인들은 어떠한 직장에서나 각종 수당을 받았으나 우리 韓國사람들은 수당이 없었으나 殖產銀行만은 일인과 똑같이 수당을 지불해주어 다른 직장보다 봉급이 많았다.

우리가 卒業하기 전에는 세브란스出身은 總督府 免許로 韓國內에서만 醫師行勢를 할 수 있었으나 우리들이 卒業할 때에는 日本 文部省에서 國家試驗을 치르고 國家試驗에 합격하면 日本 厚生省 免許를 받아 日本 전국 어디에서나 開業할 수 있는 資格을 주었다. 그해 우리 卒業生은 國家試驗에 한명만 불합격이고 입학 당시 45명 이던 우리들은 그간 病故 自退 留級 등으로 33명만이 1938年 3月 남대문예배당에서 졸업식을 가졌다. 졸업 후는 학교에 인턴으로 많이 남았고 각자 의원에 따라 지방기독병원인 합종자혜병원 대구동산병원으로 취직하여 갔다. 세브란스는 美國 선교사 계통의 병원이기 때문에 졸업하면 원하는 사람에게는 인턴을 시키곤 했다. 그래서 인턴을 마치고 개업한 사람들은 대개 성공하였다. 나는 모교 외과교실에 조수로 남아서 京都帝大 醫學學部에서 연구를 마치고 새

로 전임하신 高秉韓 교수 밑에서 연수하였다.

그 당시 白云님 望月寺를 가려면 敦岩洞까지 전차를 타고가서 미아리고개를 넘어 도보로 往復하였고, 또는 倉洞驛에서 내려서 올라가기도 하고 망월사를 가려면 망월백역에서 내려 올라가고, 광릉에 가려면 의정부역에서 내려 往復하였으며, 歸路에는 식당에 들러 유명한 암소갈비로 요기를 하였다. 또 용문사를 가려면 중앙선 용문역에서 내려 왕복하였고 수종사를 가려면 양수리역에서 내려 올라갔다. 연휴가 있을 때는 금강산도 가고 平壤으로 해서 石乳洞으로 유명한 동용굴을 구경하고 寧邊의 藥山 등에도 가고 妙香山의 단군굴도 가곤 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철도국의 주선으로 三防 스키장까지 스키열차를 운행, 타곤 했다. 이 스키열차는 토요일 밤 10시 서울역을 떠나 아침 6시에 三防역에 내려서 스키를 타다가 오후 5시에 三防역에서 열차를 타면 저녁 10시에 서울역에 도착하곤 했다.

그러다가 日帝 末期에는 列車와 人力이 부족해 폐지되고 스키도 列車內에 가지고 올라가지 못하게 해서 三防驛 까지 手貨物로 불이고 토요일 오후에 떠나 三防역 여관에서 1박하고 스키를 타고 일요일 오후에 귀경하곤 했다. 그때 三防역 여관에서 먹던 간식과 막국수 맛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滿洲事變이 장기화되자 일반 생활용품의 부족으로 배급제가 되어 맥주 한잔 얻어 마시려면 술집 앞에 장사진을 치곤 했다.

사변전 夏期휴가때면 元山 松島해수장 松田해수장을 거쳐 귀로에는 釋王寺와 三防야수터를 들려오곤 했다. 어떤 해는 黃海道 夢金浦해수장에도 가곤했으나 여기는 백사장이 이름난 곳으로 美國 선교사의 별장들이 있었으며 元山 明沙十里 美國 선교사 별장지도 2차 대전때에 지금 江原도 高城군 巨津에 있는 花津浦로 이전하였다. 그리고 해방후는 梨花大學의 夏期修練場으로 여름이면 體育大學 학생들이 오곤 했으나 현재는 宿舍만 남아있을 뿐 사용하지 않고 있다.

1940년 10월에는 지금 「로스앤젤레스」에 가 있는 長女 明子를 出産하였으며 1941년 9월에는 高교수의 소개로 京都大學 外科교실 春柳교수 지도하에 결핵균의 經口的免疫에 대한 테마를 받아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그해 12월 8일에는 日本軍이 眞珠灣을 먼저 奇襲 공격하여 美國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여 2차대전이 시작되었다. 1941년 12월에는 平壤 親家에서 長男을 출산하였고 年年生이라 母乳가 나오지 않아 유모를 두었다.

<강원일보> 1982년 1월 28일 「의료사십년 6」 – 李基燮

日本에서 시절

日腦神經外科 一人者 荒木교수 밑에서 研究

戰爭 渦中에도 連休엔 山行 즐겨

名勝地 登行하며 많은 經驗얻어

지금은 가족계획으로 生產을 조절하지만 그때에는 인공유산을 시키면 법으로 엄하게 다스리기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했다. 1942년 8월에는 장녀 장남 처와 유모까지 다섯 식구가 경도대학 근처인 백방변이라는 마을에 月貰로 집을 한 채 얹어서 살림을 하였으나 모든 것이 배급제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고난이 많았다. 나는 1년반 만에 연구논문실험을 끝내고 荒木千里教授 밑에서 腦神經外科를研修하였다. 그 무렵 荒木教授는 美國에서 유명한 Cushing 선생 밑에서 연수를 받고 돌아와 腦下垂體腫瘍癟의 宿願報生을 연구한當時 日本에서는 뇌신경 외과로서는 제일인자였다. 그때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신경외과 교실을 가진 학교는 하나도 없었다.

연구실에 있는 동안 新正 연휴때면 教室員과 함께 管平 志賀高原으로 스키를 타러갔다. 이 地方은 겨울이면 스키어로 많은 사람들

이 모였으나 세계2차대전이 일어난 후로는 스키인구도 줄었다. 전쟁전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왔다고 한다. 또 여기에는 東京에 있는 各 大學에서 산장을 가지고 있어 放學이면 그 학교 학생들이 많이 利用하고 있었다. 또 여기에는 관광호텔이 있는데 스키어를 위해 호텔 1층에는 2층 침대로 되어 스키어의 많은 便利를 도모하고 있었다. 또 이 호텔에는 약 4km쯤 떨어져 있는 熊의 湯이라는 온천장에서 온 천수를 끌어 온수시설까지 되어 있었다. 여기를 가려면 기차에서 내려 약 8km 쯤 되는 高原地帶를 차도를 따라 올라가면 되나 적설이 많을 때에는 도보로 가야하며 내려올 때에는 차도를 따라 스키로 下降하는 기분은 타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것이다.

또 이 觀光호텔에서 橫手山까지 스키 밑에 시루(海豹가죽)를 대고 약 2시간쯤 걸려서 山 정상에 올라가면 휴게소가 있는데 여기서 먹는 산머루汁의 맛은 참으로 일미이며, 좀 쉬어서 시루를 떼고 호텔까지 하강하는데 30분도 안걸린다. 시루라는 것은 海豹가죽으로 만든 것인데 스키바닥에 대면 언덕이나 경사가 심한 곳도 미끄러지지 않고 올라갈 수 있다. 이 시루는 山行스키때 없어서는 안된다. 요사이 다녀온 사람의 말을 들으면 호텔에서 橫手山까지 리프트가 設置되어 대단히 편리하다고 한다. 기회만 있으면 한번 가 보고 싶은 곳이다.

또하나 山行에 기억이 남는 것은 10월 初旬 혼자서 명고옥역에서 중앙선 기차를 타고 승안까지 가는 도중 그 沿道에는 도자기공장이 즐비하며 개천은 색소로 온통 물들어 있었다. 나는 하차하여 승안 악 밑에 있는 여관에 투숙하고 안내인을 구하려 하였으나 짚은 사람은 모두 군대에 나가고 없다고 하며 주인네 개를 데리고 가라고 하여 그 개를 따라 정오전으로 승안정산에 도달하게 되었으며 그 정상에는 벌써 적설이 약 1m가량 있었다. 그때 그 여관주인이 나에게 말하기를 12시까지 정상까지 못가면 애써 가려고 하지말고 같은 길로 되돌아오라는 것이었다. 등산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말이

라고 생각되며 나는 그 후 초행길이면 언제나 이 여관 주인의 말대로 정오까지 목적지에 못가면 되돌아오곤 한다.

다음날은 生火山인 燒岳에 올랐다가 日本 北알프스라고 부르는 鐘高 밑에 있는 大正池를 구경하고 호텔에서 一泊후 高山峠을 넘어 日本라인(岐阜川下船)을 조각배로 急流를 내려 岐阜(기후현 소재지, 기부 또는 기후)에 到達한다. 下船하는 途中 日本猿이 산다는 山밑을 내려갔으나 마침 그때는 원숭이가 보이지 않았다. 岐阜에는 岐阜감으로 水分이 많고 달아 아주 좋은 감이다. 그 時代에는 岐阜의 名產으로 되어 있었고 또 하나 有名한 것은 제과라고 해서 제라는 새를 利用해서 물고기를 잡아내는 것으로 日本全國에서 求景하러오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요즘 설악산에 오는 日本 山岳人の 말에 의하면 乘鞍 頂上까지 버스가 運行되어 自然破壞가 심하다고 하여 설악산은 自然 그대로 保存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施設도 하지 말라고 신신부탁한다.

세계2차대전이 한창인 때라 日本사람들은 모두 軍醫官으로 출전하고 우리 韓國사람과 臺灣사람만이 교실에 남아서 많은 환자를 담당했다. 1943년 4월에 지금 서울에 사는 차녀 京子를 출산하였으며 경도에서 출산했다 해서 이름을 京子로 지어주었다. 그해 여름에 부산과 하관을 매일 운행하는 關釜 연락선 崑崙丸이 美國 潛水艦의 攻擊을 받아 出征하는 많은 군인과 인선 여객들이 몰사하였다. 그후 부친께서는 매일같이 연구고 뭐고 그만두고 속히 귀국하라는 서신이 자주왔다. 그해 1943년 11월 靑木 二木 兩 教授에 양해를 얻어 만 2년2개월만에 연구를 끝내게 되었다. 2년전 渡日할 때에는 아무런 훈련도 없었으나 귀국시에는 여객 전원이 구명대를 착용하고 대피훈련을 하곤 했다.

<강원일보> 1982년 2월 2일 「의료사십년 7」 – 李基燮

감격의 8·15 解放

醫療기관에도 左翼 潛入 . . . 診療 방해
北韓 아버지 肅淸당해 開城 難民수용소 收容
赤十字병원 다니며 夜間 개업

귀국후 즉시 世醫專 外科教室에서 勤務하였으며 12월에는 專任講士로 임명되어 外科學 을 講義했다. 살림집을 求 하는 동안 妻와 아이들은 平壤집에 가 있었고 나는 病院에서 인턴을 指導할 겸 應急患者의 手術을 도맡아 했다. 1944년 봄에는 지금의 麻布區阿峴洞에 집을 사서 이사를 했다. 그해 5월에는 四學年生을 引率하고 強制로 징용되어 釜山 水營飛行場을 新設하는데 노역하는 사람들을 治療해 주기위해 현장으로 갔다. 京醫專 世醫專 京城大學 등 3개 醫學校에서 3,4반의 救護班이 朝鮮軍司令部의 指示에 따라 指定하는 곳으로 一週日間씩 파견되었다. 우리가 간 水營飛行場의 총감독은 日本憲兵伍長으로서 人夫들은 恐怖에 떨고 있었다. 自己말을 잘 안들으면 호된 매질을 한다든지 성이 풀리지 않으면 바닷물에도 처넣곤 했다. 참으로 분통이 터지는 일이었다. 거기서 起居하는 동안 인부들이 덮던 담요를 주어 그 다음날은 이집기에 바빴다. 이런 일을 憲兵에 말해서 새담요로 바꾸어 받기도 했다.

1944년 말부터 1945년 초에는 강제로 都市에서 시골疏開를 시켰으며 空襲이 두려워 자진해서疏開하는 사람도 많았고 우리 가족도 1945년 7월 경기도 여주로 소개를 하였으며 거기에는 世醫專 동창이자 妹夫인 金潤仙이 開業하고 있었다. 그 당시는 木炭 貨物車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여주까지 꼬박 하루가 걸렸다.

疏開한 지 1개월반만에 8·15 해방이 되어 9월에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해방 당시 그 고장의 郡守 署長 面長 등이 고의로 징용

(徵用)을 보냈다 하여 주민들의 폭행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

8·15 해방 후 美軍政下에서는 共產黨도 정치활동이 허용되어 南勞黨의 암약이 대단하여 3·1절 기념행사라든지 8·15행사때면 右翼團體는 서울운동장 축구장에서 左翼은 야구장에서 각각 기념행사를 하고 市街行進때에는 서로 충돌하여 많은 死傷者를 내곤했고 以北에서 숙청당해서 越南한 청년들이 主動이 된 西北青年會와 西北學生會와 右翼의 청년 民青同盟과 학생연맹 사이에는 폭력이 亂舞하여 우익의 우세로 좌익분자들은 地下로 숨게 되었다. 그리고 각 기관 團體에도 좌익분자가 없는 곳이 없었다. 서울 적십자병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日帝時에 적십자병원은 우리 韓國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日本 사람을 위해 설립된 의료기관으로 建物이나 시설이 좋고 해방후 日人이 물리간 후에 初代院長에는 美國에서 醫學校를 나온 孫金聲 선생이 취임했다. 병원에도 많은 南勞黨분자가 있어 사사건건 말썽을 부려 병원 운영에 지장이 많았다.

내과 외과 소아과를 증설했을 때 제1일 제2 내과 외과 소아과로 나누어 세브란스병원에서 내과에, 조창호선배와 동기인 金國聲 소아과로, 외과에는 내가 1946년 8월에 파견근무하게 되었다. 나는 제2외과와 방사선 책임을 맡고 내 밑에는 3명의 열렬한 南勞黨분자가 있어 처음에는 많은 시련을 겪었으나 나중에는 醫療面에서는 나를 따랐으나 理念과 體質의 改善은 되지 않아 6·25 사변이 나기전에는 西大門 刑務所에 수감됐다. 그들의 수법은 이러했다. 예를 들면 방사선과 기사는 한달에도 管球를 두개씩이나 깨고 경찰에 구속되면 救出해주곤 했다. 國軍의 前身인 國防경비대 時節에는 서울 赤十字病院이 경비대 지정병원으로 돼있어 1층 병실을 할당해서 입원실로 해주고 있었다. 美國 적십자사와 美軍 병원에서 많은 器具와 物資의 원조를 받았고 孫院長의 주선으로 우리 의사 간호원들은 永登浦에 있는 美軍 121후송병원에서 1주일씩 修練을 받기도 했다.

또 해방후 反民特委(反民族特別調查委員會)라고 해서 親日派를 조사해 처벌하는 기구로써 위원장에는 그 당시 金相敦 국회의원이

었으며 이 조사위원들이 테러를 당하여 약 20명 가량 적십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 李承晚대통령의 명령으로 해산했다. 美軍政시에는 日人醫師가 운영하던 의원은 의사에게 임대권이 우선적이어서 나는 서울역 앞 東子동에 있는 목조 2층 건물을 임대해서 적십자병원에 나가면서 야간개업을 하여 매월 약배급을 받았으며 그 당시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져 있던 셀파다이아징도 배급이 나와 以北을 왕래하는 장사꾼들이 잘 살곤했다. 1947년 4월에는 以北에 계신 부친이 제1차로 숙청을 당하여 동생 有變이와 開城피난민수용소에 계시다는 통지를 받고 모셔다 東子동집에서 같이 살았다. 부친께서는 이북에 두고온 가족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북하늘만 바라보며 한숨지으시다 49년 여름 별세하셨다.

<강원일보> 1982년 2월 4일 「의료사십년 8」 – 李基燮

6·25動亂 발발

狙擊받은 白凡선생 獔命하자 현장서 檢屍

北傀 탱크 砲身 痘院 正門향해 거뉴

輕傷 我軍은 私服입혀 避身시켜

1948년 10월 23일 여수·순천반란사건 당시 赤十字病院은 구호반의 임무를 맡고 美軍 大領 인솔로 서울역을 출발하여 光州에서 軍 트럭으로 저녁늦게 野戰司令部가 있는 順天에 도착하여 指定해준 여관에서 저녁을 먹고 다들 곤히 잠이 들었는데 문을 흔들면서 『빨리 손을 들고 나오지 않으면 쏜다』는 큰소리에 잠이 깨어 밖으로 나가는 순간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다. 총을 든 軍인이 나오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를 따로 갈라 세우고 인원을 점검한 뒤 앞뒤옆에서 경비하면서 캄캄한 밤거리를 끌고 가 어떤 建

物로 들어가서 우리들을 한방에 몰아넣고 한사람씩 데려가는 것이다. 나도 끌려서 어떤 방에 들어서니 우리병원에 자주 오던 將校가 아닌가. 그 순간 이제는 살았구나 생각하면서 그 장교에게 『이거 어떻게 된일입니까』하였다니 『그런 일이 좀 있어서 그랬습니다. 참으로 미안합니다. 가셔서 잘 쉬십시오』라면서 데리고 온 兵士에게 잘 모셔다 드리라고 命令을 한다.

나중에 들은 소문에는 우리를 인솔하고 온 陸軍 少領이 가짜였다는 것이다. 이 소령이 신고할 때 그의 거수경례법이 이상해서 취조한 결과 가짜로 판명되어 反軍이 가장하고 侵入한 것이 아닌가 하여 연행하였다는 것이다. 다음날 우리 一行은 焦土作戰으로 아직은 불타는 여수시가를 보며 지정된 장소에서 부상당한 많은 市民을 치료했고 1주일만에 光州로 돌아오는 길에 경호원이 쏜 노루로 여관에서 파티를 열고 다음날 제 車로 전원 무사히 歸院했다. 1949년 6월 26일 일요일 入院患者 치료를 위해 병원에 나가 병실에서 回診을 하고 있는데 정오께 경교장에서 급히 사람이 와서 지금 白凡 金九선생이 저격을 당했으니 급히 가자고 해서 回診 도중 뛰어갔더니 현관 바로 2층 계단 밑에 한 청년이 쓰러져 있었고 2층으로 올라가니 白凡선생께서는 별씨 殉命하셨고 室內에는 側近으로 보이는 2,3 명의 사람이 서 있다. 급히 쫓아온 白病院 金희국박사와 함께 검안을 마친 후 創口를縫合하고 死後 처치를 끝낸 후 歸院하였다.

元容德將軍이 재판장인 軍裁에 出頭하여 그 당시 총상에 대한 證言도 하였다. 京橋莊이라면 日帝時 平安北道에서 金礪으로 甲富가 된 崔昌學씨의 邸宅으로 적십자병원 바로 좌측에 있는 건물로 해방 후 上海에서 歸國한 애국독립투사들을 위해 숙소로 제공하여 白凡 선생 金奎植博士 趙素昂선생 등이 留하시던 집으로 지금은 고려병원이 서 있다. 서대문 근처에는 연극을 전문으로 하는 동양극장과 다방으로는 紫煙莊이 있었을 뿐이다. 당시는 지금과 같이 高層 빌딩이 있으면 으례 다방과 당구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역 앞에는 「돌체」, 광화문에는 「귀거래」, 明洞에는 有名했던 音樂家의 未亡

人이 경영하는 다방으로 서울市內에서도 손꼽힐 정도의 다방밖에 없었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아침은 화창한 날씨였다. 나는 조반을 먹고 병원에 가서 입원환자를 치료하고 서울역 앞에 왔을 때 스피커에서 휴가장병은 빨리 소속부대로 귀대하라는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 라디오를 들으니 北傀軍이 38線 全域에 걸쳐 南侵攻略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격정하지 않고 「올 것이 왔구나. 이제는 南北統一이 속히 이루어지리라」고 믿었다.

항상 平壤에서 점심먹고 新義州에 가서 저녁을 먹는다는 國軍의 實力を 꼭 믿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에는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에 非常이 걸려 병원으로 나가 기다려야 했다. 北傀軍은 탱크를 앞세우고 中共에서 훈련받은 8路軍을 투입하여 빠른 속도로 議政府를 점령하고 27일 저녁에는 미아리고개까지 進出한 것이다. 그렇게 큰 소리치던 우리 國軍의 장비라곤 장갑차와 L-19경비행기가 있을 뿐 도저히 탱크를 막을 길이 없어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였다. 그래도 3일간이나 서울을 방어할 수 있었던 것은 맥주병에 휘발유를 넣어 가지고 육탄으로 공격하였고, L-19機에서는 수류탄을 공중에서 노도같이 밀려나오는 북괴군에 投下하였으나 江물에 돌던지듯 별 戰果가 없었다. 부상병은 병원의 거리 관계로 제일 먼저 서울대학병원과 서울시립병원에 수용되었고 다음 27일부터는 적십자병원과 서울역 앞 세브란스병원으로 輸送되어 왔으며 27일밤에는 후퇴하는 國軍의 행렬이 길을 메웠다. 우리들은 부상병을 치료하느라고 밤을 새우고 있을 무렵 28일 새벽 2시께 큰 폭음이 나서 앞에 있는 서대문경찰서에 가보았더니 개미새끼 한마리 보이지 않고 텅 비어 있었다. 6월 28일 날이 밝자 북괴군은 고의적삼을 입은 少年을 탱크위에 태우고 요란한 소리를 내며 병원 앞에 세워 병원정문에서砲身을 병원으로 대는 바람에 창밖을 내다보던 병원 직원들은 지하실로 피신하였다. 우리들은 入院중인 國軍들 중 결을 수 있는 사람은 직

원들의 私服을 벗어서 입하고 피신시켰으나 중상자들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강원일보> 1982년 2월 6일 「의료사십년 9」 – 李基燮

赤 治下 3개월

職場 동료끼리도 경계·감시의 눈초리
몰래 放送듣고 UN軍 仁川上陸작전 알아
病院移動 기회 때 親知집으로 脫出

얼마후 사이드카를 탄 北傀軍 장교가 들어섰다. 病院을 돌아보며 자기네 兵士들을 보낼테니 치료하여 달라는 말을 남기고 가버렸다. 정오쯤 되었을 무렵, 西大門 17형무소에 있던 李모와 鄭모가 한복 차림으로 나타나 孫院長은 내보내고 자기네들이 病院을 접수하고, 부상당한 北傀軍을 치료하기 시작했다. 다음날 濟州道 出身 平壤醫專을 나왔다는 北傀軍醫官이 와서 18野戰 병원으로 사용하였고, 나는 수술실에서 수술만 하고 있었다. 國軍 重傷兵은 北傀 將校가 데려갔으며 9·28 收復 후 國軍이 北傀軍將校를 데리고 와서 現場검증을 했다. 中傷兵 을 漢江沙場에서 射殺, 매장하였다는 것이다. 서울이 점령당한 후 美軍 B29 폭격기는 매일 같은 시간에 仁川 方面으로 서울 上空을 거쳐 어디론가 가곤했다. 처음에는 北傀高射砲로 공격을 하였으나 砲彈이 폭격기에 미치지 않자, 그후는 대공포를 쏘지 않았다. 하루는 西小門 터널 안에 숨겨둔 北傀油槽車를 세이버 전투기가 空襲하는 바람에 病院을 공격하는 줄 알고 마치 매에 쫓기는 꿩 모양으로 머리만 숨기고 있었다.

空襲이 끝나자 서로 얼굴을 보고 한바탕 웃었다. 그때 지하실에서 피신하고 있던 北傀 政治保衛部 將校가 나타나 『무엇이 그리 좋

아서 웃느냐. 정신상태가 돼먹지 않았다』고 추궁하는 바람에 변명 하느라고 진땀을 뺀 일도 있었다. 하루라도 B29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울하기 짹이 없었다. 짹짜기(세이버전투기)라는 것은 6·25 당시 전투기를 말하는 것이다. 그 당시만 하여도 美軍은 그라망전투기였고 北傀는 蘇聯製 야그機였으나 制空權은 UN軍이 잡고 있어 北傀軍이 제일 무서워한 것은 짹짜기였으며 세이버전투기 소리만 나면 항공!이라고 외치며 꼼짝을 못했다. B29는 漢江 다리만 補修해 놓으면 영낙없이 공습을 했고 밤이면 市民들을 동원해서 남자는지고 부녀자들은 머리에 이고 해서 포탄을 漱江으로 건네곤 했다.

北傀軍이 漱江 渡河作戰에서 실패하자 서울까지만 占領하기로 한 8路軍이 다시 投入돼 만2일만에야 渡河에 성공하였으며 당시 적십자병원에서만도 약 8백명의 北傀軍 부상병을 치료했다.

漱江 방어작전에는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이 參戰하였으며 한때는 西氷庫까지 진출하기도 했다. 그리고 UN에서는 UN軍 참전이 결의되자 제일 먼저 日本에 주둔하고 있는 美軍 24사단이 水原과 烏山 사이에서 격전을 벌였고 제일 먼저 출격한 세이버전투기는 水原에서 후퇴하는 國軍과 피난민을 誤認하고 폭격과 機銃사격으로 민간인이 많이 사상되는 불상사를 내기도 했다. 서울에 남아 있는 市民들은 UN軍이 參戰하였으니 곧 서울을 탈환할 줄 믿었다. 그러나 戰勢는 우리에게 不利하여 大田에서는 「딘」 대장이 포로가 되고 洛東江까지 北傀軍이 진출하여 大邱와 釜山만이 남아 있었다. 처음 馬山지구 전투에서 한 美軍 흑인병사가 民家에 들어가 우리 한복과 갓을 쓰고 피신하려다 포로가 되었다는 웃지못할 일도 많았다. 둘째 처남인 咸東成군의관도 당시 포로가 돼 이북으로 끌려가서 어찌되었는지 소식이 없다. 몇년간 같은 職長에서 근무한 친구들도 날이 갈수록 서로 경계하게 되고 말도 조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말을 잘못하면 그날 저녁으로 정치보위부에 불려가서 욕을 보기도 하고 어디론가 보내지기 때문이다. 하루아침은 조회시간에 운전기사가 의사와 자기들 사이에 월급의 차가 많다는 불평을 하자 그

다음날부터 그 운전기사는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초조한 나날을 보내다 1950년 9월 26일 맥아더 장군이 이끈 UN군이 인천에 상륙하여 서울 방면으로 진격 중이라는 UN방송을 몰래 들은 사람의 귀뜸이 있었다.

9월 27일은 UN군 海兵隊와 북괴군 사이에 연희동 鞍山에서 일진일퇴의 공방전으로 북괴군의 부상병이 쓰러져 들어왔으며 북괴군은 기세가 불리하자 청량리로 병원을 이동한다고 전원 집합하라는 전달이 우리가 일하고 있는 수술실에도 전달되었다. 나는 이때가 도망치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병실에서 근무하던 車永錄 선생을 만나 병원의 경비사항을 좀 살피고 오라고 하고 기다리는데 5분도 되지 않은 시간이 그때는 왜 그다지도 긴 지 몰랐다.

돌아온 車선생은 지금 경비병은 다 불려가서 한 사람도 없다고 하여 병원 뒷담을 넘어 冷泉洞에 계신 金尙根 형님댁으로 도망을 쳤다. 이 형님은 南大門에서 尚洞 洋靴店을 하고 계셨으며 친분이 두터워 형님으로 모시고 또 그 형님 역시 나를 친동생같이 아껴줬다. 그 형님댁은 바로 金華山 밑에 있었기 때문에 金華山攻防作戰時 많은 파편이 날라오곤 했다. 9월 29일 아침 西大門 地域은 완전히 우리 해병대에 의해 收復되었기에 바로 병원으로 나가보니 美國서 援助받은 수술기구는 하나도 없이 北傀軍이 가지고 가버렸다. 나는 그 길로 東子洞에 있는 집이 궁금하여 서울역 앞에 오니 역앞의 建物은 전부 파괴되고 아직도 불에 타고 있었고 東子洞마을도 같은 상태였다. 집터에서는 아직도 연기가 나오고 있어 집안 식구의生死가 궁금했다.

<강원일보> 1982년 2월 9일 「의료사십년 10」 - 李基燮

收復과 1·4後退

부역한 醫師 拘束 輿論 나빠지자 中斷
西歸浦서 주민·避難民 무료진료 사업에 專念
漢拏山 共匪 良民 습격·약탈로 不安

동네사람을 만났더니 우리 식구들은 다 무사하며 青坡洞4촌 동생 집으로 갔다고 하여 단숨에 달려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애들은 아빠하며 품에 안긴다. 家族들은 한참 침묵을 지키다가 어제 있었던 얘기를 애엄마가 시작한다. 青坡洞으로 들어온 國軍은 孝昌公園에서 완강히 저항하는 東子洞의 北괴군을 네이팜탄으로 공격하였기 때문에 木造建物은 말할 것도 없고 방공호에 넣어둔 물건도 모두 타버렸다는 것이다. 불을 피해서 옆에 있는 光成學校 運動場으로 가서 아이들을 이불로 덮어 변을 모면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당장 들어갈 집이 없어 걱정을 하던 중 青坡洞에 사는 친척이 찾아와 青坡洞은 아무런 피해도 없으니 빨리 가자고 하여 따라왔다는 것이다. 8·15 해방 후 이북에서 越南한 동생 英燮은 남쪽으로 피난하였기 때문에 青坡洞 집은 비어 있었다. 나는 1951년 1월 4일 후퇴할 때까지 여기서 병원을 通院하였다 9·28 收復 후 미처 피난을 못하고 北傀軍병원에 잡혀서 일한 醫師들은 부역했다는 罪目으로 많이 구속되기도 했다. 서울을 撤收할 때에는 市民에게 政府는 서울을 死守할테니 조금도 동요말라고 放送까지 해놓고 자기들만 빠져나갔다가 돌아와 남아있던 市民들을 부역했다고 하며 많이 괴롭혔다. 참으로 패씸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나 輿論이 나빠지자 중지했다. 培栽 다니는 둘째동생 有燮이와 東國大學에 다니는 사촌동생 潤燮(英燮동생)이가 大邱에서 학도병으로 志願해 팔공산 전투에서 다리에 관통총상을 입고 돌아왔으며 이들은 西北學生會의

회원이었으므로 北傀軍이 서울에 들어오자 총을 든 學聯 학생들이 찾아와서 어디갔느냐고 내놓으라고 하였다. 英燮이는 釜山 거제리에 있는 北傀軍 포로수용소에 취직해서 정착하고 있었다.

UN군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자 보급로가 끊긴 洛東江 지구의 北傀軍은 동해안 산악지대를 타고 북상도주하기 시작했고 UN軍은 平北 숙천에 낙하산부대를 투하시켜 정돈할 여유도 주지않고 과죽지세로 北進에 북진을 거듭해서 楚山까지 가 압록강에 손을 씻고 돌아온 부대도 있었다. 그러나 예상하지 않았던 中共軍이 가담하여 고전 끝에 UN군은 다시 후퇴하기 시작했다. 1951년 1·4 후퇴 당시는 6·25의 교훈을 살려서 政府에서도 시민에게 피난갈 것을 종용하여 각 기관 각 단체는 각자가 열차와 선편을 이용하여 남하했고 적십자병원 직원과 가족 선발대는 仁川에서 船便으로 3일만에 釜山에 도착하였으며 나와 孫원장 崔사무장 洪간호부장은 마지막날 오후 1시에 앰뷸런스로 麻布가교를 건너 大邱에서 一泊하고 다음날 釜山에 도착했다.

먼저 온 家族은 巨濟島의 포로수용소에 근무하는 英燮 동생의 주선으로 巨濟島에 房을 얻어 애들과 無事히 지내고 있었다. 우리 病院은 1개월 후 美軍 民事處의 命으로 濟州道 南濟州郡 西歸浦에서 그 지역 住民과 避難民을 치료하기 위해 1만2천t급의 貨物船을 타고 피난민들과 함께 南濟州郡 城山浦에 도착하여 海軍이 내주는 自動車 便으로 西歸浦에 도착하였다.

우리一行은 海岸가에 있는 日帝時부터 여관을 하던 여관을 接受하여 1주일 후부터 診療하기 시작했다. 原住民과 피난민이 줄을 지어 치료를 받았으며 現地에는 限地 開業醫師가 年老한 분과 壯年の 두 의사가 있었다. 우리들은 처음에는 方言을 몰라 通譯을 세우지 않고는 알아듣지 못했다.

예를 들면 『광이 빠사았음』(뼈가 아프다는 말) 등이다. 서귀포읍에서 6km 가량 떨어져 있는 法還리에는 兔脣(토순, 언청이) 환자가 무려 16명이나 되어 수술치료도 해줬다. 왜 이동네에만 이런 환

자가 많으냐고 물었더니 바로 이마을 앞바다에는 蟻 섬이라는 무인도가 있는데 서귀포읍에서 보면 하나로 보이나 이 마을에서 보면 섬이 둘로 갈라져 마치 언청이 같기 때문에 이런 환자가 많다는 것이다. 요즘 話題가 된 예천 쌍동이마을과 같이 그 원인은 규명을 못하였다.

하루는 붉은 도미를 지게에다 지고 온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위궤양으로 밥을 먹기만 하면 토하곤 했고 病치료하느라고 家産을 탕진하고 부인도 도망을 가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병원에 찾아와 위절제수술을 받고 完治되어 지금은 일상생활이나 노동에도 지장이 없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도망갔던 부인도 다시 찾아왔으나 거절하였다 것이다.

당시는 美軍民事處로부터 의료약품 일절을 무료로 배급받아 치료수술도 일절 무료로 해 주고 있었다. 濟州市에는 서울대학병원이, 巨濟島에는 세브란스병원, 西歸浦에는 서울 적십자병원이 담당하고 있었다.

어느날밤 西歸浦 소재 단추工場(지금은 없어졌으나 당시는 전복껍질로 단추를 만들어 輸出하고 있었다) 廣場에서 「잃어버린 지미」라는 戰爭孤兒를 主題로 한 영화를 상영 도중 수류탄 사고로 많은 原住民과 피난민 사상자를 냈다. 우리 병원 직원들은 밤을 새워가며 이틀간 부상자를 치료해 주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한라산에는 공비가 있어 가끔 부락을 습격하곤해서 처음에는 공비의 습격으로 알았으나 경찰서 운전기사의 실수로 판명되었다. 공비들은 西歸浦 지역만을 供給하던 日帝時에 建設한 天池淵 폭포 근처에 있는 수력발전소를 폭파시켜 피난민들이 한때 공포에 떨었다.

<강원일보> 1982년 2월 13일 「의료사십년 11」 - 李基燮

梨大 附屬病院 근무

54年病院長 취임 4·19 이후 自退

梨大 山岳班 인솔 登行다니며 遭難者 구출도

雪嶽에 반해 束草에 定着 開業 결심

1951년 8월에는 서울로 복귀하라는 本社의 지시에 따라 일부는 가족과 함께 西歸浦에 남아서 진료를 계속하고 있었고 일부는 교대로 서울병원으로 복귀하여 근무하였다. 나는 서울로 복귀하자 孫院長의 주선으로 처음으로 試圖하는 美極東司令部 직속인 이동신경외과에서 Mirowsky 中領 지도하에 戰傷神經外科를 3개월간 연수하였다. 지금까지 神經外科는 永登浦 121후송병원에서 취급하였으나 그때부터 一線의 일반 이동 외과병원과 같이 新設되어 좋은 성과를 거두어 楊口지방과 抱川지역에 두개의 이동신경외과가 있었다. 나는 전방 雲川지역에 있었다.

나 다음에는 韓國軍에서 파견한 金善根 大尉 李柱傑 大領 尹福榮 大尉가 이 病院에서 訓練을 받았다. Mirowsky 中領의 주선으로 우리 國軍에도 春川에 移動神經外科病院이 創設되어 初代院長에 尹福榮 선생님이 赴任하여 좋은 成果를 거두어 大統領賞까지 탔다.

내가 初代院長이 될 것이었으나 건강이 좋지 않아 軍에 입대하지 못했다. 1953년 1월에는 鎮海에 있는 海軍 軍醫學校에 입대하여 해군예비역대위로 제대하여 歸院하였으나 같이 갔던 宋全武 선생은 현역으로 입대하여 海軍 初創期의 胸廓外科를 창설하였다. 1953년 4월에는 西歸浦에 남아있던 가족을 서울로 데려오기 위하여 濟州道에서 釜山으로 오는 船中에서 아내가 產氣가 있어 하마터면 배에서 분만할 뻔했는데 여행히도 梨大 釜山病院에서 막둥이 圭姫를 順產했다.

釜山에 있던 梨大病院도 지금의 東大門부속병원으로 復歸하여 초대원장에 鄭鎮旭선배가 취임하고 산부인과에 金정열, 內科에 尹海炳, 外科에 내가 내정돼 1953년 4월부터 副教授로 근무했다. 다음 해 4월에 鄭院長이 保社部次官으로 榮轉하는 바람에 내가 1954년 4월에 教授로 승진하여 附屬病院長으로 근무하면서 美軍民事處로부터 1만弗어치의 시멘트와 철근을 원조받아 5층으로 증축하였다. 처음에 東大門 婦人病院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產母와 婦人科 환자가 제일 많았다. 하루는 밤 사이에 12명이 분만했고 7명의 남아만 분만한 때도 있었다. 또 당시는 이 병원에만 조산아 보육기가 있어 시내병원이 많이 이용하였으며 때로는 부족하여 어려울 때도 많았다. 지금도 흐뭇하게 생각하는 것은 두 男妹를 가진 홀어머니가 몇 달 전부터 양측 하지의 무력과 저림증과 함께 점차 마비가 와서 내가 근무하는 外科를 찾아왔다. 나는 정밀 검사후 골절궁내의 신생물로 진단하고 골절수술로 모지형태의 양성포병을 척거하는데 성공하였다. 수술 다음날부터 경과가 좋아 20일만에 완쾌되어 퇴원하였다. 이때처럼 보람을 느껴본 적은 없다. 이러한 보람은 천만금을 얻는 것보다도 기쁘며 의사가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기쁨이다.

이무렵 韓國山岳會 理事와 서울山岳會 2, 3代 會長을 지내면서 서울法大生 漢拏山 조난시는 洪鍾仁회장과 濟州道에 갔었으며, 친구들과 白雲臺에 올랐다가 조난당한 宋永浩군을 孝悌리 칡덩굴 밑에서 2일만에 救助하기도 했다. 그리고 高校山岳班을 위해 무모한 등산을 지양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있는 山行과 캠프로 강인한 體力과 健全한 정신을 기르고 서로 協助하는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매년 1박2일 코스로 서울근교에서 크로스컨트리大會도 개최하여 젊은이들에게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梨大 師範大學 山岳部를 따라 1956년 7월 하기방학을 이용하여 내설악 將帥臺와 12선녀탕을 거쳐 百潭寺로 해서 오세암 수령동 계곡으로 凤頂庵으로 되돌아와 가야동 계곡으로 해서 오세암을 들러 馬登嶺을 거쳐 神興寺에 내려오

기도 했다. 大青에서 직접 千佛동 계곡으로 山岳의 베테랑급이 아니면 도저히 下山못했다. 그래서 神興寺에서 飛仙臺를 거쳐 千佛동 계곡 陽瀑까지밖에 못 갔었다.

내가 梨大病院 就任 당시는 產婦人科 內科 外科 밖에 없었던 것을 各科를 갖추어 市內에서도 빼지지 않는 綜合病院으로서 규모를 갖췄다.

서울 赤十字病院 在職時 京都大學에 계신 青柳教授로부터 『너의 연구논문을 심사하려고 하는데 反民特委에 걸리지 않겠느냐』는 着信을 받고 관계없다는 回信을 냈더니 1957년 6월에 學位論文이 통과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받았다.

1960년 4·19가 나자 각 기관의 長은 無能하느니 各學校에서는 御用教授니 하여 自意보다는 他意에 의해서 다들 辭退하였으며 나도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나는 院長職만 辭退하고 教授로 있으면서 오후 開業을 하였으나 (당시 오후 개업을 한 교수가 태반이었다) 학교당국에서는 학교에만 나오고 오후 開業은 그만두라는 指示가 내렸다.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개업하기로 결심하고 江原도 東草읍으로 開業地를 택하였다. 왜 그런지 서울이 싫었다. 東草는 설악산이 있는 곳이고 내가 사범대학 산악부를 따라 등반할 때에는 金剛山 못지않은 아름다운 山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내 취미도 살리고 하나는 돌아가신 金活蘭 박사가 梨大 의과 졸업생은 시골로 가서 奉仕하는 의사를 양성하라는 醫大 설립의 취지도 있었던 것이 또 하나의 이유라면 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 나는 東草시 中央동에 여관자리를 빌어 개업을 했다. 일요일이면 내 妻와 함께 배낭을 둘러메고 설악산으로 가곤해서 市民들로부터 병원은 지키지 않고 산에 놀러다닌다는 편안도 많이 받았다.

<강원일보> 1982년 2월 16일 「의료사십년 12」 - 李基燮

雪嶽산악회장

54年韓國산악회서 雪嶽山 첫 踏查

外雪嶽~大青 등 천신만고 끝에 登山路 만들어

65년에 天堂瀑~蘭瀑吊橋가설

예로부터 雪嶽山은 金剛山과는 색다른 風致名勝地라 하여 世人의耳目을 끌어왔고 學術的으로도 부분적으로 지형 지질 동식물에 관하여 조사되어 왔었다. 특히 6·25 동란후 이 지역이 수복되자 國內에서도 우수한 관광지로서 또는 중요한 학술답사의 대상이 되었다.

六堂 崔南善 선생은 『山을 보려면 雪嶽山을 보라』는 말을 했듯이 金剛山은 여성적인 美라하면 雪嶽山은 남성적인 美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雪嶽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1954년 8월 寒國山岳會가 조직한 조사반이 雪嶽山을 답사한 후 많은 등반대가 다녀갔고 동식물을 채집하는 사람들도 늘게 되었으며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게 되었다.

더우기 이 지역에 생장하는 풍부한 식물과 여기에棲息하는 야생동물들은 자연과학의 생태학연구에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國際自然資源保存聯盟의 전문가에 의해 雪嶽山一帶의 자연은 지표상의 人的侵害을 받지 않은 原狀을 보존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보호할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雪嶽山은 경승지뿐 아니라 자연보호지구로 1965년 11월 5일 字로 文教部에서 雪嶽山일원의 자연을 천연기념물 제171호로 지정하였고 1970년 3월 24일 국립공원으로 지정발표돼 지금은 국제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1965년 당시만 하여도 山岳班員이 아니면 大青에서 죽음의 계곡으로 자일타고 天堂瀑布까지 꼭 하루가 걸려 下山하였고 천당폭포에서 陽瀑 뒤에 있는 장폭으로 자일을 타고 내려 길도 없는 千佛洞溪谷을 따라 神興寺에 도착하는데 꼬박 2박3일이 소요됐다. 일반 등산객들은 도저히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당시 속초가 양양군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양양관광협회가 창립되어있어 朴泰宋회장과 설악산악회 공동으로 大青까지 토끼길을 내고 陽爆 좌측 암벽에 나무사다리와 천당폭과 南瀑사이에는 襄陽철광회사 金在明사장의 호의로 鐵와이어와 鐵柱로 吊橋와 나무 사다리를 놓아 건각이면 누구나 다닐 수 있게 하였고 이 경관을 널리 국내외에 알림과 동시에 국내 산악인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1966년 10월 1일 江原道예총지부 崔九鉉씨와 설악산악회가 주동이 되어 제1회 雪嶽祭를 개최하였다. 설악산악회는 1964년 내가 회장이 되고 총무에 白永一씨, 財務에 金仁烈씨가 선임되어 제7회 설악제를 치르고 내가 濟州道로 가는 바람에 金元鎮씨가 회장으로 선임되어 현재까지 가을이면 계속하고 있다.

제1회 설악제는 내설악 麟蹄郡 北면 外加坪에서 시작해서 백담사에서 일박하고 다음날은 백담사서 凤頂庵까지 마지막 날인 제3일은 大青을 거쳐 신흥사로 내려오는 도중 大青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小青로부터는 暴雨로 변하여 계곡의 물은 삽시간에 불어나서 양폭에서부터는 자일을 잡고 山岳班의 도움없이는 도저히 건널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하산도중 서울에서 온 60세 가량의老人이 케면岩 위의 건널목에서 失足하여 케면岩까지 떠내려오다 마침 대피하고 있던 등산객에 의해 구조되었다. 지금도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 지금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위험없이 단시간에 內雪嶽에서 外雪嶽을 횡단할 수 있게 된 그 뒤에는 남모르게 수고를 하신 분들이 많다.

나는 1964년에 外설악에서 大青까지 토끼길을 만든 후, 1965년 10월 28일 江原道知事였던 朴敬遠지사 元秉義 建設局長님을 비롯,

강원일보 姜杓遠 社長님 (당시 편집국장)과 인제郡守였던 李建雄
군수(작고)와 인제 경찰서장 당시 陸軍中領있던 現○○부대장이신
金舜鉉小將의 警護밑에 登山路 개발 계획 조사次 첫눈이 내리는 날
출발, 百潭寺에서 1박하고 흰눈을 맞으면서 가야동을 지나 水濂동
계곡을 거쳐 쌍폭으로 올라 저녁에야 일행은 凤頂庵에 도착, 식사
를 마친 후 캠프 파이어로 피로를 풀었다. 둘러앉아 각자의 18번을
부르노라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다. 일행은 좁은 절간방에서 서로
끼어 토끼잠을 잔 후 다음날은 大青峰을 거쳐 小青으로 下山하
는데 전날 내린 눈이 나무뿌리에 덮여 어찌나 미끄러운지 앞에서
아이쿠하는 소리와 함께 폭소가 터져 나오곤 했다. 가야동을 거쳐
조교가 있는 蘭瀑과 天堂瀑을 건너 陽瀑에 도착하니, 우리 일행을
마중나온 당시 東草市長이시고, 現 춘천번영회장이신 朴建周회장님
이 준비해온 불고기로 시장기를 달래고, 神興寺에 도착하여 답사를
끝냈다.

朴知事는 그후 麟蹄군 北면 外加坪에서 百潭寺까지는 車道를, 百
潭寺에서 凤頂庵을 거쳐 陽瀑으로 해서 神興寺까지, 또하나는 五歲
庵을 거쳐 馬登嶺을 넘어 飛仙臺를 거쳐 神興寺에 이르는 登山路가
1969년 9월에 완공되어 지금의 등산로가 된 것이다. 앞에 山이 있
으니 오른다는 말 같이 앞에 길이 나 있으니 길을 간다. 이 길이 생길 때까지는 그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답사가 끝난 다음 姜社長님은 雪嶽山 紀行文을 써서 國內
외에 널리 알렸으며 지금도 한자리에 모이면 凤頂庵에서 먹은 인스
턴트 된장국 맛이며 小青을 내려올 때 넘어지던 얘기를 하고는 서로 폭소를 터뜨린다.

<강원일보> 1982년 2월 18일 「의료사십년 13」 - 李基燮

雪嶽山 遭難 구조

69년 海外遠征 隊員10명 눈사태 遭難

高貴한 犠牲으로 우리 등반대 海外서 名聲

雪嶽祭 열 때마다 새 登山路 개발

朴지사는 인제군은 凤頂庵에, 속초는 陽瀑에 산장을 건립하였고 서울山岳會 崔泰默선생은 私財로 가야동에 喜雲閣山莊을 지어 4계 절 등산객에 편의를 도모했다. 1969년 2월 14일 한국산악회 해외 원정대가 죽음의 계곡에서의 遭難은 우리 한국산악회 사상 제일 큰 사고였으며 당시 陽瀑山莊이 있었기에 구조작업에 절대적인 도움이 되었다.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때문에 우리 산악인들은 해외원정에서 속속 成功을 거두었다. 특히 등산은 모험과 위험이 항상 뒤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당시 金鍾鎬 국회의원은 傀面岩 밑에 다리를, 적십자강원지사는 병풍바위 밑에 목조사다리를 鐵사다리로 놓아주어 물이 불어도 무난히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우리 雪嶽山岳會는 매년 雪嶽祭를 개최할 때마다 새로운 등산로를 개발해서 등산 초보자에게 안내하였다. 權金城~七星峯~華彩峯~雪嶽望景臺~陽瀑 大青에서 中青으로해서 獨走瀑으로 해서 南雪嶽 五色약수터로 내려가는 길, 전에는 大青에서 五色里로 하산하려면 관터로 내려가던 것을 직접 五色약수터로를 개발하였으며 大青에 오르는데는 제일 거리가 짧으며 소요시간도 4시간 30분이면 누구나 오를 수 있다. 또 1967년 이후에 馬登嶺을 넘은 분들은 알겠지만 당시는 遊仙臺에서 臥仙臺와 軍糧岩 사잇길로 내려와 飛仙臺를 구경하려면 지친 몸을 이끌고 올라가야만 했다. 그러던 것을 1967년 여름방학 때 日本立教大學 山岳部와 함께 遊仙臺에서 지금

의 金剛굴 앞으로 해서 飛仙臺로 빠지는 길을 새로 냈고 朴散遠道知事 당시 쇠다리와 돌계단을 놓았었다.

가슴이 메어지듯 비통한 遭難事故를 회고하여 보면 1965년 7월 10일에 에코클럽의 李원상군과同年 7월 16일에는 클럽의 金정규군이 비선대 건널목 같은 자리에서 急流에 휩쓸려 溺死하였고 1967년 1월 하순께 小青峰에서 서울의대예과 1년 李모군이 凍死하였고 1968년 10월 26일에는 가톨릭의대 산악부원 7명이 麟蹄군北면 남교리 12仙女湯에서 조난을 당하였으며, 1969년 2월 14일 海外遠征을 위한 冬季훈련차 大青 百米瀑布에서 李희성 隊長을 비롯 10명의 隊員이 눈사태로 遭難했다. 이처럼 本隊 全員이 死亡한 예는 山岳史上 드문 일이며 대개가 攻擊隊가 당하는 일이 많다. 또 1976년 2월 16일 大韓山岳聯盟 「히말라야」 등반 冬期훈련 도중 설악골 범바위밑에서 崔수남 전재운 宋준성군이 눈사태로 조난을 당하였으며 土旺城瀑布 氷壁을 오르다 추락하여 조난하는 일도 가끔 發生하였다. 그러나 이분들의 高貴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輗은 山岳人們이 海外遠征에 成功하고 있다.

1969년 3월 5일 10同志 영결식에서 李은상 회장님의弔詩를 소개하면

쓸어 안으니 차가운 몸을
내 체온을 가르고 싶다
숨소리가 왜 없나
내 호흡을 불어 넣었으면
그대들 혼들여 보다 못해
눈쌓인 산만 바라본다
아까운 그대들이라
거치른 세상에 오래 안두고
깨끗한 그대들이라
흙먼지 속에 차마 못문어

하늘이 설악 명산을 골라
흰눈속에 감추시던가
한밤에 그대를 그려
산아래 홀로 섰노라니
청봉 만학이
달도 희고 눈도 흰데
어디서 귀익은 목소리
들리는 것만 같다.
못다푼 그 의욕
다 못태운 그 정열
야—호 소리 들리거던
그 속에 같이 섞여서
마저 풀고 태우게

노루목에는 이들 10同志의 묘소가 있고 墓所 앞에는 추모비가 서 있다.

1966년 7월 春川라이온스클럽의 黃錫明 회장과 韓熙喆 부회장의
앞선으로 春川클럽이 스폰서가 되어 東草클럽이 韓國에서 32번째로
發足하였으며, 初代會長에 내가 선임되어 회원의 團結된 힘으로 지
역사회에 많이 이바지하였고 지금도 후배들이 계속해서 봉사활동을
하며 1974년에는 日本奈良市의 이고마클럽과 자매결연, 韓日간의
친선을 도모하고 있다.

<강원일보> 1982년 2월 20일 「의료사십년 14」 - 李基燮

道立병원 西歸浦分院長

八字에 없는 不實케이블카 社長하다 困辱

謀略 · 모함 떨쳐버리고 濟州로 떠나

漢拏山서 샘 찾으며 自然保護

1970년 4월 설악산개발을 위해 설악관광주식회사를 창립하고 회장에 漢丙起씨 社長에 내가 위촉되어 雪嶽洞에서 權金城까지 1천 1백m의 케이블카를施工하였으나 施工者の不實로 工事が 늦어져 1971年 4月에야 만1년 걸려서 개통되었다.

그것도 자주 고장이 생겼으며 하루는 1시간 반 가량 기계고장으로 공중에 매달려 관광객들의 분노가 대단하여 멱살까지 잡힌 일이 있은 후 천직인 의사노릇이나 하지 팔자에 없는 社長은 무슨 社長이냐고 자책하며 그만두었다. 그때 느낀 것으로는 정치하는 사람보다는 주위에서 청탁이나 권력 금력을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지금 이시각에도 그런 족속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그후로는 설악산에 가서 케이블카만 보면 不快하기 짹이 없어 1972年 9月 정든 東草를 떠나 우리나라 第一南端인 濟州道 西歸浦로 떠났다. 自己는 良心껏 正直誠實하게 힘써 일했는데도 不拘하고 다른 사람의 지탄만 받는 사람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濟州道로 가기 前 1972年 초 설악산을 아끼는同志들이 모여 설악의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雪嶽自然保護協會를創立하여 등산객에게 「내집정원과 같이」 「내마음과 같이」 자연을 사랑하자는 인쇄물을 配布하며 캠페인을 벌였고 濟州道에 가서는 西歸浦山岳會員과 함께 제일횡단도로 「성판악」에서 자연보호 캠페인을 벌였다.

1951年 1·4후퇴 당시의 제주도 한라산에는 공비가 우굴거리고

도로는 포장도 되지 않아 1周도로로 제주도에서 西歸浦까지 가려면 꼬박 6시간을 먼지를 뒤집어쓰고 달리곤 했고 밀감밭도 西歸浦 西烘邑에 日人이 하다 간 몇千坪에 不過했었다.

만 20년만에 다시 보는 濟州道는 놀랄 만큼 변모하여 있었다. 濟州군은 濟州시로 승격되고, 시가지는 말끔히 포장되어 있고, 고층건물이 줄지어 늘어서 있고, 가로수는 아열대지방의 식물이어서 異國에 온 감을 주었다. 교통편은 서울에서 대한항공이 매일 7~8회씩 취항하며, 직접 日本 大阪을 週 2回 씩 就航하였고, 濟州港에서는 매일 釜山 木浦行 선편이 있었다. 濟州道 一周道路도 완전히 포장되었고 日帝時 軍用道路로 만든 濟州→서귀포 횡단도로도 완전히 포장되어 5·16道路 또는 第一橫斷道路로 불리우며 서귀포까지 승용차로는 50分, 마이크로버스로는 1시간10분이 소요되었다. 1·4 후퇴 당시는 마을마다 共匪의 습격을 막기위해 마을 주위를 돌담을 둘러싸고 사방에 망대를 만들어 매일밤 동네 젊은이들이 교대로 경계하던 돌담은 간데없고 밀감을 심고 돌담 대신에 防風林 과 防風網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南濟州군 서귀포 근처에는 밀감밭으로 一色이었으며 서귀읍 신효리는 서울 다음으로 GNP가 높다는 곳이다. 濟州도립 서귀포분원장으로 있을 때 하루는 당시 濟州道 교육감이었던 金寅洙씨가 찾아와서 1·4후퇴 당시 서귀포 단추공장 手揚彈事件으로 복부 타박상을 입어 적십자병원(서귀포에 있었음)에서 나에게 수술을 받고 九死一生으로 (부상 당시는 교육청 장학사로 계셨다함)회생하였다고 인사를 왔을 때에는 참으로 반가왔다. 서귀포는 밀감농장이 많기 때문에 농장에 가려면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오토바이 사고가 제일 많았다.

오토바이 사고로 頭蓋骨折로 긴급상태의 患者를 응급조치를 하여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옮겨서 완치시킨 것과 또 하나는 乘用車와 충돌해서 집에서 죽을 때만 기다리던 患者의 친구가 찾아와서 왕진을 請하기에 따라가 보니 다른 의사들은 가망이 없다고 포기한 것

을 병원으로 데리고 와 기간절개와 산소호흡 등 구급조치로 전신상태가 좋아지므로 역시 세브란스병원으로 이동하여 회생시킨 일이 있다. 참으로 이런 때에는 물질적으로 얻는 것보다는 정신적으로 얻는 것이 많다. 이런 때에는 의사된 보람을 느끼곤 했다.

또 서귀포산악회 姜致男회장을 비롯 회원들과 함께 한라산 북벽에 등산로를 개척하였고 「윗세오름」 밑 구상나무 숲에서는 샘을 찾아내 「백록샘」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한라산을 등산하려면 물이 귀하여 등산객들은 고통을 받는다. 한라산은 死火山이기 때문에 물이 대부분 지하로 숨어 海岸가에 가서 湧出하곤 한다. 濟州산악회에서는 매년 5월 하순이면 「철쭉제」 행사를 갖는데 이때에는 도민은 물론 전국 각 산악회에서 참가하여 白鹿潭에서 산신제와 철쭉女王을 선출하는 등 하루는 축제 기분에 들뜬다.

설악산의 철쭉은 한라산의 철쭉에 비할 바 못되며 靈山계곡의 참꽃(진달래과)은 5월 하순에서 6월 상순에 피는데 참으로 아름답다. 한라산의 철쭉이며 참꽃은 한번 구경할 만하다. 지금은 제2횡단보도에서 영실까지도 포장이 되어 있어 영실에서 차에서 내려 「五百나한」을 지나 정상까지 가는데 약 5시간이면 오를 수 있고 「성곽악」 쪽으로 하산하면 누구나 갈 수 있다.

<강원일보> 1982년 2월 23일 「의료사십년(完)」 - 李基燮

餘生을 山과 老人위해

계획없는 開發은 自然만 파괴 동감
量만 치중 質 소홀한 保健行政도 改善点 많아
74년도 青龍奉仕賞 수상

나는 束草에 있을 때 설악산에서 遭難者의 救護에 功이 있다하여

1974年 2月 朝鮮日報社가 매년 施賞하는 靑龍奉事賞 仁賞을 받고 기독교방송과 인터뷰에서 앞으로의 希望은 학생들을 위한 山間學校와 老人們을 위한 老人病院을 세우고 싶다고 하였더니 梨大 金玉吉 총장께서 방송을 들으시고 자기도 같은 생각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설악산에 학생들의 宿舍를 짓고 오전이면 教養學科를 가르치고 오후에는 직접 山으로 가 自然保護에 대한 實質的인 教育을 시킬 計劃으로 1974年에 설악산 피꼴에 부지를 마련했다. 1975年 1月 東草로 다시 돌아왔으나 피꼴이 國立공원 D地區로 묶여 施行이 안되고 있다. 그때 D地區가 開發되기까지 保健所에 근무하면서 停年이 되도록 실현되지 않아 지금은 東草道立病院에 근무하면서 老人健康相談室을 개설해 無料로 相談에 응하고 있다.

자연보호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은 한번 파괴된 자연은 원상대로 복구하기 힘들고 한번 베어진 나무는 다시 자라지 못하며 깎아내린 흙은 原形의 斜面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을 개발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自然이 人間에 대한 의의와 自然保護에 대하여 몇마디 해보자. 우선 자연으로부터 인간이 받는 혜택에 대해 생각해 보자. 古來로 산은 崇仰의 대상이 되었고 다음으로는 별채 개발 조림 등으로 자연을 이용해 왔다. 다음에는 人類를 위해서 休養 保健 건강회복 정신안정 등의 이용이 자연의 역할이다. 오늘날과 같이 교통지옥, 公害, 도시생활에서 오는 神經症이 증대되어가는 이 세대에서 우리는 싫든 좋든 現代도 그렇고 미래에도 자연과 공존하지 않으면 안된다.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는 첫째 생활의 장소로, 둘째 학술연구의 장소로, 셋째 인간정신의 부활의 장소로 표현할 수 있다. 社會 全文明의 발전에는 자연의 改變이 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생태계의 파괴 및 경치의 美的調和를 무시한 무계획 무통제한 자연의 파괴는 생활환경의 악화와 야외휴양지역으로서의 가치를 파괴하

게 된다. 국립공원은 경치를 보호함과 동시에 국민보건 휴양 教化의 장소로 지정된 것이라 보겠다. 그 대상은 등산객에만 한하지 않고 일반 국민은 누구나 다 이용하게 되므로 산악지대로의 교통시설 관광산업에 의한 자연의 파괴로 볼 수 있으나 앞으로의 자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보호를 전통으로 한 이용계획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자연보호는 누구나가 다 손쉽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 있다. 첫째 나무를 깍지 말고 山火를 놓지 말고 담배는 일정한 장소에서 피며 꽁초는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반드시 비벼서 버릴 것. 둘째로 動植物 鳥類 등을 마구 채취하거나 잡지 말 것. 셋째로 쓰레기는 함부로 버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 태우거나 비닐주머니에 넣어 지정된 장소나 가까운 휴지통에 버리면 山은 항상 아름답고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다. 설악동 權金城 산장에 있는 劉昌瑞씨께 들은 이야기는데 하루는 美兵士 30여명이 산장에 와서 점심식사를 하겠다기에 빌려주고 兵士들이 다 간 다음 청소하러 갔더니 청소할 것이 없어 깨끗하였고 빈 깅통 두 개만 쓰레기통 옆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다.

또 하루는 外國人 국교생으로 보이는 형제가兄은 깨진 병 조각을 한 아름 안고 동생은 빈 병을 가지고 와 어디 버리면 좋으냐고 묻고 있는데 술이 약간 취한 우리 青年이 술병을 애들 보는 앞에서 던져 깨더라는 것이다. 그 애들을 보기가 어찌나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몰랐다는 것이다.

이 두 형제는 학교나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서 자연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았으리라 믿는다. 우리나라도 국민학교 教科과정에 자연보호에 관해 교육이 철저히 실시됐으면 한다.

道立병원 보건소 등 公職生活 10여년에 얻은 所感은 保健行政에 있어서 너무 量에만 치우치고 質의으로는 소홀히 하는 감이 있다. 또 의료시혜 대상자의 選定에 一貫性이 없기 때문에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못받고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을 보게 된다. 歐美諸國과는 歷史的 배경도 다르고 政治的 형태도 같지 않

으로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해온 몇가지 시책이나마 앞으로는 서로 연계를 가지고 體系化시켜 有機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시골 사람들은 병이 발생하여도 초기에 찾아오지 않고 병이 심해져야 비로소 의사를 찾아오는 사람이 많다. 특히 산간벽지에 갈수록 그러하다. 거기에는 교통의 불편과 경제적 문제도 있다고 본다. 그래서 不定期的인 무의촌 진료는 止揚하고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의 인원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순회진료를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끝으로 남은 餘生을 老人們을 위해 봉사하고 싶은 생각이다.

>끝<

<醫協新報> 1969년 3월 24일 10면

雪嶽山 조난사고 救助日誌

雪嶽山岳會 會長 李基燮

本隊 전원 死亡은 드문일

風速13m · 영하20도 酷寒속에서 救助作業 부진

눈사태 配慮않고 「캠프」定한 것이 탈

작년 10월 하순 강원도 인제군 북면 남교리 12선녀탕에서 가톨릭의대 산악부원 7명의 조난사고가 아직 잊혀지기도 전에 한국 사상 처음으로 눈사태에 한국 「베테란」급 산악인 10명이 조난당하였다는 비보를 들을 때, 가슴이 메어지는 듯 비통하기 짹이 없다. 설악산에서 조난사고를 회고하여 보면 1965년 7월 10일 「에코 클럽」의 이원상군과 동년 7월 16일에는 동 「클럽」의 김정규군이 비선대 건널목 같은 자리에서 急流에 휩쓸려 溺死하였고, 1967년 1월 하순경 小青峰에서 서울의대 의예과 1년 이모군이 凍死하였고, 작년 10월 하순에는 가톨릭 의대 산악부원 7명이 내설약 12선녀탕에서 조난당하였고, 금번 산악회 이희성 대장을 비롯 10명이 大青峰 밑 100m 폭포에서 눈사태로 인하여 조난당하였다. 이처럼 本隊가 全員 死亡한 예는 산악사상 드문 일이며 대개가 攻擊隊가 당하는 일 이 많다.

세간에 물의를 일으켰던 몇 가지를 적어보면 첫째 산악회에서 먼저 현장정찰을 못하고 한국일보가 민간인으로 하여금 먼저 정찰하였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우리가 2월 19일 저녁 문동수 외 2명에게 지형 및 위치를 가르쳐주고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만약의 경우 이네들이 사고

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난점이 있었고, 모든 생활한 대원들이 자기의 힘으로 하겠다는 완강한 반대에 봉착하여 실행치 못하였으며, 다음에는 이 소식을 눈치챈 서울 모 방송국에서도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본사의 거절로 끊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은상 회장의 수색대 철수라는 성명이 발표되자 재빨리 속초주재 한국일보 마일연 기자가 물어보기에 그런 계획이 있는 줄은 모르고 산사람들을 알려주었다. 한국일보가 이러한 위험한 모험을 하였기 때문에 시체발굴에 급진전을 보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감사히 생각한다.

둘째는 대한산악연맹과 한국산악회 간에 큰 알력이나 있는 것 같아 각 신문에 보도되었으나 실은 2월 22일 헬기로 대청봉에 진진대로 수송하려는 찰라 생활자의 한사람이 자기들을 보내주지 않고 다른 산악회원을 보냈느냐는 흥분된 어조로 옥신각신한 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면 다소의 의견 차이는 있는 법. 어느 단체나 정당에서도 주류 비주류하고 세력 다툼을 하다가 양보도 된 것을 볼 때 우리 산악이라고 의견의 차이가 없으란 법은 없지 않겠는가? 이번 훈련 중 2월 7일 이희성대장의 일기를 보니 『산악가란 등반기술에 앞서 인간이 되어야 한다. 산은 장엄하고 엄숙하고 진실하다. 우리는 히말라야, 낭가팔밧트(Nanga Parbat)의 8천m를 헬만·부울이 단독 등반했지만 이러한 산악인은 참다운 산악인이 못된다. 대장의 철수명령을 어기고 낭가팔밧트를 처음 등반했지만 그이 공보다 팀웍을 파괴하고 독일의 산악사를 일조일석에 무너뜨린 파괴자이다.

우리는 그런 산악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겸손하고 상냥하고 진실 진심속에서 솔선수범으로 팀웍을 훌륭히 이를 수 있는 것이 등산기술에 앞선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라고 적혀있는 것을 볼 적에 대원 중에는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이 일기에 있듯이 우리 산악인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협

조정신과 자신들은 겸손한 태도로 솔직하고 정직하여야 한다.

셋째로는 이회장의 철수 성명이 좀 빠르지 않았느냐 하는 점인데 계속 퍼붓는 폭설과 악천기에서는 어쩔 수 없었으며 2월 22일 16100에 헬기로 대청에 오른 대원들의 무전에 의하면 풍속 13m, 기온은 영하 20도라는 혹한으로 행동이 부자유하다는 보고와 2월 23일 공군의 폭풍주의보로 연쇄조난을 염려한 나머지 하산을 시키지 않을 수 없었으며 직장과 학업에 지장이 있는 대원들은 모두 철수할 것을 결의하고 김정태 외 14명만 남아서 계속 경찰 수색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큰 사고를 낸 원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눈사태여 이 눈사태는 피할 수 없었을 것인가? 내가 생각건대 「캠프사이트」를 볼 때 눈사태에 대한 배려는 하지 않은 것 같다. 대원 중에는 그곳은 눈이 많이 쌓이는 곳이니 「캠프」를 이동할 것을 건의하였다고 한다. 우리 의사들은 환자 진찰에 있어서 전문의사의 말이 때로는 큰 도움이 되는 일이 많다. 그리고 외과의사가 수술을 실패하는 것은 어느 대수로지 않은 지엽적인 부분에 대한 자신의 소홀이란 것을 체험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아집을 버리고 좋은 충고와 제언이면 재삼 숙고해서 실천에 옮기고 작은 일이라고 방심말고 세심히 주의하여 결과적으로 큰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번 조난사고에 있어 물심양면으로 성원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필자=속초시의사회장]

救助搜索 日誌

2월 17일 속초경찰서 김진수 서장 외 13명 21시 설악동지서 도착.
2월 18일 동방사 부사령관 외 사병 10명 10시 도착. 군경 및 합동 구조 수색대 편성. 제3군 단장 崔世寅 중장 동방사령관 金道明 대령 14시 도착. 현황 청취 및 군장비 지원을 다짐. 한국산악회

卞完鐵 외 13명 헬기편으로 21시 도착.

2월 19일 千鍾根 강원도 경찰국장 高性能 無電機 지참. 산악회 구조대본부는 설악여관 32호실에 두고 有線 전화 無電機 설치.

2월 20일 한국산악회 제2진 김정태 외 10명이 1시 도착. 대한산악연맹 김초영 외 10명 도착. 제1진은 鬼面岩까지 정찰.

2월 21일 前進 제1대 귀면암까지 「렛셀」 제2대 臥仙臺 전진 막영. 와선대까지 군 통신병이 유선전화 가설. 이은상 회장 도착.

2월 22일 제1군 사령관 徐鍾喆 대장 11시 도착. 군장비 지원 다짐. 헬기로 현장 정찰. 大青峰에 전진대 5명, 지원대 5명 헬기로 공중투하. 와선대 전진대 철수.

2월 23일 폭풍설 경보로 부득이 대청봉 전진대 철수.

2월 24일 職場 및 학교에 지장이 있는 사람들은 이회장 인솔하 철수. 김정태 외 14명 잔류 비선대 전진. 한국일보가 보낸 민간인 3명 현장 정찰 귀환.

2월 25일 수색대 이재인(생환자) 외 10명 현장 도착 標識. 대한산악연맹 김초영 외 10명 현장 도착. 천종근 도경찰국장, 장일훈 치안국 보안과장 16시30분 비행기로 설악동 도착. 군경 및 산악회 연석회의. 발굴작업 계획 준비 토의.

2월 26일 군경 40명, 산악회 15명 현장 행 시험 발굴.

2월 27일 산악회 및 군경, 양폭산장으로 이동. 군경, 산악회 작업 준비 재정비

2월 28일 산악회 유창서 등 3명 대피예상 코스인 무너미 - 가야동 - 오세암 정찰. 경찰관, 의용소방대 14명, 동방사 李中位 등 9명, 산악회 12명 현장 행. 본격적인 발굴작업에 착수. 산악회 김정태 등 9명 현장에서 幕營.

3월 1일 군9명, 경찰관 의용소방대 14명, 산악회 20명 발굴작업. 13시44분 제1 「윔파·텐트」 발견. 김종철 이만수 2명 중 김종철 발굴. 14시 30분 본부 8인용 텐트 발견. 산악회 김정태 등 9명 현장 막영.

3월 2일 제1 「윔파·텐트」에서 9:30 오준보 10:20 이만수 발굴,
8:50 임경식 8:35 김동기 남궁기 이희성 등 발굴. 死體 檢視후
산악회원 13명, 인부 13명, 도합 26명이 13:30 유해 하산 시작.
산악회 김정태 등 6명 현장 막영.

3월 3일 01:30 6구의 유해 신흥사 보제루 안착. 13:30 제2 「윔
파·텐트」 발견. 14:00 박은명 박명수 변명수 3구 발굴. 16:30
스키로 썰매 4대를 급조하여 산악회, 의용소방대, 경찰관, 군인
등 30명 24:30 유해와 함께 신흥사 도착. 유해 10구 전원 안치.

3월 4일 7:00 入棺. 11:00 이희성 김동기 유해 서울로 출발.

3월 5일 11:00 신흥사 보제루에서 영결식 거행.

<조선일보> 1973년 10월 25일 4면

닥터코너 - 李基燮(醫博·濟州道立 西歸浦病院長)

停年 후 긴장 解消 - 소외감은 老化현상을 부채질

老人은 대부분 잠재성 질환을 지니고 있다. 성숙기가 지나면 누구나 動脈이 점차 경화되면서 生體기능도 서서히 쇠퇴, 老화현상이 다가서게 된다.

이같은 현상을 부채질 하는 것은 생활의 긴장이 풀리고 사회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을 느끼는 것이 심적요인이다.

停年퇴직한 후 얼마 안 가 노인성 痴呆(치매) 증상을 보여 병원 문을 두드리는 환자들이 좋은 본보기.

노령기에 접어들면 외부의 정보전달기능은 의식, 무의식간에 뒷 걸음질 치게 된다. 따라서 이 때 가족이나 사회와 멀어진다면 老화 현상은 가속되게 마련이다. 노화현상을 막기 위해선 아무래도 사회 복귀에 견딜 수 있는 활동력과 건강관리에 힘쓰는 것만이 지름길인 셈이다.

노인회관이나 敬老亭등이 지역별로 건립되고 있음은 이런 점에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자리라면 사회의 無用之物이란 폐 쇄적인 사고를 씻고 즐거운 시간을 갖을 수 있고 따뜻한 인간관계를 누리게 되며 사회와의 연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英國에서도 노인들의 소외감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두 차례 1주 일씩 이들에게 노후의 취미, 옥외체조, 노인건강법, 경제문제, 독서 등을 강의한다고 한다. 잡담과 토론도 日程에 잡혀 있는 이 강의는 견진한 노인사회를 이루하자는 목적이 있다.

사춘기의 자녀에게 부모와 교사들이 심신의 변화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갖추도록 지도함으로써 무사히 이 기간을 넘기듯이 노인에

게도 노령기의 變調현상에 대한 각별한 지도가 있어야겠건만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 먼 거리의 論理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서글프다.

그러나 醫師라면 누구나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노인에 대한 지도에 적극 참여해야겠다.

노인에겐 아무래도 질환의 치유, 심신단련, 보건지도 등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의 직무, 운동, 식사 등을 검토하는 한편으로 생활 전부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게 되면 의외로 놀랄만큼 제대로 보유되어있는 잠재능력을 발견, 보다 高齡에 이르기까지 행복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심신의 능력을 개발해 줄 수 있게 된다.

長壽와 건강을 원하는 노인의 소망을 공감과 자신을 지니고 친찰할 수 있는 결심이야말로 의사가 지닐 기본적 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적인 노인사회를 이루하기 위해선 사회가 敬老堂 등을 노인의 특별사회나 연회장적인 성격으로 규정하여 던져둘 것이 아니라 계획성 있는 프로그램을 세워 老人們을 사회참여의 길로 이끌어 나가야 될 줄로 믿는다.

成人보건 指導의 필요

李基燮

성인건강이란 어원 그대로 성인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의미하는 것이다. 보건학이란 성인보건에 관한 학문적 기초의 연구를 목적으로 한 새로운 학문 분야이다.

이러한 학문이 생기게 된 이유로서는 그 나름대로 절실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요청이란 우리나라에 있어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질병구조의 대변화를 어떻게 對外할 것인가에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감염증의 격감, 뇌졸중 심근경색 고혈압증과 같은 순환기 질환과 암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평균 수명의 연장과 노령인구의漸增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今後도 점점 심각해진다는 것은 明若觀火한 일이며 이러한 대책은 단독의학으로만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모든 학문은 학문을 위한 학문이 아니고 모두 인간과의 연계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물리 화학 수학과 같은 자연과학에 있어서도 직접 간접으로 모두가 인간생활과 연결된다. 하물며 인간의 생명을 그 연구의 중점으로 하는 의학은 인간의 행복과 복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학문에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다. 세계보건기구의 건강 정의는 육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인 복지인 상태를 말하며 어떻게 해서 이러한 상태로 끌고 가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의학 특히 보건학의 사명이고 성인보건학의 목적도 여기에 있다. 즉 성인보건학의 연구목적은 이러한 상태까지 도달하는데는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결과를 얻도록 실천으로 옮기는데 있다. 성인보건학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 당연히 노인문제가 포함된다. 성인병이란 말은 1950년대초부터 일

본 후생성에서 사용했고 현재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말이다. 성인병이란 주로 중추신경계의 혈액 손상, 악성 新生物, 심장병 등을 말한다.

연령으로는 40~60대를 의미한다. 즉 50~60세대의 노년층과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사람을 건강한 노인으로서 70~80세까지 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자의 수명이 연장되므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기능이 떨어져서 다만 無爲徒食하는 노인이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인보건학이 바라는 것은 건강한 노인으로서 사망할 때까지 활동할 수 있는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건강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바라는 바이다. 보건학은 다만 장수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어떻게 해서 충실히 생활, 즉 보람있는 생활을 보낼 수 있는가를 가르쳐야 한다. 즉 보건의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통해서 생명의 존엄성을 가르쳐 주는 것이 보건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을 보면 1955~1960년대에 남자 51.12세, 여자 53.73세이던 것이 1970년대에서는 남녀 평균 수명이 68세로 연장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평균 수명 연령이 연장되면서 갑자기 노인층의 의료 문제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주로 젊은이나 중년층을 위한 의학적 치료를 위해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지금은 노인층의 치료에 관해 많은 관심이 경주될 수 있을 정도로 늘고 있다. 성인건강은 의학면만이 아니고 사회 경제, 문화면에서도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되겠다. 따라서 이러한 처방은 의사만이 할 수 없고 (영양, 운동 휴식 기호 처방) 국가가, 지역 사회가, 사업체가, 학교가 적극 관여해야 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 분야는 그 연구가 치료의학에 비해 뒤져 있으므로 금후 이 영역의 개발은 절대로 필요하며 그 필요성과 중요성은 점점 증가되리라 생각된다.

여기서 보건분야를 맡은 우리들은 올바른 보건학의 지식과 숙련

된 기술로서 효과있는 보건계도를 해야만 한다.

보건지도란 한번 대상이 된 사람이 앞으로 좀 더 좋은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더 좋은 건강상태란 어떤 것이냐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외면상으로는 건강하게 보이나 긴 안목으로 볼 때에는 좋지 못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일이 많다. 예를 들면 고혈압인 사람이 매일 많은 식사량을 섭취하고 있을 때 처음에는 다소 고통이 될지 모르나 식사량 섭취를 제한할 필요가 있게 된다. 우리들의 생활양식은 생리적인 요구에 따라 환경의 역사 풍속 습관이 각 지방마다 다르다. 그래서 건강면에서 볼 때에는 재검토해야 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종래 양식이 전부가 다 보건상 유해하다는 것은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보건상 유익할 때도 많다.

영양문제 외에 운동과 휴식, 직업, 난방방법에까지 보건지도를 해야만 한다. 다음에 지도는 과연 효과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 효과에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있어 보건지도의 결과 뇌졸중과 심발작이 지금보다도 더 고령층에 나타났다면 이것은 직접효과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순환기질환 관리를 한 결과 당뇨병 환자가 감소됐다면 이것은 간접적 효과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거기에는 보건지도는 사람과 사람이 상대하는 이상 지도를 받는 측과 지도를 하는 측과의 조건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들이 보건지도를 할 때에 상대방이 표현하는 언어, 몸짓 및 행동을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는가다. 경험이 많은 의사면 한번 보아도 곧바로 이해하고 올바른 판단으로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으나 미숙한 사람은 그렇지 못할 때가 허다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도를 하는 사람은 바르고 풍부한 보건학상의 지식과 숙련된 지도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함은 물론 친절과 겸손한 태도로 무엇이든지 마음놓고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보건지도의 종국의 목적은 대상자로 하여금 실행에 옮기는데

있는 이상 상대방에 감동을 주지 않으면 안된다. 이외에도 실시하는 조건으로서는 조직체제상의 문제는 예산면의 충실도, 간부의 이해도 등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회 전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태도도 중요한 인자가 된다. [속초시보건소장]

老年醫療의 현황 (上)

李基燮(前 梨花醫大病院長)

老人醫療 비중커져 / 專門人力 양성해야

平均壽命이 높아감에 따라 갑자기 老人層의 醫療問題가 重要的部分을 차지하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주로 젊은이나 中年層을 위한 醫療에 關心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老年層의 醫療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늘고 있다.

老人病의 연구 및 치료의 진보는 주로 19세기 초 61년간 獨·佛·英國의 임상가와 병리학자가 近代의 科學的 의학연구의 일부분으로써 老年醫學의 기초를 구축하였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이웃 日本에서도 1926년에 東京大學에 노인병연구소가 창립되었고 1928년부터는 노인병강좌를 시작하였고, 1967년에는 日本 京都大學에서도老人病科가 창설되어 지금은 각 大學에 노인병과가 대부분 창설되어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68년 10월 3일에 大韓老人病學會가 창립되었으나 별다른 업적이 없다가 고려의대 徐舜圭 교수 가 회장을 맡은 후로는 매년 정기적으로 학회를 개최하고 있고 1981년에 창립된 한국노년학회(초대회장 서울醫大 許程교수)에서도 매년 학회를 개최하고 있을 정도이다.

현재 老人醫療에는 몇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로는 臟器 組織 器管의 증상이 중심적이라는 것. 둘째로는 救命 延命의인 의료가 중심적이라는 것. 따라서 다음 단계는 예방과 후치료법이다. 셋째는 병원 또는 그 외의 복지시설에 환자와 신체장애자를 일생 동안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도 장애가 있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로 반신불수로 자리에 누워서 起動을 못하는 노인도 인구증가에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다. 둘째는 치매(痴呆) 노인, 정신장애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셋째로는 간호하기가 제일 곤란한 실금(失禁)상태의 노인이 많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 이 셋을 노인의 3대 증상이라고 한다.

이러한 노인의 특징을 장차 어떻게 개선해야할 것인가가 이 시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교육, 시설, 의료 셋으로 생각해서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믿는다.

<의협신보> 1984년 9월 24일 12면

老年醫療의 현황 (中)

李基燮(前 梨花醫大病院長)

日本 老人전문病院 대폭 증설 / 福祉시설에 더 큰比重둬

제일 먼저 教育問題인데 교육 중에서도 교육기관인 대학 또는 그 외의 교육장소 또는 일반지역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教育 즉 사회교육도 그중에 포함된다고 생각된다. 우선 교육기관 중에서 대학의 예를 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병 강좌를 가진 대학은 하나도 없다. 천명기 前保社部長官 재직시 濠洲를 방문했을 때 노인 병학을 연구할 의학도가 있으면 양성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귀국 하였다는 소식을 지상을 통해서 본 기억이 난다.

참으로 좋은 일이라 생각되었다. 선진국에 희망하는 의학도를 파견하여 연수시켜 멀지 않은 앞날에 老年病學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한다. 日本에서는 벌써 노년병학 강좌를 가진 대학은 많으나 노년학강좌를 가진 대학은 그리 많지 않다. 우리는 노인학을 노년학과 노인병학으로 구분한다.

노년학이란 加齡現象을 연구하는 학문을 광범위하게 포괄해서 의학만이 아니고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 등을 포함해서 하는 학문을 뜻하고, 노인병이란 노년학의 의학적 응용이라든지 의학적 견지에서의 노년학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노년의료는 노년학 중의 노년의학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노인문제를 論할때는 老年學이 기본이 된다. 美國에서는 노년학 강좌를 가진 대학이 百%나 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大學에서도 老年學 강좌는 뒤에 하더라도 노인병 강좌만이라도 속히 시작하였으면 한다.

일반적인 사회교육 중에 먼저 노인 각자에게 자신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현재의 실정으로는 각 地方의 노인회와 또는 기관 단체에서 그 나름대로 노인학교를 개설하고 있으나 加齡에 따라 發生하는 노인병을 노인 자신들에게 충분히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리라 믿는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의 질환을 가정해 볼 적에 그 병의 특징 특성을 이해하고 있으면 반신불수로 起動을 못하는 노인 또는 失禁환자 노인치매에 대해서도 자기자신의 정신력으로 어느 정도의 회복을 할 수 있는 動機가 될 수 있으며 의욕을 가지고 회복에 힘쓸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지방의 노인회는 그 지역의 醫師會와 협력하여 노인건강에 대한 강의와 일상생활에 있어서 건강자해요인이 되는 여러 가지를 視聽覺的인 방법으로 이해시키도록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당뇨병·고혈압교실을 만들어서 이런 患者的 주부 또는 家族에게 식사 문제 및 일반건강관리에 대한 教育을 시킨다든지 또는 保健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족계획 요원으로 하여금 각 家庭을 방문하여 계몽교육을 시키는 방법도 좋으리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교육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 자

신들의 교육과 함께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동시에 醫療에 종사하는 醫師, 看護員, 그 외 醫療要員에 대해서도 단지 老人病學 중의 각 분야별로의 교육견습 실습뿐만이 아니고 老年學的인 심리학 사회학의 교육도 필요하다.

<의협신보> 1984년 10월 4일 12면

老年醫療의 현황 (下)

李基燮(前 梨花醫大病院長)

歐美的 노인 福祉시설은 거의 完璧 / 醫療겸한 老後대책 수립해야

다음은 施設問題인데 醫療를 담당하는 病院 및 복지시설은 日本 美國 デン마크 스웨덴 등 先進國의 시설은 노인을 위해 각기 그 나라 나름대로의 特徵이 있다.

日本에서는 醫療施設로써 老人病을 치료하는 老人專門病院은 그리 많지 않았으나 근자에 와서는 增設되어가고 있다. 日本의 노인 시설의 특징은 醫療施設보다는 福祉施設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비중을 두고 있다. 시설 중에서도 治療施設과 非治療施設로 나누어 생각할 때 日本에서는 非治療施設에 중점을 두고 其中에서도 養護老人의 집, 特別양호노인의 집, 輕費老人의 집, 有料老人의 집의 4종류로 되어 있으며 양호노인의 집은 소위 건강하다는 노인들을 일정한 輕費로 돌보아 주는 곳이고, 特別양호노인의 집은 기동이 불가능한 노인들, 누워만 있는 노인들을 돌보아주는 집, 경비노인의 집은 일정한 금액을 개인이 부담하는 집이고, 유료노인의 집은 비용 전부를 개인이 부담하는 곳이다. 이중에서도 特別양호노인의 집이

강화되고 있다.

나는 82년 12월 美國旅行에서 돌아오는 길에 日本山岳會 專務理事인 西村政晃氏의 도움으로 東京都 杉並區(스기나미쿠) 高井戸西에 있는 社會福祉法人 浴鳳會浴風病院을 방문하여 當 病院長인 關增 博士의 친절한 안내를 받았다.

이 欲風會는 關東大震災로 인해 자활능력이 없는 노인들을 위해 1925년 1월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고 1975년 10월 근대적으로 중·개축되어 最新諸設備와 환경면·간호면에서도 노인전문병원으로서 높이 평가되고 있었으며 1977년에는 건축협회상까지 받았다고 한다.

이 欲風會에는 간호노인의 집 4백명 특별양호노인의 집 1백명 경비노인의 집에 1백25명 병원에는 3백병상으로 약 9백명의 노인을 돌보고 있었고 東京都에는 이외에도 東京都養育院附屬病院이 약 7백 병상이 있어 노인환자들을 치료해 주고 있다.

미국 텐마크 스웨덴은 어떠한가. 이 세나라에서는 노인전문병원과 또 다른 의료시설을 중심으로 한 노인시설이 1900년대 초에 설치되었다. 이를 나라에서는 일본과 반대로 치료적 시설 즉 의료시설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고, 또 노인아파트를 개인회사나 재단에서 시설 분양하여 노인들이 많이 사는 도시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집들은 그리 고가가 아니므로 누구나 살 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의료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82년 11월 중순 미국여행길의 나는 로스앤젤레스에서 그랜드캐년으로 가는 도중에 아리조나주의 피닉스에서 서북쪽으로 50km쯤 떨어진 선시티를 찾았다.

선시티는 1962년에 건설되어 60세 이상의 노인들만이 모여 각기 집 한 채씩을 가지고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는 곳이다. 개인 재단이 건설한 이집들은 건립 당시에는 1만8천 달러씩 하던 것이 내가 찾을 때는 6만 달러로 올랐다고 한다. 집값은 한꺼번에 내는 것이 아니고 20년 연불이라는 것이다. 집의 구조는 거실과 부엌, 식당 그

리고 침실이 두 개씩 있는 단층 독립주택이었다. 노인들만 살기 때문에 교육세도 없는 이 단지에는 9홀의 골프장, 수영장, 극장, 백화점, 교회 등이 고루 갖추어져 있고 실내오락실도 완비되어 있었다. 차의자를 타고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턱이 없는 깨끗한 거리에는 아리조나産 선인장을 가로수로 심어 말로만 듣던 낙원을 연상케 했다.

또 여기에는 醫務室이 있어 24시간 응급환자를 위해 있으며 綜合病院에서 충분한 醫療를 받을 수 있다. 주말이면 찾아오는 子女와 손주 손녀들을 만나기도 하면서 즐거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로스앤젤레스 근처의 실비치 레저월드라는 대단위 老人村도 이와 비슷했다. 6천4백82동의 단층아파트인지라 1만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이 노인촌은 침실 하나 짜리가 2만5천 달러에서 3만5천 달러 사이, 침실 두 개짜리가 3만4천 달러에서 5만5천 달러 사이로 매달 1백45~1백85 달러씩 20년 연불로 입주할 수 있는 곳이었다. 이 단지에서는 55세 이상이면 누구나 거주하게 되어 있다. 여기에는 9홀짜리 골프장이 3코스나 있고 한꺼번에 2천5백명을 수용하는 극장, 야외 실내수영장, 백화점, 화랑, 음악실, 목공실, 도자기실, 봉제 및 자수실, 이용실, 헬스크럽 등이 있었다.

그리고 각 친목회가 모일 수 있는 방이 17개나 되고 室內娛樂室에는 물리치료실, 당구장, 볼링장 등 거의 없는 것이 없는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그 안에 여행사가 있어서 여행 알선도 하고 관광버스와 가족끼리 車內에서 자고 식사도 해먹을 수 있는 여행용 車까지 준비되어 있었다. 이 단지는 외부의 침입을 막는 사설 경비원을 두고 의무실은 24시간 개방되어 있으며, 응급환자를 위한 앰뷸런스가 대기 상태에 있다. 앞의 선시티와 함께 이런 類의 노인촌은 美國에는 얼마든지 있다고 한다.

노인이 되면 누구나 그런 집에 들어가 장기간의 월부로 내 것을 만들고 그것을 후세에 물려 줄 수가 있다는 것이다. 한때 우리나라의 觀光地에 콘도 봄이 일던 것에 비하면 그 老人村은 부러운 노인

의 도시가 아닐 수 없다.

스웨덴에서는 67세만 넘으면 누구든지 衣食住와 治療를 보장받게 되며 病이 있으면 60세부터 그리고 신체장애자는 18세 이상이면 누구라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 노인들의 주택은 中央난방으로 되어 있는데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변소 목욕탕 부엌 등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1972년에 설립된 스웨덴 南西部에 있는 말뫼 커뮤니티 센터를 예로 들면 수용인원은 고작 144명인데도 의무실, 물리치료실, 도서실, 수영장, 레스토랑, 카페테리아, 대중용 욕탕, 미용실, 양화점, 우체국, 매점 등이 완비되어 있다 한다. 여기에 수용된 노인들은 희망자에게는 간단한 일을 주어 보수까지 받게 한다는 것이다.

그곳에는 방문자를 위한 호텔도 있고 경기적으로 연극, 영화, 강연회 등도 열리며 조명도 노인들에 맞도록 배려하는 등 老人天國을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 스웨덴에서는 이런 시설들이 지역주민에게 대호평을 받자 政府에서 이와 같은 시설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다음 덴마크의例를 들면 1901년 노인전문병원이 설립되었고 따라서 근대적인 노인병원이 확충되어 노인병원에 부속해서 간호의 집이 그 病院受容人員의 몇 배의 침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또 간호의 집 옆에는 노인아파트, 건강한 사람의 아파트, 회복환자들을 위한 아파트가 있다 한다.

그곳에 살고 있는 노인의 평균 연령이 80세 이상으로 고령자들이다. 여기에서는 신체 및 정신장애를 가진 노인들이 즐겁게 의료를 받으면서 자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 외국사람이라도 시민권을 얻으면 이런 병원에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다고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은 어떤가. 노인을 위한 노인전문병원은 하나도 없고 복지시설로서는 공영 종교단체 또는 사재로 무의무탁한 노인들을 위한 양로원이 있을 뿐이다. 노인복지법이 통과된 오늘에 행정부에서는 관계관을 선진 각국에 보내 그 나라의 시설을 참고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의료를 겸한 복지시설을 할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월간 사람과 山> 1996년 10월호

설악산 대특집12 나의 설악 나의 인생 1

설악산 개최로 산악문화 꽂 피웠다

이기섭

설악산은 왜정 때는 금강산에 가려서 빛을 못보고 해방 후에는 38선 때문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6·25 사변 이후 설악산을 수복하게 돼 1954년 8월 한국산악회 조사대가 답사한 이래 많은 등반대가 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이화여대에 근무할 당시인 1956년 7월 이대사범대학 산악부에 구호반으로 등반에 참여, 처음으로 설악산에 오르게 되었다. 그 당시 안내한 분은 한국산악회 故 김정태, 안종남(재미), 김근원씨(73세, 산악사진가) 등이었다.

장수대에는 오득준 장군이 군인휴양소로 지은 건물(지금 그 집은 여관으로 사용되고 있다)이 있었는데 우리 일행은 그 곳에서 설악산에서의 첫날을 지냈다. 다음날은 대승령을 거쳐 십이선녀탕으로 내려와 용대리 초등학교에서 묵었다. 백담사에서 하루를 보낸 일행은 오세암까지 가는 데 또 하루가 걸렸다.

5일째는 수렴동계곡을 올라 봉정암 자리에서 야영했다. 다음날 대망의 대청봉에 올랐다가 봉정암으로 되돌아와 가야동계곡을 거쳐 오세암에서 6일째의 야영을 했다. 마등령을 넘어서 외설악 만경대와 설악문을 거쳐 굴양암으로 하산, 비선대를 보고 신흥사 보제루

에서 7일째의 밤을 보낸 후 귀경했다.

그 당시에는 등산로가 없어서 계곡을 따라 등반했는데 지금처럼 대청봉에서 천불동계곡으로 하산하는 것은 일반 등산인들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다만 베테랑급 산악인들만이 자일을 사용해서 내려올 수 있는 험로였다. 일반 등산인은 대청에서 봉정암과 가야동계곡을 거쳐 오세암, 마등령, 외설악 신흥사로 하산했다.

나는 5·16 군사쿠데타 직후인 1962년 5월 속초에서 의원을 개업하고 매주 일요일이면 집사람과 함께 설악산을 찾았다. 그때만 해도 비선대에서 양폭까지는 일반인도 올라갈 수 있었는데 하루 종일 걸렸다. 지금의 병풍바위 밑 말뚱바위를 지나야만 양폭까지 갈 수 있었는데 소낙비가 내려 물이 불면 도저히 올라갈 수 없었다.

그 시절 속초는 양양군 속초읍이었고 설악동에 숙박시설이라고는 설악여관 한 곳 뿐이었다.

병풍암과 양폭 오르는 등산로는 1964년이 돼서야 비로소 열렸다. 당시 양양관광협회장 박태송씨가 재임시 우리 협회 이사들의 건의로 양양광업소장 김재명씨 호의로 광산에서 쓰던 정과 굵은 철삭을 무상으로 기증받아 이인선씨와 고인이 된 박재춘씨 등이 병풍바위와 양폭 암벽에 나무사다리를 놓은 것이다. 천당폭 밑에는 철삭으로 출렁다리와 나무사다리를 놓아 누구나 쉽게 양폭까지 갈 수 있게 했다. 이어서 가야동 상류인 무내미에서 소청에 이르는 등산로도 열리게 되었다. 비선대에서 금강굴 거쳐 마등령 유선대 코스는 여름방학을 이용해 방한한 일본 경웅대학산악부 학생들이 개척하기도 했다.

이렇게 설악산에 등산로가 열리자 강원도 도지사가 처음으로 설악산을 찾기에 이르렀다. 1964년 10월 박경원 지사, 강원일보 강표원 사장(작고), 이건웅 인제군수(작고)와 도 공보실장, 건설국장 등의 수행원들이 백담사와 봉정암을 거쳐 대청봉에 올랐다. 이들은 소청으로 해서 새로 난 등산로로 천불동계곡으로 내려왔다.

박지사는 금강산이 있는 고성 출신이었으므로 산에 대한 사랑이

남보다 깊었다. 봉정암에 백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산장이 세워진 것은 모두 그의 배려였다. 1965년에는 외설악 양쪽에도 산장이 건립되었다. 양쪽산장은 1969년 2월 한국산악회 해외원정대가 눈사태로 매몰되는 사고 당시 구조활동의 기지 역할을 한 바 있다.

1968년에 명명된 남설악

1966년에는 백담사에서 수렴동 거쳐 대청봉에 올랐다가 천불동 계곡으로 내려와 신흥사에 이르는 등산로 및 백담사에서 영시암, 오세암 거쳐 마등령, 설악문, 금강굴 지나 비선대에 이르는 등산로가 정비되었다.

1966년 10월 1일부터 3일까지는 우리 설악산악회에서 제1회 설악제 코스를 백담사 - 수렴동 - 봉정암 - 대청 - 중청 - 소청 - 천불동 계곡 - 비선대 - 정고평 무명용사의 탑으로 정했다. 전국 산악인에게 아름다운 가을의 설악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예총강원도속초지부(당시 지부장 최구현), 시공보실 등과 공동으로 개최한 최초의 설악제였다.

2회 설악제는 백담사 - 영시암 - 오세암 - 마등령 - 설악문 - 유선대 - 금강굴 - 비선대 - 정고평 코스였으며 3회는 정고평 - 양폭 - 소청 - 중청 - 독주폭 - 남설악(오색)코스였다. 3회 설악제 당시 국회의원 김종호씨의 성금으로 귀면암 밑에 귀면교를, 대한적십자사 춘천지사는 병풍바위에 사다리와 철다리를 놓았다. 무내미에는 故최태묵 씨(서울산악회원)가 사비를 들여 희운각대피소를 지었다.

우리 산악회가 오색을 남설악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은 3회 설악제부터였다. 이때부터 설악제위원회를 조직, 위원장에는 속초시장이 선임되고 등산대회는 산악회에서 주관하게 되었다.

4회 설악제는 설악동 - 권금성 - 칠성봉 - 함지덕 - 화채봉 - 설악만 경대 - 양폭 - 비선대 - 신흥사를 당일에 다녀오는 코스로 외설악 전경을 볼 수 있으며 약 7시간이 걸렸다. 5회는 신흥사 - 양폭 - 희운각 - 대청 - 화채봉 - 잣나무골 - 소토왕 - 설악동 코스와 더불어 설악

동 - 권금성 - 잣나무골 - 소토왕 - 설악동 코스로 진행했다. 6회는 설악동 - 양폭 - 희운각 - 오세암(1박) - 마등령 - 설악문 - 유선대 - 금강굴 - 비선대 - 설악동 코스였다.

1972년의 7회 설악제는 남설악(오색) - 설악폭포 - 대청 - 중청 - 소청 - 희운각 - 양폭 - 비선대 - 설악동 코스로 우리가 정해 놓은 시간에 가장 근접하게 도착하는 팀에게 포상하였다. 이때부터는 관주도로, 행사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비용을 지원받았다. 설악제는 이런 식으로 7회에서 23회까지 이어지다가 1989년 24회부터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바뀌었다. 나는 이때부터 27회 설악제까지 위원장을 역임했다. 작년부터는 설악문화제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올해 31회째를 맞는다.

지금 내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볼 수 있는 나이에서 느끼는 것은 각 사람마다 각자가 걸어갈 길이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그 길로 가는 것이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자기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자신의 자질을 과대시해서 고생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눈앞의 적은 이익 때문에 길을 망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자기의 길을 찾아서 열심히 걸어가려면 자신의 노력과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행운도 따라야 한다.

사람에 따라서는 허영과 욕망 때문에 길을 망치는 사람도 있다. 이는 우리가 등산할 때 길을 잘못 든 것과 같아서 이럴 경우 될 수 있는대로 빨리 원위치로 되돌아와서 생각하는 것이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걸어온 길에 남긴 발자취를 검토하고 지도를 다시 보면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위의 잡음과 감언에 속지 말고 유혹에 빠지지 말며 자기 자신의 마음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올바르게 자기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은 종착역에 서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다. 사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삶의 과정이지 결과는 아니다.

<설악신문> 1995년 9월
이기섭박사 특별기고

제30회 설악제 등산대회를 맞으며

설악산은 일제시에는 금강산에 가려서 빛을 못보고 해방 후에는 38선 때문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6·25 사변 이후 설악산을 수복하게 돼 1954년²¹⁾ 8월 한국산악회가 조직한 조사대가 답사한 후 많은 등반대가 등산하기 시작했다.

내가 이화여대에 근무할 당시인 1956년 7월 이대사범대학 산악부에 구호반으로 등반대에 끼어 처음으로 설악산에 오르게 됐다.

그 당시 내설악 장수대에는 오득죽 장군이 군인휴양소가 지은 숙소가 있었는데 우리 일행은 그곳에서 첫날을 지내고 (지금 그집은 여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음 날은 12선녀탕을 지나 용대리 국민학교에서 하루를 묵었다. 그 다음날을 백담사에서 보낸 일행은 봉정암 암자 자리에 천막을 치고 대청봉에 올랐다. 정상에서 다시 봉정암으로 되돌아와 쉬고 그 다음날은 가야동 계곡을 거쳐 오세암에서 야영을 하고 마등령을 넘어서 외설악 만경대와 금강문을 거쳐 외설악 굴양암으로 하산해서 비선대를 보고 신흥사 보재루에서 1박 후 돌아왔다.

그 당시에는 등산로가 없고 개천을 따라 등반하였으며 대청에서 천불동으로의 하산은 일반등산인들은 불가능했다. 다만 베테랑급 산악인들만이 자일을 사용해서 대청에서 천불동으로 하산할 수 있었고 일반등산인은 대청에서 봉정암으로 되돌아와서 오세암을 거쳐 마등령, 외설악 신흥사로 하산했다.

나는 5·16 이후인 1962년 5월 속초에서 병원을 개업하고 매주

21) 정확한 일자는 1955년 8월임

일요일이면 집사람과 함께 설악산을 찾았다. 그때만 해도 비선대에서 양폭까지 등반할 수 있었는데, 하루종일 걸렸다. 그 시절은 지금의 병풍바위 밑 말뚱바위를 지나야만 양폭까지 갈 수 있었고 소낙비가 내려 물이 불면 도저히 가지 못했다.

그 시절 속초는 양양군 속초읍이었고 설악동에는 읍에서 경영하는 설악여관이 한 곳 있었을 뿐이었다.

1964년 양양관광협회장 박태송씨가 재임시 우리 협회 이사들의 건의로 양양광업소장 김재명씨 호의로 광산에서 쓰던 정과 굵은 철끈을 무상으로 기증받아 이인선씨와 고인이 된 박재춘씨의 도움으로 병풍바위와 양폭 암벽에 나무사다리를 놓아 양폭까지 갈 수 있게 되었고, 가야동에서 소청에 이르는 등산로도 개설했다. 또한 일본 경용대학 산악부 학생과 함께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비선대에서 금강굴 거쳐 유선대에 오르는 등산로도 개설했다. 이전에는 굴양암에서 장군봉 뒤를 돌아야만 유선대에 오를 수 있었다. 유선대에서 굴양암으로 하산해서 비선대를 보려면 지친 몸이라 대단히 힘이 들었다.

1964년 10월, 당시 강원도지사로 있던 박경원 지사와 고 강원일보 강표원 사장, 당시 인제 이건웅 군수와 전 공보실장, 건설국장 외 수행원들과 백담사에서 1박 하고 다음날은 봉정암 암자에서 자고 다음날 대청에 올랐다. 다시 소청으로 되돌아와 새로 개설한 소청의 등산로를 따라 가야동을 거쳐 천불동으로 하여 신흥사에 전원 무사히 도착했다.

박지사는 금강산이 있는 고성 출신이었으므로 산에 대한 조예가 남보다 깊어 설악산을 개발하기로 하고 1965년 봉정암에 약 1백명을 수용할 수 있는 산장을 짓어주었으며 그 다음 해에는 외설악 양폭에도 박건주 시장 당시 산장을 짓어 등산객의 편의를 도와주었고 다음해에는 백담사에서 대청을 거쳐 천불동으로 신흥사에 이르는 등산로와 백담사에서 영시암을 지나 오세암을 거쳐, 금강굴을 지나 비선대에 이르는 등산로도 개설해 주었다.

1966년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우리 설악산악회에서는 제1회 설악제 코스를 백담사→봉정암→대청→중청→소청→양폭→비선대→정고평 무명용사의 탑으로 정하고, 전국의 산악인에게 아름다운 가을의 설악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예총 속초지부장 최구현씨와 시공보실 공동으로 설악제를 시작했다.

제1회 설악제의 첫날은 날이 쾌청해서 좋았으나 이튿날에는 갑자기 일기가 좋지 않아 폭우가 내리기 시작해 계곡물이 삽시간에 불어나 계곡물을 건널 때에는 뱃줄 로프를 잡고 한 사람씩 건너야만 했다. 그러다가 귀면암 바로 위에 건널목에서 서울에서 온 60세의 노인 한 분이 뱃줄을 놓치는 바람에 급류에 떠내려가게 되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귀면암 밑에는 소가 되어 있었으므로 산에 피해 있던 다른 산악인과 합세, 무사히 구출했다. 그날은 약 1백50명 가량 조난을 당했으나 모두 무사히 하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맨 뒤에 쳐져 있던 우리 일행은 설악골에 와서 물도 많이 불고 날도 저물어 바위 밑에서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던 연유 한 통을 여섯명이나눠 먹고 하룻밤을 뜯 눈으로 새고 다음날 무사히 하산할 수 있었다. 설악산은 물 밑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 겹먹고 무리하게 건너려면 조난당하기 쉬우므로 비가 몇기를 기다렸다가 건너야 안전하다.

제2회는 백담사→영시암→오세암→마등령→금강문→유선대→금강굴→비선대→정고평→신흥사코스였으며, 제3회는 신흥사→정고평→양폭→소청→중청→독주폭→남설악(오색)코스였다.

제3회 때에는 귀면암 밑의 귀면교에 김종호 국회의원의 성금으로 철다리를 놓았고 병풍바위에는 대한적십자사 춘천지사의 성금으로 철다리와 사다리를 놓았으며, 가야동에는 서울산악회 최태묵씨가 사비로 희운각대피소를 짓어주었다.

제3회 설악제부터 우리 산악회에서 오색을 남설악으로 처음 부르기 시작했다. 또 제3회 설악제부터는 설악제위원회가 조직돼 위원장에 속초시장이 되고 등산대회는 산악회에서 주관하기로 했다.

제4회 설악제는 설악동→권금성→칠성봉→함지덕→화채봉→

설악만경대 → 양폭 → 비선대 → 신흥사코스로 당일코스로는 외설악 전경을 볼 수 있는 절경의 코스로 약 7시간이 소요됐다.

제5회는 신흥사 → 양폭 → 희운각 → 대청 → 화채봉 → 잣나무골 → 소토왕 → 설악동 코스와 또 한 코스는 설악동 → 권금성 → 잣나무골 → 소토왕 → 설악동 코스로 진행했다.

제6회는 설악동 → 양폭 → 희운각 → 오세암(1박) → 마등령 → 유선대 → 금강굴 → 비선대 → 설악동 코스였다.

제7회는 남설악(오색) → 설악폭포 → 대청 → 중청 → 소청 → 희운각 → 양폭 → 비선대 → 설악동 코스로 이 코스를 산악회에서 정해놓은 시간에 가장 근접하게 도착하는 팀에게 포상하였다. 이때부터는 관주도로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부분 받아서 각 부처의 행사를 해왔다.

이런 식으로 7회에서 23회까지 진행되다가 1989년 제24회부터는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뀌면서 내가 1대 민간 주도의 설악 제추진위원장에 선임되었다. 이렇게 해서 27회까지 행사를 치뤘으며, 제28, 29회는 김종록 회장이, 제30회부터는 김여수 회장이 선출돼 집행하게 됐다. 지난 설악제위원회총회에서는 설악제의 명칭을 설악문화제로 변경하였다.

제24회 설악제부터 설악산악회장인 김용직씨가 등산대회를 거절 하므로 24회 등산대회는 설악제위원회에서 직접 주관하기로 했다.

25회 때는 속초시에 있는 여러 산악회가 설악산악연맹을 창설하고 최이권 회장이 선출되어 25회에서 28회까지 등산대회를 맡아 수고하였고 29회부터 이무회장이 맡아서 수고하고 있다. 설악제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김종록회장과 함께 1억수천만원을 모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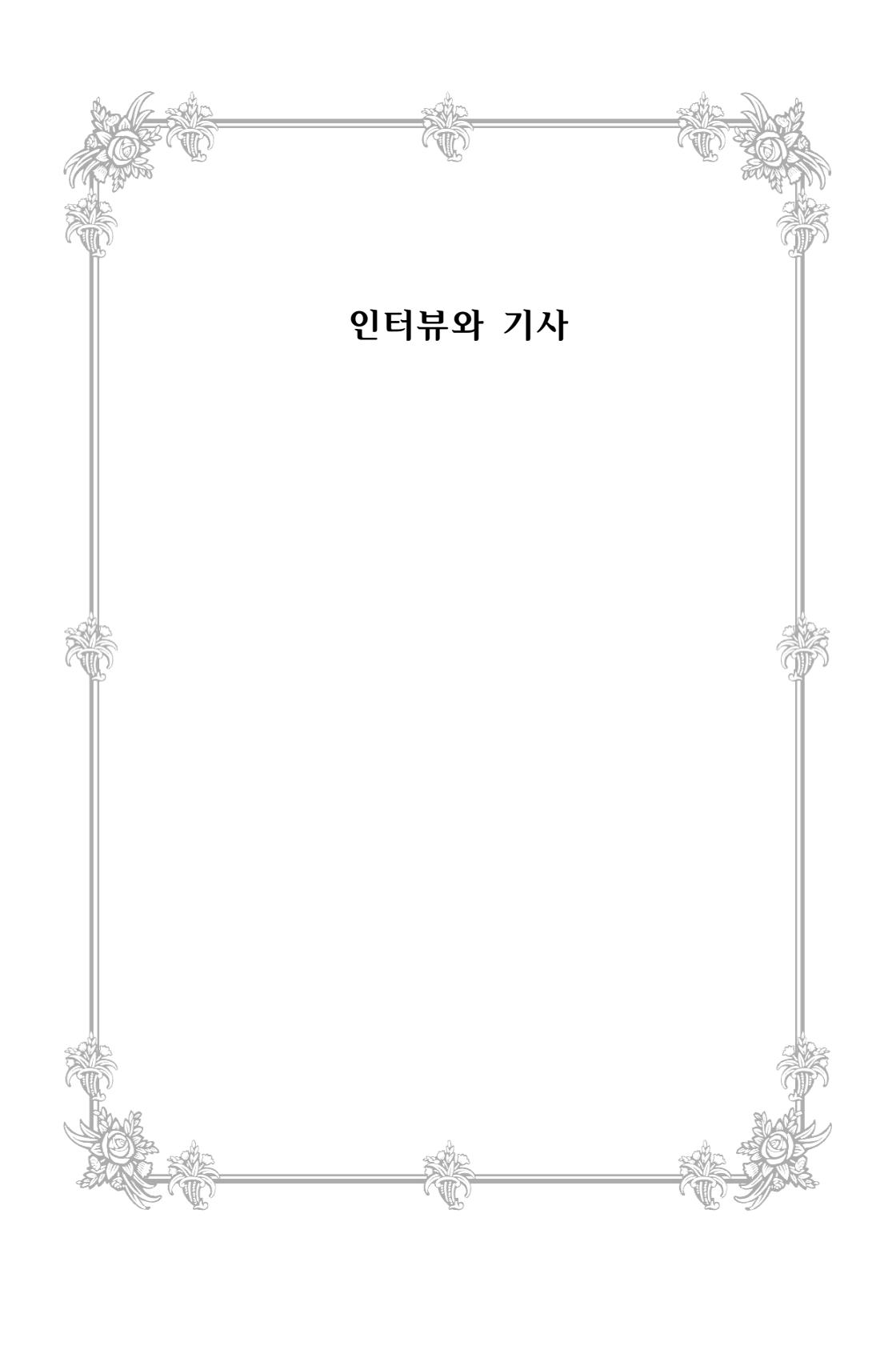
그러나 30회에 와서 이름도 변경하고 행사일도 변경했다 한다. 그럴 바에는 제1회 설악문화제로 하여 행사일도 봄철 한가한 날을 받고 시민의 날도 봄철로 변경하여 관공서도 시민의 날은 휴무해서 시민화합의 장으로 하였으면 좋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산악인들은 계속해서 설악제로 할 것이다.

지금 내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볼 수 있는 나이에서 느끼는 것은 각 사람마다 각자가 걸어갈 길이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그 길로 가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는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기의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자신의 자질을 과대시해서 고생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눈앞의 적은 이익 때문에 길을 망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자기의 길을 찾아서 열심히 걸어가려면 자신의 노력과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행운도 따라야 한다.

사람에 따라서는 허영과 욕망 때문에 길을 망치는 사람도 있다. 우리가 등산할 때 길을 잘못 갔을 때와 같다. 이럴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원위치로 되돌아와서 생각하는 것이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걸어온 길에 자기의 발자취를 검증하고 지도를 다시 보면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위의 잡음과 감언에 속지 말고 유혹에 빠지지 말고 자기 자신의 마음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올바르게 자기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은 종착역에 서서 비로소 알게 된다. 사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삶의 과정이지 결과는 아니다.



인터뷰와 기사

<주간한국> 1968년 9월 29일

서울을 버리고 山으로 이주한 설악산 『狂山王』

산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서울에서 30년이나 살며 이대부속병원장 지내다가
4·19때의 무질서와 사제지간의 모함 등에 환멸 느껴
항상 즐겨온 산 따라 일가 이끌고 이주

『꿈속에서도 설악은 나를 손짓해 불러요. 그 남성적인 우람함, 깊으면서 은근한 그의 풍모에 결국 반해버린 셈이지요.』 산이 좋아, 30여년 정들여 뿌리박아온 서울을 떠나 설악산 기슭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산94번지에 영주(永住)의 터를 잡은 李基燮씨(56·의학박사)는 40여년을 산과 벗하여 살아온 「베터런 알파니스트」이기도 하다.

비단폭처럼 화 펼쳐진 동해의 푸르다 못해 검은 물결이 일렁이며 몰려와서는 바위를 쓰다듬다 지쳐 밀려나가는 탁트인 전망. 李基燮 의원의 흰색 네모반듯한 벽이 가을 아침햇살에 눈부시다. 대문을 들어서면 대여섯평 화단에 「샐비어」가 불처럼 붉게 탄다.

그를 찾은 날이 공교롭게 일요일. 짧은 소매 남방에 등산용 바지를 입고 등산화를 신은 가쁜한 차림, 나이에 비해 이른 백발 동안(童顏)의 이씨는 막 집을 나서는 참이었다.

『일요일은 빼놓지 않고 山에 오릅니다. 가랑비 정도는 무릅쓰고 갓지요. 설악산에 오른게 2백50여회 될 겁니다.』 작달막한 키, 도시인에게선 볼 수 없는 검붉게 탄 굵은 팔뚝. 그날도 오색(五色) 약수터에 가는 길이라고 했다.

속초에 이사한 지 6년이 조금 넘는다. 이사의 주동기가 바로 설

악산 때문이었다. 지난 7월 29일이 이사 6주기념일이었다.

『이사를 올 때는 망설이기도 했어요. 또 집안식구들이 더러는 반대를 하더군요. 그러나 이제와선 모두 만족하고 있어요.』

4·19가 나던 해였다. 그때 이씨는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장직에 있었다.

『4·19는 민권이 승리하는 위대한 혁명이었지요. 그러나 그 거룩한 4·19를 역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용교수』 축출이니 뭐니해서 후배들이 선배를, 제자가 스승을 욕하고 모함하고 심지어는 몰아내기까지 했다.

『그 때 전 서울이 싫어졌지요. 인간의 불신과 간교(奸巧)가 구역이 나도록 더러운 것으로 느껴졌어요.』

그것이 이씨가 서울을 떠나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7년 동안 가르치고 봉직했던 이대(梨大)를 떠났다.

『그 때 제 머리속에 달려드는게 설악산의 웅자(雄姿)였습니다. 설악산 가까이로 서울을 떠나자는 생각을 홀로 굳혔지요.』

의사라는 직업, 자녀들의 교육 등을 고려해서 설악산 깊숙이 못 들어가고 결국 속초에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

그 후로 여섯해. 직업때문에 매일같이 등산을 못하는 걸 한탄하면서 틈만 있으면 설악산을 오르내렸다. 처음엔 속초사람들이 「노라리 의사」라고 그의 등산을 비난하기까지 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광산왕(狂山王)」으로 통한다.

『원래 학생시절부터 산을 즐겼습니다 일본에서 학교 다닐 때, 또 서울에 와 자리잡고도 산에 늘 마음을 두어왔어요.』

2,3대 서울산악회장을 지냈고 서울을 떠날 때까지 한국산악회 안전대책위원장으로 일해왔다. 민주당 정권 시절, 조난 학생 구조에 공이 커다고 대통령이 만찬에 초대하기까지 했다. 白雲臺산장 건립 때도 동분서주하면서 등산가족의 안전을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인간은 늘 마음에 고통이 있게 마련이고 조그만 자기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발버둥쳐야 되는게 현대 아닙니까? 그런 악착스런 인

간을 순화(醇化)시켜 주는게 자연입니다. 그중에도 산은 인간을 너그럽게 만듭니다. 복작거리는 도시, 봄비는 버스 속에서 발을 밟혔을 때 화를 내는 인간도 산에 오르면 그렇게 좁다란 자기 위주의 집념을 잊게 마련입니다. 등산길에 서로 부딪쳐도 그들은 서로 미안해 하며 미소를 교환하게 됩니다.』

직업이 의사라서 이씨는 남달리 더 많은 인간의 고통과 욕망과 아집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산에 올라 좀 더 넓은 세계의 희열과 좁다란 인간사회의 고통을 비교하며 마음을 넓고 너그럽게 다듬어 왔다.

『산 가운데서도 설악은 왕자(王子)지요. 이대 산악반을 테리고 내외설악을 횡단한 적이 있어요. 그때 설악산의 유현(幽玄)한 멋에 취하게 되었어요.』

한라산, 지리산, 오대산 등 국내의 산치곤 안 올라 가 본 데가 없다. 일본의 후지산도 올라봤고 이제는 가지못할 땅이 되어버린 해동의 명산 금강에도 올라가 봤다.

『금강산이 단장하고 곱게 다듬은 도시처녀처럼 오밀조밀한 맛이 있다면 설악은 멋을 모르고 순진하며 기골찬 시골 총각 같아요.』 우람한 정기, 깊은 골짜기 - 결국 산이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가진 게 설악산이라고 한다.

봄이면 봄꽃이 곱고, 여름엔 그처럼 무성한 녹음, 그리고 가을이면 그 단풍 - 가까이 보아도 황홀하고 멀리서 보면 더욱 아름다운 자주빛 단풍, 겨울이면 깨끗한 설경. 설악산은 계절에 구애받지 않는 산 중의 산이라 했다.

『지금쯤 벌써 산정엔 단풍이 들기 시작했을 겁니다. 골짜기의 물이 하늘을 더욱 맑게 비추일게고 잣이 영글었을 테죠. 오르고 내리는 길목의 도토리 막걸리가 맛이 들 땅니다.』 이씨는 창밖 오른편으로 고개를 돌려 뿐연 구름에 휩싸인 설악산 봉우리를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뜯다. 미목 준수한 총각을 사모하는 시골처녀의 볼처럼 홍조를 띄우기까지 하면서.

이사 6주를 기념하는 뜻으로 출가한 두 딸까지 불러 부인 咸東實씨(51)와 5남매를 거느리고 설악에 올랐다.

외설악의 천불동계곡, 죽음의계곡, 마등령, 대청봉에 올랐다가 내 설악의 구탕골, 대승폭포를 누벼 내려왔다고 한다. 60이 가까운 나이에도 어려움을 모른다고 했다.

설악산 중에서도 천불동계곡이 제일 좋다고 했다. 계곡을 흐르다 안개 되어 튀어 오르는 물보라는 세속을 그대로 씻어간다고. 마등령에 오르면 절벽타고 기어오르는 구름이 발밑에 깔리는 것도 잊을 수 없는 절경이다.

李씨는 지금 설악산악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계절마다 밀려드는 등산객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일엔 발 벗고 나선다고 주위사람들이 전해준다. 내외설악 횡단로를 개척했고 당국에 건의해서 봉정암 산장을 건립했고 양폭산장을 짓는데도 큰 힘이 되었다.

재작년 제1회 설악제 때의 일이다. 2백60여명이 줄 지어 산에 올라 중턱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폭우가 내렸다. 골짜기 물이 불어 건널 수가 없었고 벼랑에선 돌이 마구 굴러 떨어졌다. 등반객들은 어쩔 줄을 몰랐다. 그 때 李씨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등반객들을 안심시키고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다.

『저도 겁이 났습니다. 그럴 때는 심리적 안정이 제일이에요. 대부분의 등산 조난사고는 겁을 먹는데서 비롯되거든요.』 결국 한 사람의 낙오자 없이 무사히 하산할 수가 있었다. 李씨도 등산 40년만에 처음 맛본 희열이었다고 한다.

지금도 「시즌」이 되면 설악산을 찾는 등반객들은 李씨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 기쁜 일, 웃은 일, 좋은 일, 위험한 일이 있을 때마다 李씨의 얼굴이 안 보이는 때가 없기 때문이다.

- 병원은 잘 됩니까?

『먹고살기엔 충분하지요. 밤새어 고기잡는 어부들이 모두 건강해서 큰 환자는 드문 편입니다. 게다가 제가 온 이후 속초에는 등산하는 사람이 늘어 잔병환자도 없어졌어요. 이러다간 병원문 닫게

될지도 모르겠어요.』李씨는 결결 웃는다.

건강에는 산이 제일이라고 했다. 대부분의 사람이 오르기 힘들다는 생각에 등산을 외면하지만 조금만 길이 들면 소화불량 쯤은 약 없어도 낫는다는 것. 게다가 산 속의 그 땀은 공기를 마신 사람에게 감히 병균이 침입하지 못한다는 것. 60평생에 한번도 앓아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의사인 때문이 아니라 산에 오르내리는 게 큰 힘이 되었을 거라는 것이다.

서울엔 학교 다니는 애들 셋이 사촌집에 살고 있다. 처음 이사올 땐 속초에서 셋집을 얻어 개업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금년 5월 서울 북아현동에 있는 집을 팔아 현재의 병원을 샀다. 아담한 이층집이다.

- 서울로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또 그럴 필요도 없어요. 서울거리 생각만해도 답답합니다.』 서울에 대해선 깊은 증오(?)를 가진 듯했다. 대학을 다닐 때부터 일본 유학 1년을 빼고는 30여년을 살아온 고장이지만 별로 매력을 못 느꼈다고. 다만 옛친구, 특히 산악회에서 같이 일하던 벗들을 찾기 위해 한달에 한번 정도는 꼭 올라간다는 것. 몇사람 대는 친구의 이름이 모두 낯익은 사람이었다.

- 산에 오르시면 산악인으로서 눈에 거슬리는 것은?

『요즈음은 많이 좋아졌어요. 서울 있을 때 산에 오르면 어린 학생들이 술을 먹고 고함지르며 위험한 길목을 두려움 없이 오르는 걸 보면 빼놓지 않고 불잡아 타이른 적이 많아요. 하지만 설악산에 오니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산의 위엄과 절경에 취한 탓이겠지만 등산의 매너가 많이 좋아졌어요.』

산악인의 한 사람으로선 도 당국의 배려가 고맙다고 했다. 2개의 산장, 백담사 오르는 길의 개수 등 모두 당국이 공로라고 했다.

10월 9일부터 사흘동안 열리게 될 제 3회 설악제에는 신흥사를 시발점으로 대청봉을 거쳐 오색약수터에 이르는 코스를 등반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래서 오늘도 오색을 예비답사하려는 참입니다.』

직업이 직업이라 휴일만을 이용해야하는 등 등산이 안타깝다는 노 「광산왕」은 기자때문에 늦어진 시간이 아까운 듯 총총걸음으로 대문을 나섰다.

「仁者樂山」이라던가. 산이 좋아 산기슭에 영주하려는 노경(老境)의 의사와 산을 머리속에 연결지어보고 그의 하루가 즐겁기를 빌며 대문을 나왔다.

[속초에서 이재관기자]

<조선일보> 1974년 2월 27일 6면 청룡봉사상

靑龍奉仕賞의 얼굴, 장려상

李基燮씨(도립병원 西歸浦分院長)

『한 일도 없는데 賞을 받다니 – 하여간 기쁩니다』 장려상으로 뽑힌 濟州道立病院 西歸浦分院長 李基燮(64)박사는 『남은 여생을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겠다』고 했다.

그는 1백60cm의 단구에 백발이 성성했지만 딱 벌어진 체구에는 스태미너가 왕성해 보였다.

한국산악회 이사, 대한체육회 이사, 체력관리위원회 이사 등 이력이 말해 주듯, 그는 산악인으로 널리 알려졌고 이번 수상도 山岳人의 功이 커 수상하게 된 것.

의사인 그는 본업을 잊은 듯 산악인으로 너무나 많은 일을 했다. 黃海道 출신인 그는 1938년 세브란스醫專을 졸업, 日本京都대학의 학부를 수료하고 귀국, 61년까지 세브란스의전 강사와 서울 적십자 병원 부원장, 梨大 부속병원장 등을 지내며 틈틈이 산과 인연을 맺었다. 57년 서울 산악연맹회장직을 맡아보던 그는 60년에 회원과 유지들로부터 모은 성금으로 현 白雲山莊을 건립하여 전산악인의 휴식처로 제공했다. 이때 그는 회원들과 같이 牛耳동에서 白雲臺까지 목재, 시멘트, 철근 등을 손수 나르는 열의를 보여 회원들을 놀라게까지 했다.

그러나 그가 본격적인 산악인을 위해 헌신한 것은 梨大부속병원을 그만두고 62년 5월 江原道 東草에 개인병원을 개업하면서부터였다.

이때부터 雪嶽山과 인연을 맺고 그때까지 등산로가 없던 陽瀑-大

青峰까지 6km와 大青峰서 五色리까지 16km 등 총 5개소 58km의 등산로를 개척했고 설악산케이블카를 가설하는데도 큰 뜻을 했다.

또 70년 겨울등산학교를 개설, 3년간 1백5명의 후배 산악인을 양성했으며 그동안 19명의 조난자를 구출, 명실공히 산악인의 존경을 받았다.

그는 조난자의 구출보다도 일생을 통해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은 69년 설악산 비룡폭포에서 조난된 여학생 2명을 낚시로 건져냈을 때라고 말하면서 지금도 그일을 생각하면 괴롭다고 했다. 그는 뜻 한 바 있어 제주도로 왔다면서 『앞으로는 본업인 의료사업을 폐 남은 여생을 보내겠다』고 했다. 가족은 부인 咸車實여사(咸車實女事)와 슬하에 1남4녀를 두고 있다. [제주=李東卓기자]

<월간 산> 1984년 9월호

원로산악인 李基燮

큰 산의 품 같은 너그러움
무의촌 진료사업은 또 하나의 등산

희디흰 백발에, 10대 같은 홍안을 가진 이기섭 박사는 좀처럼 웃음이 없지만, 산의 품 같은 너그러움을 지녔다. 그 너그러움의 인술을 그는 강원도 산간의 무의촌에 베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확대된 의미의 ‘등산’이기도 하다.

李基燮박사는 허연 백발이다. 아니, 희다 못해 눈부신 눈(雪) 빛깔이다. 그 희디흰 머릿결 아래 등그스름한 얼굴은, 그러나 홍안의 소년 같다. 눈은 좀 작은 편이다. 그래서 그 깊이를 짐작하기 어렵다. 1910년대에서 80년대에 걸친 70년 인생살이로 눈꼬리는 약간 처진 듯 하지만, 간혹 스쳐가는 시선은 사뭇 날카롭다. 부드러우나 한 곳에 박히면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그런 시선이다. 웃음은 별로 없다. 다만 넓고 큰 코 아래, 두툼한 입가로 슬며시 미소가 번질 때면 누구의 어떤 실수도 포용해 낼 것 같은 너그러움이 엿보인다. 이른바 대인(大人)의 풍모를 지녔다.

이박사의 집은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언덕배기에 자리잡고 있다. 100여평 대지 위에 세워진 35평 짜리 아담한 단층집이다. 문패엔 이박사와 부인의 이름이 함께 새겨져 있다. 등나무와 갖가지 수목들로 가꿔진 대문 안은 숲 깊은 설악의 어느 산길 같다.

마침 내외분이 저녁식사 중이어서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다. 부엌 창문 밖 저 멀리에 구름을 피워올리고 있는 설악이 보인다.

매일 식사 때마다 이렇듯 설악을 마주 대하고 앉으리라. ‘큰바위 얼굴’을 대하듯.

“멀리서 이렇게 보기만 해도 설악산 한가운데 가 앉은 것 같은 느낌이랍니다.”

부인 咸東實여사가 누구의 ‘느낌’인지 모를 말을 다과와 함께 내려놓는다. 아니, 누구의 느낌이랄 것도 없다. 이미 이들 두 노부부의 사이에 그런 ‘느낌’의 구분은 사라진 지 오래다. 이박사는 이미 반백년을 부인 함여사와 해로해 왔다.

자녀는 1남4녀. 모두 성가하여 슬하를 떠난 지 오래다. 매년 여름이면 아들 딸들이 손자 손녀들과 함께 번갈아 다녀간다. 친손자 하나에 외손자 일곱, 외손녀 둘이다. 이들이 올 때가 아니면 집은 언제나 숲속같은 고요함에 잠긴다.

이박사 부부가 이곳 속초에 이사한 것은 1962년의 일이다. 1960년 이대의대부속병원장직을 그만둔 뒤 웬지 서울이 싫어졌고, 무엇보다 속초는 설악산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라면 고 金活蘭박사의 ‘시골로 가 봉사하는 의사 양성’이라는 이대의대 설립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해서다.

이박사는 처음엔 속초시 중앙동 시장안의 어느 여관을 빌어 개업했는데 일요일이면 부인과 함께 배낭을 메고 설악산으로 가곤 해서 주위의 말을 듣기도 했다. 그러나 이박사의 그런 남의 눈치 보지 않는 대인 기질은 이제까지 변함없다.

그렇게 산을 갔듯 이박사는 칠순 넘은 지금에도 보수 한 푼 없는 무의총 진료에 나서고 있다. 정년퇴임 후 현재 아무 공직도 갖고 있지 않지만, 그 무의총 진료는 결코 ‘소일’을 위해서가 아니다. 1983년 3월부터 매주 2회씩, 화요일엔 양양군 강현면 석교리로, 목요일엔 서면 서림리로 진료를 가고 있다.

“무료 진료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난하지만 사람들을 ‘거지’로 만들고 싶지는 않은 것이다.

무의총 환자 누구에게든 이박사는 현지 보건소 간호원으로 하여금 500원씩 받도록 한다. 그의 무의총 진료사업에 대한 국가보조란 진료 당일 고작 현지 보건소 간호원의 도움을 받는 정도일 뿐이다. 순전한 사재가 들어가는 일이다. 간혹 이박사가 친아들처럼 여기고 있는 미국 조지아산악회의 金正燮(42, 연세대산악회OB)씨나 그중 생활 형편이 나은 셋째 딸 이규옥씨 부부가 도움을 주기도 한다. 전번엔 조지아산악회가 미화 100달러를, 이규옥씨 부부는 노인용 안경 140여개를 보내오기도 했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집 동쪽 조그만 정원으로 나가 앉았다. 잔디가 곱게 깔려 있고 담장 밑으로는 주홍색 꽃이 한가득 피었다. 저녁 바람이 불자 히말라야 삼곡(杉木)이며 벽오동이 시원스레 몸을 떨었다.

“아무래도 나 혼자 힘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 좀 더 크게, 조직적으로 사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이박사는 가칭 농어촌보건의료사업협의회 초안문을 보여주었다. 속초에 본회를 두고 무의총 농어민, 특히 노인층의 보건 및 건강문제에 대한 상담과 의료시행을 주목적으로 회장 외 9명으로 구성되며, 회원의 회비 및 찬조금을 경비로 충당한다는 것이 주 골격이다.

하지만 역시 ‘어렵다’고 이박사는 덧붙인다. ‘좋은 일’이라고는 하면서도 정작 나서는 이가 아직 없다. 어쩌면 상당한 지출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무상의 봉사 뒤에 찾아오는 보람의 맛은, 더구나 의사라면 누구든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박사는 환히 웃는다. 그렇게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다는 말이다.

일주일 두 번의 무의총 진료일 이외 이박사의 일과는 거의 일정하다. 아침 6시에 일어나고 오전 중엔 독서, 오후엔 한 차례씩 산보를 나간다. 몇 해 전까지는 정구를 해왔으나 설악산 12선녀탕 계곡에서 실족하여 어깨를 뻣 후 그만 두었다. 간혹 저녁식사 후에 설악산 권금성 산장을 다녀오기도 한다. 아무 생각도 준비도 없이

부인과 함께 함께 불쑥 다녀오는 설악산은, 그러나 파격(破格)이 아니라 그대로 그의 일상이며 또 칠순임이 믿기지 않는 생동감의 비밀이기도 하다.

그렇듯 남의 눈치 보지 않는 이박사의 대인 기질은 이제껏 변함이 없다. 그렇게 산을 갔듯, 그는 칠순이 넘어서도 무의촌 진료봉사에 나서고 있다.

1970년 4월 이 박사는 설악관광주식회사 사장으로 위촉되어 설악동 - 권금성 간 1,100m의 케이블카를 가설했다. 그가 '내 몸같이' 아끼는 설악에 설치한 케이블카는 그로선 '파괴'가 아니라 '사랑'이었지만, 결국 이 박사는 그 사랑 때문에 한때 속초를 떠나야 했다. 시공자의 부실로 케이블카가 1시간 30분 가량 허공에서 멈춰 버렸던 사고 이후였다.

그후로는 케이블카만 보면 불쾌해져 이 박사는 1972년 제주도 서귀포로 이사했다. 서귀포는 이박사가 6·25 때 피난민 치료를 위해 몇개월 머물렀던 곳. 서귀포에 사는 동안 이 박사는 서귀포산악회와 함께 한라산에 여러 등산로를 개척했고, 자연보호 캠페인 등 행사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다 이 박사가 다시 속초로 돌아온 것은 75년이다.

74년 2월. 이 박사는 설악산 조난자 구조에 대한 공로로 조선일보사로부터 청룡봉사상 인(仁)상을 받았다. 이 박사는 1950년대 중반 한국산악회 이사와 서울산악회 2,3대 회장을 지내면서 서울법대생 한라산 조난 때는 洪鍾仁 회장과 함께 구조에 나섰으며, 친구들과 북한산 백운대에 올랐다가 조난당한 송모군을 2일 만에 구조하기도 했다. 그리고 젊은이들의 체계적이며 건전한 산행을 위해 매년 1박2일 코스로 서울 근교에서 크로스컨트리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1966년 10월 1일, 이 박사는 설악산악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제1

회 설악제를 열었다. 이 설악제는 전국에서 가장 이름난 가을산 축제로 지금까지 해마다 개최돼 오고 있다. 설악동에서 대청까지 토끼길을 내기도 했고, 설악산 계곡의 몇몇 위험한 곳에 쇠사다리를 앞장서 가설하기도 했다. 그 밖에도 설악 곳곳마다 그의 손길,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청룡봉사상 시장식 인터뷰에서 이 박사는 학생들을 위한 산간학교와 노인들을 위한 노인병원 설립 계획을 밝혔다. 이에 당시 이화여대 총장 金玉吉 여사가 동조하고 나서며 설악산 피골에 2만여 평의 부지를 마련했으나, 곧 국립공원 시설단지 D지구로 묶여 버리는 바람에 이박사의 꿈은 지금까지 보류되고 있다.

요즈음 배낭을 메고 설악을 걸어 오르는 일은 없다. 이미 그런 등산은 이 박사에겐 힘겨운 일이다. 설악에 수많은 등산로를 낸 이 박사지만 이제 더 이상 걸어 오르는 등산은 그만두었다. 하지만, 그에게 등산은 ‘평생의 일’이며 바로 인생이다. 인생은 그에겐 또 다른 등산으로 다가서 있다.

산에서의 그의 걸음은 느리며 끊임없으면서도 매순간마다 휴식의 틈이 보인다. 그는 그렇게 살아왔다. ‘남은 산행’이란 없듯 그에게 ‘남아 있는 일’도 없다.

그에게 다가와 있는 삶의 등로 저편엔 크게 두 개의 봉우리가 드러나 있다. 하나는 바로 농어촌보건의료사업협의회 창설이며, 또 하나는 노인촌 건설이다. 작년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이박사는 노인을 위한 콘도미니엄을 둘러 보았다. 55세 이상의 노인을 위한 것으로 짚었을 때부터 20년간 불입하면 사망 때까지 모든 점에서 불편 없이 살 수 있도록 꾸며져 있었다. 끝을 볼 수 있을지는 모르나 이 박사는 그 두 가지 계획을 서서히, 매순간마다 쉬어가며 추진해 나가고 있다.

간혹 찾아오는 산친구들은 이 박사에겐 또 다른 큰 즐거움이다. 40년 가까이 보아온 설악과, 그 설악을 찾은 산친구며 후배들에게 그는 핏줄같은 정을 느낀다. 설악의 기슭에 살며, 그 설악의 내음이

온 몸에 밴 산친구들과 이따금씩 나누는 정만으로도 이 박사는 살 아있음의 충만감을 느낀다.

간혹 저녁식사 후에 불쑥 다녀오는 설악산은, 그에게는 파격이 아니라 그대로 일상이며, 또 칠순임이 믿기지 않는 생동감의 비밀이기도 하다.

백발환흑(白髮還黑)이라더니, 이박사의 마음 머리는 다시 검고 윤택한 빛으로 살아나는 모양새다.

이 박사는 자연이 인간에게 갖는 의미를 첫째 생활의 장소, 둘째 학술연구의 장소, 셋째 인간 정신의 부활의 장소 세가지로 보고 있다. 그 중 이박사는 세번째의 의미를 가장 중요시한다. 그리고 그 스스로가 그런 의미의 현현이다. 여생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고 있다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배웅하는 이박사 부부에게서 한껏 배어났다.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식> 1986년 12월 8일 제 117호 8면

화제의 동창 - 李基燮(38년졸) 동창

嶺北농어촌보건의료사업협의회 발족해 보건진료소 지원

개교 1백주년의 역사를 가진 연세의대가 그간 배출해 온 졸업생 중에는 현대 의학사에 훌륭한 연구업적으로 길이 남을 이들도 많지만, 화려한 명성보다는 남들 모르게 숨어서 잔잔한 보람을 느끼며 의료봉사활동으로 여생을 보내는 뜻있는 이들 또한 많다.

은퇴 후에도 거동할 수 있을 때까지는 「환자를 보살피는 의사의 직분을 다함으로 보람을 느끼고자」하는 많은 훌륭한 의사들 중의 한 사람이 강원도 속초시에 사는 李基燮 (38년졸)동창이다.

산이 좋아 속초로 왔다는 李동창은 古稀를 넘긴 나이에도 불구, 사재를 털어 벽지의 보건진료소 지원사업을 펴는 한편 등반안내 및 사고예방, 인명구조로 오늘도 젊은이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살고 있다.

38년 세브란스의전을 졸업한 李동창은 약 7년간 적십자병원에서 외과과장으로 재직했으며, 6·25전쟁 후는 이화의대부속병원으로 옮겨 병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1962년 속초에 와 잠시 개원도 했었던 李동창이 요즘 가장 관심을 쏟고 있는 일은 「嶺北농어촌보건의료사업협의회」를 운영하는 일이다.

정부에서는 농어촌보건의료사업의 일환으로 이미 벽지·오지의 농어촌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훈련된 간호원을 보건진료원으로 파견하여 1차 보건의료 활동을 펴오고 있지만 간호원이라는 제한된 자격과 제한된 처방약품, 보건진료소 자체의 운영비와 비품 등의 뒷받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곳이 많다는 것과 특히 이러한 벽·오지에 나가 있는 보건진료원의 심리적 의욕을 북돋아줄 지원

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84년에 은퇴해서 등산으로 소일해 오던 李동창은 이러한 사정을 알자, 자신의 생일에 모인 자녀들과 협의한 끝에 보건진료소를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하기로 하고 치과의사인 사촌동생 2명, 의사인 셋째 딸 圭玉, 사업하는 아들 圭亨, 4명의 사위, 조카 및 조카며느리 李恩順(부평서 이비인후과의원 개원) 등 15명의 가족을 임원으로 「嶺北 농어촌보건의료사업협의회」를 구성, 86년 1월 정식 발족시켰다.

이때부터 李동창은 화·목요일을 보건진료소에 나가 환자를 진료하고 노인들의 건강상담도 받고 있다. 가족들이 낸 회비로 약을 사고, 보건진료소에 필요한 비품도 준비하며, 수도·전기료 등 경상비 보조도 한다.

또한 60세 이상 노인에게는 안경을 무료로 해주어 그간 2백여개를 공급했다.

「1년에 1개 보건진료소 당 약 60만원이면 약값은 충분하다」고 밝히는 李동창은 앞으로 관내 보건진료소 가운데 열심히 하는 곳은 상금도 주어 보건진료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경쟁심도 유발시켜 보겠단다.

현재 보건진료소가 설치된 지역에는 관내 유지·기관장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가 있지만 실제적인 도움은 별로 크지 않은 것 같다고 진단하는 李동창은 정부와 의사단체 등에서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한다.

「정부에서는 곧 지역의료보험을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로 어려운 농어촌에서는 단돈 1천원도 내기가 어려운 형편」이라고 지적하는 李동창은 지역사회 개원의에게 세금감면혜택을 주고 이런 사업에 기금 등을 투자하게 하거나 은퇴 후 집에서 소일하는 老의사들이 이런 보람된 일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떨지 조심스레 권유한다.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嶺北농어촌보건의료사업협의회가 조그만 씨앗이 되어 보건의료 새마을운동으로 번져가는 것이 꿈이라는 李동창은 현재 설악산약회장으로 봉직하며 등반안내, 등반사고예방, 인명구조활동에 몸을 아끼지 않고 있다.

<월간 사람과 山> 1992년 5월 – 이 사람의 삶

설악산악연맹 고문 - 이기섭 박사

“산악인이기 전에 사람이 돼야 합니다.”

김우선기자

의학박사이자 대학병원장이었던 그가 하루 아침에 세상의 명리를 떨쳐버리고 속초행 버스에 몸을 실은 건 1962년 5월의 일이었다. 뉘라서 부귀와 영화를 마다하랴만은 학생혁명과 군사쿠데타로 얼룩진 서울을 뒤로 하고 진부령을 넘는 그의 마음 속에는 차라리 일말의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로부터 30년, 이제 완전히 속초 사람이 되어서 설악과 벗하며 사는 동안 그는 어느덧 은발이 되었고, 미움과 분노도 그가 미련없이 내팽개쳤던 세상의 명리만큼이나 이미 오래전에 하잘 것 없는 것이 되어 버렸다. 서울을 떠나겠다는 결심은 누구나 해볼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긴 사람이 드문 까닭에 도피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충격적이고 절박한 그의 속초행에 담긴 까닭이 궁금해진다.

이기섭(80세) 박사의 귀거래사(歸去來辭)는 일본 경도대학 유학 시절 홀로 넘나들었던 북알프스나 모교 세브란스의전에 재직하면서 심취했던 금강산 산행 당시부터 벌써 잉태된 필연이었는지도 모른다. 그가 설악을 처음 찾은 것은 이화여대 의과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김정태, 김근원씨 등의 인솔 아래 동대학의 산악반 여학생들과 함께 한 1956년의 하계등반이었다. 설악산은 이미 1954년 8월 한국산악회 조산반에 의해서 전후 처음으로 답사되었지만 천불동계곡에서 바로 대청봉을 오르는 길이 나 있지 않아 자일을 사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등반팀 외에는 대부분 가야동으로 해서 백담계곡으

로 오르내리던 시절이었다.

이대 부속병원장으로 있을 당시 서울산악회의 2, 3대 회장과 한국산악회 이사를 역임하면서 그의 산악활동은 우리나라 산악운동사에 있어 몇몇 중요한 대목과 접하게 된다. 1961년 서울법대생 이경재군 조난사고 당시 홍종인 회장과 함께 제주도에 갔고, 친구들과 함께 백운대에 올랐다가 이틀간 조난당해서 북한산 일대를 헤매는 동안 국내의 언론에까지 오르내린 고교생 송영호 군의 구조 현장에 바로 그가 있었다. 이러한 사고를 계기로 그는 고교 산악반을 위해 서울산악회 주최로 서울 근교에서 매년 1박2일 일정으로 크로스 컨츄리 대회를 개최했다.

또 서울산악회 주최로 설악산에서 동계등산학교를 개최하기도 했는데 이는 후에 권효섭씨(68세, 한국등산학교장)가 맡아서 오늘날의 한국등산학교 동계반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4·19 학생혁명 당시 경찰의 총에 맞은 학생들을 치료하면서 시대의 격변을 지켜봤고 어떤 의미에서는 정의의 편에 섰던 그에게 이화여대 의대생들이 어용교수라는 굴레를 씌운 일은 결정적으로 서울이 싫어지게 된 계기가 되고 말았다. 전쟁의 폐허에서 이대부속병원을 5층으로 증축하고, 진료과목을 증설하는 등 병원 발전을 위해 헌신한 것에 대한 보답은커녕 몇몇 교수들의 부추김을 받은 학생들에 의해서 그에게 돌아온 오명은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김활란 총장은 공부도 할 겸 외국에 한 3년간 다녀올 것을 권유했지만 그의 결심이 이미 굳어진 뒤였다.

세상의 명리 버린 귀거래사

그의 나이 48세. 부인과 함께 열 두시간이나 걸려 진부령을 넘고 속초에 도착한 그를 달마봉과 울산바위, 그리고 아직도 군태군데 눈이 덮여 있는 대청봉이 반겨주었다. 제자들로부터 당한 배신과 그로 인한 분노도 동해의 비릿한 바닷바람에 모두 날아가 버리고 마음은 더 없이 평온한 상태가 되었다. 1962년만 해도 속초는 읍이

었고, 설악산이 아직 관광지로 개발되지 않았던 시절인지라 한적한 어항에 불과했다. 그러한 속초에 그가 자리를 잡고 의원을 개업했다. 일요일이면 부인과 함께 배낭을 둘러메고 설악산으로 향하는 그의 모습이 속초 사람들의 눈에는 더 없이 이상하게 비쳤던게 당연한 일인지도 몰랐다.

“이박사님은 속초의 시바이찌입니다. 이곳에 개업할 당시만 해도 그분이 유일한 의학박사였지요. 80세의 고령인데 요즘도 무의총 진료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평소 그를 극진히 모시는 최이권씨(설악산악연맹 회장, 53세)의 설명이었다.

사실 이기섭박사는 속초의 시승격추진위원회 위원과 시의회 자문위원, 속초경찰서 기성회장, 속초시의사회장을 지내면서 속초의 발전에 기여해온 주인공이기도 했다. 한편으로 오늘날 설악산을 쉽게 다닐 수 있게끔 등산로를 개발해서 금강산 못지 않은 절경의 설악산을 일반인에게 알린데는 그의 공이 절대적인 것이었다.

1964년 그는 관동산악회원으로 활동하던 백영일, 김인열씨 등과 함께 설악산을 세상에 널리 알릴 목적으로 설악산악회를 창립했고, 그 자신이 초대회장이 되었다. 이어서 1966년에는 설악산 사진가인 최구현씨(68세)의 협조로 제1회 설악제를 개최하였다. 속초에서 승리사진관을 경영하던 최구현씨는 옛 설악산 사진을 다수 소장하고 있으며, 1965년부터 1970년까지는 서울의 무교동과 명동에서 설악산 사진을 전시, 판매하기도 한 산악사진가였다. 오늘날 유명해진 사진가들도 당시는 대부분 그로부터 설악산 사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할 정도였다.

제1회 설악제는 내설악의 인제군 북면 외가평에서 시작, 백담사와 봉정암, 대청봉을 거쳐 신흥사까지 내려오는 2박3일의 일정과 더불어 설악산 사진전을 겸한 것이었다. 그의 노력으로 설악제가 매년 열렸고, 이 설악제의 개최는 바로 새로운 등산로의 개척과 소개를 의미했다. 당시 박경원 강원도지사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1969년 9월에는 봉정암, 대청봉, 양폭을 넘어가는 등산로와 오세암, 마등령, 비선대, 신흥사를 잇는 오늘날의 등산로가 완성되었다.

설악산악회 창립과 설악제

의사로서 한편으로는 산악인으로서 의욕적인 활동을 펼치던 그에게 1969년 2월 14일 한국산악사상 미증유의 참사인 죽음의 계곡 눈사태 비보가 제일 먼저 전달되었다. 당시에 사고를 목격한 전담 씨(58세)가 설악동으로 달려 내려와 전화로 조난 사실을 알린 것이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중조난의 위험과 구조대의 내부 압력이라는 진통을 겪으면서 사고현장에 구조팀이 도착한 것은 사고 발생 후 보름이 지난 2월 28일의 일이었다.

기록적인 폭설 때문에 사고 현장 접근 불가능이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구조대보다도 먼저 설악동에 사는 두사람이 사고 현장인 죽음의 계곡에 다녀왔다. 한국일보 마일연 기자가 현장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보낸 사람들이었는데 시신발굴 작업은 이때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사고 발생 17일만인 3월 2일, 그는 한국산악회 해외원정 훈련대장 이희성 외 9명의 짜늘하게 죽은 대원들의 시신을 직접 검시하는 비통함을 맛봐야 했다. 지금도 이때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는 오늘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원정 등반이 초창기에 이와 같은 엄청난 희생이 있었음으로 가능했다는 사실을 누차 강조했다.

물론 이전에도 설악산에서 죽거나 다친 사람은 모두 그의 손길을 거쳐가곤 했다. 다쳐서 치료를 받은 사람은 논외로 치고라도 1965년 7월 10일 에코클럽의 이원상군과 동년 7월 16일에 같은 클럽의 김정규군이 비선대 건널목 같은 자리에서 금류에 휩쓸려 익사한 사고라든가 1967년 1월 하순께 소청봉에서 서울대 의예과 1년 이모 군의 동사, 1968년 10월 26일 가톨릭의대 산악부원 7명이 내설악 12선녀탕 계곡에서 조난사한 경우 등이 모두 그가 확인한 사고들이었다.

산을 사랑하며 의술을 인술로 알고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던 그에게 1974년 조선일보사가 제정한 제8회 청룡봉사상 인상(仁賞)이 주어졌다. 설악산에서의 조난자 구조에 10년 이상 헌신했던 그의 공을 비로소 사회가 인정해준 셈이었다.

1975년, 한때 제주도립 병원의 분원장으로 있었던 그는 다시 속초로 돌아와서 지금의 동명동에 자리를 잡았다. 등나무 넝쿨이 운치있게 드리워진 그의 집 옥상에 오르면 대청봉이 한눈에 들어오고 혹시나 해서 뒤를 돌아보면 역시 동해바다가 푸른 빛으로 펼쳐져 있어서 좋기만 한 곳이었다. 손수 갈아서 끓인 원두커피의 향기가 구수한 주방 벽에는 고 이희성 대장이 일제시대에 찍어 가지고 왔다는 백두산 천지 일대의 빛바랜 파노라마 사진이 창밖 설악산을 향해 걸려있었다.

술하게 수습한 설악산 조난

그는 1913년 11월 9일 황해도 수안군 수안면 하오리에서 태어났다. 홀동 금광에 개목을 납품하던 이근필씨의 1남 3녀 중 외아들로 어렸을 때부터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다. 그의 고향 하오리는 예성강 상류, ‘야호’하고 소리쳐 부르면 메아리가 대답하는 일명 ‘소리벼랑’이 약 100미터 높이의 절벽으로 강 건너편에 솟아있다. 수안이씨 집성촌이며 일명 ‘용수개’라고 불리우는 곳인데 잔등을 벌겋게 태워가며 빠가사리, 메기, 자라, 뱀장어를 잡던 추억이 그립기만 한 곳이었다.

어찌보면 그가 평생에 걸쳐서 산을 사랑하고, 산과 더불어 지내온 삶이란 바로 돌아갈 수 없는 북녘의 고향에 대한 강력한 향수가 그 원동력이 된 것인지도 모른다. 유년과 소년시절, 그가 접했던 고향의 자연 속에서 바로 평생을 추구하게 되는 아르케타입(元型, 원형)으로서의 ‘산’을 얼핏 엿볼 수 있다.

해주공립보통학교, 16세 되던 해 봄에 입학한 이 학교를 그는 4학년까지밖에 다니지 못했다. 식민지교육반대를 목적으로 몇몇 급

우들과 함께 단식동맹휴학을 주동했기 때문에 경찰에 연행되었는데 10일만에 무사히 풀려난 것은 그나마 아버지가 황해도 도평의회 의원인 덕분이었다. 그의 기억으로는 해주공립보통학교의 이 단식동맹휴학이 일제 치하 전국에서 최초로 발생한 학생들의 항일 운동이었다. 이 여파로 그는 서울이나 평양의 어떤 학교에도 편입할 수 없게 되었다. 말하자면 사상불온의 낙인이 찍힌 셈이었다. 결국은 일본 히로시마의 광릉중학교 4학년에 편입해서 졸업을 할 수 있었다.

세브란스의전에 재학중이던 그는 당시 이화여전 1학년인 함동실씨(74세)와 결혼, 명자(52세), 경자(51세), 규형(47세), 규옥(43세), 규희(39세) 등 1남4녀를 두었다. 특히 3녀인 규옥씨는 부친의 가업을 이어 현재 안양에서 개업의로 활약하고 있으며 이를 모두가 이기섭 박사가 회장으로 있는 영북(嶺北) 농어촌 보건의료사업협의회를 뒤에서 돋고 있는 막강한 후원자들이었다. 주로 노인들을 위한 의료 활동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기섭 박사는 안락하고 가능한 시설을 갖춘 노인촌 건립이 꿈이며, 현재까지 겉만 번지레하고 실속은 없는 우리나라의 노인들에 대한 보건의료정책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단체 초월해서 추모비 세워야

한편으로 설악제 위원회의 위원장과 지난 1990년에 창립된 설악산악연맹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매년 개최되는 설악제를 10동지 추모제와 함께 ‘설악산 조난 희생자 추모제’로 통합하며 추모비를 건립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

“추모비 건립을 위해서는 한국산악회나 대한산악연맹 등 단체를 초월해서 모든 산악인이 나서야 할 것입니다.”

설악산을 바라보며 설악과 함께 30여년을 살아온 그에게 있어 ‘사람은 자연에서 왔다가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정직하고 겸손하기 마련입니다. 산악인이 기 전에 사람이 돼야 하는 거지요. 자연보호는 국민학교부터 현장 교육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국립공원의 경우 학생은 물론 성인들에게까지도 자연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연사 박물관을 비롯해서 설악산에 산악 박물관 하나쯤 생겨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동해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외설악과 내설악의 계곡 속속들이 파고들어 짐승들의 긴 겨울잠을 깨울 무렵에도 설악산에 쌓인 눈은 녹지 않았다. 그런 설악과 울산바위, 달마봉을 마주 대하여 엮어온 이기섭 박사의 오랜 귀거래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채였다. 이젠 돌아갈 수 없는 북녘의 고향이 그립기 때문이었다.

<일간스포츠> 1993년 8월 3일

산이 좋아 산에 살다 먼저 가신 분들 넋 기린다 설악산 소공원 내 ‘산악인의 문’ 추진 이기섭 옹

산악조형물 국내 첫 건립
가로 6m 세로 8m 높이 6m의 석조물
'상징물 하나없는 현실 안타까워' 동분서주
전국 등반가들 십시일반

우리나라 최초의 산악조형물이 한 원로산악인에 의해 설악산에 세워진다.

“우리 산악운동의 요람인 설악산에 산악인을 상징하고 유명을 달리한 산악인들의 넋을 기리는 조형물이 건립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산악인의 문’ 건립 계획을 밝히는 이기섭옹(81·설악 산악연맹 고문·의학박사)은 30년 넘게 설악에 살아온 원로산악인이다.

오는 10월 설악산 집단시설지구내 소공원(강원 속초시 설악동 산 27)에 자태를 드러내게 될 ‘산악인의 문’은 가로 6m, 세로 8m, 높이 6m의 석조물.

설악산에서 유명을 달리한 산악인의 넋을 기리며 타오르는 ‘영원의 불꽃’ 위에 산과 사람이 문을 통해 하나가 됨을 상징하는 조각가 연제동씨(한국조각협회장)의 작품이 놓인다. 조형물 주변에는 전국의 산악회에서 보내주는 자연석을 깔아 산악인의 단결을 상징할 예정이다.

“개인 추모비나 추모 등판이 곳곳에 있긴 해도 이렇다 할 산악운동 관련 조형물이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는 이옹이 본격적으로

‘산악인의 문’ 건립에 나선 것은 지난 5월. 산악인들에게 동참을 호소하는 한편 직접 상징물 도안과 부지 선정에 나섰다. ‘산악인의 문’이 들어설 자리가 천연기념물 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있는데다 조계종 신흥사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문화재 관리국, 국립공원관리공단, 신흥사를 오가며 건립허가를 받았다.

5천만여원에 이르는 건립비용은 속초시내 유자들과 산악인뿐만 아니라 이인정 한국대학산악연맹 회장 등 전국의 산악인들이 지원을 약속, 순조롭게 모금되고 있는 중이다.

이옹은 초창기 국내산악운동을 주도하고 설악산을 지켜온 산악인. 세브란스의전 재학시절부터 산을 찾기 시작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지난 54년 당시 유수한 산악단체로 꼽히던 서울산악회장으로 산악운동을 이끌었다.

지난 60년 이화여대 부속병원장을 마친 직후 이옹은 ‘서울에서 다녔던 설악산을 잊지못해’ 아무런 연고도 없던 속초에 내려와 개업했다. 당시만 해도 속초인근에선 전문 산악인을 찾기 힘들었던 때였다.

지난 85년 노령으로 병원을 그만두긴 했지만 산행만큼은 매달 한번씩 빠뜨리지 않는 ‘현역’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85년부터 양양군 서면 서림리 무의촌 마을을 매주 찾으며 무료진료로 ‘인술’을 베풀고 있기도 하다.

“전국 산악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한다”는 이옹은 “그동안 설악에 묻힌 산악인들에게 무엇인가 빛진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 마음이 조금 가볍다”며 웃는다.

[박승현 기자]

<영복신문> 1993년 11월 15일 7면

산악인의 문 건립한 이기섭옹(81)

『우리나라 산악인들이 세계의 거봉(巨峰)에 올라 국위를 선양하는 일 뒤엔 항상 말없이 우리에게 격려를 보내주는 산악선배들의 희생이 밑거름이 되었죠.』

해외원정의 산실이었던 산악의 눈덮인 골짜기와 빙벽에서 산악발전을 위해 훈련하다 유명(幽明)을 달리한 원로산악인과 설악의 골짜기에 묻힌 여러 악우(嶽友)들의 숭고한 정신을 길이 계승키 위해 산악인의 「영원한 불꽃」과 「산악인의 문」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지난 13일 설악산 소공원에 그 모습을 드러낸 「산악인의 문」(가로 6m, 세로 8m, 높이 6m) 건립을 추진해온 이기섭 할아버지(81, 설악산악연맹 고문, 의학박사)는 그동안 설악에 묻힌 산악인들에게 무엇인가 빛진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 마음이 조금 가볍게 되었다며 강단있는 웃음을 짓는다.

… 중략 …

우리 산악운동의 요람인 설악산에 산악인을 상징하고 산을 위해 냉을 바친 사람들을 기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늦은 감이 있어 그 분들께 죄송스럽다고 고개숙이는 이기섭 박사의 눈망울엔 이내 이슬처럼 눈물방울이 맷혀 노신사의 웃깃을 한방울씩 적시고 있었다.

〈이수영기자〉

<조선일보> 1993년 11월

설악동 공원에 「산악인의 문」

설악 고흔 달래는 비석 세워

「산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어서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이 이곳에서 비롯됐고…」

설악산을 사랑하다 설악산 계곡에서 숨져간 산악인들의 넋을 위로하고 무사고를 기원하는 「산악인의 문」이 최근 속초시 설악동 소공원에 세워졌다. 설악산 입구에 세워진 이 산악인의 문은 높이 3.5m, 폭 4.5m, 24t의 자연석(화강암)에 산의 형상과 산악인의 모습을 새겨 넣었다. 왼쪽에는 자연으로 들어가는 문을 조각,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형상화했으며, 앞 기단에는 「꺼지지 않는」 산악인의 불꽃을 타오르게 했다.

산악인의 문은 지난 69년 설악산 죽음의 계곡에서 한국산악회 해외원정 훈련대원 10명이 눈사태로 조난사고를 당한 뒤 이들을 지도했던 李基燮박사(81)가 그동안 위령비라도 세우겠다는 일념에서 건립사업을 추진한 끝에 결실을 맺게 됐다.

조각가 연제동씨(50)는 『산으로 들어가는 인간의 형상을 부각시키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표현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속초=임호영기자]

<월간 사람과 山> 1996년 10월

산에서 만납시다

산악인의 문 세운 설악산 사람 이기섭

“산악인은 정직하고 겸손해야”

글 김우선기자/ 사진 계주연

속초 사람들은 창문을 하나씩 갖고 있다. 설악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창이다. 그들은 이 창을 통해서 설악산 사계절의 변화를 보고 느끼며 그 아름다움을 즐긴다. 35년간 속초에서 설악산과 함께 살아온 이기섭박사(84세)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요 몇 년 사이에 속초가 큰 변화를 겪으면서 고층빌딩이 들어서자 창문은 하나 둘씩 가려지기 시작하고 있다.

대청봉에서 미시령까지 한눈에 들어오던 이박사의 창도 같은 운명에 처해 있다. 그의 거실 창에서 설악산은 정확하게 대청봉이 15층 가까운 타워맨션에 가려 안 보인다.

“지은 지 20년 넘은 집인데 이사갈 수도 없고…”

그러나 모처럼 등산복 차림에 스틱을 짚고 대문을 나서는 이박사의 표정은 더없이 밝아 보인다. 바라보는 설악이 아니라 가슴에 담아온 설악을 직접 맴고 느끼는 산행이니 즐겁지 않을 수 없다.

동행한 최이권씨(57세·설악산악연맹 명예회장)가 모는 승용차는 오른쪽에 동해바다를 두고 북쪽으로 달려갔다.

“점심은 백천리 가서 막국수로 합시다.”

차창으로 밀려드는 바람에 은발을 날리면서 이박사는 설악산과 동해바다를 번갈아 응시했다. 과도가 눈부시게 흰 빛으로 부서지고 있었다.

차안에서 이박사와 최회장이 나누는 이야기는 10월에 개최될 설악제에 관한 것이다. 속초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기는 하지만 부족한 부분을 기업체 후원에 의존해야 하는데 그게 여의치 못하다는 최회장의 설명이다.

“내가 속초시장을 한번 만날까?”

최회장의 걱정과는 딴 판으로 설악제를 처음으로 만든 그의 자신감 있는 대답 속에는 단호함과 뭔가 무게가 실려 있었다.

여든넷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박사는 막국수 한 그릇을 거뜬히 비워내고 뜨거운 육수를 청해서 맛있게 마셨다. 요즈음도 그는 1주일에 3일은 퍼블릭코스에서 골프를 치고, 매주 목요일에는 양양이나 고성 일원의 마을로 나가서 의료봉사 활동을 한다. 작년 설악제 때는 백담사에서 봉정암 거쳐 대청봉에 올랐다가 설악동으로 내려오는 2박3일의 산행을 거뜬히 해 내 노익장을 과시하기도 했다.

그가 설악산에 첫발을 들여놓은 것은 1956년의 일이다. 당시 이화여대 사범대 산악부 학생 15명과 함께 설악산 대청봉에 올랐던 그는 이 산에 더 없이 큰 매력을 느꼈다. 전쟁이 끝난 지 몇 년 안 되는 곳이지만 사람들의 접근을 쉽사리 허용치 않은 설악산은 차라리 외경의 대상이었다. 어쩌면 갈 수 없는 땅 이북에 고향을 둔 그로서는 금강산 대신 설악산인지도 몰랐다.

대청봉 오르는데 일주일 걸려

“그때는 지금처럼 철계단이나 다리가 없어서 대청봉 오르내리는데 일주일은 잡았어요. 일단 서울에서 장수대까지 오는데 하루, 대승령 넘어 십이선녀탕으로 내려가 용대리까지 가는데 하루가 꼬박 걸립니다. 용대리에서는 새끼 반달곰을 잡아 쇠사슬로 매어 놓은 것도 볼 수 있었어요. 백담사에서 오세암 거쳐 봉정암 가는데 꼬박 사흘 걸렸다면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설악산이 자신의 나머지 반평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을 맷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다.

고글을 껴내 쓴 이박사는 건장한 걸음걸이로 앞장섰다. 지난 93년에 건립한 산악인의 문에 이르자 그는 주위에 지저분하게 널려있는 잡초부터 치웠다.

“이 선들은 등고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산을 상징하지요. 도톰하게 튀어나온 세 부분은 천, 지, 인 삼재를 뜻하고, 여기 이 통로가 문입니다.”

산악인의 문과 같은 기념물을 소공원에 설립하는 것은 이박사의 오래된 소망이었다. 1962년 그가 이대부속병원장을 그만두고 속초에 내려와서 산 아래 설악산과 맷은 오랜 인연은 둘째치고라도 당장 69년 2월 죽음의 계곡에서 열 명의 꽃다운 젊은이들이 눈사태로 죽은 것은 그에게 오래도록 커다란 충격으로 남았다.

“사고 소식은 구정날 접심때 접했어요. 속초시청 옆(현재 의사당 자리)에서 병원을 열고 있었는데 전담씨가 설악동에서 전화를 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장과 함께 물치에서 설악동을 들어갔지만 사고 현장에는 누구도 접근할 수 없었어요. 보름 지난 2월 28일에서야 본격적인 시신 발굴 작업을 했습니다. 열구의 시신은 모두 신홍사에 안치했다가 3월 5일 영결식을 올렸어요.”

해외원정등반을 위해 훈련 중이던 엘리트 대원 10명이 몰사한 이 사건은 한국등산사상 최유의 참사였다. 눈사태로 인한 사고는 1976년 2월 설악골에서 또 한 차례 발생, 세명의 사망자가 났다. 산악인의 문 앞에는 이들 희생자의 이름이 새겨진 석판이 마련되어 있었다. 처음 건립 당시에는 없었는데 이박사가 강력히 주장해서 만든 것이라고 최회장이 귀뜸했다.

‘산악인의 횃불’을 가운데 두고 왼쪽 석판에는 작고한 원로산악인의 이름이 순서대로 새겨져 있다. 김정태(1906~1989) 윤두선(1925~1992) 임석제(1918~1994) 이승녕(1908~1994)… 특히 고임석제씨는 69년 사고 때 아들을 잃은 장본인이기도 했다.

“여기 이 자리가 가장 설악산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명당입니다.”

소공원이라고도 하는 이 지역 일대는 원래 여관촌이었다. 그러나 설악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더 아래쪽에 집단시설지구가 들어서면서 공원으로 조성된 것이다. 그 한가운데는 케이블카역이 있다. 천불동계곡의 등산로와 더불어 권금성을 오가는 이 케이블카 역시 이기섭박사의 작품이다. 한참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들 때는 하루 종일 줄을 서 있어도 표 사기 힘들 정도로 케이블카는 인기 있다.

권금성케이블카는 이박사 작품

이박사가 권금성까지 케이블카를 놓기 위해 설악관광주식회사를 설립한 것은 70년 9월. 이듬해 1월 사장에 취임한 그는 바로 공사에 착공해서 6월에 완공했다. 8월부터 영업을 시작하자 이박사는 새로운 사장에게 물려주고 그것으로 케이블카와의 인연을 끝냈다.

처음의 시설은 21인승 규모이기는 하지만 전기가 아니라 자동차 엔진을 사용한 것으로 보잘 것 없었다. 그러나 그 케이블카 덕분에 권금성산장을 지을 수 있었다. 등짐으로 실어 올렸을 건축 자재를 케이블카로 쉽사리 올렸기 때문에 그만큼 공사 기간과 비용이 절약 됐던 것.

오랜만에 들른 관광회사 직원들에게 이박사는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 하나씩 나눠주고는 케이블카에 올랐다. 서서히 고도가 높아지면서 창밖으로 울산바위와 달마봉이 눈에 들어온다. 50명 가까이 빼곡히 들어찬 케이블카 안에서 그나마 오른쪽 창으로는 속초시와 동해 바다가 보인다.

케이블카는 걸어서 오르면 두시간 가까운 길을 불과 오륙분만에 단축시켰다. 봉화대까지 가는 동안 이박사는 등산로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스틱 끝으로 쳐내느라 바빴다. 권금성 산장은 나중에 들르기로 하고 이박사는 발길을 봉화대 쪽으로 옮겼다.

“처음에 산장 자리로 정했던 게 여기쯤일텐데… 아무래도 겨울에 바람받이가 될 것 같아서 지금의 산장 있는 곳으로 결정했어요.”

아직껏 산장을 지키고 있는 유창서씨를 대동하고 이박사가 이곳 일대를 답사했던 게 26년 전의 일이다. 팔순 노인이 된 그이지만 약관 20대의 처녀 사진 기자 앞에서 이박사는 여전히 당당했다. 천 길 낭떠러지가 바로 아래인 암릉 가장자리에 서서 설악의 능선을 배경으로 거리낌없이 포즈를 취했다. 그가 서 있는 뒤로는 멀리 마등령에서 흘러내린 능선이 저항령까지 이어지고, 가까이에 세zon봉과 진대봉, 천화대가 응자를 드러내고 있었다.

“여기 바로 이 돌들이 포탄이나 마찬가지야. 옛날에 권금성을 짓고 피난온 이들이 쌍천에서 져 올린 게야. 둥글둥글한 돌 모양을 좀 봐요.”

봉화대에서 내려오는 길에 이박사가 가리킨 돌들은 정말 모가 난 주변의 돌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생김새였다. 작은 수박만한 크기로 개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마모된 화강암인데 크기도 일정했다.

“성 위에서 집어던지면 공격하는 적군들에게는 그대로 포탄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권금성 산장으로 내려가는 길, 하늘은 파랗고 따사로운 햇살은 발 아래 부서져 눈부시도록 찬란하게 빛난다. 숲속 어디선가 원두 커피의 진한 향이 흘러나온다. 권금성산장 커피숍이다. 도봉산과 북한산 마터호른, 드류의 흑백사진 판넬이 걸려있는 권금성산장은 텔 보 유창서씨(59세)가 30년 가까이 지켜온 곳이다. 그곳을 이박사가 그냥 지나칠 리 없다.

긴 수염에 항상 베레모 차림인 유씨는 이박사가 커피숍에 들어서자 깜짝 놀라면서 반갑게 맞았다. 커피를 마시면서 화제는 지난 달 말일에 서울에서 열린 한국산악동지회의 원로산악인 초청잔치로 모아졌다.

“그래, 나도 거기 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비행기를 못 타겠더군. 그날 행사에는 많이들 왔드랬어?”

“웬걸요. 이제는 못 오시는 선배님들이 더 많아요. 백남홍 선배님 만해도 오신다고 했는데 못 오셨고. 이제는 거동이 불편하신가 봐

요. 손기정 선생님은 의사한테서 백미터 이상 움직이면 생명에 지장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박사는 말하기보다는 주로 듣는 편이었고, 산선배를 오랜만에 만난 유씨의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졌다.

권금성산장에서 나와 케이블카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길에 담배꽁초가 몇 개 떨어져 있는 게 또 눈에 띄었다. 아까 올라올 때 분명히 이박사가 스틱으로 걷어내서 하나도 없었는데 그 사이 누가 또 버리고 간 것이었다. 이박사는 전혀 귀찮아하는 내색 없이 스틱 끄트머리로 꽁초를 하나도 남김없이 치우면서 걸음을 옮겼다. 오히려 외지 사람 누구라도 쓰레기로 더럽혀진 설악산을 볼세라 걱정스럽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케이블카 승강장으로 내려서자 그는 서슴없이 “관계자외 출입엄금”이라고 삼엄한 경고문이 붙은 기관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들어가면 괜히 큰일 날 것 같은 경고문임에도 이박사에게는 무의미한 것이다. 그 자신이야말로 케이블카를 만들었으니 관계자 중의 관계자인 셈이다. 그는 활짝 웃으면서 쭈뼛거리고 서 있는 일행에게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기관실 안에는 거대한 바퀴가 돌아가면서 와이어 로프를 감아들이고 있었다. 기관실을 지나서 계단을 올라서니 조종실이다. 멀리 아래쪽에서 케이블카가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설악산관리사무소를 들러 속초 시내에 나왔을 때는 이미 설악산 너머로 해가 졌다. 동해 바다 멀리 저편에서는 해무가 피어오르고, 오징어잡이 배들이 출항하고 있었다. 영금정 가는 길, 횟집에 자리 를 잡았다. 이박사 택이 바로 부근임을 감안한 최회장의 배려였다.

“상남쪽에 가보니 라프팅 하기에 좋은 계곡이 있더구만. 내 언제 한번 꼭 급류타기라는 걸 직접 해 볼 생각이야. 산악연수원 지을만한 장소로도 제격인데 계곡 양쪽에 로프를 매어두고 티롤리안 브리지로 건너다니는 것도 재미있을 거야.”

그는 지금도 집에 가만히 있기보다는 강원도 구석구석 뒤지고 돌

아다니는 것이 더 좋다고 한다. 몸은 비록 노인이지만 미지의 곳을 찾아다니며 호기심으로 충만된 정신은 20대 못지 않은 것. 바로 그것이 규칙적인 생활과 더불어 그가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었다.

회와 더불어 생선초밥을 곁들인 저녁 식사였다. 이박사는 청하 세잔을 마시고 나서 주방장이 얹어주는 요리를 맛있게 들었다. 청하 세잔은 원래 그의 주량인데 오늘은 한잔을 더 받아놓고도 기분이 좋기만 하다.

“식사 마치고 우리 집에 가서 슬라이드를 봅시다. 초창기 설악산 등산로 찍어둔 것도 꽤 있으니 도움이 될 게야.”

40년 된 환등기와 슬라이드 필름

속초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언덕길을 따라 사오분쯤 올라가면 바로 그의 집이다. 환등기는 최소한 40년쯤 묵어 보이는 골동품인데다 슬라이드 내용 역시 그만큼 오래된 장면들이다. 빛바랜 필름들이 밝은 조명 아래 렌즈를 통해서 차례로 확대되어 나오는게 신기할 정도다. 스크린에 차례로 재생된 장면들은 1957년의 설악산부터 1980년대까지 근 30년 가까운 변화를 담고 있다.

초창기 설악산 삽이선녀탕계곡에는 작고한 김정태씨가 로프를 둘러메고 앞장서는 모습이 보였다. 모두 그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산행시에 라이카 M3카메라를 항상 가지고 다녔다고 한다.

환등기의 조명 탓인지 이박사는 러닝 셔츠 바람인데도 연신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는다. 백담계곡에서 아리따운 여성과 함께 찍은 장면이 있기에 누군가 여쭸더니 바로 사모님이다. 아직 힘이 넘치고, 할 일도 많아 보이는 듯한 중년 부부가 다정하게 설악산을 찾은 이래 세월은 지나고 강산도 많이 변하고 만 것이다.

홍이 난 슬라이드 상영은 최근의 애틀랜타 올림픽으로 끝을 맺고 자리를 식당으로 옮겼다. 커피보다는 술이 낫겠다면서 이박사는 얼음과 함께 조니 워커 블루 라벨을 내왔다.

주방을 겸하고 있는 이곳에서는 설악산이 한눈에 들어온다. 특히 이 방에는 아주 오래 된 듯한 백두산 천지의 파노라마 사진이 걸려 있다. 69년 설악산 죽음의 계곡에서 사망한 故이희성대장이 해방전 양정고교 산악부 시절 백두산 가서 직접 찍어온 것이다.

이박사가 그간 설악산과 함께 살아오면서 절실히 깨달은 것은 한 가지다. 산은 말은 못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는 것. 육당 최남선의 말을 인용한 그는 자연을 대하면서 세상의 영욕을 잊은 지 이미 오래다. 단지 관심사라면 오로지 설악산이다. 그래서 그는 설악산의 자연이 훼손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한다.

“자연보호는 초등학교부터 교육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할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립공원은 자연학습의 장으로 활용돼야 마땅하지요.”

중고교생의 수학여행도 마찬가지로 보고 느끼고 배우는 여행이 되어야 한다는 그는 국립공원인 설악산 같은 곳에 자연사박물관을 겸한 탐방객 안내소가 없다는 게 못내 아쉽기만 하다.

“사람은 자연에서 왔다가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서로 돋고 살아야지요. 특히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정직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이번 설악제 때 이기섭 박사는 대청봉을 한번 더 오르고 정상표지석도 대청봉에 어울리는 좀 더 큰 것으로 바꾸는게 소원이다.

<한국일보> 2000년 4월 8일 22면

18년째 오지서 인술 ‘속초의 허준’

전이대부속병원장 이기섭 박사

18년간 오지만 찾아다니며 진료하는 미수(米壽)의 ‘허 준’.

1961년 이화여대 부속병원 원장을 그만두고 낙향한 이기섭(李基燮·88·강원 속초시 동명동)박사가 주인공. 70, 80년대를 속초보건소와 속초의료원에서 보낸 이 박사는 1982년 의료원을 그만두고 지금까지 오지를 찾아가는 왕진을 하고 있다.

이 박사가 오지마을 진료활동에 나서게 된 것은 생활이 어려웠던 시절 오지마을 구충제거 작업시 약 한번 써보지 못하고 숨을 거두는 사람을 목격하고서부터. 이때부터 지금까지 이 박사는 매주 목요일이면 어김 없이 왕진가방을 챙겨들고 집을 나선다.

이 박사가 찾아가는 곳은 설악산 자락에 파묻혀 있는 대표적 오지마을인 양양군 서면의 서림리와 황이리, 갈천리, 영덕리 등 4개 마을.

승용차가 없어 버스를 두번 갈아타야 하는 것이 불편하지만 “환자가 있는 곳이면 어떤 곳이든 갈 수 있고 가야한다는 것”이 이 박사의 생각이다.

이곳을 찾은 지 17년째 되는 지금 이 지역은 180가구 6백여명의 주민 가운데 이 박사의 진료를 받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며 매주 목요일 이 박사의 진료가 있는 서림 보건진료소에는 마을사람들의 빨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곳에서 진료소 여직원의 도움을 받아 주민들을 진료하고 처방전도 써주며 필요하면 손수 가져간 약

도 지어준다.

주민 이성영(83·양양군 서면 서림리)씨는 “나이도 잊은 채 마을을 꼬박꼬박 찾아주는 이 박사의 성의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라고 고마워 했다.

산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어 설악산악연맹의 고문으로 지금도 설악산을 자주 찾는 이 박사는 속초정착 초기인 60년대 초부터 설악산 산행을 시작, 현재의 설악산 등산로 대부분을 손수 개척한 산악인으로도 유명하다. /속초=연합

<제8회 종외박애상 수상공적> 2000년 5월 4일

강원도 산간벽지 인술의 등대

이기섭(李基燮) 박사

1913년 출생. 이기섭박사는 1938년 세브란스 의전을 졸업하고 일본 경도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수여했으며, 이후 세브란스 의전 외과 교수, 서울 적십자병원 외과 과장, 이화여대 의과대학 교수 및 부속 병원장 등을 역임했다. 1962년 속초에서 의원 개설 후 지역 주민들의 진료 및 건강 증진에 이바지했으며, 속초, 양양 고성지역 의사회장을 역임하면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하였을 뿐 아니라 퇴직 후 1983년부터는 강원도 양양군 서면 일대에서 의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산간 벽지 주민들을 위해 행위를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무료 봉사 활동을 해오는 등 지금까지 인술을 통해 생명 존중사상을 몸소 실천해 왔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과 산간오지의 생활로 인해 병원을 갈 수 없는 주민들에게 직접 방문하여 진료를 해주고 2차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주선해 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양양군 서면 일대의 1백 80여 가구 6백여 명의 주민 가운데 이박사의 진료와 혜택을 받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다.

지금도 매주 목요일 서림보건진료소에 방문하여 주민들의 건강 상담 및 진료를 하면서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 이기섭 박사는 지역의료 발전과 함께 참 인술을 베풀고 있어 이 시대 진정한 의료인상을 정립하는데 귀감이 되고 있다.

<한국일보> 2001년 3월 31일 07면

[만남] “산 입에 거미줄 칠까…환자 버리면 안돼”

‘평생현역이 말하는 의사의 길’ 문창모 VS 이기섭

“건강하십니까. 선배님.” 구순의 선배를 만나기 위해 미수(米壽)를 넘긴 후배가 달려왔다. 70년을 하루같이 인술을 베풀어오다 31일 폐업을 앞두고 있는 현역 최고령 의사 문창모씨와 19년째 무의 촌 진료를 하고 있는 여든 여덟의 이기섭씨가, 세월의 더께가 낀 원주 문이비인후과 진료실에 마주앉아 지난 시절을 돌아보고 의사의 길을 이야기했다.

문창모(文昌模) 1907년 평안북도 선천에서 태어났다. 31년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32년 평양기독병원에서 의사생활을 시작했으며 경기도립인천병원장 세브란스병원장 원주기독병원 초대 원장 등을 지냈다.

64년 원주에 문이비인후과를 개업, 운영해오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31일 70년에 걸친 의사생활을 마친다. 국민훈장모란장, 일가상 사회공익부문을 수상했고 인간상록수로도 선정됐다. 92년에는 최고령으로 14대 국회(국민당 전국구)에 진출하기도 했다.

이기섭(李基燮) 1913년 황해도 수안에서 태어났다. 38년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며 의사생활을 시작했다. 적십자병원 외과과장, 이화여대부속병원장 등을 거쳐 62년 속초에 이기섭외과의원을 개원했다. 속초 강원도립의료원 외과과장으로 지내다 82년 사임했으며 이듬해부터 양양의 오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중외제약 의료사회봉사상, 보령제약의료봉사상 등을 수상했다. 산악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현재 한국산악회와 설악산악연맹 고문으로 있다.

- 두 분이 잘 아시는 사이인가요.

이기섭 = 그럼요. 제 대학 선배지요. 49년부터 7년간은 세브란스병원에서 함께 일하기도 했습니다. 선배님은 병원장이었고 저는 그냥 의사였지요. 선배님은 그때도 감리교 신앙을 바탕으로 환자를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문창모 = 이제 보니 우리 이선생 머리가 하얗게 쌌네요. 이선생, 참 성실하고 좋은 의사였어요. 같이 근무하던 그때만해도 의사들은 출근도 잘 안하고, 지각도 자주 했는데 이선생은 그런 일 한번도 없었어요.

- 두 분은 어떻게 해서 의사가 됐습니까.

문창모 = 배재학교를 다닌던 26년 6·10만세 사건이 났어요. 동참하려다 일경에 체포되는 바람에 세 달간 감옥신세를 졌습니다.

기소유예로 나오긴 했는데 그 뒤 시험도 제대로 못보고, 백지 답안도 내는 바람에 117명 중 97등, 거의 꼴찌가 돼버렸어요.

진학은 해야 하는데 감옥갔다 왔다는 이유로 관립 학교에서는 받아주지 않고, 에라 모르겠다,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가장 센 세브란스 한번 쳐보자고 했지요. 그때 세브란스는 경쟁률이 10대 1을 넘었는데 다행히 붙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사가 됐지요.

이기섭 = 황해도 시골에서 자랐어요. 일제 땐데 그때는 공의(公醫)라 해서 군(郡)에 의사가 한 명 밖에 없어 치료를 받을 수 없었지요.

어머님도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간경변으로 마흔 아홉에 돌아가셨어요. 해주고보를 다니다 노예교육에 반대, 동맹휴학하다 퇴학당한 뒤 일본 히로시마(廣島)로 가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와세다(早稻田)로 갈까 했지만 어머님이 떠올라 세브란스로 갔습니다. 선배님은 의사생활을 마감하는 감회가 어떻습니까.

문창모 = 후회없이 의사생활 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환자를 보려고 했지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신경기능이 떨어지고 손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31일 오후5시에 병원 문을 닫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지 몰라요. 울면서 그만 둡니다.

- 의사로 활동하면서 힘들거나 그만두고 싶은 때는 없었습니까.

문창모 = 없었어요. 직업이 5만~6만가지나 된다지만 의사는 아픈 사람 낫게 하고, 목숨을 살리는 가장 좋은 직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있는 한 진료는 해야지요. 국회의원 할 때는 새벽 5시에 일어나 환자 보고 여의도 국회로 갔어요.

다시 오전 11시 반쯤 여의도를 출발, 오후 2시쯤 원주에 도착해 환자를 보았습니다.

여의도로 다시 가서 저녁에 열리는 국회 활동하다 한밤중에 돌아왔으니 하루 두 번 왕복한 셈이지요. 잠도 못자고 밥도 짖은 적이 다반사였습니다.

이기섭 = 외과라서 수술을 많이 했는데, 끝내 살아나지 못한 환자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아팠고 혹시 내 잘못은 아닌가 하는 ‘양심의 가책’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그만 두고 싶은 때는 없었어요.

- 의사생활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습니까.

이기섭 = 76년 속초 도립의료원에 있을 땐데, 양양에 사는 20대 후반의 청년이 배를 움켜쥐고 들어와요. 복막염이었어요.

강릉의료원에서 수술받으려 했는데 보증금 10만원이 없어 수술을 못했답니다. 제가 수술을 했는데 이틀만에 죽고 말았지요.

맹장염, 충수염 단계면 고칠 수 있지만 그때 치료 못하면 복막염이 되고 치료도 어려워집니다. 질병은 예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실감했고 그 때문에 무의총 예방 진료도 생각하게 됐습니다.

문창모 = 10년 전쯤 경찰이 한 죄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과부와 아이 둘을 죽인 흉악범인데 유치장에서도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부려 귀에 이상이 있는지 봐달라는 것이었어요.

치료를 하면서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세상에 죄없는 사람 있느냐, 예수를 믿어보라고 했지요. 그 사람 그 뒤 사형됐

는데 죽으면서 원주 문선생 덕에 천국 간다고 하더랍니다.

- 두 분은 의료 봉사활동도 많이 하셨는데요.

문창모 = 원래 집안이 넉넉한 편이라 돈에 연연할 이유가 없었어요. 열 두살때부터 감리교를 믿었는데 그 덕에 38년 감리교 사회국 위원장이 되면서 봉사에 눈을 떴습니다.

백령도에서 공의로 있으면서 주민들에게 어업자금을 빌려주기도 했고 원주·인천에 기독병원도 세웠습니다.

월남, 방글라데시까지 가 무료진료를 해주었지요. 돈 없는 환자는 치료비를 받지 않고 도리어 여비까지 줄어준 일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이기섭 = 82년 은퇴한 뒤 자식들 만나러 미국에 한번 갔었습니다. 노인들이 무료로 혈압도 재고 진료도 받으려고 백화점에 출서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선진국인데도 예방 체계가 잘 돼있는 것이 부러워 무의총을 찾았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양양군 서림리, 황이리, 갈천리, 영덕리 4개 마을을 목요일마다 시외버스 타고 찾아갑니다.

요즘은 마을에 노인들만 있는데 골다공증이 많습니다. 하지만 약이 비싸 내과 의사하는 샛째 딸 도움을 받습니다. 19년째 되다 보니 마을 경조사 있으면 꼭 부릅니다. 주례도 셨지요.

문창모 = 무료진료 받고도 제게는 고마워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이 선생 이야기 들으니 좀 억울한 생각이 드네요.

- 문선생님은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과 각별한 사이인 것으로 아는데요. 그 분이 작고해 마음이 아프겠습니다.

문창모 = 72년 조찬기도회에서 처음 만났어요. 가까워 진 건 85년 연세대 100주년 기념식에서 함께 명예박사학위를 받으면서부터입니다. 그 뒤 형, 동생하며 지냈지요.

원주 오면 일부러 저를 찾아올 정도였어요. 92년 정치한다며 제게 전국구를 신청하라 하더군요. 워낙 간곡히 부탁해 쓰기는 썼습니다.

그런데 덜컥 전국구 1번으로 올려놓았더군요. 100살까지 살고 나중에 함께 세계일주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가버리다니 참 마음이 아픕니다.

- 하지만 문창생님은 아직도 건강해 보이는데요. 장수비결이 있습니까.

문창모 = 오래 사는 것은 타고 나는 것 같아요. 백살 된 누님도 있고 여든넷 된 동생도 있습니다. 술 담배는 안 하지요. 채식이 좋다지만 육식을 즐깁니다.

오전 7시 아침, 낮 12시 점심, 오후 5시 저녁 이렇게 끼니를 거르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새벽부터 환자를 보았지만 지금은 10시간 이상 꽉 잡니다. 손이 좀 떨리고 청력이 떨어졌지만 전체적으로는 건강하지요.

이기섭 = 저도 잘 먹고 잘자고 운동 많이 합니다. 등산은 특히 좋아하지요. 서울서 속초로 간 이유 중 하나도 설악산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속초에서는 설악산악회 회장을 맡아 65년부터 산악축제인 설악제를 열고 있습니다. 백담사 - 대청봉 - 양폭 - 비선대 등산로를 개척, 정비하기도 했어요. 담배는 피우지 않지만 포도주는 한 잔 정도 마십니다.

- 지난해 의사 파업 등으로 의사에 대한 불신이 아직도 높습니다. 후배 의사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문창모 = 어떤 일이 있어도 의사는 환자를 버리면 안됩니다. 아픈 사람 고치고 죽을 사람 살려내는 직업입니다. 환자가 돈이 없더라도, 혹은 원수라도 봐줘야지요.

이기섭 = 속초와 양양을 돌아다니다 보면 아는 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치료해주거나, 무료 진료활동하면서 보아준 사람이지요.

그들이 아는 척 할 때마다 뜨끔해집니다. 혹시 내가 불친절하지 않았나. 의사는 봉사하는 직업입니다.

설마 산 입에 거미줄 치겠습니까. 짧은 의사들 너무 돈벌이에만, 경쟁에만 매달리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의약분업도, 의보재정 문제도 의사, 약사와 충분히 상의해야 할 겁니다.

박광희 기자, 이왕구 기자

<강원일보> 2001년 4월 7일 9면

이 사람의 삶, 이기섭

배고프고 아픈 사람들 무슨 힘이 있겠어?
의사가 찾아 가야지…

20년 오지마을 무료왕진
국내 최고령 89세 현역 의사
“슈바이처니 허준이니
그런 말 쓰지마.
마누라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질색하는지 몰라.

내 건강도 지킬 겸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하나님의 축복과 주위분의 도움으로 이날 이때까지 환자를 진료
할 수 있다니 얼마나 행복해..』

대학병원 원장을 그만두고 속초로 낙향해 20여년간 양양 산간오
지를 찾아다니며 仁術(인술)을 베풀고 있는 이기섭(李基燮 · 89 · 강
원도 속초시 동명동)박사. 그의 말 속에는 삶에 대한 진한 향기가
묻어났다.

속초시 동명동에 위치한 李박사의 자택은 노부부만 단둘이 사는
지라 고즈넉하기만 했다.

김활란 이대총장이 무의촌 봉사 권유

李박사는 화단으로 쏟아져 내리는 봄 햇살을 톡톡 차며 청년처럼 현관문을 걸어 나와 기자를 맞았다. 부인 咸동실(83)씨가 과일을 내오고 그는 커피를 권한다.

『95세이신 文창모 박사의 은퇴로 이제는 국내 최고령 현역 의사가 되셨는데 소감은 어떻습니까.』

『소감은 무슨… 어제 文박사를 만나고 돌아왔어. 내가 후배니 찾 아뵙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 늙어 죽을 때까지 함께 진료하겠다고 맹세했는데… 결국은 세월의 무게를 인정할 수 밖에.』

李박사는 흰 가운을 벗은 노선배를 보고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었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화 내용을 밝혔다.

그는 지난해 文박사와 함께 의료계 폐업 사태 속에서도 꿋꿋하게 환자 돌보기를 멈추지 않았던 사실을 상기하는 듯 했다.

李박사는 4·19 등 정치 격랑에 휩싸이는 게 싫어 1961년 이화여대 부속병원 원장직을 그만두고 속초로 낙향했다. 그 뒤 속초시내 중앙동 시장입구에서 개업한 외과의원과 속초보건소 속초의료원을 거치며 환자를 돌봤다.

『4·19가 나자 공부는 하지 않고 시위에 참가했던 학생들이 병원 장인 나를 혐담하더라고.』

학생들한테 배신당했다는 생각도 들고 마침 이화여대 총장이었던 金활란 박사가 의사는 무의총에 가서 봉사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집사람 반대를 무릅쓰고 62년에 속초로 낙향했지. 돈 명예도 집착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것이야. 다 따지고 보면 부질없는 것인데도 말이야.』

속초로 낙향한 뒤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었다는 李박사의 말 속엔 격동의 역사를 진솔하게 살아 온 노의사의 진한 고집이 담겨 있었다.

의사도 자칫하면 돈에 눈 멀 수 있어

李박사는 1913년 황해도 수안에서 태어났다. 아버지가 광산업을

하고 있어 세브란스의전을 졸업하고 일본 경도대학에 유학을 다녀 올 만큼 유복한 환경에서 성장했다. 李박사는 『지난 21일 작고한 鄭周永 현대그룹 명예회장도 젊어서 아버지 광산에서 일했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李박사는 해주고등보통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커서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것.

『지금 생각하면 간경화증이었는데 약이 변변한 게 있나. 의대에 진학한 것도 어머니같은 환자를 돌보고 싶어서였지. 그때나 지금이나 의사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보수도 안정적인 것이 학교 선택의 또 다른 이유였어.』

『너무 솔직한 것 아닙니까.』기자가 물었다.

『솔직은 무슨 다 그런 것 아니야. 나도 한 때는 개업을 하고 돈을 벌기도 했어. 다른 사람과 달랐다면 그때 땅 투기 안하고 아이들 공부시킬 만큼만 벌었다는 것이지.』

李박사는 의사의 직분과 재물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의사들도 장사꾼이 될 우려가 있다며 젊은 의사들에게 이 사회에 대한 끝없는 봉사와 헌신을 주문했다.

목요일마다 버스 두 번 갈아 타고 왕진

李박사가 무의총 의료봉사 활동을 시작한 것은 속초의료원을 그만둔 지난 82년. 젊은 시절 오지마을 진료활동에 나섰다가 약 한번 써보지 못하고 고통 받는 주민들을 목격한 이후 어렸을 때부터 다짐했던 인도주의 의료봉사를 실천하기 위해서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李박사는 매주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왕진가방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서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오지마을 진료를 다니고 있다.

『슈바이처니 허준이니 그런 말 쓰지마. 마누라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질색하는지 몰라. 내 건강도 지킬 겸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지난해 의약분업과 관련 의사들의 파업으로 시끄러울 때 주위에서 인기드라마를 빗대 허준이니 슈바이처니 하는 소리에 영 부담스러웠다는 李박사는 이 사회의 냄비근성이 문제라며 혀를 끌끌 쳤다.

李박사는 의약분업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은 것 같았다. 의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환자의 곁을 떠나서는 안되지만 정부가 국민부담만 가중시키는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해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게 됐다는 것.

이에 따라 의약분업 개선안은 의사, 약사, 시민 등 이해 당사자 모두가 참여해 신중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료비와 용돈은 어떻게 마련하십니까?』

『장성한 딸들과 아들한테서 받지. 모자라는 것은 주위에서 좀 도와주기도 하고. 약 몇 봉지 지어 주는 것이 사실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 봉사하는 시간내기가 더 힘들지. 모든 의사들이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우문현답이었다.

李박사의 왕진대상 주민들은 설악산 자락에 파묻혀 있는 양양 지역 대표적 오지마을인 서면의 서림리와 황이리 갈천리 영덕리 등 4 곳. 이곳 180가구 600여명의 주민 가운데 李박사의 왕진을 받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다. 초창기 그가 왕진 오는 날이면 서림보건진료소에는 마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주민수가 900명 가까이 됐는데 고령화로 많이 줄었어. 이제는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 대부분이 노인들이라 노인병을 주로 치료해 주고 있어.』

한때 백내장 수술을 받기도 했던 李박사는 처음 무료진료를 할 당시에는 딸에게 용돈을 타내 시력이 나쁜 사람들의 안경을 맞춰줬다며 당시 수첩에 꼼꼼히 적은 180명의 명단과 시력을 보여줬다.

자식들이 준 용돈받아 주민 안경해줘

李박사는 『앞으로도 힘이 다할 때까지는 이들 오지마을의 의료봉사활동을 계속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의 방에는 강원도 속초시 양양군 등 각 기관이 그의 의료봉사 활동을 기려 준 감사장 등이 수북히 쌓여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제 8회 중외박애상 수상을, 지난 21일에는 보령제약 의료봉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李박사는 의료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날은 등산과 골프 등으로 체력관리를 하고 있다.

『내가 취미가 골프라고 하니까 남들이 돈을 많이 모은 줄 알고 있는데. 사실 비밀인데 그것 공짜로 치는거야.』

지금도 한달에 1~2번 속초 한일골프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李박사는 75세 때 골프를 배울 당시 월드에서 담배꽁초를 줍고 다니는 자신을 보고 골프장 측에서 제일 고령인 의사가 주위환경을 깨끗이 한다며 무료로 이용하게 해줬다고 설명했다.

李박사는 64년 설악산악회를 창립했으며 초창기 설악제 위원장 등을 역임하는 등 속초와 설악산에 남다른 애정을 보이고 있다. 93년에는 『산악인의 문』 건립추진위원회장을 맡아 6,000만원을 모금 설악산 소공원 앞에 비를 건립하기도 했다.

1937년 부인 咸씨와 중매결혼한 李박사는 벌써 64년간 해로하고 있다. 지난 97년에는 1남4녀의 자식들이 결혼 60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히 열어줬다면 소년처럼 해맑은 웃음을 지어보였다.

李박사는 『아름다운 세상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들어 간다』고 했다. 『풀 한포기 나무 하나도 모두가 소중한 생명력을 가지고 향기를 만들어 낸다』는 李박사에게서 인술의 향기가 세상 속으로 퍼져나가며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다.

〈양양 金光熙 기자〉

<보령의료봉사상 수상자모음집> 어허, 인술은 무슨…

설악산 자락에 '사랑의 情' 가득 이젠 한가족…

연도/횟수 : 2001년 / 제 17회 수상자

이름/소속 : 이기섭 박사(속초)

개원 지역 : 강원 속초

매주 목요일, 여든 여덟 고개를 훌쩍 넘은 할아버지 의사인 이기섭 박사는 양양군 서면 서림리행 버스에 몸을 싣는다. 속초 시내에서 직행버스를 타고 양양읍에 도착해 다시 서림리로 가는 시내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도 마다 않고 그는 벌써 18년째 산간 벽지에서 무료진료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 같은 이 박사는 수요일부터 마음이 설렌다고 한다. 일주일 동안 자신을 목 빼지게 기다리고 있을 주민들의 얼굴이 하나 둘 떠오르면 얼른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고.

이 박사가 설악산 기슭의 양양군 서면 서림리, 황이리, 갈천리, 영덕리 주민들을 찾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8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속초도립병원 외과과장을 끝으로 현직에서 물러난 그는 고희를 맞아 미국 여행길에 오르게 된다. 그런데 우연히 들른 백화점에서 나이 든 노인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유인즉 매주 한 번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검진을 해주기 때문이라는 것.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백화점에 들른 김에 건강도 체크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그때 그는 퇴직 후 자신의 할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평생 의사로서 쌓아온 경험과 기술을 퇴직 후 무의총 진료를 통해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의사의 손길을 받기 힘든 산간 오지를 찾아가 조그만 힘이나마 여력이 되는데까지 돋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왕진가방을 챙겨들었다. 우선 그는 현직에 있을 때 매년 방문했던 산간 오지들을 찾아 떠나서 나이 든 노인들에게 무료로 안경을 제공했다. 자신 역시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나빠지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홍콩에 있는 의사인 셋째 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제약회사의 도움을 받아 마련한 약을 가지고 주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기 시작했다. 그의 환자들은 대부분이 나이 지긋한 노인들이다. 게다가 어려운 시절 고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앓는 경우가 많다고 “처음 진료를 시작했을 때, 마을 이장님이 한 노인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백내장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었어요. 상태가 무척 심각해서 인근 대도시의 종합병원으로 옮겼지만 시기가 늦어서 수술을 해도 별 효과가 없더군요. 그때 다시 한번 이 일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조금만 일찍 진료를 받았더라면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병인데…”

산간 오지 사람들에게 이 박사는 너무나 고마운 사람이다. 아픈 곳을 제대로 짚어주고 약을 가져다주는 것은 물론이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소주를 챙겨가기도 하고 작은 사탕이라도 준비해 사람의 따뜻한 정을 나누어 주고 오기 때문이다. 그러니 주민들과 가족 이상의 끈끈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최첨단 시설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보다 그의 손길이 훨씬 낫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이 큰 힘을 얻는다.

“무료 진료 활동을 하면서 저 역시 배우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 마음이 너무 즐겁고, 그들을 찾아가는 길목의 산이며 물을 통해 사계절의 변화를 눈으로 직접 확인 할 수 있으니까요. 사람과 자연이 저를 치유해주는 힘입니다.”

이 박사는 서울 적십자병원 부원장과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 부원장으로 재직하다가 홀연히 1962년 속초로 이사했다. 사랑을 나누는 기독교 정신을 몸소 실천하고자, 그리고 방학 때 계속했던 설악산 구호반 활동을 현지에서 직접 하고자, 아무 연고도 없는 이곳을 찾았다. 그의 유일한 평생의 업인 의술을 그가 좋아하는 곳인 설악산 자락에서 펼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는 좋은 자리를 다마다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그의 어머니는 현재의 그를 있게 장본인이다. 의사가 된 것도 사람들에게 인술을 베푼 것도 어머니의 영향이 크다. 황해도 산골이 고향인 그는 해주고보 2학년 때 어머니를 잃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간경화가 아니었을까 싶단다. 당시 한 군에 공의(公醫) 한사람이 있으면 다행일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서 의사의 치료 한 번 못 받고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는 공과를 가려다 의과로 마음을 돌렸다.

“어머니는 살아생전 사람들을 참 좋아하셨어요. 다들 뻔히 어려운 살림 가운데서도 음식 하나를 해도 넉넉히 해서 이웃을 나누어 주셨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시는 법이 없었어요. 작은 마음 쯤씀이 하나 하나가 다 기억되는 걸 보면 자라면서 그 모습을 이어가고자 애쓴 것 같아요.”

최근 의약계의 논쟁이 되고 있는 의약분업을 바라보며 그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의사들의 파업으로 갑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부쩍 신문기사에 실리는 상황이 부끄러울 따름이라면서 모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단다.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르다보니 너무 급하게 모든 일을 추진하면 체하기 마련인 것이 세상 사는 이치라는 걸 알았다고, 차근히 단계를 밟아나가는 것이 조금 더디 가도 제대로 이르는 길이라는 말도 잊지 않는다.

그는 매일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 특히 한 일본 제약회사에서 보내주는 잡지는 그에게 최신 의학정보를 제공해 주는 소식통이다.

자신이 나이 든 의사임은 분명하지만 그의 의술까지 나이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계속 공부를 해야 그의 체력이다 하는 그날까지 환자들을 만날 수 있으니 밥을 거르지 않듯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어찌 보면 자신의 몸을 가누며 지내기에도 많은 나이, 환자들을 만나러 가는 일이 쉽지는 않을 터인데 그는 여덟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건강하다. 그가 오래도록 양양군 서면 주민들과 인술과 더불어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래본다.

이기섭 박사 설악의 품에 영면

속초시사회장으로 영결식 거행…생전 활동모습 상영

이기섭 박사의 영결식이 속초시사회장으로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속초문화회관 구 전시실에서 거행됐다.

이날 영결식에는 장례위원장인 채용생 시장과 동문성 전 속초시장, 노광복 속초문화원장, 최용문 전 속초문화원장, 유가족과 조문객 등 200여명이 참석해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영결식은 노광복 문화원장의 고인 약력보고와 윤중국 전 도의원의 추모사, 채용생 시장의 조사, 박익훈 전 속초시 노인학교장의 조시낭독에 이어 고인 영상물 상영, 현화와 분향 순으로 1시간 가량 진행됐다.

영결식에서는 생전 이 박사의 산행모습과 각종 활동 모습이 담겨 있는 영상물이 상영돼 지켜보는 이들이 눈물을 훔쳐내기도 했다.

장례위원장인 채용생 시장은 조사에서 “비보를 접했을 때 꿈인지 생신지 구분이 안됐다”며 “이기섭 박사는 사리사욕을 버리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충실히 이행한 진정한 의료인이었다”고 말했다. 또 “설악 지역을 아끼고 주변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한 이 박사님의 숭고한 삶을 교훈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고 이기섭 박사는 1913년 황해도 수안 출생으로 세브란스 의전을 졸업, 이화여대 부속병원장을 재임한 뒤, 61년 속초로 이주해 외과의원을 개원하고 속초보건소장과 도립속초병원(현 속초의료원)장을 지내며 지역 주민들에게 의술을 베풀어 왔다.

특히 양양군 서면 등 농어촌 벽지를 찾아다니며 40여 년간 무의총 의료봉사를 했고, 설악산악회 창립, 산악인의 문 건립 등 설악산

에 남다른 애정을 보이며 설악산 지킴이로 힘을 쏟았다.

이 박사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5시경 점심식사 후 오침 중에 숨졌으며 장례는 5일장으로 치러졌다.

평소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의 유언에 따라 시신은 화장돼 유해의 일부는 설악산에 뿌려졌고 나머지는 속초감리교회 납골당에 안치돼 후일 부인 함동실(89) 여사와 합장할 예정이다.

이우철 기자

<강원일보> 2006년 12월 28일 사설

이기섭 박사의 생애를 기리며

참의사 이기섭 박사가 별세했다. 후학들은 그를 가리켜 ‘강원의 슈바이처’라고 말한다. 속초에 정착한 이래 평생을 벽지주민을 위해 인술을 베풀었다. 사랑과 봉사의 일생을 보낸 이 시대의 양심을 일깨운 목자적 존재로 그 생애를 기리게 된다.

일찌감치 이화여대 부속병원장을 역임했다. 이 경력은 중앙의 보다 큰 일터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4·19혁명 등 정치격랑에 휩싸이는게 싫어 무의총으로 들어가 봉사하겠다고 결심하고 속초에 병원을 차렸다. 이후 오지마을 진료 활동에 나섰다가 약 한 번 써보지 못하고 고통받는 주민들을 목격하고 매주 목요일이면 왕진가방을 챙겨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며 진료를 다녔다. 히포크라테스의 서약을 몸으로 실천했다.

평생 불우이웃의 ‘선한 의사’로 헌신한 고인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일깨우게 한다. 의술이 다른 기술과 차별화되는 것은 인간의 목숨을 다루는 고귀함과 신성함 때문이다. 의술을 ‘인술’이라고 격을 높여 칭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그러나 물질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세태가 되면서 의술이 인술은커녕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난도 없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고인의 고귀한 정신은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크다.

‘한 사람이 못을 박으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못에 모자를 건다’는 영국 속담이 있다. 한 사람의 조그마한 봉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혜택을 준다는 말이다. 고인은 설악문화제위원장을 맡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활약 또한 남달랐다. 내 고장의 큰 별이 아닐 수 없다. 이웃을 향한 승고한 봉사정신이 마음 속에 있었고 이를

기꺼이 실천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발자취에 삼가 경의를 표하며 명복을 빈다.

<설악신문> 2007년 1월 2일 788호

가신님을 기리며 — 영원히 설악에 둔한 이기섭 박사

어려운 이웃 위해 반평생 무의총 진료

지난 1962년 속초에서 의료활동을 시작한 이후 무의총 진료활동과 속초지역 최대의 축제인 설악제를 창설하는 등 큰 공적을 남긴 이기섭 박사가 지난해 12월 25일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93세.

그는 이화여대 부속병원장으로 있던 지난 61년 돌연 연고도 없는 속초로 이주한 뒤 설악권 의료발전과 벽지마을 의료봉사 그리고 속초관광의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다 고단했던 육신만을 남긴 체 영원한 안식처로 떠났다.

1913년 황해도 수안군 수안면 하도리에서 1남 3녀중 막내로 태어난 이박사는 유년시절 농촌에서 간염을 앓던 모친이 제대로 된 치료 한번 받지 못하고 세상을 뜨자 이 일을 계기로 시골의 어려운 사람들을 구해야겠다고 결심해 세브란스 의전에 지원, 입학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대 병원장에서 시골 의사로

세브란스 의전을 졸업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세계 2차대전 말인 43년 유학을 마치고 귀국했으며, 이후 세브란스 전임강사로 일하면서 전쟁 부상자를 치료했다. 해방 후 46년에는 서울 적십자 병원 외과과장으로 일하면서 49년 저격당한 백범 김구선생의 시신을 검안하기도 했다. 그는 생전까지 “그 위대한 애국지사를 일개 군졸개가 총구를 들이대다니 밤잠을 이룰 수가 없다”며 분함을 토로했다고 한다.

50년 6·25 한국전쟁 때도 그는 전상자와 피난민 치료에 전념했고, 54년에는 이화여대 부속병원장으로 취임해 미군 민사처로부터 원조를 받아 병원을 확충하는데 앞장 서기도 했다.

이박사는 4·19혁명 이듬해인 지난 61년 돌연 속초로 내려와 62년 속초시 중앙동에 의원을 개설했다. 우리나라 최고 수준인 이화여대 병원장에서 시골 의사로 변신한 것이다.

그는 이때부터 틈나는대로 무의총 진료를 나섰다. 이어 속초시보건소장, 도립속초병원(현 속초의료원) 원장 등을 거치며 지역 의료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그는 83년 도립속초병원장을 마지막으로 병원문을 나선 후에도 무의총 진료활동을 계속했다. 설악권 지역의 농어촌 벽지를 찾아다니며 한달에 두세차례 왕진을 했으며, 청진기를 잡을 수 있었던 97년(추정)까지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영원한 의료인으로 사람들 의 머릿속에 기억됐다.

설악제 창설, 설악산 널리 알려

산을 좋아했던 그는 설악산의 아름다운 경치에 흠뻑 빠져 설악산의 전경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노학동으로 이주해서 살기도 했다.

이처럼 산을 좋아했던 그는 틈나는대로 설악산을 찾았고, 64년 설악산악회를 조직, 초대 회장에 취임했다. 특히 66년에는 속초지역 최대 축제인 설악제를 창설하고, 초대 설악제위원장으로 추대돼 설악제를 통해 설악산을 아끼고 알리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천혜의 자원을 보유한 설악산을 후세에도 아름답게 물려주기 위해 그는 자연보호캠페인을 벌이고, 자연보호헌장을 순수 제작해 배포하는 등 설악산 사랑을 실천했다.

특히 설악산에서 매년 많은 인명을 잊아가는 조난사고가 끊이지 않자 산악구조반을 편성해 조난사고 피해자 구조활동을 펼쳤다. 69년 해외원정 훈련대원 10명의 목숨을 잊어간 ‘죽음의 계곡’ 조난사

고때에도 구조반을 총지휘해 3일만에 시신을 찾아 노루목고개에 안장시켰다.

이 박사의 이러한 살신성인적인 의료활동과 산악회 활동은 74년 조선일보 사회봉사인상 수상과 2000년 중외제약과 의학신문사가 공동 선정한 제8회 중외박애상 수상, 2001년 보령제약 의료봉사상 수상으로 돌아왔다.

누구보다 설악권을 사랑했던 그는 마지막 사업으로 도문동 일대에 노인촌 건설을 추진하던 중 기력이 달려 자신이 추진할 수 없음을 느끼고, 2004년 속초감리교회에 사업 부지를 기증, 후일을 부탁했다.

노광복 속초문화원장은 “이기섭 박사는 세상을 등진 그날까지 제 2의 고향인 속초를 사랑하는 높은 애향심을 보이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한 인물로 우리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애도했다.

이우철 기자

山과 人의 영원한 동반자, ‘李基燮박사’ 설악의 품으로

- 속초시 사회장으로 치러져 -

“강원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이기섭 박사는 속초에 정착한 이래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진료에 힘쓰면서 무척이나 산을 즐기고 사랑하시어 설악산악회를 창립하고, 설악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아쉬운 흔적만 남긴 채 지난 12월 25일 향년 94세의 일기로 자택에서 별세하셨다.

그는 사치와 거짓도 모르며, 명성도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유난히 산을 좋아하신 탓에 산을 아는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를 모르는 이가 없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라는 말처럼 언론과 홍보매체의 덕분으로, 덕(德)은 본인이 원치 않더라도 널리 알려져 우리 모두의 귀감이 된 것같이 크나큰 의의를 지닌다.

이기섭 박사는 황해도 수안군 수안면 하도리에서 1913년 11월 9일 1남 3녀의 막내로 태어났다. 8세까지 서당에서 천자문을 수학하다 마을의 사립학교에 입학했다. 4학년 수료 후 수안공립 보통학교에 전학, 16세 되던 해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해주공립고등보통학교에 입학했다.

보통학교 4학년 때에 식민교 교육반대와 몇 일본인교사의 배척을 내걸고 단신동맹휴학에 가담하면서 퇴학처분을 받았다. 이같은 단식동맹휴학에 의한 퇴학처분으로 국내에서는 면학의 길이 막혔고 다음해 일본으로 건너가 광도에 있는 광능중학교 4학년에 편입, 무사히 졸업을 마칠 수 있었다.

졸업과 함께 귀국한 이박사는 농촌에서 치료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채 간염으로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 같이 시골의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고자 세브란스의전에 지원, 입학한 것이 계기가 되어 오늘날 인술을 농어촌 벽지 무의촌에 펼친 배경이 된 것이다.

의전 4학년 겨울, 평양에서 함동실(당시 이화의전 1년생)여사와 결혼하고 38년 졸업과 함께 모교 조수로 남아 의학연수를 계속하다 40년 10월 경도대제대학으로 유학, 수학을 마치고 43년 귀국해 세브란스의전 전임강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의술을 펼치기 시작한 것으로 당시는 2차대전 말이라 국내에는 한국민들이 군사시설 노역장에 동원되어 하루에도 수백명씩 부상과 각종 질병에 죽어가던 때인지라 이들의 치료만도 모든 의사들의 몸을 쪼개서 써도 모자랄 때였다. 이박사도 조선군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수영비행장에 파견되어 인부들의 치료에 나섰다.

해방을 맞이한 다음해 서울 적십자병원 외과과장으로 취임하여, 여순반란 사건시 아군과 민간인들의 치료에 헌신하고, 49년 6월 26일 저격당한 백범 김구 선생의 시체를 검안하기도 했다.

이 박사는 늘 그 당시를 생각하며 「세상에 그 위대한 애국지사를 일개의 군졸개가 총구를 들이대다니」 밤잠을 이를 수 없을 만큼 분함을 토로 하시곤 했다.

50년 6·25가 발발하면서 병원과 피난민들의 전상자들의 치료에 임하면서 53년 1월 해군 예비역대위로 제대, 귀원했다.

53년 4월 이화여대 부교수, 다음해 4월 교수로 승진하면서 이대 부속병원장으로 취임했고, 미군 민사처로부터 1만 달러어치의 시멘트와 콘크리트를 원조 받아 5층 건물로 증축하고 과(科)도 늘리는 등 병원을 확충했다.

이후 한국산악회 이사와 서울산악회 2·3대 회장을 맡으면서 산 사람들의 극기와 체계있는 산행을 가르치고 또한 조난자들의 구조

에 노력했다.

당시 서울법대생 한라산 조난 때의 홍종인회장과 함께 구조에 나섰으며, 친구들과 북한산의 백운대에 올랐다가 조난당한 송모군을 2일만에 구조하기도 했다.

56년 경도대제대학에서 연구논문이 통과, 박사학위를 받았다.

60년 4·19가 나면서 정치적으로 온통 세상이 시끄러워지자 서울을 뒤로한 채 다음해 학교를 후진들에 맡기고 설악산을 끼고 있는 속초에 내려와 개업을 하면서 틈나는 대로 산행을 하고 무의촌 진료를 하면서 또한 「자연보호헌장」을 나름대로 손수 만들어 전단을 뿌리기도 했다.

64년 설악산악회를 조직하고 초대회장에 취임했으며, 66년 10월 1일 제1회 설악제를 개최한 것이 올해로 어느덧 41회 행사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설악산이 1970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것도 이박사의 지대한 공로가 들어있다. 등산로개설과 국제 자연자원보존연맹의 조사에서 인적침해를 받지 않은 원상태를 보존하고 있는 지역으로 확인된 증인이 되었고 이같이 설악산이 자연보존지구로 남은데는 이박사가 벌인 「자연보호캠페인」이 큰 몫을 했으며 또한 조사반에 제공한 이 일대에 서식하고 있는 희귀한 동식물의 수도 상당했기 때문이다.

이박사가 산악생활에서 가장 가슴 아파했던 조난사고는 69년 2월 14일 해외원정을 위한 동계훈련차 이희성 대장이 이끄는 10명대원의 「죽음의 계곡」 조난사였다. 이때에도 구조반을 총 지휘하여 3일 만에 시체를 찾아 설악산 양지바른 곳인 노루목고개에 안장한 것이다.

설악관광개발주식회사(회장 한병기)가 1970년 설악동과 권금성을 잇는 케이블카를 설치, 사장에 취임했다가 2년만에 천직이 의사인 그로서는 사장이 생리에 맞지 않는 탓에 사임을 하였다.

72년 2월 제주도로 떠나 도립병원 서귀포분원장으로 취임했다. 서귀포산악회원들과 같이 한라산 북벽에 등산로를 개척하였고, 샘

을 찾아내 「백록샘」이라 이름을 짓는 등, 한라산의 등반로 개척과 자연보호에 크게 이바지하면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에 따라 74년 2월 조선일보사에서 조난자구조에 공이 크다고 사회청년봉사상 인(仁)상을, 95년 10월에는 사회봉사부분 속초시문화상을 수여받으셨다.

이박사의 꿈은 산악학교와 노인병원 설립이었다. 이때 김옥길 총장이 동조하고 나서서 설악산파골에 2만평의 부지를 마련했으나, 곧 국립공원 시설단지 D지구로 묶여 버리는 바람에 이박사의 꿈은 지금까지 보류되고 있다.

75년부터 속초시보건소장, 도립속초의료원 의과과장과 의사협회장을 지내다 83년 병원을 떠났다. 이후 틈틈이 산행을 하면서 한달에 한 두차례씩 무의총진료에 나서기도 했다.

이박사에게는 큰 계획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농어촌 보건의료사업협회 창설이며, 또 하나는 노인촌을 건설함이였다. 1983~2001년까지 양양서면 보건지소에서 무의총진료사업을 하여 왔으며 끝을 볼 수 있을지는 모르나 이박사는 이 두 가지 계획을 서서히, 매 순간마다 쉬지 않고 추진해 왔으며, 또한 자연이 인간에게 갖는 의미를 첫째 생활의 장소, 둘째 학술연구장소, 셋째 인간 정신부활의 장소, 이처럼 세 가지로 보았다. 그는 스스로가 이 세 가지 의미를 현현했다. 이박사, 그는 내 고장이 아닌 우리 모두가 추앙하는 인물임에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신앙생활에 관하여는 일찍이 세브란스 의전에서 공부할 때 세례를 받으셨으며, 1962년 5월 속초에서 병원을 개업하시면서 속초감리교회 교인으로, 부인 함동실 권사와 신앙생활을 하던 중, 1994년에 집사의 직임을 받고, 2000년 권사의 직임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료선교위원회 회원으로 무의총을 찾아 무료진료에 헌신하셨다.

그리고 지난 2005년에는 본인의 명의로 있는 임야 3000평(속초시 도문동 소재)을 지역사회 복지와 교회수련관 건립을 위하여 봉

현하셨다.

유족 부인 함동실 권사

장남 이규형 자부 윤정현(서울)

장녀 이명자 사위 이석만(LA)

차녀 이경자 사위 임창환(서울)

삼녀 이규옥 사위 장희운(홍콩)

사녀 이규희 사위 Rad(위싱턴)

손자 승균 옥은 상수 정수 진수 상용 상현

재훈 지훈 윤경 윤주

<설악신문> 2007년 12월 31일 838호

설악의 슈바이처로 영원히 우리들 가슴에

고 이기섭 박사 영면 1주기 추모행사
…고성 도원리에 추모비 제막

설악의 슈바이처, 신의로 불리던 고 이기섭 의학박사(2006년 12월 25일 영면, 향년 93세)의 육신이 설악의 품을 떠난 지 1년이 된 지난 24일 고성군 도원리 속초감리교회 공원묘지에서 고 이 박사의 넋을 기리는 추모행사가 거행됐다.

이날 추모행사에는 고 이 박사의 부인 함동실(90) 여사를 비롯 아들 규형씨, 딸 명자·경자·규옥·규희씨 등 유가족들과 이 박사의 속초시 사회장 위원장인 채용생 시장, 위원인 홍우길 시의회 의장, 노광복 속초시문화원장, 조수웅 설악문화제위원장, 최용문 전 속초시문화원장, 최돈일 속초시번영회장, 김남철 속초감리교회 목사, 선우영 속초감리교회 장로, 최연규 설악케이블카(주) 이사 등과 속초감리교회 교인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추모행사는 노광복 속초문화원장의 사회로 유가족과 위원들의 헌화에 이어 고인의 약력 소개, 추모기도, 추모사, 경과보고, 유가족 대표의 인사말,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채용생 시장은 추모사에서 “고인은 보장된 부와 명예를 포기하고 이름없는 작은 시골, 속초라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으로 걸어 들어와 무의촌을 돌며 사람 중심의 인술과 사회활동을 펼쳤다”며 “그 길 이야 말로 진정한 부의 길이요, 명예의 길이었다”고 말했다.

추모식 후 속초감리교회에서 교비로 제작한 추모비의 제막식이 이어졌다.

추모비는 900×600mm의 크기로 화강암으로 만들었으며, 생전에 산을 사랑했던 이 박사가 설악산에서 희생된 산악인들의 혼을 기리기 위해 지난 93년 제작한 ‘설악의 문’(설악산 소공원 내)을 축소해 제작됐다.

묘비의 글씨는 김동하 속초서예학원 원장이 썼으며, 묘비 정면에는 ‘산과 인간의 영원한 동반자 권사 이기섭 박사의 묘(1913. 11. 9~ 2006. 12. 25)’라는 글이 적혀 있고, 측면에는 ‘설악의 문’, 후면에는 가족사항과 16명의 장례위원 이름이 기재돼 있다.

이우철 기자

<설악신문> 2008년 11월 17일 882호

고 이기섭박사 추모비 건립

청초호유원지에 … 지난 11일 제막식 가져

고 이기섭 박사의 추모비가 청초호유원지에 세워졌다.

지난 11일 청초호유원지 '하나호 선장 유정충 동상' 인근에서 고 이 박사의 추모비 제막식이 거행됐다.

이날 제막식에는 이 박사의 유족을 비롯해 장철규 부시장, 김진기 부의장, 노광복 문화원장, 조수웅 설악문화제 위원장, 김남철 목사, 교인, 산악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제막식은 장철규 부시장, 김진기 부의장, 김남철 목사 등의 추모사에 이어 노광복 문화원장의 경과보고, 헌화 순으로 진행됐으며, 고인이 즐겨 부르던 '봉송아'가 색소폰으로 연주되기도 했다.



고 이기섭 박사의 장남 이규형씨가 아버지의 추모비 앞에 헌화를 하고 있다.

아들 이규형씨는 “아버님께서 생전에 속초와 설악산에 사랑을 많이 베푸셨다고는 하나 시민과 산악인 여러분이 아버님께 드리는 사랑에 비교할 수는 없다”며 “아버님의 사랑을 더 큰 사랑으로 실천해주시는 속초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답사를 했다.

이우철 기자

자 료

〈자료 1〉

속초시립박물관 소장 유품 목록

- * 이기섭 박사 사망 후 유족이 속초시립박물관에 기증한 유품은 시립박물관 2층에 일부 전시되어 있다. 다음은 속초시립박물관에서 소장한 이기섭 박사 유품 목록이다.

유품명	수량
이기섭 초상사진	1
슬라이드 자료집	5
슬라이드 자료집	6
스크랩북	5
제17회 보령의료봉사상 시상식 사진	1
제7회 속초시문화상 시상식 사진	1
이기섭 사랑방 사진	1
이기섭 초상화	1
스크랩북	5
앨범	1
학위기(경도대학 의학박사, 1957.6.3)	1
임명장(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학교실 외래교수, 2004.3.1)	1
위촉장(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학교실 외래교수, 2006.3.1)	1
등산가방	1
지팡이	1

유품명	수량
진료가방	1
구강치료기	1
청진기	1
혈압계	1
의료용 전등	1
메모장	1
주사기	1
모자	1
족자	1
고문추대패(한국산악회, 1998.9.15)	1
트로피 (청룡봉사상)	1
에비슨봉사상(연세대학 의과대학 총동창회, 2001.1.27)	1
공로패(설악문화제위원회, 1997.11.28)	1
감사패(한국대학산악연맹, 1992.10.2)	1
청룡봉사상 장려상(조선일보사, 1974.2.28)	1
시민문화상(사회봉사부문, 속초시장, 1995.10.10)	1
감사패(한국등산학교, 1999.6.15)	1
감사패(양양군수, 1999.6.24)	1
제17회 보령의료봉사상 (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 2001.3.21)	1
중외박애상 (대한병원협회, 2000.5.4)	1
감사패(설악산악연맹 산하단체, 1996.1.21)	1

<자료 2>

제1회 설악제 자료

第一回

雪 岳 祭

行 事 要 約

主催 藝總江原道支部

主管 藝總東草市支部

協賛 雪岳山岳會

한국일보사

參 加 申 請 書

今般 貴支部主催 第一回 雪岳祭 登山大會에 下記와 如하
參加하고자 推薦書 參加金 添付하여 申請하나이다

記

團 体 名	選 手 姓 名	年令	性別	學 年	別 王	七 職 位	備 考
							主 將
							選 手
							"
							"

西紀 1966 年 月 日

所屬團體

代表者

團

藝總江原道支部長 貴下

(一) 感 覺

雪岳山은 푸른 東海와 新羅의 古蹟이 列處에 敷在
해 있는 開東八景을 비롯한 많은 名勝을 아들려 지
닌 우리나라 으뜸가는 觀光地로서 널리 알려진 고장
이다 뿐만 아니라 豐富한 水產資源은 우리나라 第二
의 港港인 釜草市는 觀光都市와 水產工業都市를 겸합
으로서 어느곳보다 가장 發展이 촉망되고 있다 또한
数많은 同胞를 聞었던 大二五動亂時 이웃 雪嶽山이
激戰地가 되여 많은 짚은 넋들의 피가 흐르고 또
숨져간 곳이다

이번 이고장에서는 처음인 綜合文化祭를 開催하게 됨
은 落後된 고강의 文化發展에 直接的인 契期를 마련
하는 同時에 이들 이름모를 넋들의 哀福을 빌며 觀
光地 雪嶽山의 아름다움을 널리 世上에 알리고자 하
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다

二) 行事計劃

(1) 前夜祭：(序幕式)

場 所：束草市雪岳洞広場

日 時：1966. 9. 30. 20:00

參加範囲：招請人士 各機關長 有志 學生 市民

(2) 雪岳山寫眞公募展

場 所：束草市雪岳洞神興寺 普濟樓

日 時：1966. 10. 1 ~ 10. 4

參加範囲：全國

(3) 寫眞撮影大會

場 所：雪岳山神興寺，周辺

日 時：1966. 10. 1. 10:00 ~ 17:00

參加範囲：寫眞同好人

參加金額：1人當 200원

(4) 美協會員展

場 所：束草市雪岳洞神興寺 普濟樓

日 時：1966. 10. 1 ~ 10. 4

參加範囲：道(江原)内 美協會員

(5) 美術実技大會

場 所：束草市雪岳洞神興寺 周辺

- 2 -

日 時： 1966. 10. 1. 10.00~15.00

參加範圍： 道(江原)内 初 中 高校生

(6) 吹奏樂競演大會

場 所： 束草市雪岳洞 特設舞台

日 時： 1966. 10. 2. 10.00

參加範圍： 道(江原)内 初 中 高校生

(7) 音楽・美舞踊大會

場 所： 束草市雪岳洞 特設舞台

日 時： 1966. 10. 2. 20.00

參加範圍： 音楽・美舞踊協會員

(8) 童詩百日場

場 所： 束草市雪岳洞

日 時： 1966. 10. 1. 10.00

參加範圍： 道(江原)内 國民学校生

(9) 觀光映畫大會

場 所： 束草市雪岳洞 特設舞台

日 時： 1966. 10. 1. 19.00

(10) 登山大會

場 所： 雪岳山 (外加坪—青峰—雪岳洞)

日 時： 1966. 10. 1 ~ 10. 3.

- 3 -

参加範囲： 全國 地方山岳団体契 大學山岳班 一般
社會人士

(1) 카-니발

場 所： 外雪岳山 丁庫坪

日 時： 1966. 10. 3. 18:00 ~ 22:00

(2) 이름모를 자유의 용사비 祭事

場 所： 外雪岳 丁車坪 塔前

日 時： 1966. 10. 3. 15:00 ~ 16:00

(3) 総合表彰式

場 所： 束草市雪岳洞 特設舞台

日 時： 1966. 10. 2. 17:00

註

祝
雪 嶽 祭

江原道知事 束草市長

-4-

雪岳山寫眞公募展 要綱

今般 第一回 雪岳山寫眞公募展 開催함에 있어 雪岳山寫眞公募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곳 雪岳山을 다녀가신 여러분(学生을 망라하고)의 「카메라」에 담아가신 아름다운 雪岳山의 모습을 찾고 있으오니 다음 要綱에 의하여 많은 출품을 바랍니다.

記

1. 作品内容 雪岳山을 对象으로 한 山岳觀光寫眞
1. 作品規格 全紙以上(制限缺省) 판형 강점
1. 作品類數 制限缺省
1. 作品 대타 作品裏面에 그림과 作家名 住所記入
1. 出品場所 韓國寫眞協會(서울特별市鍾路區 世宗路 81)
芸總東草市支部(東草市中央洞 62)
1. 出品마감 1966. 9. 25
1. 審査 本支部에서 委嘱한 審査委員
1. 癸 表 1966. 9. 28. (個別通知)
1. 版 権 入選作品의 版權은 本支部에 归屬함
落選作品은 退選함
1. 出品料 1枚 100원
1. 展示示 外雪岳山神興寺 普濟閣

-5-

1. 展示日 1966. 10. 1 ~ 10. 4
追后 서울에서 展示

1. 施 賞 特選 1奐 實狀獎 創賞 ₩ 30,000~
準優 2奐 實狀獎 創賞 ₩ 20,000~
(各 10,000式)
佳作 5席 實狀獎 實盃
入選 若干 實狀獎 記念品

出 呂 勝 全 員 이 거 記念 牌 錄 題 呈

1966. 9.

施設完備, 親切本位, 最大奉仕(甲種)

雪 岳 旅 館

- 6 -

攝影大會 要綱

1. 場 所 束草市雪岳洞神興寺 週辺
1. 曰 時 1966. 10. 1. 10.30 ~ 15.00
1. 集合場所 束草市雪岳洞神興寺
1. 集合時間 1966. 10. 1. 10.00 正刻
1. 參加資格 美眞同好人
1. 參加人員 制限設有
1. 參加會費 1人當 200 원
1. 모 일 美眞愛人 多數參加
1. 參加申込 曜日 10.00 正刻
1. 出品規格 11x14 以上 (관발장점) (墨白)
1. 作品數 制限設有
1. 作品貼付 作品裏面에 通過 姓名 住所 記入
1. 出品場所 束草市寫眞協會
(束草市中央洞 62)
1. 出品叶旨 1966. 10. 20
1. 審 查 本協會에서 委嘱한 審直委員
1. 癸 表 1966. 10. 30. 以内 (個別通知)
1. 版 權 入選作品의 版權은 本支部이 師屬
1. 展 示 1966. 10. 25 ~ 31

-7-

東草市内에서 展示

I. 奖	特選	1席	賞状 및 金메달
	準特選	2席	賞状 및 金메달
	獎演	3席	賞状 및 銀메달
	入選	若干	賞状 및 記念品

施設完備. 親切本位. 最大奉仕 (甲種)

飛仙旅館

- 8 -

登山大會要綱

今般 第一回 雪岳祭를 開催함에 있어 雪岳山의 아름
다운 風情을 직감 보이고자 登山大會를 마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山岳人의 지녀야 할 体系的이고 根本的인
登山訓練에도 그目的의 있음으로 充分히 유익하셔서
修練하시고 王 雪岳祭를 빛내주시는 마음으로 參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記

- I. 曰 晴 1966. 10. 1 ~ 10. 3
- I. 場 所 雪岳山
- I. 參加資格 男女大學山岳班 地方山岳會
一般社會人士
- I. 參加人員 1組 4名 制限設置
- I. 參 加 金 額 1,000 원 學生 500 원
- I. 申込 處 東草市中央洞 茲總東草市支部 雪岳山岳會
- I. 申込마감 1966. 9. 25. 흘착로록
- I. 集合場所 內雪岳外加坪
- I. 集合時間 1966. 10. 1. 14:00
- I. 參加規定 所屬長의 推薦을 받아야 한다

-9-

(學生에 限る)

I. 準備規定 登山에 必要로 한 裝備一切

毛布 王는 Sleeping Bag 雨裝 및 팬

초 欢事具一式 燈火具 内衣 리구역

食 標——主副食 4日分

第營具——1組營 A 텐트 1枚 王는 이

에 同等한 것

其 他——企속기

I. 本部指示에 按하여 青峯에 祭火運搬이 及ぶ

I. 參加記念 嘴銅 및 記念品授與 (全員)

I. 登山日程 1966. 10. 1. 15.00 外加坪 發

10. 1. 17.00 百疊寺 善, 캠프

10. 2. 8.00 . 發

10. 2. 15.00 青峯 着 캠프

10. 3. 8.00 . 發 祭火運搬

10. 3. 14.00 外雪岳丁庫坪着, 条壠

에 炙火

10. 3. 15.00 바에 祭事, 한국일보사

10. 3. 18.00 記念嘴銅 및 記念品

수여

- 10 -

10. 3. 19.00 카-니발

10. 3. 22.00 解散

※ 一般社會人士에 限하여 리-다가 故를 경우

本部에서 総合 案내 引率함

但 人夫가 必要時は 申込과 同時 申請하시

고 費金은 自担함

※ 大学山岳班 및 地方山岳會에 參加時 可能하면

「카니발」에 必要한 簡單한 娛樂器具(假面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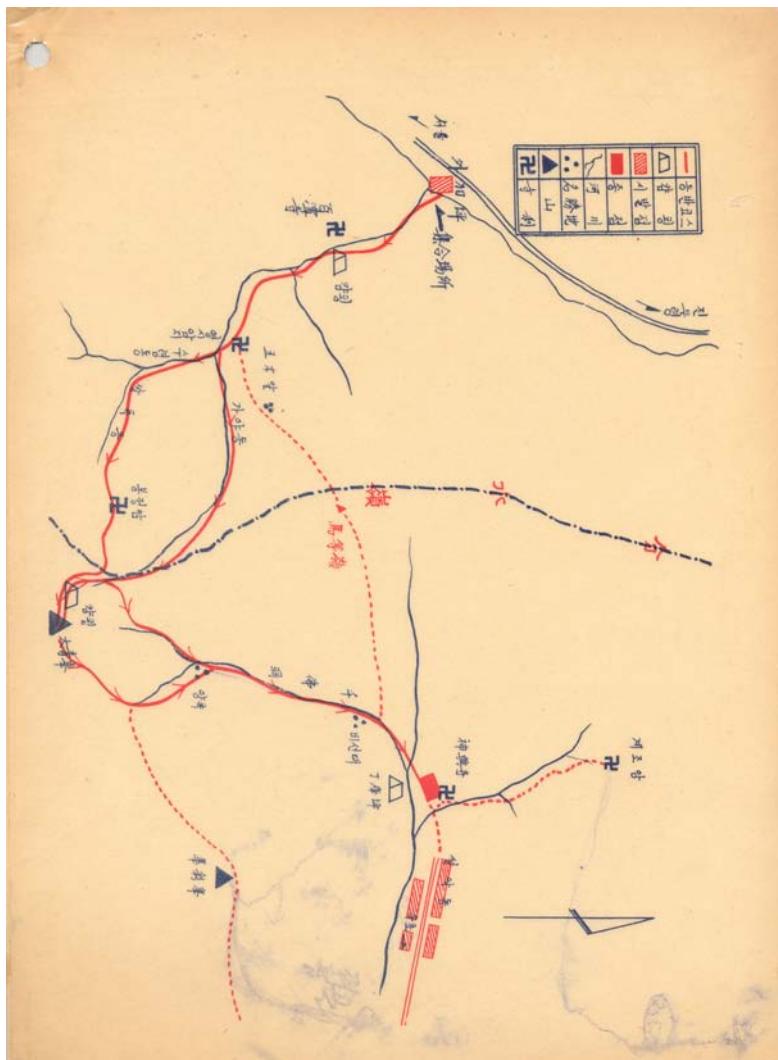
等)持參을 申込

施賞이 있음

施設完備 親切本位 最大奉仕(甲種)

京 東 旅 館

- 11 -



* 이 자료는 이기섭박사가 생전에 속초문화원에 기증한 자료이다.

설악에 핀 솜다리꽃 인생, 이기섭

발행인 노광복

발행처 속초문화원

강원도 속초시 번영로 451 (영랑동 570-5)

전화 (033)632-1231, 639-2439

팩스 (033)632-1241

홈페이지 <http://sokcho-culture.com>

E-MAIL sc2439@sokcho.org

글 · 자료정리 엄경선

편집 · 디자인 이현주

인쇄 삼육칼라



